한국어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한 2001년도 한국어 해외 보급 사업

보급·지원 분과

2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

최종 보고서

2001. 12.

문 화 관 광 부

한 국 어 세 계 화 재 단

한국어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한 2001년도 한국어 해외 보급 사업

보급·지원 분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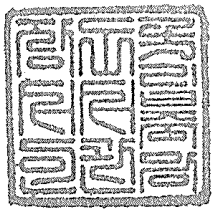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

최종 보고서

과제책임자 : 윤희원
공동연구원 : 한영균, 서혁
연구보조원 : 김혜정, 진대연, 심상민

2001. 12.

문 화 관 광 부
한국어세계화재단



2523382

제 출 문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 2001년도 해외 보급 사업"의 '보급·지원 분과'의 세부 과제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의 2001년도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1년 12월

세부과제명 :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
총괄책임자 :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하수
분과책임자 : 보급·지원분과 위원장 신현숙
과제책임자 : 윤희원
공동연구원 : 한영균, 서혁
연구보조원 : 김혜정, 진대연, 심상민

<차 례>

Ⅰ. 사업의 내용 1

1. 사업의 의의와 필요성 1

2. 사업의 구성과 당해 연도 진행 내용 3
2.1. 사업의 구성 3
2.2. 당해 연도 주요 진행 내용 5

3. 당해 연도 사업의 기대 효과 6

Ⅱ. 단위기지의 개념과 설정 방향 8

1. 단위기지의 개념과 목적 8
1.1. 단위기지의 개념 8
1.2. 단위기지의 목적 10

2. 단위기지 설정의 방향 11

Ⅲ. 단위기지 개발의 기본 원리와 방향 12

1. 단위기지 개발의 기본 원리 12
1.1. 특성화와 통합화의 원리 12
1.2. 집중과 분산의 원리 13
1.3. 효율성과 체계성의 원리 14
1.4. 전문성과 기초성의 원리 15
1.5. 효용성과 생산성의 원리 16
1.6. 총체적 접근의 원리 16
1.7. 보편성과 대중성의 원리 16

2. 단위기지의 구성 방향 17

Ⅳ. 권역별 현황과 단위기지 구성안 19

1. 해외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지원 현황 19

2. 제1권역의 현황과 단위기지 구성안 22

2.1. 제1권역(대양주)의 전체 현황 22
2.2. 제1권역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 33
2.3. 제1권역 단위기지 구성안 42
2.4. 제1단위기지의 주요 개발 및 보급 과제 48

3. 제2권역(동부 유럽)의 현황과 단위기지 구성안 51
3.1. 제2권역(동부 유럽)의 전체 현황 51
3.2. 제2권역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 55
3.3. 제2권역 단위기지 구성안 75
3.4. 제2단위기지의 주요 개발 및 보급 과제 81

Ⅴ. 단위기지의 주요 과제와 실천 방향 84

1. 과제 선정의 접근 방법 84

2. 구체적 과제 84
2.1.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84
2.2. 한국어 교재 개발 84
2.3.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86
2.4. 한국어 교육 및 연구의 점검(monitoring) 86
2.5. 한국어·문화 교육과 홍보 86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88

1.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의 연구 결과 88

2. 향후 과제 89

<참고 문헌> 90

【별첨】 94
1.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 관련 설문지 94
2.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 연구 개요 96
3.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2001년도 제1회 워크숍 프리젠테이션 자료 내용 98
4. 헝가리 한국어 현황 및 졸업시험 평가문항(예) 100
5. 동유럽 주요 면담자 현황 107
6. 유럽 한국학회(AKSE) 현황 108
7. 제 1, 2권역 연구자와의 전자우편 교환 주요 내용 116
8. 권역별 현지 워크숍 발표 자료 120

Ⅰ.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의의와 필요성

최근 한국은 세계화, 정보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경제, 교육은 물론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 선진 각국에 대한 참조와 교류가 증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학, 그 중에서도 한국어의 세계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적인 세계화 추진 전략의 초기에서 한국어의 세계화 문제가 거의 고려되지 못하였다가[1]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교재 개발, 교사교육 · 연수, 해외 실태 조사, 사전 개발 등-에 적극적 관심을 보인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진정한 세계화(golbalization)는 지역화(localization)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2] 즉, 한국어의 세계화는 세계 각 지역의 자체적인 한국어 연구 및 교육에 대한 관심, 관련 인력의 양성,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한국 내에 축적된 한국어 연구 및 교육의 성과들이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3] 다시 말해서 세계 각 지역에서의 한국어의 지역화 연구와 동시에 이를 위한 보급 지원의 체제(system)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단위기지의 구성은 확고한 네트워크 체제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즉, 한국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우리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세계화의 문제는 바로 개별화되어 있는 시스템의 통합적 운영과 의사소통 통로의 구축, 정보의 공유, 문제 사태에 대한 공동의 대처 능력, 문제 해결에 대한 상호 참조와 대안 마련, 상호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분산, 개별화되어 있는 한국어 연구 모임과 연구자, 교수자(instructor)들에 대한 재편성은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기지의 설정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지원 체제의 마련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한국어 세계화 사업을 통해 이미 개발되었거나 앞으로 개발될 사업결과물 및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자료를 해외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 신속 정확하게 보급하고, 각 지역적 특성들을 반영한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체제의 구축과 개발을 위해서 지역별 단위기지는

---

1) 한국 정부의 세계화 논의 초기 단계에서 한국어의 세계화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적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성광수(1996),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위한 언어정책 검토, 「한국어 세계화의 제문제」, 이중언어학회지·제13호, 이중어학회.

2) 세계화추진위원회의 보고서(1996)에 의하면, '국제화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외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무역이나 경제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세계화는 국민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 기업, 국민 차원에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의식 등의 전 분야에 걸쳐 교류가 급속히 증대하는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학의 세계화와 지역화 논의는 Suh.Chung-Sok(2001)을 참조할 수 있다.

3)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어나 한국학 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 한국어 세계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Ed. by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KAREC, 2001.)을 참조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과 관련하여 단순히 기존의 각 기관들(대학, 연구소, 학회 등)이나 개인 연구자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시각은 한국어 세계화와 보급 지원을 위한 적절한 접근법으로 보기 어렵다. 즉,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는 시각은 한국어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관점에 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급 지원의 문제는 어차피 국가별 혹은 언어별로 접근될 성격이 아닌가하는 반문도 가능하겠으나, 이 역시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보급 지원은 신속성, 정확성, 체계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국 내는 물론 세계 각 지역에서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연구 성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국가적 신뢰도나 이미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체계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공신력 있고 책임감 있는 국내외 전문적 집단의 상시적 활동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내의 연구 성과들이 단순히 해외에 전달되거나, 해외의 연구 성과들이 한국 내로 소개되는 어떤 일방적인 전달 이상의 것이다. 물론 기존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성과들이 활발하게 수집 보급 전달함으로써 세계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관련 전문 포탈 사이트의 구축이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된다.[4] 그러나 웹(web)상의 한국어 전문 포탈 사이트의 구축만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의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보급 사업의 목적을 완수할 수 없다. 한국어 포탈 사이트가 보급의 통로로써는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보급을 위한 자료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료의 개발은 한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 지역 현지의 특수성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적용, 개발, 보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즉, 한국어 세계화의 사업이 정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긴밀한 소통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 추진의 문제는, 비록 최근에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같은 동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이웃 일본의 활발한 자국내외의 일본어 교육 현상을 참조할 때 우리에게 많은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일본어의 세계적 보급 현상과 비교하여, 해외의 많은 한국어 교육 및 연구자들은 종종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한국어에 대한 적극적 보급 지원의 노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적극적 의미의 보급은 전세계의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지역화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즉, 적극적인 한국어 세계화 정책의 핵심은 국외 특정 해당 지역과 관련한 한국어 지역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보급 지원의 적극적 의미는, 국내의 연구 성과들이 단순히 해외에 전달되는 것으로 끝나거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성과를 단순히 상호 교환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 각처의 환경에 맞게 새롭게 적

---

4) 현재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진행중인 한국어 포탈 사이트 '한누리(hannuri)'의 구축 사업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한국어 관련 교재 개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구축 등의 문제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외의 한국어 관련 사이트의 소개는 물론 한국어 관련 기초 자료 수집과 축적, 개발 활동들이 탑재되어 국내외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단위기지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에 해당한다.

용되고 개발되는 등 또 다른 과제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의 한국어 전문 연구팀들에 의한 정확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연계 체제 속에서 연구 성과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개발 보급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의미의 한국어 보급과 지원의 성격은 단순히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정도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보급의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

또한 한국어 세계화와 관련하여 국가별 접근의 시각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비효율적이다. 2000년도 현재 188개국(UN 가입 국가수)에 달하는 개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보급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며, 가능하다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 사용 언어별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들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권역별 단위기지의 구성은 그 타당성과 함께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

2. 사업의 구성과 당해 연도 진행 내용

2.1. 사업의 구성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 사업은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 지리적 · 사회적 · 문화적 · 정치적 · 경제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전세계를 다음과 같이 10개 권역으로 분할하되,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현지 사정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욕과 한국어 보급의 시급성 등)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10개의 단위기지를 상정하였다.

<표 1> 10개 권역별 단위기지의 구분

단위기지	권 역
1 단위기지	대양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단위기지	동부유럽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3 단위기지	동남아시아 (태국, 월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4 단위기지	서남아시아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등)
5 단위기지	러시아 등 구소련권 (러시아, 아제르바이젠, 그루지아 등)
6 단위기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7 단위기지	아라비아 및 아프리카 (이란,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가봉 등)
8 단위기지	서부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9 단위기지	동북아시아 (일본, 중국, 몽골 등)
10 단위기지	남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이 10개 단위기지에 대하여 사업 예산과 인력, 시간 문제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감안하여 1년에 2개 단위기지씩 개발한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대양주와 동부유럽의 단위기지 개발을 목표로 한다. 2001년 당해 연도에는 대양주와 동부 유럽의 두 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각각 제 1 단위기지와 제 2 단위기지의 구성안을 제시한다.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권역별 단위기지의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권역에 대한 정밀한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 파악이 요청된다. 여기에는 해당 권역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기관은 물론 한국어 교육전문가와 연구자에 대한 상세 현황도 포함된다. 기실 이러한 작업은 단위기지 구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지금까지 지역별, 국가별 한국어 교육 현황이 파악, 소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황 파악이 주로 한국어 교육 기관, 전문가의 수, 학생의 수 등 주로 객관적 통계적 수치의 제시에 머문 감이 없지 않다. 좀더 총체적이고도 정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시급한 구체적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권역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 조직 체계의 구성을 필요로 하며, 국내의 연구 성과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와 해외의 긴밀한 상호 협조 체제의 구축과 소통의 통로를 필요로 한다. 단위기지는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의 핵심적 추진체에 해당한다.

10대 권역의 선정은 지역적, 문화적 특성들을 고려하되, 정책 추진의 실질적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예컨대, 1단위기지(대양주 권역. 이하 제1 권역으로 칭함)와 제2단위기지(동부유럽 권역. 이하 제2 권역으로 칭함)는 각각 단위기지 구성의 시범적 사례에 해당할 만한 특성들을 갖추고 있다. 대양주 권역은 한국 교포가 5만여 명에 이르고 경제적 교류도 매우 활발한 지역으로서, 한국어 교육 및 연구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대양주는 동남아 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한 편이다.

한편 1999년도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유럽 지역의 한국인 교포 수는 6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영국, 불란서, 독일 등 서부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동부유럽의 경우 교포와 체류자가 국가별로 수백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소수이다. 따라서 동부 유럽의 경우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도 타 권역에 비해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따라서 제1권역(대양주 권역)과 제2권역(동부유럽 권역)은 각각 한국어 교육 및 연구가 활성화된 지역과 소외된 지역으로서의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되며, 단위기지의 개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대양주 권역의 경우 기존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동부유럽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제3권역(동남아시아), 제4권역(서남아시아)은 같은 아시아 지역이면서도 지리적, 문화적으로 차별성을 지니며, 특히 제1권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단위기지 구성과 관련하여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밖의 권역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설정된 것이다. 이들은 차후 순차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현지인 출신들의 한국어와 한국학 연구에 대한 관심이 중심을 이룬다는 점과, 교포의 수나 경제 교류의 규모에 비하면 한국어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2. 당해 연도 주요 진행 내용

2001년 당해 연도에 진행된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 사업의 진행 일정을 간단히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당해 연도 진행 일정표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존 사업 내용 분석 및 정리									
권역별 현황 조사 및 분석									
단위기지 개발의 기본 원리와 방향 설정									
워크숍 참가 및 방문 기관, 주요 면담 대상 연구자 선정									
설문, 면담, 워크숍을 위한 자료 제작									
현지 방문 조사 및 워크숍									
방문 성과 분석 및 정리									
단위기지 구성(안) 마련									
보고서 작성									

이 사업을 정확하고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 1, 2권역에 대한 정확한 현지 실태 조사와 한국어 교육 및 연구 담당 기관과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설문조사, 심층 면담을 병행하였다. 당해 연도에 진행된 핵심적인 연구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권역(대양주)의 경우 대양주의 모든 한국학자들이 모이는 대양주한국학회(KSAA) 기간 중 한국어 세계화 사업을 알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한국어교육 대표적인 기관과 해당 대표자들과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내용을 숙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에 대해 협의하였다.

- 워크숍 장소: 호주 멜버른 모나쉬 대학
- 워크숍 기간: 2001.9.24-26일 대양주한국학회 기간 1일(9.24)
- 주요 의제: 국가별, 기관별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문제점 발표, 네트워크 형성 및 단위기지의 역할 규명, 종합 토론 등

제 2권역(동부 유럽)의 경우 지역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워크숍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연구자들이 분담하여 직접 현지 해당 기관과 연구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별 간담회 형식을 취하였다.

- 주요 방문국 및 방문 기관: 체코슬로바키아(프라하 까렐 대학교), 오스트리아(빈 대학교), 헝가리(부다페스트 대외무역대학교), 불가리아(소피아 대학교) 등
- 방문 기간: 2001.9.20-10.6 (9박 10일)
- 주요 의제: 국가별, 기관별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문제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단위기지의 구성 방향, 과제 논의, 한국어 수업 참관, 한국어 학습자 면담 등

이러한 워크숍과 간담회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① 제1 단계: 워크숍 및 방문 간담회를 위한 기본 자료 정리
  · 기관별 현황 자료 입수, 정리
  · 워크숍 참가기관, 참석자 및 방문 기관, 면담대상자 선정
② 제2 단계: 워크숍 및 방문 간담회를 위한 기추진 사업 성과 내용 정리
  · 기존 사업내용 정리 및 주요 내용 선정
  · 제시 방법 결정
③ 제3 단계: 워크숍 및 방문 간담회를 위한 설문지와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
  · 전체 구조 결정
  · 설문지 작성, 발표 자료, TP 자료 제작
④ 제4 단계: 현지 방문 워크숍 및 간담회 실시
⑤ 제5 단계: 방문 성과 정리 및 현지 조사 보완(서면, 유선 연락, 국내 학회시 면담 등)
⑥ 제6 단계: 단위기지(안) 구성과 보고서 작성

3. 당해 연도 사업의 기대 효과

당해 연도 사업의 결과와 기대 효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사업에서는 한국어 세계화와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단위기지 구성의 기본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차후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단위기지 구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기본 원리와 관련하여서도 크게 참조될 수 있는 기본 철학에 해당한다.
②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제1, 제2 권역의 최근의 현황을 상세하고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위기지 구성안을 개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은 대체로 특정 국가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적 한국어 교육 및 연구자의 소개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해외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이 통계적 수치 중심으로 흐르거나,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칠 우려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서 본 연구는 권역별 현지의 여러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 현지 방문 실태

조사, 웹(Web)을 비롯한 기존의 각종 문헌 조사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되, 질적(質的)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1990년 후반 이후로는 그 정확한 현황 파악이 미흡했던 동부 유럽의 실태를, 현지 한국 기업체의 임원 면담 과정 등을 통해 한국어 수요자와 공급자의 측면에 대한 비교 대조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 교육 수업 현장을 관찰하고, 학습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어 교수·학습의 실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내국인의 관점에서 해외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실태를 좀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③ 한국어 보급과 세계화를 위한 단위기지의 구체적 과제를 분석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즉, 전술한 방법에 따른 현지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대양주와 동부유럽 권역에 각각 해당하는 제1단위기지와 제2단위기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단위기지별로 그 구체적 수행 과제의 방향을 밝히되, 동시에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관련 세부 전문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단위기지가 수행할 역할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단위기지의 실질적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특히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의 각종 한국어 교육 및 연구의 성과물들의 해외 보급은 물론 권역별로 그 새로운 적용 개발과 관련하여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향후 세계 각 권역별 한국어 보급과 세계화를 위한 단위기지의 개발 방안의 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한국어 세계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전세계의 권역별 단위기지의 구축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제1, 2 단위기지 개발의 성과와 그 경험의 축적은 향후 또 다른 단위기지 개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Ⅱ. 단위기지의 개념과 설정 방향

1. 단위기지의 개념과 목적

1.1. 단위기지의 개념

본 논의에서 초점으로 삼고 있는 '단위기지'와 관련한 개념과 필요성은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성광수(1995)의 '정보센터', 한영균 외(2000)의 '단위기지', Cho,Young-Dal(2001)의 운영기지(Operation Base), Suh.Chung-Sok(2001)의 네트워크(Network)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간략히 검토하고, 단위기지의 개념을 정리 제시하기로 한다.

성광수(1995)에서는 미주 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의 단절, 이론과 자료의 부조화, 언어학과 언어교육의 무관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재미 한국어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지적된 문제로서, 한국어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서로 긴밀한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좀더 효율적인 한국어 관계 언어정보센터 같은 기관이 설립되어 종합적 연구의 구심체가 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영균 외(2000)에서는 해외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이 권역별이나 국가별로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어 보급 단위기지' 육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유럽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는 대개 한국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소수의 유럽인들이 주류이나, 미국의 경우 주로 해외 교민의 자녀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규 교육기관에서부터 '주말 한글학교' 형태의 비정규 교육시설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고 여건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일이 그 구체적인 존재 양상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어 보급 단위기지'의 육성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어 보급 단위기지'의 육성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각 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수요 및 교육 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거나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의 대학 수준 교육기관으로 현재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국내의 한국어 해외 보급 센터(가칭)와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해당 권역에서의 한국어 보급 및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기지가 담당하게 될 역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연구 담당 요소 기관으로서의 역할
- 권역내 한국어교육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권역별 교재 개발 보급 및 교사 연수 등 담당 능력 육성 지원
- 외국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교두보

이를 위해 국가별, 권역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국내외 워크숍을 통한 단위기지

의 선정과 각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홈페이지 구축이 요구된다. 그런데 한국내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의 단위기지를 중심으로 긴밀한 상호 연계 체제를 가지면서 한국은 물론 관련 국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단위기지의 설정과 그 성과는 바로 이러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단위기지와 관련한 좀더 구체적인 기존의 언급은 Cho,Young-Dal(2001)의 '운영기지(operation base)'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해외 한국학(Koreanology)의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수집, 디지털화, 보급하기 위해 정보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자들 사이의 소통과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 정보 교환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운영기지(operation base)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기지는 예컨대 호주가 대양주(Oceania)와 동남아시아의 운영기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연구 협력과 정보 흐름의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한국학 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 지원이 전술한 운영기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Suh.Chung-Sok(2001)에서는 이러한 상호 협력 방안을 간명하게 잘 제시하고 있다. 즉, 대학과 연구소들이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 각종 학술회의의 활성화, 관련국 정부 지원의 다양화와 효율화, 대학원생의 교육으로 요약된다. 대학원생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한국학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한국학의 학문 후속 세대를 교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대학원생, 연구생 대상의 포럼 개최나 우수논문상 시상도 활성화 방안의 좋은 예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물론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진정한 한국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학의 지역화(localization) 없이는 그 지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나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에게 현실적 측면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강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연적이라는 점은 물론 그 구체적 방향까지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한국어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한국학 연구까지 아우르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의 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해 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의 모범적 사례로 KAREC(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er)이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 '대양주와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한국학 연구와 교육적 측면에서 상호 협조 체제의 탐색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심포지엄의 Suh.Chung-Sok(2001)에서는 대양주와 동남아시아 한국학 연구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 논하는 단위 기지는 바로 이 네트워크의 형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세계화와 지역화, 협력과 경쟁의 이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 특히 단위기지의 개념은 네트워크가 더욱 적극적 전략의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즉, 네트워크의 개념이 개인 혹은 기관 차원의 연계성 구축이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데 비해, 단위 기지의 개념은 이를 보완해 주는 적극적인 전략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적극적 전략의 필요성은 그 동안 해외 한국학 연구의 지원이 소극적 관점에 기반한 감이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즉, 기존의 경우처럼 '왜곡된 한국관이나 선입견의 시정'차원의 접근은 이제 적극적 차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왜곡된 관점이나 선입견의 시정은 한국학에 대한 심층적·적극적 연구를 통해 정확하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이다.

단위 기지는 비록 특정 지역 혹은 권역별 전문연구자들의 적극적 협의체 성격과 함께 대표성을 지닌 하나의 권역별 핵심 연구 단위체(Key Institution)로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세계적 네트워크 형성의 핵심적 지도력(Core 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어와 한국학 세계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 연구, 교육을 위한 각종 정보의 축적과 공유, 문제 해결 전략의 마련을 위한 효율적인 체제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6]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위기지의 적극적인 개념이 온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보급의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 이해의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도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와 민족들 중에는 아직도 우리의 이해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곳이 많다. 진정한 한국어의 세계화와 한국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쌍방향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의 세계화와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한국인의 세계화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어의 세계화는 한국의 세계화 문제와 직결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 각지에 대한 한국인 전문가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7]

1.2. 단위기지의 목적

한국어 세계화 사업을 통해 이미 개발된 연구 성과들을 효율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해외에 보급,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그뿐 아니라 각각 권역별로 시급한 우선 과제들을 공동 연구 혹은 개발하고 이를 지원한다. 또한 권역별로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성과들을 점검 공유하며,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분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한다. 아울러 단위기지의 설정은 그 동안 한국어와 한국학 연구 및 교육의 과제로 제시되어 온 안정적, 지속적, 체계적, 적극적 연구 기반의 조성 문제와도 직결된다(한재영 · 윤희원 · 서혁, 2001).

본고에서는 기존에 한국어 혹은 한국학의 운영기지(operation base)나 네트워크(network)의 개념과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그것을 좀더 보완 강화하는 '단위기지'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세계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어의 국제적 보급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본 조사 연구 기간 동안에 현지 방문한 제 1권역(대양주)과 제2 권역(동부 유럽)의 대다수 한국어 연구 기관이나 연구자들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해외 한국어 연구 기관이나 연구자들의 적극적 관심 부족 탓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에 대한 정보의 접촉과 이해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들을 인쇄 자료의 형태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보급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근거의 하나로 이미 기존에 연구 발표된 상당수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부 유럽과 같이 다소 고립된 지역에서는 좀더 활발한 최근 연구 정보 및 자료의 적용과 개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6) 이러한 맥락에서 단위기지는 개인 혹은 개별 연구기관을 가리키는 소단위와, 전술한 단위기지를 가리키는 중단위, 중단위의 세계적 협의체에 해당하는 대단위로 분류될 수 있다.

7) 이러한 '한국인의 세계화' 문제는 본 과제의 논의와 검토 과정에서 신기현 교수(ANU, 국립호주 대학교)의 조언이기도 하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신기현 교수께 감사드린다. 또한 세계 각국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양성 문제와 관련하여 조언해 주신 최권진 박사(불가리아 소피아 대학)께도 감사 드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기지들을 바탕으로 좀더 적극적인 연구 및 개발과 적용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단위기지의 개발의 목적은 한국어 교육 및 연구 관련 정보의 효율적 소통, 국내 연구 성과의 현지 적용 개발, 기타 제반 보급 지원 체계의 구성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보급 지원의 성격을 웹(Web)상으로나 문헌 자료의 제공 수준 정도로 단순화된 소극적 의미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실질적 작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보급 지원의 문제이고, 이는 현지 적용 개발 연구와 같은 적극적 의미의 보급 지원의 성격을 띨 때만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향하는 단위기지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적극적 의미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2. 단위기지 설정의 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전세계를 역사적 · 지리적 · 사회문화적 · 정치경제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10개 권역으로 분할하되,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현지 사정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욕과 한국어 보급의 시급성 등)을 바탕으로 10개의 단위기지를 설정한다. 이러한 10개 단위기지에 대하여 사업 예산과 인력, 시간 문제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감안하여 1년에 2개 단위기지씩 개발한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대양주와 동부유럽의 단위기지 개발을 목표로 한다. 대양주와 동부 유럽이 그 중 1, 2 순위로 설정된 이유는, 대양주의 경우 최근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고, 국내 이민이이나 유학이 크게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교육 및 연구, 전문가들이 새롭게 보강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적 사례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가 작용했다. 반대로 동부유럽의 경우 상대적으로 순수 유럽 지역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및 연구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과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 관심이 요구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요컨대 이 두 권역은 상대적으로 비교 대조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

제1, 2 권역의 단위기지 개발은 무엇보다도 현지의 특성과 연구 여건 등을 감안하되, 가장 시급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전문적인 연구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위기지 개발의 기본 원리를 탐색하고, 정확한 현지 상황과 여건을 조사함으로써 권역별 단위기지의 구성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단위기지 개발의 기본 원리와 방향

1. 단위기지 개발의 기본 원리

전술한 바와 같이 Suh.Chung-Sok(2001)에서는 Network 형성과 관련하여 세계화와 지역화, 경쟁과 협력의 원리를 제안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몇 가지 원리를 추가하고자 한다.

1.1. 특성화와 통합화의 원리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단위기지의 설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특성화와 통합화를 들 수 있다. 단위기지 설정시에 지역적, 문화적 특성들이 반영되어야 함을 말한다. 실제로 앞에서 설정한 10대 권역은 지역적으로는 물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한국어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한 목적이나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 교수·학습 방법 개발 등과 관련한 보급 지원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할 때도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화의 원리는, 한국어의 세계화가 한국학의 세계화와 함께 추진되었을 때 지속적이고도 강한 힘을 갖게 된다 점과 관련된다. 즉, '한국에 관한 과목이 동양어문학과 이외의 여러 학과에 많이 개설되면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고 자연히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며, 그 관심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로 발전될 것이다.(김영아, 1995)'는 언급은 이러한 통합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합화의 문제는 한국학 연구의 체계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특성화와 통합화의 원리는 달리 말하자면 다양한 분야와 차원에서의 역할 분담과 그 종합화를 지향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한국학 연구 자체 내의 범주적, 논리적 특성화와 통합화뿐만 아니라 대상 지역, 국가, 기관 등 현지의 특성을 살리고 그것을 한국학과 비교 대조하여 조회할 수 있는 통합화의 노력도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학 연구와 관련한 국내외의 각종 학술대회나 심포지엄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학술 영역이나 학풍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국제적 규모의 각종 한국학 관련 학술대회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하위 분과별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시간에 각종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타 영역 전공자들과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 자체를 기대하기가 힘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전문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학의 보급과 공유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 하겠다. 더구나 해외한국학의 연구 혹은 수혜자가 국내 연구자만큼 전문성을 갖추기보다는 각종 교육 활동 등에서 총체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종사자 등이 많다는 점도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다양한 성격의 각종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지원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특성화와 통합화를 지향하는 한국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해서는 치밀한 기획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나 사업의 성과 등과 관련된 사후 관리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현지와의 특성화와 통합화 문제이다. 이는 대상 지역이나 국가, 기관 등 현지의 여건을 살리면서 그것을 한국학과 비교 대조하여 조회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학 역시 넓게 보면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에 대한 관심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게 된다. 때로는 정책적인 부분들의 경우 대상 국가에서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적용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상 지역에 대해 한국학이 갖는 특성과 보편성, 나아가서는 통합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물론 각종 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 방법론이 자리 잡은 지도 1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의 한국학 연구의 실태나 한국학의 국제화 혹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는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1.2. 집중과 분산의 원리

집중과 분산의 원리는 1984년이래 제기되어 온 거점기관의 설정과 유사하지만,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개념이다. 즉, 거점기관의 설정이 국지적이거나 지엽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에 '집중과 분산의 원리'는 특정 권역에 대한 단위기지의 설정은 물론 세계화를 지향하는 적극적이고도 다원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즉, 단위기지 설정 자체가 강한 집중의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10개 권역의 설정은 지역적 분산의 개념을 담고 있다.

사실 기존의 거점기관의 논리는 상당 부분 해외 한국학 연구의 편중 지원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집중과 분산의 원리는 연구 지원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집중과 분산의 원리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보화의 도구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즉, 한국어 세계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진행 중인 한누리(Hannuri) 포탈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즉, 국내의 기존 연구성과들, 특히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연구 성과들의 자료들을 올리고, 세계 각 권역별 한국어 연구 기관과 연구자, 기존의 각종 웹사이트들을 링크시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권역별 커뮤티니 구성 기반을 마련하거나 유도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해외 한국어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각종 웹사이트를 링크하는 방안이다. 아직 웹사이트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그러한 활성화 수준을 기대하기 힘든 지역들을 염두에 두고 카페 형태의 커뮤니티 구성을 유도한다. 대체로 지금까지 세계 각지의 한국어교육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현황 파악은 이루어진 셈이기 때문에, 이들을 소개하고 이메일 교환 형태로라도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는 점증하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기반 작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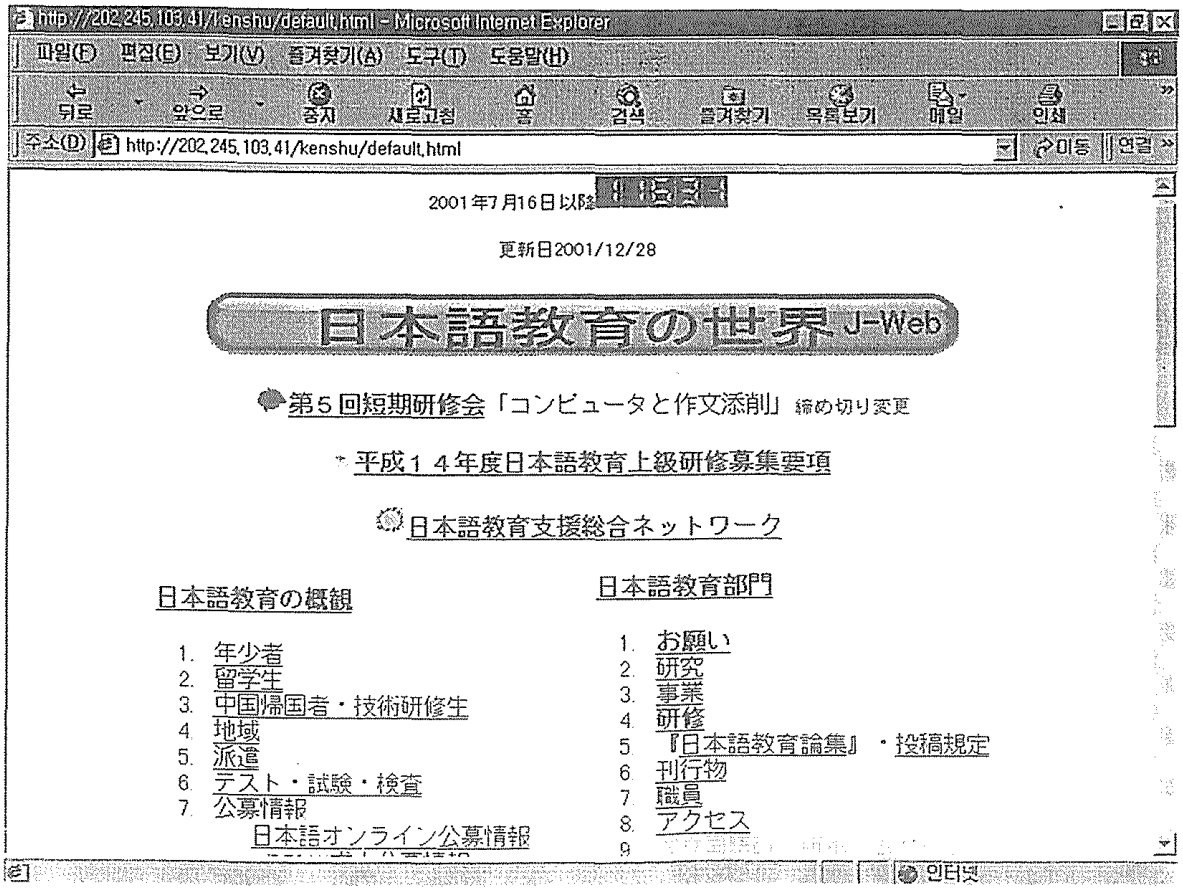
특히 한국어 교육이나 연구가 미약한 지역들의 경우 권역별 연계 체제를 갖춤으로써 '해당 권역 → 해당 국가와 지역 → 해당 전문가'로의 검색상의 편이성도 제공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연구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건 간에 개개인의 일대일 접촉이라는 점까지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는 포탈 사이트를 통한 정보의 집중과 함께, 각 권역별 링크라는 분산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이 되는 셈이다.

1.3. 효율성과 체계성의 원리

효율성과 체계성의 원리는 해외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의 지원에 있어서 거시적 지표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실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파악이 요구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평가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효율성과 체계성과 관련한 접근은 크게 하드웨어적 차원과 소프트웨어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드웨어 차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단위기지와 같은 인적 구성 체계와 그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소프트웨어적 차원은 대표적인 예로 전술한 한국어 포탈 사이트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어 교육 및 연구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웹상의 한국어 포탈 사이트의 구축은 단위기지는 물론 한국어 세계화의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로 최근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산하에 국립국어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지원 총합 네트워크 시스템 (http://www3.kokken.go.jp/ACA/exhibit/kyozai/kyozaiDL.jsp)'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전문 포탈 사이트의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기해 주고 있다. 일본 국내외의 일본어 교육 관련 각종 자료나 그 목록, 보고서, 교재, 지역별 내외국인 교원과 학생 현황 등 매우 상세한 자료와 안내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앞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일본어 교육의 세계(J-Web)'[8]라는 하위 링크 사이트에서는 일본어 교육의 개관, 일본어 교육 부분의 연구, 사업, 연수, 각종 자료 등이 매우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본어 교육 교재용 소재 일람표'[9]를 제시해 줌으로써 일본 국내외의 일본어 교수 학습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 그림, 삽화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친절한 안내 자료의 제시 노력의 예는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효율성과 체계성 제고 차원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1.4. 전문성과 기초성의 원리

전문성은 한국어 교육 및 연구의 전문화와 고급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연구자의 해외 파견은 물론 해외 기관이나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도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 지원에 걸맞은 자질과 업적을 갖추고 있으며, 일정 부분의 성과가 예측되는 비전에 근거하여 지원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장차 한국어 세계화의 관건이 된다 하겠다.

---

8) http://202.245.103.41/kenshu/default.html 참조.
9) http://www3.kokken.go.jp/temp/sozai/ivg_010316/default.html 참조.

기초성의 원리는 한국어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한 기초 연구와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한국어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각종 실태 조사는 물론 한국문화와 한국학의 해외 소개, 한국어 교육, 해외 한국학 전문가의 양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1.5. 효용성과 생산성의 원리

집중과 분산의 원리를 포함한 해외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좀더 궁극적으로 효용성과 생산성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나 보급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문화가 핵심적인 수출 상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순수 학술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바탕이 되는 정신적, 물질적 부가가치의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어와 한국학 연구도 산학 공동체에 기반한 발전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효용성과 생산성의 원리는 단순히 경제 중심의 논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산학 복합체라는 생산성의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1.6. 총체적 접근의 원리

총체적 접근의 원리는 학술, 기업, 민관(民官)의 공조 노력을 핵심으로 한다. 예컨대 해외에서 한국과 관련된 기업이나 교육, 종교, 문화 활동 등이 이루어질 때 그 어떤 것이건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관한 모든 것, 다시 말해 한국 문화 전체가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해외에 특정 기업체가 진출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1개 기업체의 진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가 동시에 진출하는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 설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생산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학술, 기업, 민관의 총체적인 접근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학술, 정치, 경제, 문화의 총체적인 접근법으로서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분야에서 상호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겠지만, 상호 협력 체계가 중요하게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복 지원이나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산학 협력 체제와 같은 총체적 접근법은 기업과 국내외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자(혹은 기관) 사이의 상호 지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7. 보편성과 대중성의 원리

보편성과 대중성의 원리는, 해외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단지 기존의 학술적 성과와 함께 외국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중 문화적 측면에 대한 조명도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러한 보편성과 대중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김영자(1995)의 지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현지어로 한국에 관한 전문서적(한국역사, 경제, 시사, 문화예술, 전통문화 등)과 한국홍보서적(사찰, 관광여행지침서 등) 출판에 대폭 지원이 앞서야 하며, 현지 출간 사업 역시 현지에서 판매를 대행할 수 있는 출판사가 있어야 독일과 인근 독일어권 나라의 각 서점에서 판매와 구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언어권 나라에서도 주문판매가 손쉽다.'는 점이다. 이는 권역별 단위기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음악, 멀티미디어 등 각종 대중매체의 현황들에 대한 연구와 보급, 안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일반적인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의 현재적인 대중 문화적 측면일 수 있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한국적인 것, 가장 전통적인 것만으로는 한국어와 한국학의 세계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현대 문화와 대중문화가 외국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보편성과 대중성의 원리는 교재 구성은 물론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한국어 웹사이트 구축의 컨텐츠 개발에도 고려되어야 할 원리이기도 하다.

2. 단위기지의 구성 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단위기지 개발 과제에서는 2001년도에 일차적으로 대양주와 동유럽 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의 과정을 거쳤다. 그 대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10]

조사 내용은 전문가의 신원에 관한 것(성장 국가, 활동 기관, 담당 과목, 학력과 경력, 전공 분야 등), 해당 권역 혹은 국가 내에서의 한국어 수요에 대한 예상, 활동 지역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자간의 교류 정도, 네트워크(단위기지) 형성의 필요성 인식 정도, 권역별 단위기지 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단위기지 모임의 성격과 활동 내용, 권역별로 가장 시급한 과제 등이었다.

조사 결과는 대양주와 동부 유럽 두 지역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현지의 사정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단위기지 개발의 필요성은 물론 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 교재 개발, 교육과정 개발, 교육·연구자의 양성 등이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5-10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당 권역의 한국어 학습자나 연구자에 대한 수요 예상을 묻는 항목에서 현상 유지, 증가, 감소, 잘 모름 등에 대체로 고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아직도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안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물론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기업체 등 경제적 관련 상황에

10) 조사 기간은 2001년 9월말을 전후하여 동부유럽과 호주에서 각각 1주일, 3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은 대체로 대학에서 한국어나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를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대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5명, 동부유럽 10명 등 모두 약 25명이 설문과 면담에 참여하였다.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동구권의 경우 헝가리는 학생수의 감소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은 반면, 불가리아(소피아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현지의 한국에 대한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어 교육 체제의 효율성과 전문성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권역별로 한국어 교육 및 연구 담당자간의 교류 정도가 어느 정도 활발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활발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아울러 단위기지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여자 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 기존의 학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체로 관련 지역내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별도 모임과 자율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 주는데, 특히 현지 활동 전문가들의 자율적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대양주) 네트워크의 모임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공동 연구 및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 형식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 자료 센터나 연구소(institute) 운영도 제기되어 눈길을 끈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새로운 센터나 연구소의 설립은 그만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 편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하지만 단위기지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센터 설립이 중장기적 대책으로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기지의 구체적인 활동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1년에 2번 이상의 학술대회나 워크숍, 세미나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권역별 현황과 단위기지 구성안

1. 해외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지원 현황

(1)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의 목적과 관련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 지원 신청 안내 및 신청서'[11]의 '사업 개요'를 참고할 수 있다. 즉, '국가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긴밀해지고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진작시키며 한국에 관련된 연구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국제적인 한국학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학 연구의 '국제적 확산'과 '질적 제고(提高)'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확산과 질적 제고'의 상위 목적 혹은 전략은 기존에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12]

① 국제교류차원에서 학술적인 면에 중점을 두되 외국의 한국학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②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의 한국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에 왜곡된 한국관이나 선입견을 시정한다.

③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상위 목적은 일면 타당하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이는 접근법의 차원에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즉, 해외 한국학 연구의 지원을 소극적 관점에서 적극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위의 둘째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왜곡된 한국관이나 선입견의 시정'은 한국학 지원 혹은 보급의 적극적 전략이라기보다는 소극적 전략에 속한다 하겠다. 물론 전술한 지원 전략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왜곡된 관점이나 선입견의 시정은 한국학에 대한 심층적·적극적 연구를 통해 정확하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이다.

(2) 해외 한국학의 연구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인 지위 신장과 더불어 최근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1982년도에 10개국 26개 부문에 769,340(미국)달러를 지원했던 것이, 1991년도에는 24개국 71개 부문에 1,044,253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는 불과 10년 사이에 지원 국가만 해도 2.4배, 지원 부문은 2.7배에 달함을 보여 준다. 지원 금액은 1.4배 신장된 수치이다. 지원 금액이 최고조에 달한 1994년도에는 1,160,458달러를 25개국 57개 부문에 지원하였다. 지원액으로만 보면 이는 1982년도에 비해 1.5배에 이른다. 그러다가 1994년도에는 해외한국학연구지원과 한국학연구인력지원으로 구분되면서 외형상으로는 지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1997, 1998년도에는 IMF 사태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19개국의 29개 기관에 757,122달러를 지원함으로써 큰 폭으로 줄게 되었다. 그 여파는 1999년도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22개국 40개 부문에 944,226달러의 지원에 머물고 있다.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해외 한국학 연구의 지원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앞으로 그 지원 범위나 액수가 최소한 1994년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원 규모를 훨

11) 이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홈페이지(http://www.krf.or.kr)에서 '사업별 안내→한국학(Korean Studies)'에 등록되어 있다.

12) 이는 2000년도 9월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홈페이지의 관련 사업 안내에 나타나 있던 내용이다.

씬 더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장 투자 규모의 상향 조정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적은 예산이나마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지원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필요한 사항이다. 물론 기존에 해외 한국학 연구의 지원 과제 선정과 그 평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존에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해 왔던 연도별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3]

(3) 해외한국학 지원 실적과 업적에 대한 평가는 해외한국학의 진흥과 활성화 방안 탐색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차적으로 기존의 의미 있는 전략과 정책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측면과 함께 그 효율적 실행 여부나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① 지역별 안배를 통한 집중지원대상 기관 선정은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집중과 분산의 원리'에 유사한 유의미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매칭 펀드 확보 문제는 지원 대상 국가나 기관의 경제적, 재정적 지위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즉, 저개발국이나 제 3세계 국가는 경제적 지위는 물론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보급 정도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적 개념보다는 정책적인 보급과 지원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② 아울러 해외한국학 연구 현황에 대한 자료의 정리 및 홍보도 중요한 내용이다.

-아직까지도 해외한국학 연구 성과물들에 대한 조사 연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각종 연구 성과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대체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관심 있는 모든 연구자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리와 자료의 공개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기반의 조성 문제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예비적인 전략의 필요성이다. 이는 1991년도에 동구권이나 중국, 중앙아시아의 상황 변화와 함께 한국학 보급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수요 발생 경험이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때의 대처는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적극성과 준비성의 면에서 반성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즉, 국제적인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비교적 새로운 국면의 변화라는 확신이 섰을 때, 한국학의 지원 및 진흥과 관련된 정책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어, 한국 문화 등 한국학 관련 도서 및 연구 자료들은 물론 한국학 전문가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한 것이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경제, 외교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학 보급과 진흥의 차원에서 매우 소극적이 대처 방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치, 경제, 외교적 접근이 계획 혹은 진행될 때 이미 구체적인 한국학 전문가의 파견 내지는 학술 교류의 계획 등이 동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이 통합화된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동시 다발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일종의 시너지 효과로서 모든 영역에 대한 파급 효과는 훨씬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적극적·예비적 전략

13) 이러한 작업은 대체로 해외 한국학 연구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해 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 자료와 한재영·윤희원·서혁(2001)을 참조한 것이다.

은 한국학의 보급이나 진흥을 위한 지원의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해당국가나 기관에서 한국학 수요 및 관심의 감소라는 문제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투입 등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학 연구 및 지원의 전문화와 체계화에 대한 노력이다. 특히 교수(강사) 파견, 지역별 전문학회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문헌정보자료의 수집과 보급 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궁극적으로 한국학의 진흥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국제교류재단의 업무와 학술진흥재단의 업무가 통합되거나 상호 긴밀한 정보 공유의 성격을 띠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요컨대 이러한 기존의 해외 한국학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한국어를 포함한 한국학 세계화를 위해 세계적 단위기지의 구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제1권역의 현황과 단위기지 구성안

2.1. 제1권역(대양주)의 전체 현황

본 절에서는 한국어 세계화 단위 기지의 제 1 권역인 대양주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대양주 지역을 대표하는 두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전체 현황을 3.1.1에서 알아보고 3.1.2에서는 좀 더 범위를 구체화하여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에 대해 대학 및 연구소, 학회, 개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절의 자료는 전체적으로 기존의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되었다. 그리고 (3)주요 대학, (4)한국어 기관 정보, (5)인물 정보 등은 문헌과 인터넷 자료 외에 설문 조사와 개인 면담에 의해 조사되었음을 밝혀둔다.

(1) 해당 국가 정보 개요

① 호주

호주는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 국토의 약 78배의 크기로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대륙 국가이다.

호주는 6개의 주와 2개의 특별구로 되어 있다. 호주의 6개의 주로는 타즈마니아(Tasmania), 빅토리아(Victoria),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퀸스랜드(Queensland),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가 있다. 특별구에는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와 국가의 수도 캔버라(Canberra)가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탈 테리토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즉 호주 연방 수도 특별지구가 있다.

호주와 한국의 교류는 1884년 호주 선교사들이 최초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시작되었다. 1900년도에 들어서 양국관계는 호주의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일원으로의 참여 (1947년부터)와 한국전 (1950-1953) 참전을 통하여 더욱 긴밀해 졌다.

호주와 한국의 관계는 1961년에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하면서 급속도로 진전되었으며 무역 등의 경제적인 교류와 교육, 문화적인 교류 등을 통해 활성화되었다.

현재 호주에는 40,000여명의 한인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2000)에는 150,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였고, 11,500명의 한국 학생이 호주에서 영어 및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는 호주에서 공부한 한국 학생들의 졸업 동창회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문화 교류에 중심에는 호한재단(Australia Korea Foundation)이 중심에 서 있다. 호한재단(AKF)은 문화예술, 언론, 스포츠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호주의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맬번 대학의 아시아링크(asia link) 프로그램은 호주에서의 한국어 교육(한국어를 주요 외국어로 가르치는 학교)을 위한 교재개발을 지원했으며 예술가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예술가들이 6개월간 한국에 체류하며 양국의 문화교류에 꼭 필요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②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남서 태평양에 위치한 깨끗한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국가이다. 뉴질랜드는 원주민인 마오리(Maori)어로 아오테로아(Aoteroa : 길고 흰 구름의 땅)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지닌 뉴질랜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중 사계절이 있고,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적 특성은 정반대이다. 뉴질랜드는 크게 남과 북섬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남북한을 합한 면적의 약 1.3배의 크기이다.

인구는 약 380만이며, 80%가 유럽계 백인, 12%의 마오리 원주민, 그 외 8%의 아시안 및 기타 인종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뉴질랜드의 의무교육은 12년으로서 문맹률이 거의 0%인 국민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관계는 지난 20여 년간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 수백명의 한국인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한 후, 현재는 약 10,000명의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뉴질랜드의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국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은 뉴질랜드의 5번째로 큰 무역 대상국으로 뉴질랜드는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물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신장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도 1989년에 처음 강좌가 개설된 후 큰 발전을 보이고 있다.

(2) 교육 제도

① 호주

호주의 교육은 연방 정부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 질적 수준에 있어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오늘날 호주를 기술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바로 이러한 수준 높은 교육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호주를 자연이 깨끗하게 보존된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더불어 기술 선진국으로도 대표된다. 호주는 연구 및 개발 지출에 있어서 세계 10위 내 국가 중 하나이며 많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호주는 세계 과학 연구 논문의 2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1인 당 비율 순위로 볼 때 미국과 영국에 맞먹는 수치이다.

호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 개개인의 요구와 자질, 그리고 관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과 과정은 지성, 사회성, 예술성, 직업 능력에 관련된 학생들의 잠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6세~16세까지는 의무 교육이며, 15세 이후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5세 이하의 교육은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예비 학교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16세까지의 의무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은 고등학교 11~12학년에 진학하여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 학기는 1월말 또는 2월 초에 시작하여 12월 초까지 계속되며, 1년이 4학기(1월, 4월, 7월, 10월)로 나뉘어져 있다.

호주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제도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14]

---

14) NSW: New South Wales 주 / VIC: Victoria주 / TAS: Tasmania주 / 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주 / QLD: Queensland 주 / SA: South Australia주 / WA: Western Australia주 / NT: Northern Territory 주

나이	NSW, VIC, TAS, ACT	QLD, SA, WA, NT
17~18세	고등학교 11~12 학년	고등학교 11~12 학년
12/13~16세	중학교 7~10 학년	중학교 8~10 학년
6~11/12세	초등학교 1~6 학년	초등학교 1~7 학년
5세	예비학교 유치원	예비학교 유치원

호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다. 영어, 수학, 외국어, 과학, 기술, 사회환경, 보건 및 체육, 예술의 8가지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영어와 수학은 필수 과목이다. 이러한 교과 과정 외에도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과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컴퓨터 보급률이 높은 나라로서 호주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첨단 컴퓨터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컴퓨터 정보처리(Information Technology)과정을 지도하고 있다.

호주의 교육 제도는 위의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의무 교육인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초등학교

호주에서는 만 5~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 요건은 각 주와 특별구 마다 규정이 다르다. 초등학교의 저학년들은 주로 기본적인 언어(영어) 구사와 쓰기, 셈하기, 기초적인 산수, 사회, 체육, 창의력을 기르는 활동과목과 같은 교육에 중점을 둔다. 이에 비해 고학년들은 영어, 수학, 체육 및 보건, 기술 과목을 배우며 어떤 학교는 음악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보다 광범위하고 외국어와 예체능과목 등 구체적인 내용의 수업이 진행된다. 처음 1~2년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기본 과목을 공부하고 이후에는 필수과목(영어, 수학, 인문 사회 과학, 체육)과 선택과목(외국어, 경제, 미술, 음악, 연극, 컴퓨터, 지리, 역사 등)을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공부한다. 선택과목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11~12학년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기간이 되며 선택과목의 범위가 더욱 다양하다. 학생들은 희망 대학과 전공에 따라 관련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대에 진학하려면 수학, 물리 또는 화학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때부터는 내신성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기간이다. 2년간의 내신성적과 12학년 말에 보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성적(Senior Secondary Certificate)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 대학교

호주에는 모두 39개의 대학교가 있다. 이 중 3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교이다. 그러므로 호주 대학교들은 그 질적 수준의 유지를 위해 연방 정부에 의해 매년 평가되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호주의 대학교에는 다양한 전공 분야가 있으나, 모든 대학이 똑같은 전공 분야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대학이 특정 분야에 있어 각기 특성화되어 있다. 즉, 연구 중심의 대학이나 실용적 프로그램의 대학 등 일반적인 특징에 따라 대학이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대학간의 수준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대학교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학위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학사 학위(Bachelor degrees) 과정으로 한국의 일반적인 대학교 학위 과정과 같은 성격의 학위 과정이다. 이러한 학사 학위 과정은 풀-타임으로 3년제이다. 인문 사회 계열(Arts, Social Sciences), 과학 계열 (Science), 상경계열 (Commerce) 등의 학위가 해당한다. 그러나 전공에 따라서는 4년 이상이 요구되는 학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법학(LLB), 공학(Engineering), 농학(Agriculture), 일부 예능계열학과 (Music, Design등)은 4년제이며, 건축학(Architecture), 치의학(Dentistry), 수의학(Veterinary Science) 등은 5년제, 의학(Medicine)은 6년제이다. 이러한 학사 학위 과정은 대부분 강의(Lectures)와 소규모 그룹 지도(Tutorials)의 병행으로 이루어지며 과학 및 컴퓨터 과정들은 여기에 실험 실습 시간들이 포함된다.

둘째, 우수 학사 학위(Bachelor Honours Degrees)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학사 학위 이후의 일년간의 연구 과정으로서 학사 과정의 성적 우수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전공 분야의 전문화된 연구와 논문 제출이 요구된다. 이 1년 과정을 마치면 석사 연구 과정 또는 박사 학위 과정으로의 입학 자격을 받게 된다.

셋째, 대학 예비 과정(Foundation Studies)이 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호주 교육제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과정이다. 호주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외국학생들은 이러한 대학 예비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호주의 교육방식에 대해 익숙해 질 수 있고, 또한 영어 실력도 한층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유학생들은 대학 예비 과정을 마친 후 대학교 진학 시 별도의 입학 시험이나 영어시험 없이 대학 예비 과정의 성적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 대학원

호주의 대학원은 크게 학업 학위(course work) 과정과 연구 학위(research)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학업 학위 과정은 다시 4가지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한국의 석사 과정과 동일한 석사(Master) 학위는 주로 수업을 듣고 여러 개의 짧은 논문(essay)이 요구되는 석사 학위(Master Course work) 과정과, 수업 없이 연구만을 통한 졸업 논문에 의해 학위를 받게 되는 석사 연구(Master Research) 과정이 있다. 그리고 석사(Master) 학위의 전 단계로서 준석사 수료(Graduate Certificate)와 준석사(Graduate Diploma) 과정이 있다.

준석사 수료 과정과 준석사 과정은 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각 1학기와 1년 동안 풀타임(full-time)으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들은 학부의 전공과 연결되거나 또는 관련 없이 특정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마련되어 있으므로 학부 전공과 다른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이 과정들을 통해 이후 석사 학위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석사 학위(Masters Course work Degrees) 과정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들은 1.5~2년, 우수학사(Honours) 학위 소지자들은 1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 1년의 석사학위도 있다. 학부 전공과 다르다면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없으며 준석사(Graduate Diploma)과정을 먼저 이수한 후 석사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연구 학위(research) 과정은 높은 수준의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학위 과정이다. 개인의 연구 주제에 따라 지도교수가 배정되고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스스로 연구를 하여 최종적으로 논문에 의해 학위가 수여된다. 최근에는 학과나 개인의 자격요건에 따라 수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연구 학위 과정은 연구 석사 학위(Master Research Degree) 과정과 박사 학위(Doctoral Degrees)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 석사 학위 과정은 2년간의 연구 과정으로 박사학위와 비슷하다. 학사학위 소지만으로는 입학이 어려우며 우수 학사 학위(Honours degree)나 다른 나라에서의 석사 학위 이상, 또는 연구 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박사 학위 과정은 연구 과정과 논문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나 우수 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최소 3년~5년 간 풀타임(full-time)으로 연구해야 한다. 몇몇 대학은 연구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의 예비 과정으로 수업 수강을 필수로 요구하기도 한다.

② 뉴질랜드

영국식 교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교육은 한국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등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아이들은 만 5세가 되는 자기 생일날 초등학교(Primary School)에 입학하게 된다. Junior 1, 2와 Standard 1,2,3,4 의 과정을 끝내고 나서 Intermediate School인 Form 1, 2 및 College Form 3,4,5,6,7의 5년 동안의 과정을 마쳐야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뉴질랜드의 교육제도를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나이	뉴질랜드	
18세	University	Tertiary
13~17세	college form 3(year 9)~college form 7(year13)	secondary
11~12세	intermediate form 1(year 7)~intermediate form 2 (year8)	primary
7~10세	standard 1(year3)~standard 4(year6)	
5~6세	junior 1(year1)~junior 2(year2)	

뉴질랜드의 의무교육은 만 5세부터 시작하여 15세인 College Form 5까지이다. Form 5에서 School Certificate라는 국가시험을 치른다. 경우에 따라 우수한 학생인 경우 Form 4에서 이 School Certificate를 볼 수 있다. 이 시험에서 합격하면 Form 6에서 보는 학교 자체시험인 Form 6 Certificate를 통과하여야 하며 Form 6 또는 Form 7에서 Bursary & Scholarship Examination(수능 장학 시험)을 치르며 이 성적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그밖에 Form 5를 마치고 전문학교에 해당하는 Polytechnics 나 Private Tertiary Institute에 입학할 수 있다.

위의 도표에 나와 있는 뉴질랜드의 교육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만 5세가 되는 생일을 맞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입학 후 2년간을 Year 1(Junior 1)과 Year 2(Junior 2)로 구분되는 교실에서 보낸다. 이 단계에서는 읽기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며 거의 매일 집에서 읽기 훈련을 계속하도록 숙제를 내준다.

어린이가 7세가 되면 Standard의 과정으로 올라가 4년간 공부하게 된다. 이 단계의 학교생활은 Junior보다 더 조직적이고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 나간다. 대개 Standard 단계에서 어린이들에게 자기만의 책상이 주어지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 Project를 만들어 나가는 수업을 통해 독립심을 기르는 훈련을 하기도 한다.

Standard 4 과정이 끝나면 2년 과정의 Intermediate 과정에 입학하게 된다.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의 중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중·고등학교

뉴질랜드에서는 약 13세부터 중·고등학교 교육이 시작되는데 이를 Secondary Education이라고 말한다. 뉴질랜드에는 약 440개의 공립과 사립의 Secondary School이 있는데 보통 College, Grammar School 혹은 High School이라 지칭한다.

Year 9(Form 3) 학생들은 핵심과목(Core Subject)인 영어, 수학, 과학, 사회(Scoal Study)와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며, 음악, 체육, 미술도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공부할 과목의 선택폭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제한되어 있다.

Year 10(Form 4)에 올라가면 과목의 선택폭이 Year 9 보다는 다소 넓어지나 위에서 말한 핵심 과목을 계속 공부한다. 일부의 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1~3개의 과목에 한정적으로 Year 11(Form 5)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School Certificate 시험을 치를 기회를 준다.

Year 11(Form 5)는 School Certificate(이하 School C 라 칭함)를 위한 학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들은 11월에 치르는 외부시험에 주력을 하게되며 대개는 5과목이지만 6과목을 치르는 학생도 있다. 대부분의 과목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평상시의 과제물, 쪽지시험 결과 등이 최종성적에 반영된다.

Year 12(Form 6)가 될 때까지 학생들은 각자가 강한 과목이 무엇인지, 어느 과목이 약한지를 파악해야 하며 장래 어느 계열을 전공할지 결정해야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5과목을 공부하게 되며 그 외의 체육시간이 있다. Six Form Certificate는 전적으로 학내 평가절차이며 학년말에 각 학생의 성적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뉘어 부여된다. Six Form Certificate를 받은 학생들은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종합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마지막 학년인 Year 13(Form 7) 과정으로 올라간다

Year 13(Form 7)의 학생들은 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매년 말에 치러지는 Bursary 시험대비에 열중한다. 학생들은 과목별 시험결과에 따라 A~C Bursary를 받게 되며, Bursary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대학 공부에 필요한 일정액의 장학금을 받게된다

▶ 대학교

뉴질랜드의 대학교는 크게 종합대학교(University), 전문대학교(Polytechnics & Institutes of Technology), 교육대학교(College of Education)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종합대학교를 살펴보면 뉴질랜드에는 8개의 국립 종합대학을 들 수 있다. University of Auckland(1882),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1897), University of Otago(1869)가 Dunedin에 University of Canterbury (1873)가 Christchurch, University of Waikato(1964)가 Hamilton에 Massey University(1964)가 Palmerston North에 있으며, 1994년에 Massey University가 Auckland의 Albany에 문을 열었다. Christchurch에 가까이 있는 Lincoln University가 College of Agriculture and Horticulture로 1990년 문을 연 이래로 많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며 2000년 1월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가 대학으로 승격하였다. 뉴질랜드의 대학교육은 미국의 시스템보다는 영국식에 더 가까운 형태를 보여준다.

각 대학들은 특징적이고 전문분야에 대해서 자체의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학 희망자는 잘 분산되어 입학경쟁률도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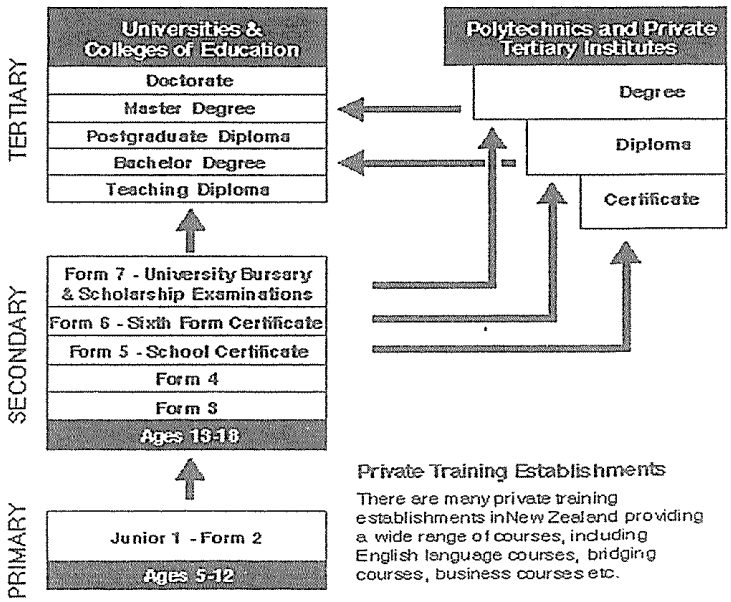
모든 대학은 학사(Bachelor), 석사(Master) 그리고 박사(Doctoral degrees) 코스로 구성되며 학사 과정은 3년이며 일부 과정은 6년이 걸리는 것도 있다. 일부 학과에서는 Bachelor's Honours degree를 대학 졸업 후 추가로 1년 더 하는 코스도 있다. Postgraduate Diploma는 학사학위(Bachelor's degree)를 끝내고 1년 더 공부하는 학위이며, 석사학위(Master Degree)는 보통 학사학위 후 2년으로 혹은 Honours Degree 후 1년 동안 공부를 마치면 받을 수 있다. 박사 학위(Doctor degree)는 적어도 3년의 풀타임(full time) 공부와 연구 실적을 필요로 한다.

둘째, 전문 대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소개 코스에서 학사 학위 코스에 이르는 Agriculture, Art and Design, Building and Construction, Business, Engineering, Fishing and Marine Studies, Forestry,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urism and Hospitality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직업교육을 위해 설립된 25개의 Polytechnics에서 약 95,000여명의 풀타임(full time) 및 파트 타임(part time) 학생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

전문 대학교는 학업 성적과 영어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레벨의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다니는 도중 혹은 마치고서 몇 년 후 또는 직장을 다닌 후에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입학할 수 있다.

셋째, 뉴질랜드에는 4개의 공립 교육대학(Auckland, Christchurch, Dunedin, Wellington)이 있다. 그 외 Massey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Waikato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이 있다. 이들 교육대학에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특별 교육기관의 교사 양성을 담당하며, 또한 좀더 상위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사들의 훈련을 맡고 있다. 교육대학은 학교나 모든 등급의 교육기관의 교사들의 자질을 유지시키고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3년 과정의 Diploma of Education이나 3~4년 과정의 Bachelor of Education degree를 수여하고 있다.

이상의 뉴질랜드의 교육 제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http://www.nzeil.co.nz/참고).



(3) 주요 대학

① 호주

호주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개의 주와 2개의 특별구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학 또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알려져 있는 몇 개의 주요 대학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수도 캔버라(canberra)가 있는 이 곳에는 호주 국립 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가 있다.

호주 국립 대학교(ANU)는 호주의 여타 대학들과는 다른 곳이다. 1946에 복지법안에 의해 "대학원 과정의 일반적인 그리고 호주의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주제들의 연구와 교육을 장려하고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후 자연과학, 의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급속도로 명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호주 국립 대학교는 호주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을 배출해 내었으며, 그 중 다수가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다. 호주 국립 대학교는 교육기관이자 독창적인 연구기관이기도 하다. 학부과정은 1960년에 만들어졌으며 그 때부터 본 대학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고등연구소(Institute of Advanced Study)와 학부 이 두개의 주요부분으로 운영되어 왔다. 고등연구소는 생물학, 화학, 물리학, 의학, 지구과학, 정보과학, 공학, 사회과학과 아시아·태평양 연구의 8개의 연구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국립 대학교는 호주의 대학들 중에 가장 많은 연구기금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학술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수많은 연구원들이 있다.

▶New South Wales

이 지역에는 모두 11개의 대학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중 2개의 대학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와 시드니 대학교(The University of Sydney)를 살펴보기로 한다.

1949년에 개교한 UNSW의 역사는 46명의 학생들이 이·공학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UNSW의 5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국제교육기관으로서 80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UNSW는 세계 명문대학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문화, 교육, 여가선용 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UNSW에서 공부한 후에 사회를 이끄는 최고의 지성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UNSW의 졸업생들은 해외 여러 나라에 있는 졸업생 모임을 통해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 최초의 대학으로서 1850년에 세워진 시드니 대학교는 각 전통과 더불어 그 큰 규모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30,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 제일의 국립 대학 중 하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시드니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17개나 되는 단과대별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드니 대학교의 명성은 훌륭한 교수진들에 의한 교육의 높은 수준에 근거한다. 호주 국내외에서 뛰어난 교수진들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돕고 있다.

▶Queensland

이 곳의 대표적인 대학교로는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와 퀸즈랜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Queensland)를 들 수 있다.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의 본 캠퍼스는 나탄에 위치해 있다. 그리피스 대학교의 캠퍼스들이 있는 퀸슬랜드주는 션사인주로 불리우며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주이다. 온화한 겨울과 아름다운 해변가를 끼고 있는 깨끗한 환경과 함께 무역과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퀸즈랜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Queensland)는 최고의 학위 과정과 연구 과정으로 국제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는 뛰어난 대학 중의 하나이다. 1910년 브리스번에 설립된 퀸즈랜드 대학교는 퀸즈랜드주에 있는 8개 대학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며, 퀸즈랜드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이다. 현재 1900명 이상의 외국 유학생들이 퀸즈랜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퀸즈랜드 대학교는 호주의 어느 대학보다도 석·박사 연구과정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고 있다.

▶Victoria

이 곳의 대학 중에 한국학이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으로는 모나쉬 대학교(Monash University)와 멜번 대학교(The University of Melbourne)을 들 수 있다.

모나쉬 대학교(Monash University)는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와 명성을 동시에 갖춘 학교로서, 연구 과정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성과를 이룩해 왔으며 기타의 분야에서도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제적인 명성에 힘입어 총재학생 40,000여명중 5,000여명 이상의 국제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모나쉬 대학교는 9개의 단과대학과 한 개의 컬리지, 한 개의 비즈니스 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멜번 대학교(The University of Melbourne)는 빅토리아주의 수도 멜번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멜번 대학교에는 34,0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60개국의 서로 다른 나라에서 2,400여명의 해외유학생들도 재학하고 있다. 또한 세계 23개국 95개 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부산대와 제휴하고 있다. 멜번대는 13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대, 예술대, 상경대, 교육대, 이공대, 토양과자원연구대, 법대, 의대, 비즈니스 학교, 음대, 과학대, 수의학대, 빅토리아 예술대 등이다. 더불어 산업계와 정부, 기타 중요기관들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으며, 호주 내에 연구 분야에서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교로서 지난 5년간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해 지원을 받는 제도에서 계속 1위로 선정될 만큼 연구업적에 있어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Western Australia

이 곳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커틴 기술 대학교(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이다.

커틴 기술 대학교(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는 총 20,000 여명의 학생들을 보유한 서호주에서 가장 큰 대학이다. 학부 및 대학원과정에서 다양한 학과를 제공하고 있는 커틴 기술대학교에는 90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서호주에서 유일한 종합기술대학으로 그 학과정의 응용 및 합리성은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커틴 기술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평가는 높으며, 학사학위 소유자의 취업률은 호주 전역의 평균 취업률보다 높다.

②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한국학이나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는 오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Auckaland)가 있다. 오클랜드 대학교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교이다. 110여 명의 교수들을 비롯하여 1천여 명의 강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9백여 명의 행정 직원들이 2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있다. 70% 이상의 재학생이 풀타임(full time) 학생이다. 약 4천여 명의 학생이 대학원생이며, 원주민인 마오리 학생은 7%이고 유학생들의 수는 6~7% 정도이다.

(4) 한국어 기관 정보

① 호주

호주의 한국어 기관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대학 내 부설 기관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둘째, 한국학 연구 기관 내에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한국어 기관으로는 전국 한국학 센터 멜버른 협회(the National Korean Studies Centre in the Melbourne consortium), 호주 국립 대학 내의 한국학 센터(the ANU Centre for Korean Studies), 한국학 센터(the Australian Centre for Korean Studies) 등을 들 수있다.

② 뉴질랜드

호주에 비하여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 기관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한국어 기관은 오클랜드 대학교에 있는 한국어 연구소를 들 수 있다. 한국어 연구소는 1997년에 세워졌는데 현재 소장은 윤홍기 선생님이 맡고 있다.

(5) 인물 정보

① 호주

호주 대학 내의 한국학이나 한국어 강좌를 맡고 있는 분들을 대학 별로 살펴본다.[15]

▶호주 국립 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이 곳에는 Faculty of Asian Studies에 네 분의 교수님이 있다. 한국어와 한국 정치,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Lan'kov 교수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정치, 북한학에 관한 강좌를 맡고 있다. 이덕영(Lee Duck-Young)교수는 한국어와 더불어 일본어에 관한 강좌를 맡고 있다. 신기현(Shin Gi-Hyun) 교수는 Faculty of Asian Studies의 부학장을 맡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어학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Kenneth M. Wells 교수는 남한과 북한의 역사, 언어, 문학이 전공 분야이며, 일본의 제국주의 분야에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Japanese & Korean Studies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 강좌를

15) 여기에서 조사된 인물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 홈페이지(2001.12.18)에 나와 있는 자료와 KSAA학회(2001.9.24~25)에서의 개인 면담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조사된 것임을 밝혀둔다.

맡고 계신 신성철(Seong-Chul Shin) 교수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Gregory Evon 교수는 한국 사회, 문화, 역사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어 고급 과정에서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고소영(soyeung Koh)교수는 한국어 중급 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어 교사 원격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한국어 교사로 김현경(Hyun-Kyung KIM)과 백진(Gene BAIK)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시드니 대학교(The University of Sydney)

시드니 대학교에는 두 분이 한국학과 한국어에 관한 강좌를 맡고 있다. 박덕수(Duk-Soo Park) 교수는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이 전공 분야이며, 특히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심이 많다. 곽기성(Ki-Sung Kwak) 교수는 의사소통, 아시아에서의 매체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퀸즈랜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Queensland)

퀸즈랜드 대학교에는 Faculty of Arts 중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Studies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조사한 바로는 Yuriko Nagata교수가 한국어 강좌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

그리피스 대학교에는 School of Languages and Linguistics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정재훈(Jae-Hoon Jung) 교수와 김종운(Chong-Woon Kim) 교수가 있다. 정재훈 교수는 구조언어학, 화용론, 한국어 문법론과 비교 언어학과 문화가 전공 분야이다. 김종운 교수는 제이언어 습득과, 컴퓨터 보조 학습이 전공 분야며 한국어 CD-rom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나쉬 대학교(Monash University)

모나쉬 대학교에는 School of Asian languages and Studies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다른 대학에 비해 모나쉬 대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김영아(Young a-Cho) 교수는 응용언어학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재 개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인정(Injung-Cho) 교수는 TELL (Technology-enhanced language learning) 한국어 교수 방법 개발, 제이언어 습득과 심리 언어학이 전공 분야다.

▶멜번 대학교(The University of Melbourne)

멜버른 대학교는 Arts Faculty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서의 하나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 강좌는 Alina Skoutarides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16]

▶커틴 기술 대학교(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커틴 기술 대학교는 School of Languages and Intercultural Education(SOLIE)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분은 신규석(Shin, Kyusuk) 교수다. 현재 한국어 강좌와 한국 문화를 담당하고 있다.

16) 멜버른 대학교의 한국어 강좌는 지난 번 보고서 때에는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 본 결과 계속 지속적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외에 한국어 교육을 위해 홍보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필자가 KSAA학회 때 만난 Sook-hee McRoberts를 들 수 있는데 이 분은 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일하시면서 한국어 교육의 중·고등학교 유치 뿐만 아니라 한국어 홍보에도 앞장 서는 분이었다.

②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현재 오클랜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Auckland)와 와이카토 대학교(University of Waikato)[17]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클랜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Auckland)

오클랜드 대학교에는 Faculty of Arts 내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최윤인실(Inshil Choe Yoon) 교수와 이영희(Young Hee Lee) 교수, 송장주(Song Changzou) 교수가 강좌를 맡고 있다. 최윤인실 교수는 한국 사회,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이 관심 분야다. 이영희 교수는 한국의 전통, 현대 여성 문학이 전공이다. 송장주 교수는 한국의 근대 정치와 사회에 관련된 강좌를 맡고 있다.

2.2. 제1권역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18]

2.2.1. 호주

(1) 대학 및 연구소

한국은 현재 호주의 네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며, 동시에 호주는 열한 번째로 큰 한국의 공산품 수출국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교류와 더불어 한국과 호주는 점차적으로 문화, 인적 교류를 늘리고 있다.

1989년 이래로, 한국어는 호주에서 학위 과정의 하나로서 소개되었으며, 1997년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 수가 늘어 거의 600명에 육박하였다. 또한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는 47개의 초등,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으며, 빅토리아 주에서는 18개의 학교, 퀸즈랜드에서는 8개의 학교, 타즈마니아 주에서는 3개의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뉴 사우스 웨일즈 주와 빅토리아 주에서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인 Higher School Certificate와 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에 한국어가 과목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추세에는 호주 정부의 아시아와 아시아학에 대한 정책에 관한 일련의 보고서(The National Asian Languages and Studies in Australian Schools: NALSAS)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보고서 안에는 모든 호주 학생들이 아시아의 역사, 지리,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해서 배

17) 와이카토 대학교의 한국어 강좌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한국어 강좌가 나와 있는데 담당 교수는 Korean tutor로만 나와 있을 뿐 담당자에 대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KSAA학회 때의 개인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18) 본 연구의 자료는 각종 문헌 조사 자료와 개인 면담 조사 자료로 수집한 것이다. 특히 KSAA학회 때 개인 면담에 협조해 주신 호주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워야 한다는 것과 2000년까지는 모든 중, 고등학교에서 아시아 언어 한 가지를 가르쳐야 하며, 특히 일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의 순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한국학 센터를 세울 것을 추천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김영아, 2000).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발전 추세는 1997년을 기점으로 잠시 주춤하게 된다. 그 이후에 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그 전 만큼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이유는 호주 정부가 1996년 선거를 통해 노동당(Labor)에서 자유당(Liberal/National)으로 정권이 바뀐 후 2006년까기 계획된 NALSAS의 잠정적 중단, 그리고 한국의 경제 위기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어 교육의 외적인 이유이고, 실제로는 한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은 점,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대학까지의 한국어 수업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어 수업 연계의 문제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한국어 과정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정부의 지원이 없어지면서 일본어, 중국어 등과 공개 경쟁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번 학기에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경우만 해도 초등학교 4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대학 내의 한국어 교육의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아마도 이러한 초·중·고등학교의 얼운 상황은 한국어 교사 수의 절대 부족[19]과 한국어 교사 연수 지원의 미비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아시아에 관련된 학과에 소속되어 개설되었다. 호주 국립 대학(ANU)은 1960년대 이후에 한국 역사 강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980년 이후에는 한국어 코스를 시작하였다. 호주 국립 대학(ANU)을 제외한 다른 대학들의 한국학 관련 학과는 10년 전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10 여년 동안 주로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한국학에 관한 과정이 많은 대학에서 생겨났다.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 퀸즈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빅토리아주의 네 대학의 연합(Swinburne, Melbourne, Monash and La Trobe), 시드니 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UNSW), 커틴 기술대학교(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이 시기에 한국어 강좌가 설치되었다[20]. 이와는 별도로 본드 대학교(Bond University)에서도 한국어 강좌에 대한 소규모의 활동이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이나 한국어 관련 연구소는 1990년대에 들어 그 수가 급증하였는데 전국 한국학 센터 멜버른 협회(the National Korean Studies Centre in the Melbourne consortium)가 1990년에 발족했으며, 1994년에는 호주 국립 대학교 내에 한국학 센터(the ANU Centre for Korean Studies)가 생겨났다. 그리피스 대학교에도 1996년에 한국학 센터(the Australian Centre for Korean Studies)가 세워졌다.

1992년에는 호주와 한국 정부 사이의 협정에 의해 호한 재단(Australia-Korea Foundation : AKF)이 캔버라에 세워졌으며, 같은 시기에 한호 재단(Korea-Australia Foundation)이 서울에 설립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오스트랄라시아 한국학 협회(the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KSAA)가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호주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 현재 호주 전역에 약 15명의 한국어 자격 교사가 있다고 한다(문화 관광부, 2000a).

20) 현재 본드(Bond) 대학교와 라 트로베(La Trobe) 대학교의 한국어 과정은 없어졌다.

대학	소속학과	기타 사항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ANU)	Faculty of Asian Studies	*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는 2000년 이후 한국어 강좌가 없어짐 * University of Adelaide는 한국어 강좌가 1993년에 없어짐. * University of Melbourne은 Arts Faculty에 한국어 강좌가 있으나 실제 강좌가 진행되는지 확인되지 않음.
Monash University	School of Asian Languages & Studies	
Griffith University	School of Languages and Linguistics	
University of Queensland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 Studies	
University of Sydney	School of Asian Studies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School of Languages and Intercultural Educatio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Japanese & Korean Studies	

위의 도표의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호주 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설치 학과명 : The ANU Center for Korean Studies로 1979년 개설되었으나 현재는 Faculty of Asian Studies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음.
- 교수 : Lan'kov, 이덕영(Lee Duck-Young), 신기현(Shin Gi-Hyun), Kenneth M. Wells
- 개설 강좌 : Spoken Korean 1 and 2 in Year 1 / Spoken Korean 3 and 4 and Written Korean A and B in Year 2 / Written Korean C and D in Year 3
- 특징 : Background Speaker와 Non Background Speaker를 나누어 교과 과정을 따로 설정하고 있음

▶모나쉬 대학교(University of Monash)
- 설치 학과명 : School of Asian Languages & Studies로 1990년에 개설됨.
- 교수 : 김영아(Young a-Cho), 조인정(Injung-Cho)
- 개설 강좌 :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여 1, 2, 3학년 동일하게 1주일에 5시간씩 수업함.
- 특징 : 호주 국립 한국학 센터에서 설립한 한국학 센터(the National Korean Studies Center)가 있음.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
- 설치 학과명 : School of Languages and Linguistics로 1990년에 개설됨.
- 교수 : 정재훈(Jae-Hoon Jung), 김종운(Chong-Woon Kim)
- 개설 강좌 : 한국어[22]

21) 여기에서 조사된 것은 한국 학술 진흥 재단의 자료(1999. 3/4분기)와 각 대학의 홈페이지(2001.12.18)를 통해 얻은 자료임을 밝혀둔다.

- 특징 : 한국 연구 중·단기 사업으로 1996년 2월에 한국학 센터(the Australian Centre for Korean Studies)가 세워짐

▶퀸즈랜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Queensland)
- 설치 학과명 :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Studies로 1990년에 개설됨.
- 교수 : Yuriko Nagata
- 개설 강좌 : 한국어
- 특징 : the Faculty of Arts 내에 있는 IML(the Institute of Modern Languages)에 한국어 강좌가 있음[23].

▶시드니 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 설치 학과명 : Korean Studies, School of Asian Studies로 1991년 개설됨.
- 교수 : 박덕수(Duk-Soo Park), 곽기성(Ki-Sung Kwak)
- 개설 강좌 : 한국어 6개 강좌, 고대사, 근대사, 문학, 문법, 한국의 매스미디어
- 특징 : 2002년도부터 한국어 교육 전공의 석사 과정을 새롭게 개설함.

▶커틴 기술대학교(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 설치 학과명 : School of Social Science & Asian Languages로 1991년 개설되었으나 현재는 School of Languages and Intercultural Education에서 한국어 강좌가 진행됨.
- 교수 : 신규석(Shin, Kyusuk)
- 개설 강좌 : 한국어(수준별 학습), 한국학(한국문화, 아시아 사회, 아시아 비즈니스, 사회언어학)

▶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설치 학과명 : Department of Japanese and Korean Studies로 1994년에 개설됨.
- 교수 : 신성철(Seong-Chul Shin), Gregory Evon, 고소영(soyeung Koh)
  김현경(Hyun-Kyung KIM), 백진(Gene BAIK)
- 개설 강좌 : KORE1000 - Korean Communication 1A / KORE1001 - Korean Communication 1B / KORE1100 - Structures of Korean Language A / KORE1101 - Structures of Korean Language B / KORE2000 - Korean Communication 2A / KORE2001 - Korean Communication 2B / KORE2601 - Gender & Politics in Korean Society / KORE3000 - Korean Communication 3A / KORE3001 - Korean Communication 3B / KORE3400 - Intermediate Korean A / KORE3401 - Intermediate

22) 1999년 한국 학술 진흥 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7개의 강좌(5개의 한국어 강좌와 2개의 intership in Korea)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23) 2002년 여름 학기 코스를 보면 Korean level 1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국어의 발음과 문법 구조, 의사 소통 등의 여러 가지를 초급자를 대상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다. 교재는 Colloquial Korean, Routedge를 사용한다고 한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7시~9시)로 나와 있다(http://www.iml.uq.edu.au/courses.html).

Korean B / KORE3500 - Advanced Korean A / KORE3501 - Advanced Korean B / KORE3600 - Korean for Special Purposes A / KORE3601 - Korean for Special Purposes B / KORE3900 -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Advanced) / KORE3901 - Special Topics in Korean Studies / KORE4000 - Honours in Korean Studies / KORE2500 - Korean Civilisation & Culture / KORE2600 - Modern Korean Society / IBUS2104 - Korean Business

- 특징 : 현재 한호연구소(Korea Australasia Research Center: KAREC)가 설치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2) 학회 및 기관

지난 수년 간 호주의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 강좌와 함께 한국학 센터가 설립된 학교가 늘어갔는데, 이러한 한국학 센터나 한국어 강좌의 대부분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한국학 기관으로는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UNSW)의 KAREC(the Korean-Australasia Research Centre)과 그리피스 대학(Griffith University)의 CKS(the Centre for Korean Studies)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학은 아시아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등의 지역학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여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으로는 호주 국립 대학(ANU)의 RSPAS(the Research School of Pacific and Asian Studies), 그리피스 대학(Griffith University)의 CSAAR(the Centre for the Study of Australia-Asia Relations), 모나쉬 대학(Monash University)의 ABRU(the Asian Business Research Unit)와 AFRU(the Asia Finance Research Unit) 등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호주 국립 대학(ANU)의 AJRC(the Australia-Japan Research Centre)에서는 북한 학생들과 연구진과의 교환, 협력을 위한 NCDS(the National 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멜버른의 대학 연합에서 1990년에 설립한 NKSC(the National Korean Studies Centre)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4년에는 KSAA(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가 결성되었는데, 현재 대학교, 학교, 경영 분야, 주정부 등에서 55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는 2년에 한번씩 전국학회를 열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또, 이 학회는 한국 대사관과 호한 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호주 도서관 협회(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와 한국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학 관련 기관이나 학회는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과 한국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한국어 강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3) 개인

호주에서는 대학 내의 개인과 부설 기관 등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개인의 활동은 대학 내의 한국어 과정이나 한국학 센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에는 호주 국립 대학교의 신기현, 시드니 대학교의 박덕수, 그리피스 대학교의 정재훈,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신성철,

커틴 기술 대학의 신규석, 모나쉬 대학교의 조인정, 김영아 교수 등을 들 수 있다[24].

호주 국립대학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학의 일부인 한국 역사를 1960년대부터 강좌를 열었으며 1980년대부터 한국어 강좌를 시작했다. 호주 국립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활성화된 것은 신기현 교수의 힘이 컸다고 할 것이다. 신기현 교수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학의 전공자로서 현재 Korean A,B,C,D 코스와 Accelerated Korean A,B 코스의 강의를 맡고 있다. 또한 한국어 프로그램의 책임자이면서 호주 대학교 학생들의 위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 중이다. 신기현 교수의 연구 분야는 한국어 문법, 화용론, 사회 언어학, 특히 화행에서의 문화적 특이성 등이다.

그는 또한 커틴 기술 대학교의 부조(Adrian Buzo) 교수와 함께 한국어 교재를 출판했는데, 많은 호주 대학에서 이 교재를 강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25]. 이 외에도 모나쉬 대학교의 김영아 교수와 함께 A Reader in Korean for the Advanced Learners.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Project.(1997. 490 pp)를 출판했으며, 현재는 언어와 문화(Language & Culture)를 준비 중이다.

신기현 교수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와 호주 대학교와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화여자대학교, 계명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림대학교 등과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26].

현재 신기현 교수는 KSAA(the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ia), ALS(the Australian Linguistic Society)와 호주 국립 대학교의 Faculty of Asian Studies 내의 Education Committee, Language Committee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호주 국립 대학교 한국학 센터(ANU Centre for Korean Studies)의 회원이며, 현재 호주 국립 대학교 Faculty of Asian Studies의 부학장(Sub Dean)을 맡고 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박덕수 교수는 Korean Studies (in School of Asian Studies)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어 교재 개발이며, 현재 KSAA의 회원이면서 재무 담당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그리고 박덕수 교수의 노력으로 시드니 대학교에 2002학년도부터 한국어 교육의 석사 과정이 신설되었다[27].

---

24) 이상 언급한 호주 대학 내 교수들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활동을 조사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 중 몇 분의 선생님들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 도움을 주신 신기현, 김영아, 조인정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25) (With A. Buzo). *Learning Korean: New Directions*. Books 1, 2 and 3. National Korean Studies Centre. Melbourne. 1994. 792 pp. (Currently under revision)
(With A. Buzo) Learning Korean: New Directions Advanced Study Modules 1, 2 & 3. National Korean Studies Centre. Melbourne. 1995. 158 pp.

26) 1999: Visited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and negotiated successfully for having a student exchange agree-ment between Ewha and the ANU.
1999: Visited Keimyung University, Taegu, Korea and negotiated successfully for having a student exchange agreement between Keimyung and the ANU.
1999: Visite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and negotiated successfully for having a student exchange agreement between Hankuk and the ANU.
1995: Visited Hallym University, Chunchon, Korea, and negotiated successfully for having a student exchange agreement between Hallym and the ANU.

27) 새로 신설되는 한국어 교육 석사 과정의 강좌명은 다음과 같다.
KRNS 7001: Korean Phonology / KRNS 7002: Korean Grammar / KRNS 7003: Korean Sociolinguistics / KRNS 7004: Korean Language Teaching Practicum / KRNS 7005 Directed Research in Korean / KRNS 7010: Dissertation Part 1 and / KRNS 7011: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에는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CKS(the Centre for Korean Studies)가 있다. 이 대학의 정재훈 교수는 이 기관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면서 그리피스 대학 내의 한국어 강좌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정재훈 교수의 연구 분야는 구조 기능 언어학, 화용론, 한국어 문법, 비교 언어학, 언어와 문화 등이다.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의 신성철 교수는 오랫동안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 강좌의 책임자이면서 KAREC과 KSAA의 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한 강좌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KAREC의 한국어 관련 연구 프로젝트(Error Analysis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ey Areas of difficulty)를 담당하고 있다.

커틴 기술 대학의 신규석 교수는 현재 School of Languages and Intercultural Education에서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28].

호주의 교육에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넓은 국토 때문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원격 교육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모나쉬 대학교는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첨단 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호주에서는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 강좌를 시작하였으며 실제 오프 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이 가장 발달한 대학 중의 한 곳이다. 이러한 모나쉬 대학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는 조인정 교수와 김영아 교수의 공로가 크다[29].

두 교수는 지금 Virtual Centre for Learning & Teaching Korean[30]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크게 코스에 대한 소개와 한국어 학습 자료, 그리고 한국어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나 학회의 자료를 올려 놓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 많은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상에 올려 놓았다[31].

또한, 현재 TALKING TO KOREANS: Online Korean Course를 개발 중인데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인정 교수와 김영아 교수는 공동으로 한국어 듣기 교재인 Korean Through Active Listening Book 1, 2(1994)를 개발하였다. 영역별 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에서도 국

Dissertation Part 2 / LNGS7001 Language Analysis / LNGS7006 Cross-cultural Communication / LNGS7272 Additional Language Learning / LNGS7273 Additional Language Teaching

28) 커틴 기술 대학의 경우 현재 한국어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강좌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전적으로 신규석 교수의 힘이 크다고 할 것이다.

29) 호주 모나쉬 대학교의 웹 기반의 한국어 교육은 역사도 오래되었고 실제 그 내용도 충실한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

30) http://www.arts.monash.edu.au/korean/centre/about/index.html

31) · CAUT funded *Internet Based Language Learning* Project for advanced Korean. (http://www.arts.monash.edu.au/korean/homun/)
· Korean web-delivered course (part of Innovative teaching of Asian Languages of low enrolment- Korean, Thai, Vietnamese) (http://www.arts.monash.edu.au/korean/korean3/)
· Korean homepage (http://www.arts.monash.edu.au/korean/)
· The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web site (http://www.arts.monash.edu.au/korean/ksaa/)
· The second biennial conference of the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http://www.arts.monash.edu.au/korean/ksaa/conference/index.html)

내의 한국어 교재가 통합 교재 중심인 것을 감안할 때 일찍이 영역별 교재를 개발했다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32].

이 외에도 호주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분으로는 서던 퀸즈랜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의 Centre for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에 있는 손정배 교수를 들 수 있다. 손정배 교수의 관심을 갖는 실제 연구 분야는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이지만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33].

2.2.2. 뉴질랜드

(1) 대학 및 연구소

뉴질랜드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89년 오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Auckland)에서 Yonkang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School of Asian Studies의 한 분과로 한국어 강좌가 설치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뉴질랜드의 언어 정책에 관한 보고서(1992) 이후 더욱 발전하게 된다.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발간된 Aotearoa: Speaking for Ourselves은 크게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영역은 - Revitalization of the Maori language, Second-Chance adult literacy, Children' ESL and first language maintenance, Adult ESL, National capabilities in international languages, Provision of services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 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과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한국어를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등과 함께 Tier Ⅱ에 포함시켰다. Tier Ⅰ에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이 포함되었다. 이것을 문화적 영향력, 국제적 영향력, 문화·관광의 단계 등의 기준을 통해 나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1996년부터 제이언어 학습 프로젝트(the Second Language Learning Project)를 뉴질랜드 전역의 116개 학교에서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약 2년 반 정도 지속되었

---

32) 또한, 현재 출판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교재를 모나쉬 대학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Cho, Young-A, I. J. Cho and D. Ling. 1996. *My Korean 1*. (242 pages)
Cho, Young-A, I. J. Cho and D. Ling. 1996. *My Koreans 2*. (172 pages)
Cho, Young-A, I. J. Cho and D. Ling. 1996. *My Koreans 3*. (122 pages)
Cho, Young-A, I. J. Cho and D. Ling. 1996. *My Koreans 4*. (161 pages)

33) Son, J. -B. (2001). Software Review: Beginning and Continuing Korean. CALICO Journal, 19 (1), 126-137.
Son, J. -B. (1999, September). Using e-mail exchanges to enhance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esented at the 1st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KSAA) Conference,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Published in Proceedings: 271-278.
Son, J. -B. (1996, July). An investigation of the screen layout of computer-assisted Korean language learning software: Designing the computer-learner interface. Presented at the 10th Annual Meeting of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ICKL), Griffith University, Brisbane, Australia.
Son, J. -B. (1996, July). A report on a computer-assisted Korean reading practicum: Implementing computer-assisted language instruction. Presented at the Pacific and Asia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PACKS), The University of Sydney, Sydney, Australia.
Son, J. -B. (1995). An approach to CALL software for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orea Observer, 26 (4), 555-578.

는데 한국어는 1997년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었다. 1997년 초기에는 11개 학교(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3개교)에서 시범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7명의 한국어 원어민 교사가 뉴질랜드 언어 교사에게 재교육을 받은 후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이 때, 한국어를 가르치는 뉴질랜드 교사의 수는 23명이었다. 당시의 학생수는 11개 학교 980명이었으며, 수업은 일주일에 평균 1.5시간이었다. 1998년에는 더욱 활성화되어 9명의 한국어 원어민 교사가 14개의 학교에서 2790명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당시에는 77명의 뉴질랜드 교사도 한국어를 가르쳤다.

이러한 흐름은 대학교 내의 한국어 강좌의 설치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오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Auckland)의 한국학 연구소(1997), 와이카토 대학교(the University of Waikato)의 한국어 강좌(1998) 등이 이 당시에 생겨났다. 또한, UNITEC의 부설 영어연수 학교인 UNITEC School of Language에서도 1년 과정의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어 인기를 끌었다. 특기할 사항은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정규과정을 끝내고 한국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연수를 마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발전은 1997년 한국의 경제 위기 사태가 오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재정적 지원이 줄어들면서 2000년 이후에는 14개였던 학교 수가 절반(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한국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점과 한국어 프로그램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뉴질랜드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학	소속학과	기타 사항
University of Auckland	School of Asian Studies	* University of Waikato의 Department of East Aaian Studies의 한국어 강좌는 실제 진행되는지 확인되지 않음
UNITEC	UNITEC School of Language	

위의 도표에서 나타난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4].

▶오클랜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Auckland)
- 설치 학과명 : Faculty of Arts 내에 개설됨.
- 교수 : 최윤인실(Inshil Choe Yoon), 이영희(Young Hee Lee), 송장주(Song Changzou)
- 개설 강좌 : · Korean I
(KOREAN 100 - Korean For Beginners / KOREAN 103 - Korean Study Abroad I / KOREAN 120 - Korean Society and Culture (taught in English) / KOREAN 121 - Thought and Religion in Korea)
· Korean II

34) 와이카토 대학교(The University of Waikato)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1996년에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한국학 전공)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학 강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KOREAN 200 - Intermediate Korean A / KOREAN 201 - Intermediate Korean B / KOREAN 202 - Intermediate Aural and Oral Korean / KOREAN 204 - Translation into Modern Korean / KOREAN 230 - Traditional and Modern Korean Literature (taught in English) / KOREAN 240 - Korean Special topic / KOREAN 277 Korean Study Abroad IIA / KOREAN 278 Korean Study Abroad IIB)

· Korean III

(KOREAN 300 A + B - Advanced Korean A / KOREAN 301 Translation from and into Modern Korean / KOREAN 302 - Advanced Korean B / KOREAN 304 - Translation from and into Modern Korean /KOREAN 340 - Korean Special Topic / KOREAN 377 - Korean Study Abroad IIIA / KOREAN 378 - Korean Study Abroad IIIB)

(2) 학회 및 기관

뉴질랜드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학 기관으로는 오클랜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Auckland)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한국학 센터(the Korean Studies Centre)를 들 수 있다. 이 한국학 센터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는데 이 기관은 경제나 무역 등의 분야보다는 한국어 교육과 지역학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개인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오클랜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최윤인실 교수는 한국어 강좌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연구 분야는 한국어 교육과 교재 개발, 한국의 사상과 인식, 기독교와 한국 사회 등이다.

2.3. 제1권역 단위기지 구성안

2.3.1. 제1단위기지 모형

본 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양주 지역에서의 전체 현황과 한국어 교육 및 그 연구 현황을 기초로 대양주 지역의 단위 기지의 구성안을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한다[35].

우선 대양주 지역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설문 자료를 분석하고 대양주 지역의 단위 기지 모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국내의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 반해 현재 대양주 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1990년 초반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언어 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했던 한국어 교육은 1997년 한국의 경제 위기 이후 상황이 악화되어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 내의 한국어 강좌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 주나 빅토리아 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 등은 그나마 한국 교민 사회가 형성되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부진을 보이고 있는 실

35) 대양주 지역 전체에 대한 단위 기지 구성안이기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합쳐서 제시하기로 한다.

정이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연계를 통한 교수·학습 자료의 공동 개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단위 기지의 구성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위 기지 구성의 필요성은 2001년 9월 24일부터 25일에 걸쳐 열린 KSAA의 학회에 참석한 한국어 관련 연구자들의 설문 결과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36].

이 중 단위 기지 구성안과 관련한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5-10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귀하가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에서 앞으로 한국어 학습자나 연구자에 대한 수요는 어떠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①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②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다.
③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 ①(4) / ②(3) / ③(4) / ④(4)

8. 현재 귀하께서 활동하고 계신 지역내(대양주)에서 한국어 교육 및 연구 담당자간의 교류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활발하다. ② 활발하다. ③ 활발하지 못하다. ④ 전혀 활발하지 못하다.

- ① / ②(3) / ③(9)

9. 한국어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개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내외의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기타 의견 ( )

- ①(12) /

10. 권역별(대양주) 네트워크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기존 학회를 그대로 활용한다.
② 기존 학회에 전문 분과 모임을 두고 운영한다.
③ 기존 학회를 활용하되, 인적으로 재구성을 한다.
④ 관련 지역내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린 뒤, 별도 모임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⑤ 기타 ( )

- ①(2) / ②(3) / ③(2) / ④(6)

11. 권역별(대양주) 네트워크의 모임 성격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동 연구 및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 형식
② 개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 형식
③ 정기적인 세미나 형식(매월 1회 정도)
④ 부정기적인 심포지엄 형식
⑤ 개인의 교육 경험을 교환하는 자유토의 형식
⑥ 기타 ( )

- ①(9) / ②(3) / ③(2) / ④(3) / ⑤(3) / ⑥ 교육 자료 센터식 기관 운영

12. 권역별(대양주) 네트워크 구성과 상호 교류를 위한 효율적인 모임 형태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

36) 본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한다.

하십니까?

① 1-2년마다의 학술대회
②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학술대회나 워크숍
③ 1년에 3-4회(분기별) 정도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④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월례 모임이나 세미나
⑤ 기타 ( )

- ① / ②(7) / ③(4) / ④ / ⑤(지역별 모임 활성)

13.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대양주 내에서 가장 시급한 공동의 연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교육과정 개발 ② 교재 개발 ③ 사전 편찬
④ 교육 · 연구자의 양성 ⑤ 교사 양성 및 연수 ⑥ 한국어 수강생 확대 방안
⑦ 교수 · 학습 방법 개발 ⑧ 평가 방법 개발
⑨ 기타 ( )

- ① 교육과정 개발(3) ② 교재 개발(7) ③ 사전 편찬(1) (문법 사전)(1)
④ 교육 · 연구자의 양성(2) ⑤ 교사 양성 및 연수(5) ⑥ 한국어 수강생 확대 방안(7)
⑦ 교수 · 학습 방법 개발(11) ⑧ 평가 방법 개발(2)

14.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과 대양주의 한국어 교육 · 연구자들간에 가장 시급한 공동의 연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교육과정 개발 ② 교재 개발 ③ 사전 편찬
④ 교육 · 연구자의 양성 ⑤ 교사 양성 및 연수 ⑥ 한국어 수강생 확대 방안
⑦ 교수 · 학습 방법 개발 ⑧ 평가 방법 개발
⑨ 기타 ( )

- ① 교육과정 개발(5) ② 교재 개발(9) ③ 사전 편찬(3)
④ 교육 · 연구자의 양성(3) ⑤ 교사 양성 및 연수(5) ⑥ 한국어 수강생 확대 방안(6)
⑦ 교수 · 학습 방법 개발(7) ⑨ 학교수 확보 / 네트워크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대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은 단위 기지 구성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위 기지 구성의 필요성을 동감하게 된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설문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대양주에서의 한국어 교육 상황의 위기 인식을 들 수 있다. 지금 현 상황대로 한국어 교육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한국어 교육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단위 기지의 구성을 통하여 그 동안 설치 운영되어 왔던 한국어 교육 연구소나 기관, 학교 등에서 시행되어 온 한국어 교육의 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관리 · 지원하는 중심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그 동안 한국어 교육 연구자나 기관들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과 개인과 지역 내의 한국어 교육의 한계와 현실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둘째는 교재 개발, 교수 · 학습 방법의 개발 등의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위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단위 기지의 구성을 통하여 대양주 내의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이 함께 앞서 언급한 실제 교육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

결할 수 있는 공동 연구 과제 선정, 연구 개발하자는 것이다.

또한, 설문 결과를 통해서 대양주 지역에서의 단위 기지의 전반적인 틀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단위 기지의 구성(안)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양주 지역내의 개별 모임을 통하여 단위 기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단위 기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한국어 교육의 성격과 실제 부합하는 단위 기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내의 모든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구성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단위 기지를 구성하는 데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즉, 단위 기지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필요한 지원 경비, 인적 자원의 투입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소나 학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대양주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나 학회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하위 분과를 새롭게 구성하고 한국어 교육에 관련한 인적 자원을 그 분과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앞서 제시한 단위 기지의 구성안보다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이 한국학이나 다른 분야의 하위 분야로 들어가 한국어 교육의 성격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의 구성(안)의 절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양주 지역에서의 한국어는 현재 지역에 따라 한국학의 하위 분야로 인식되어 한국학과 함께 연구·교육되는 경우와 한국어 교육이 한국학을 이끄는 토대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연구·교육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후자의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전자의 경우로 상황이 바뀐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변화의 인식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이 대양주 지역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학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역사, 경제, 사회, 문화 등과 함께 연구되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한국학의 기본이 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 내의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과 한국학 연구소나 학회의 연계를 통한 단위 기지의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내의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자들이라는 인적 자원과 연구소나 학회라는 기관의 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한국어 단위 기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단위 기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경비 등의 물적 자원을 절약하면서 한국어 교육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성(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양주 지역내의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소나 학회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양주 지역내의 연구소나 학회 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는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내에 있는 KAREC(Korea Australasia Research Centr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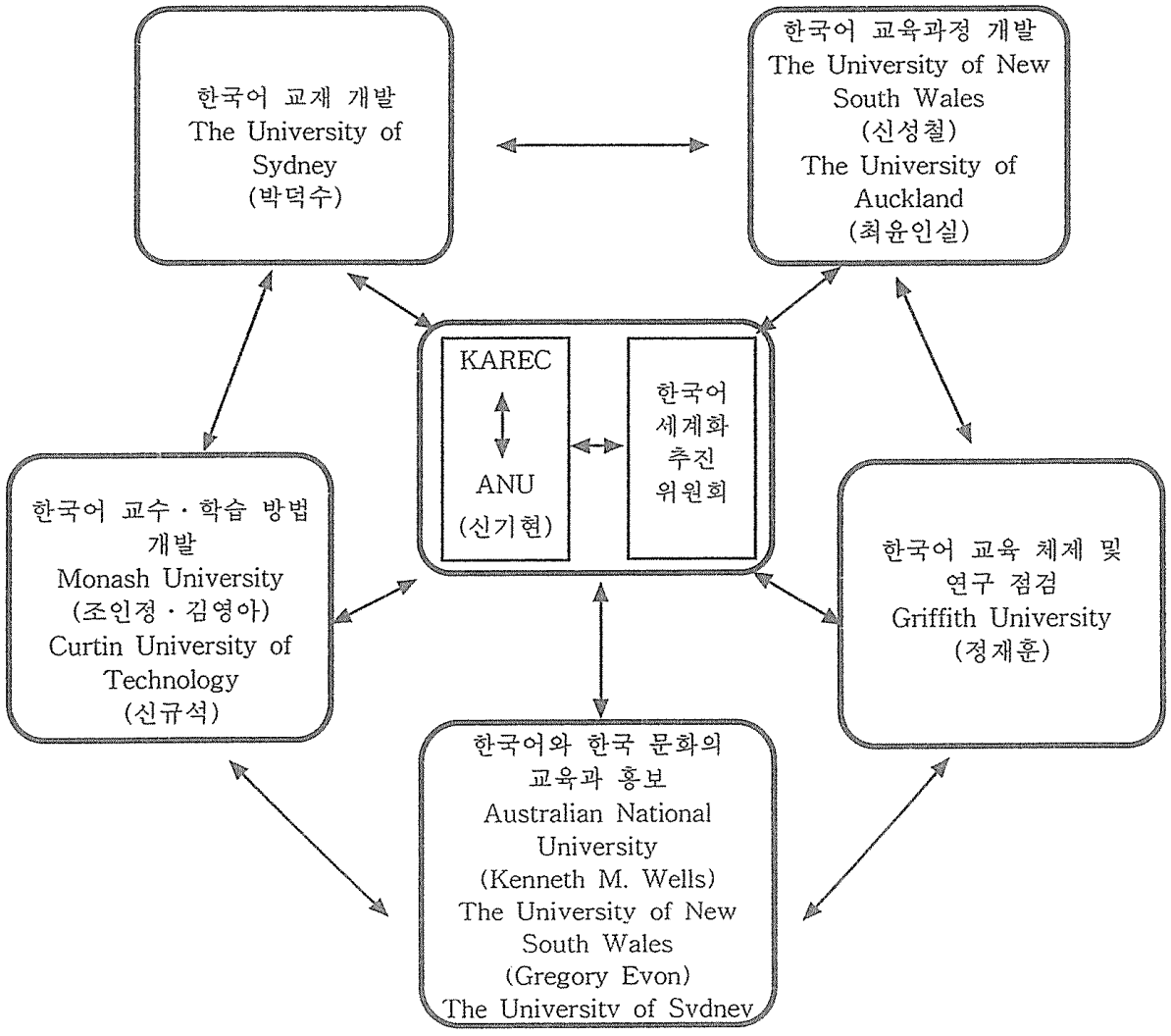
KAREC은 한국학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연구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2001년 2월는 "오세아니아와 동남 아시아의 한국학: 연구와 교육에서의 전략적 협력(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특히, 이 심포지엄에서는 우리가 현재 구상하는 단위 기지와 비슷한 운영 기지(Operation Base)와 네트워크(Network)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즉, 한국학의 효율적인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는 단위 기지와 비슷한 성격의 중심 기지가 권역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AREC과 대학 내 한국어 연구자들을 연결하는 대양주 지역 내의 한국어 단

위 기지 모형을 제시한다. 한국어 단위 기지 모형은 실제적으로 총괄을 맡게 되는 한국어 연구자와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 내의 KAREC을 기본 축으로 각 대학 내의 한국어 연구자들을 연결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각 대학 내의 한국어 연구자들은 한국어 교재 개발과 한국어 교수·학습 개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 문화, 매스 미디어 교육, 인터넷 교육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포함될 것이다.

대양주 지역내의 단위 기지 안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1 권역(대양주)의 단위기지(안)>



2.3.2. 단위기지 설정의 근거

위에서 제시한 단위 기지의 모형은 다음의 절차와 근거를 토대로 구안되었다.

우선, 각 대학 내의 한국어 연구자들의 관심 분야와 단위 기지 내에서 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서로 연결한 후, 총괄하는 책임자의 단위 기관과 각 과제를 맡은 단위 기관을 방사형의 형태로 연결하는 형태가 최종적인 대양주의 단위 기지의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 일은 단위 기지 내에서 개발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 주요 과제는 앞서 제시한 설문 결과와 대양주 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 종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선정하였으며, 그 과제로는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 체제 및 연구 점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교육과 홍보 등을 들었다[37].

다음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과제와 그 분야의 책임을 맡을 단위 기관의 책임자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KAREC과 연계하여 한국어 단위 기지를 총괄하게 될 책임자는 호주 국립 대학교의 신기현 교수로 결정했다. 신기현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호주 국립 대학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을 가장 오래 전부터 시작한 대학이며 이 한국어 과정의 책임자인 신기현 교수는 그동안 호주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이다. 또한 현재 KAREC의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시드니 대학교의 박덕수 교수는 주된 연구 분야가 교재 개발이므로 단위 기지 내의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인 한국어 교재 개발의 책임자로서 적합하다. 이미 박덕수 교수는 한국어 교재 개발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가했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의 신성철 교수와 오클랜드 대학교의 최윤인실 교수는 대양주 내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책임자를 맡는다. 위의 두 교수는 이미 오랫동안 대양주 지역 내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교수의 노력에 힘입어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과 오클랜드 대학은 대양주 지역에서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대학교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과제는 모나쉬 대학교의 조인정, 김영아 교수와 커틴 기술대학의 신규석 교수가 맡는 것으로 하였다. 대양주 지역은 그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과 더불어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방법이 발전되어 왔다. 현재 조인정, 김영아 교수는 한국어 교육 관련 사이트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모나쉬 대학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양주 지역 내의 다양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틴 기술 대학 신규석 교수는 대양주 지역내의 한국어 교육의 초창기 연구자로서 오랜 기간을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커틴 기술 대학 내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 체제 및 연구 점검의 과제는 그리피스 대학교의 정재훈 교수가 담당한다. 한국어 교육 체제 및 연구 점검은 대양주 지역내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결과물(교재, 교수·학습 방법,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평가

3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4.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경력 활동이 있는 정재훈 교수야말로 이 과제의 적임자라고 생각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교육과 홍보는 호주 국립 대학교의 Kenneth M. Wells교수와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의 Gregory Evon 교수, 시드니 대학교의 곽기성 교수가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Kenneth M. Wells 교수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정열을 가지고 있는 호주 내의 가장 유명한 한국학 연구자이다. Gregory Evon 교수는 사우스 웨일즈 대학에서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강의를 할 정도로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이해력이 넓은 학자이다. 곽기성 교수는 주된 연구 분야인 매스 미디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홍보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절차와 근거를 토대로 제시한 것이 위에서 제시한 대양주 지역내의 단위 기지 모형이다.

2.4. 제1단위기지의 주요 개발 및 보급 과제

2.4.1.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인 셈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발은 교재 개발이나 실제 교육 현장의 방향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양주 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은 중요한 과제이자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과는 달리 대양주 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그 권역 내의 한국어 교육 상황의 특성, 예를 들어 학습자의 특성과 모국어의 영향 등을 고려하고 그간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양주 지역내의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의 활발한 상호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 파악이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성철 교수와 최윤인실 교수를 중심으로 대양주 지역 내의 한국어 교육 실태 파악이 조사되어야 하고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자료 등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4.2.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더불어 한국어 교재의 개발은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실제 교육과정의 개발이 끝난 후에 그에 따른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이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난 후에 제시되는 교육과정의 틀에 맞추어 교재 개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재 개발의 중요성은 앞서 제시되었던 설문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 때의 교재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적이고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교재를 교과서로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는 큰 잘못이다. 교재라면 특정 내용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유형·무형의 교육 자료와 기자재 및 도구와 기구를 모두 포함한다.

즉, 실제 수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교과서와 다양한 교육 기자재 등이 모두 교재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많은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통합 교재에 이어 언어권별, 영역별 교재, 기능별 교재 등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교재가 개발되고 있다. 언어권별 교재는 학습자의 모국어를 고려할 경우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이끌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교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언어권별 교재 개발이 좀 더 세분화된 학습자의 국가별, 문화권별에 따른 교재를 개발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적인 작업으로서 권역별 단위 기지를 통한 권역별 교재 개발은 이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대양주 지역내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모국어, 문화와 생활 관습 등을 반영한 권역별 교재가 개발된다면 한국어 학습자의 동기 유발 차원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KAREC과 연계된 박덕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재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2.4.3.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 종사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은 학습자의 이해를 통한 동기 유발부터, 교수·학습의 내용의 조직 등의 이론 영역부터 한국어의 발음이나 맞춤법, 문법 등을 가르치는 기술, 교수·학습 내용에 따른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는 등의 실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대양주 지역에서는 특히 지리적인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원격 교육이 발전되었다.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도 이러한 대양주 지역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WBI(Web Based Instruction) 등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인정, 김영아, 신규석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4.4. 한국어 교육 체제 및 연구의 점검

한국어 교육 체제 및 연구의 점검은 그 동안 대양주 지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과제이다.

우선적으로 대양주 지역 내에서 진행되어 온 한국어 교육의 체제에 대해 평가해보고 그 동안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실제 한국어 수업 현장과 이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양주 지역내에서도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어 교육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한국어 교육 기관과 한국어 교육 관련 자료 등이 개발되었다. 이제는 초창기의 급격한 확산의 시기가 아닌 체제를 정비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되어왔던 다양한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즉, 한국어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역할을 정재훈 교수를 중심으로 한 단위 기지에서 해야 할 것이다.

2.4.5.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교육과 홍보

대양주 지역내의 한국어 교육 단위 기지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문화의 교육과 홍보이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은 단순히 한국어만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사회·문화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 대양주 지역에서는 한국학의 하위 분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한국 문화에 관한 교육과 연구는 이제 한국어 교육의 한 영역으로 들어와 한국어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 문화의 교육과 홍보도 또한 Kenneth M. Wells와 Gregory Evon, 곽기성 교수를 중심으로 한 단위 기지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3. 제2권역(동부 유럽)의 현황과 단위기지 구성안

3.1. 제2권역(동부 유럽)의 전체 현황[38]

3.1.1. 제2권역의 현황 개요

제2권역에 해당하는 동부 유럽의 경우 한국어 교육이나 연구의 여건이 여타 지역에 비해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동부 유럽권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기관(전공자 또는 파견교수)은, 폴란드의 경우 포츠난 대학교(반체로프스키)와 바르샤바 대학교(오가렉 최, 로무알트 후스챠),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김희열), 헝가리 대외무역대학(오슈와트 가보르), 체코 카렐 대학교(푸첵),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교(최권진, 야짜니),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대학교(유호창), 바베스-볼리야 대학교(이경숙)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동부 유럽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현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취업과 학문적 관심에서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불가리아의 경우 현지 한국 기업의 영향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학생들과 대학 측의 관심이 지대한 편이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어 내지는 한국학 전공자들의 역할이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밖에 대부분의 동부 유럽 지역 국가들에서는 한국어 수강생의 확보 방안, 교재개발,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다.

3.1.2. 폴란드

면적 31만 3027㎢. 인구 3869만 4000명(1999). 인구밀도 123.7명/㎢(1999). 정식명칭은 폴란드 공화국(Polish Republic)이다. 수도는 바르샤바이며 폴란드 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북동쪽으로 러시아 연방, 동쪽으로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남쪽으로 슬로바키아, 체코, 서쪽으로 독일에 접하며, 북쪽은 발트해에 면한다. 남북길이 649km, 동서길이 689km로 거의 4각형의 국토를 이룬다.

폴란드는 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수위를 다투는 문화국가로, 국민들은 그 역사적 배경에서 배양된 불굴의 국민정신을 지니고 있다. 과거 공산권 내에서 폴란드가 비(非)스탈린 화(化) 반란의 기초를 만들고,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카톨릭 교회의 지위 강화를 이룩하였던 것도 문화적 전통과 거기에 뿌리를 둔 불굴의 국민정신에서 연유된 것이다. 폴란드는 그러한 유럽 문화의 전통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서유럽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이다. 사회보장과 노동보호는 통일되게 발달되어 있다.

예컨대 양로연금은 남자 65세, 여자 50세부터 지급되며, 탄광의 광부나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과 교원은 5년 감해진 나이부터 지급된다.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의 의료는 무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문맹률은 꽤 높았으나 1949~52년에 문맹 일소운동이 전개되어 파

38) 국가별 일반 정보는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를 주로 참조하였고,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파견한 교수요원들의 현지 보고, 과제 책임자 등의 현지 방문, 연구원들의 조사, 현황 관련 논문 등을 토대로 했다.

괴된 학교도 복구되었다. 학교 제도는 국립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7~15세까지 의무교육으로 무료이다. 2개의 신학(神學) 아카데미가 있는데 공산국가로서는 특이한 일이다.

폴란드 과학 아카데미는 1951년에 설립되어, 1976년 403명의 국내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5개의 연구기관이 있다. 최대 규모의 도서관은 바르샤바 국립도서관으로 장서가 약 261만 7,000권에 이른다. 대학도서관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크라코프 대학 도서관으로 장서는 약 250만 권이다. 폴란드 인으로 세계 학술에 공헌한 인물에는 코페르니쿠스·퀴리 부인·오스카 랑게 등이 있다.

폴란드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 한국과는 외교관계 없이 약간의 무역거래만 하다가 1989년 4월에 주(駐)바르샤바 무역관과 5월에 주(駐)서울 무역사무소가 교환·개설되었고, 11월 1일 정식으로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1989년 투자보장협정·무역협정, 1991년 이중과세방지협정·항공협정, 1993년 문화협정·과학기술협력협정, 사증면제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1994년 12월 바웬사 대통령이 방한하였다. 1998년 현재 대한수출 2900만 달러, 대한수입 10억 2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철강재, 화공품, 금속광물 등이며, 수입품은 자동차, 섬유류, 전자제품 등이다.

3.1.3. 체코

면적 7만 8866㎢. 인구 1029만 명(1999). 인구밀도 130.3명/㎢(1999). 정식명칭은 체코 공화국(The Czech Republic)이다. 수도는 프라하이고 체코 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 2개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함에 따라 탄생한 내륙국이다. 북쪽으로 독일·폴란드, 서쪽으로 독일, 남쪽으로 오스트리아, 동쪽으로 슬로바키아와 접한다.

체코의 모든 학교교육은 무료이며, 의무교육은 초급 교육과정인 6세부터 14세까지 8년이다. 교육체계는 3~6세 사이에 유아원 및 유치원에 재학하게 되며, 6~14세까지는 초등 교육기간이다. 중등교육은 4년 과정으로 대학 진학을 대비하는 일반교육과정(짐나지움)과 기술교육을 받는 직업학교로 나눈다. 중등교육 과정 이수자는 학교 성적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4~6년 과정의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게 된다. 체코에는 약 130여 개의 고등교육시설이 있고, 약 11만 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체코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 한국과 체코슬로바키아와는 1990년 3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연방 해체에 따라 1993년 1월 1일 체코 정부와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양국간의 교류를 확대해오고 있다. 1994년 10월에는 클라우스 총리가 내한하여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다. 1995년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8년 현재 대(對)한국 수출규모는 2,950만 달러이며 수출품목은 유리제품, 기계강관 등이다. 수입규모는 1억 500만 달러로 수입품목은 자동차, 광케이블, 전자렌지 등이다. 1999년 5월 카바 외무장관이 방한하였다.

3.1.4. 오스트리아

유럽 대륙의 내륙 중앙부에 있는 나라로 면적은 83,857㎢, 인구는 808만 명(1999)이고 수도는 빈(Wien)이다. 오스트리아의 공용어는 독일어이며 통화는 오스트리아 실링을 사용한다. 같은 게르만계 민족이고 독일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민성

은 차이가 크다. 그 이유는 첫째 오스트리아의 사회구성이 여러 인종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강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오스트리아인, 특히 빈 시민들이 가지는 로마적 정서와 발칸적 격렬성은 독일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격이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생활을 가장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카톨릭이고, 풍속·습관이나 연중 행사의 많은 부분은 카톨릭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매일 하는 인사도 "신의 가호가 있기를(Gruess Gott!)" 라고 말한다. 현재 국민의 88%가 로마 카톨릭 교도이고 6%가 프로테스탄트, 나머지가 유대교도 등이다.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이고 다민족 국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빼고서 이 나라 문화는 논의하기 어렵다. 특히 빈은 옛 제국(帝國) 안팎의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하여 독자적인 오스트리아 문화를 창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교육수준은 높고 19세기 무렵 최저 8년간의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었으며 1966년에는 9년간으로 연장되었다.

학교는 공립과 사립이 함께 있으나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국가가 관리·통제한다. 취학연령은 6세이며 대학진학 희망자는 우선 4년제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뒤 9년제 중학 과정을 마치고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라는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종합대학으로는 독일어권(獨逸語圈)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빈 대학(1365년 창립), 그라츠 대학(1585), 인스부르크 대학(1677)과 1964~66년에 신설된 잘츠부르크 대학 등 4개가 있다. 단과대학으로는 예술부문을 포함하여 6개교가 있으며 모두가 국립대학이다.

그 밖에 성인교육을 위한 시설도 많이 있으며 세계 각지의 참가자들로 구성되는 국제 하계학교(夏季學校)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어 국제적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왔으며 사회복지관계의 지출이 국가재정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실업보험이나 상해보험, 그리고 노후(老後)보장제도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으며 신체장애자나 전쟁희생자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고 있다. 주(州)마다 보건위생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의약품이나 온천(溫泉)도 국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주(週)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초과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무감독담당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국과의 공식 관계는 1963년 5월 국교가 수립되면서부터 비롯되었으며, 1974년 12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 되었다. 1971년 10월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79년 3월에 사증면제협정(査證免除協定)이 체결되었고 1991년 3월에 한-오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1996년 전자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이 오스트리아의 크레츠테크닉사의 주식 60%를 인수하였다. 1997년 현재 대한수출은 1억 8,000만 달러로 주요품목은 자동차와 산업용 및 가정용 전자제품, 섬유제품 등이고 수입은 5억 8,000만 달러로 주요품목은 기계류, 금속광물, 전자부품 등이다. 1996년 현재 한국 교민은 329명이고 체류자는 1,180명이다.

3.1.5. 헝가리

면적 9만 3030㎢. 인구 1006만 5000명(1999). 인구밀도 108.2명/㎢(1999). 정식 명칭은 헝가리 공화국(Republic of Hungary)이다. 헝가리어로는 머저르 쾨즈타르서샤그(Magyar K). 수도는 부다페스트이고 공용어로는 헝가리 어를 사용한다. 북쪽으로 슬로바키아, 북동쪽으로 우크라이나, 동쪽으로 루마니아, 남쪽으로 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 서쪽으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에 접한다.

헝가리 교육제도의 기본은 1961년의 교육체제 개선에 관한 교육법령이다. 공산주의 시절에는 모든 교육이 국립이었으며 무료였다. 1990년 이후 사립교육이 부활된 후 국립대학은 1995년부터 수업료를 받고 있다. 초등교육 과정은 4년, 6년, 8년제가 있고, 중등교육 과정은 문법학교와 직업학교 과정이 있다. 고등교육 과정은 3, 4년제의 전문대학과 5, 6년제의 정규대학 과정이 있다. 헝가리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부다페스트에 있는 에트베슈로란드대학(1635년 창설)이다.

헝가리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 1948년 11월 남북한 동시수교를 맺었으며, 1989년 2월 다시 한국과 단독수교를 맺었다. 그 후 삼성·대우·현대 등의 민간기업들의 대(對)헝가리 합작투자와 기술교류가 활발하다. 1999년 현재 대(對)한 수입 1억 4,200만 달러, 대한수출 1,050만 달러이다. 수출품은 소시지·축전지 등이고, 수입품은 주방용품·전기제품·공구류 등이다. 1998년 현재 체류자는 330명이다.

3.1.6. 불가리아

면적 110,994㎢. 인구 820만 6000명(1999). 인구밀도 73.9명/㎢(1999). 수도는 소피아이며 공용어는 불가리아 어를 사용한다. 정식명칭은 불가리아 공화국(Republic of Bulgaria)이다. 북쪽은 도나우 강을 국경으로 루마니아와 접하고, 동쪽은 흑해, 남쪽은 터키와 그리스, 서쪽은 유고슬라비아와 국경을 접한다.

불가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 후진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탈바꿈하려 하였다. 그러나 출발점이 저개발이었으므로 아직 농공업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가 발달하였다고는 하나 소비 물자가 충분하지 못하며, 여러 선진 공산 국가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도 다른 공산국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교육은 생산과 직결되어 있다. 1959년에 성립된 신교육법에서는 종합기술교육 방침이 채용되고, 1964년부터 초등 8년, 중등 4년의 신학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1981년부터 초등 11년은 의무교육제이다. 각 분야의 고등전문학교가 있으며 학술기관으로는 과학아카데미·농업과학아카데미가 있다. 신문은 민주세력동맹의 기관지인 데모크라티아 등이 있으며, 국영 BTA 통신과 소피아 프레스 등도 있다.

불가리아는 북한과는 우방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한국과는 1980년대 후반부터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여 소련의 개방·개혁 추진에 따른 불가리아의 대(對)한국관계 개선 의지와 한국의 북방정책으로 급속히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북한은 1948년, 한국은 1990년 3월 23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1988년 11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불가리아 상공회의소는 상호무역사무소 개설에 합의하였으며, 1989년 4월 소피아에, 7월에는 서울에 양국 무역사무소가 설치되었다. 1991년 5월 볼코프 외무장관과 코스토프 재무장관이 방한하였다. 1992년 9월에는 소피아에서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열려 음악·미술·무용·영화 전시회가 있었으며, 11월에는 불가리아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이 있었다. 1997년 현재 대(對)한국 수출 2,465만 달러, 수입 3,240만 달러이며 수출 품목은 잎담배, 구리 제품, 유기화학 제품 등이며 수입 품목은 자동차, 어류, 전기 기기 등이다.

3.1.7. 루마니아

면적 23만 7500㎢. 인구 2240만 5000명(1999). 인구밀도 94.3명/㎢(1999). 수도는 부쿠레슈티이고, 공용어는 루마니어 어이다. 영어로는 Rumania로 표기하며, 루마니아 어로는 로므니아(Romunia)라고 한다. 북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동쪽으로는 몰도바, 서쪽으로는 헝가리, 남서쪽 및 남쪽은 도나우 강을 경계로 유고슬라비아·불가리아와 각각 국경을 접하며 남동쪽은 흑해에 면한다.

루마니아는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유럽에서 문맹률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였으나, 전후 교육의 보급이 현저하여 현재 10년의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10년 의무교육에서 8년을 마치면 각각 전문화된 4년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코스가 있고, 그 위에 대학이 있다. 학문 연구의 중추기관은 루마니아 학술원이다. 루마니아는 충실한 사회보장제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완전 무료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기술은 서유럽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마니아는 북한과 1948년 11월에 수교했고 한국과는 1990년 3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1994년 3월 1일 일리에스쿠 대통령이 방한하였다. 1990년 체육교류협정·무역협정·경제과학기술협정·투자보장협정, 1991년 항공협정·문화협정, 1993년 이중과세방지협정·비자면제협정, 1996년 일반사증면제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1998년 현재 대한 수출 4,900만 달러, 대한 수입 2억 5,300만 달러이다. 1997년 현재 교민은 89명이고 체류자는 199명이다.

3.2. 제2권역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

3.2.1. 폴란드

폴란드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을 가르치는 대학은 바르샤바 대학과 포츠나니 대학 등 2곳이다. 이 가운데 포츠나니 대학은 아담 미츠키에비츠 대학이라고도 불리는데 최근 들어 언어학부에서 한국어 분과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 파견교수가 현지에 가서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포츠나니 대학 편제는 학과 단위가 아니고 연구소(Instytut) 체제로 영어, 독일어, 러시아 어, 프랑스 어, 스페인 어, 포르투갈 어, 네덜란드 어, 스웨덴 어, 핀란드 어, 헝가리 어 등 거의 모든 유럽 언어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언어를 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언어가 전공 언어로 다루어지고 있다. 영어, 독일어, 러시아 어 등이 전공 영역을 구성하고 있어서 연구소의 거의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수강하고 있다.

여타의 언어들은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아 언어와 아프리카 언어 중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어는 아시아 지역의 한 언어로서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 어 등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 학생 수가 적은 편이다. 연구소에서 가르치는 각 언어는 실용 언어 중심으로 이론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이 곳에서는 한국어 수강학생을 2년에 한 번씩 선발하기 때문에 2001년 2월 현재 2학년은 없고 3학년과 1학년뿐이었다. 3학년은 2년 동안 폴란드 어 전공의 한국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배웠는데 인사말과 단

어를 조금 아는 정도여서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의 1급 정도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재와 교육과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강사에게 배운 결과라고 한다.

강의실이나 연구실 등 대학의 시설은 그다지 좋은 편이 못 된다. 또한 연구소 도서관에는 한국 관계 서적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논문집이나 그림책 정도여서 쓸 만한 교재는 없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이 대학에는 2001년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개정판 한국어 1 교과서를 기증한 바 있다.

바르샤바 대학은 1953년에 동양학 연구소 중국어문학 강좌에서 제3동양어로 조선어를 가르치게 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83년 한국어문학과가 정식으로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폴란드 내의 한국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바르샤바 대학 한국어문학과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설치학과명 - 동양학부 한국어문학과 (1983년도에 한국어학과가 설치됨)
- 교원수 - 정식교원 2명, 한국어과와 일본어과 겸임교수 1명,
  Korea Foundation(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교원 2명(폴란드인, 독일인)
- 학생수 - 50여 명
- 개설강좌 - 한국어 회화, 한국어 문법, 한국어 강독, 한국사, 한국지리, 한국문학,
  언어학, 컴퓨터 강좌 등. 고학년(4, 5학년)에는 세미나 수업이 있음.

바르샤바 대학교 동양학부 한국어문학과에서는 한국인 파견교수에게 실용 한국어 회화 (1, 2학년) 등의 과목을 담당시키고 있으며, (1998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2년간 40여명이 그 강좌를 수강했다.

폴란드의 대학은 겨울학기와 여름학기로 구성되는 2학기 제도를 택하고 있다. 겨울학기는 10월초에 시작해서 다음 해 2월 중순까지이며 여름학기는 2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이어진다.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학과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과 창립 : 1983년 (한국어 강좌는 1953년부터)
- 발전 단계 : 1953년 - 1961년 ⇒ 동양학 연구소 중국어과에서 제3동양어로 조선어 강의,
  북한 강사가 맡음, 제2동양어는 일본어
  1962년 - 1982년 ⇒ 동양학 연구소 일본어과에서 제2동양어로 조선어 강의,
  조선 역사, 문학, 문화사 등을 특강 형식으로 강의
  1983년 - 현재 ⇒ 동양학 연구소에서 5년제의 한국어문학과 설치,
  논문 제출하면 학위 수여
- 학위 과정 :

1) 5년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3학년까지는 학부, 4-5학년은 석사과정에 해당됨,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동양학 연구소 내의 전체 교원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함)

2) 4학기 기간의 한국어학 코스 - 일본학과 학생 및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목 개설

- 교수진 : 할리나 오가렉 최(Halina Ogarek-Czoj), 문학 및 종교, 신화 등 문화론 전반
  로무알트 후스챠(Romuald Huszcza),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한일 비교언어학 등

바르샤바 현지 주민과 교포의 관심도와 지원사항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대우자동차가 폴란드 국영자동차를 인수해 폴란드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그 시장 점유율이 27%에 달할 정도로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가까워졌다. 대우자동차 이외에도 현대, 삼성, LG 등 여러 개의 대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해 있다. 폴란드 인이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이전에 비해 훨씬 커졌으며, 많은 학생들이 장래의 취업을 위해 한국어과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 바르샤바에는 상사 주재원, 외교관, 유학생, 교포를 포함해 2천여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 모텔, 미용실, 식품점, 여행사 등도 생겨났다. 그러나 교민 사회의 형성과 한국어문학과의 발전 사이에는 그다지 큰 관련이 없다. 그 주요한 이유는 몇 년 전부터 현지에 기반을 닦은 교포들이 현지 상황과 언어를 어느 정도 극복한 데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한 졸업생들이 소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교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려 하지 않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는 듯하다.

또한 최근의 대우 사태와 더불어 폴란드 현지에서도 그 동안 한국 기업들이 쌓아왔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것도 사실이다. 결국 다음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본 과제에서 단위기지 개발 원리 중의 하나로 제시하는 <총체적 접근의 원리>가 중요함을 폴란드-대우-한국학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바르샤바 대학 한국어문학과의 교재 및 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약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교류재단, 학술진흥재단 등의 지원으로 한국의 대학에서 출판된 여러 종류의 교재가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제대로 활용이 되는 교재는 한두 종류에 불과한 형편이다. 따라서 다양한 실제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한-폴, 폴-한 사전의 발간이 아주 절실한 형편이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사전 편찬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서 학생들이 영-폴, 폴-영 사전과 한-영, 영-한 사전을 이중으로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교과서 문제를 살펴보면, 폴란드에서는 처음에 북한에서 출판된 인민학교용, 중학교용 그리고 고급학교용 국어 교과서와 문법 교과서를 이용했다. 다음에 평양에서 출판된 유학생용 교과서를 이용했으며 아울러 폴란드 인 학생용 교과서를 제작하여 바르샤바에서 출판했다. 그 이후에 남한에서 출판된 외국인을 위한 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었다.

현재 여타 지역학과 비교한 한국학의 위상이 폴란드에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본학이나 중국학 등에 비해서는 열세임이 사실이다. - 한국의 대기업이 폴란드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한국도 이제는 폴란드 인에게 많이 익숙해진 것 같다. 거리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광고가 눈에 많이 띄고 TV 등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광고가 자주 나온다. 따라서 폴란드 인이 한국에 대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한국어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늘게 되었다. 그 결과로 한국학의 위상도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일본학이나 중국학에 비교해 볼 때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일본 정부나 기업 덕에 바르샤바 대학교의 일본학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수준을 자랑한다. 대학의 연구실, 도서관, 기자재, 교수진, 학생 수준 등은 한국어문학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아직까지 한국어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일본어문학과에 원래 뜻을 두었던 학생들이다. 또한 중국은 폴란드와 오랫동안 같은 사회주의권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던 바 폴란드의 중국학 역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부터 취업의 이유로 점차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문학과에 지원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를 서유럽 국가와의 무역 거점으로 여기고 많은 투자를 하는 덕에 학생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대한 정부나 민간 단체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한국학 발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일본어문학과의 경우, 일본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원 사항과 관련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일본대사관에서 지원과 사후 관리의 일을 철저히 하는 덕에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현재 많지는 않지만 규모만을 늘리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내실 있게 해외 한국학 연구 후속 세대 육성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더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폴란드 자체의 경제도 상당히 좋아져 98년 현재 대략 7천 달러 정도의 국민소득 규모를 이루고 있다. - 물론 아직까지 구 체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남아 있는 측면도 많이 있다.

한국어문학과의 교재 문제는 몇 년 전에 비해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강의실이나 연구실 등의 설비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국어문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로 한국 측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바르샤바 대학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기자재 지원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 및 기업 등에서 기증한 각종 기자재 시설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진이 부족하고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학 파견교수나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리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2.2. 체코

체코의 한국어 교육기관은 프라하에 있는 카렐 대학 한국학과 한 곳뿐이다. 이 학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동양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19세기 후반부터 중국학이, 1940년대부터 일본학, 조선학/한국학, 몽고학, 티베트학 등의 교육과 연구가 시작되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1948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이 서로 인정하고 관계를 진전시킴에 따라 많은 유학생, 기술자들이 프라하로 유학을 떠났다. 이런 환경 속에서 카렐 대학 철학부가 1950년에 <극동 언어 및 역사 강좌>를 설치하고 조선학과도 거기에 포함되어 생겨나게 되었다.

- 설치학과명 - 철학대학 동아시아학 연구소 한국학과 (1950년에 처음으로 신입생 모집)
- 교원수 - 전임 교원 3명, 한국학술진흥재단 파견교수 1명
- 학생수 - 35명 내외
- 개설강좌 - 한국어 음성학, 한국학 입문, 한국어 문법, 일반 언어학 입문,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문체론, 한자 입문, 각종 강독,
  한국어 회화, 한국어 실습, 한국어사, 한국사정, 한국역사, 한국문학사,
  각종 특강, 각종 세미나, 제2동양어 등

카렐 대학교는 5년제 대학으로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한국의 학부과정에 해당하고, 4학년과

5학년은 석사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 진급시험을 보며 5학년을 마칠 때에는 석사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학과(동아시아학 연구소)는 철학대학 소속인데 여기서 <연구소>는 한국의 <학부>와 비슷하다. 한국학과는 2년에 한 번씩 학생들을 모집한다. 학생들의 취업, 교수의 수, 교실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한다.

최근 파견교수가 담당하고 돌아온 과목은 한국어 음성학, 한국어 회화, 한국어 한자 읽기, 한국어 시청각 교육, 번역 연습, 한국어 회화 등이 있다. 수강 인원은 1학년 14명(1명은 청강생), 3학년 14명, 5학년 5명 등이었다.

체코에서 겨울방학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2주 동안이고, 여름방학은 7월에서 8월까지 2달이다. 그러나 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또 6월, 9월이 시험기간이어서 시험을 일찍 끝낸 학생과 교수들은 방학을 더 누릴 수 있다.

카렐 대학 한국학과 학생의 수준은 학년에 따라 편차가 좀 있는 편이다. 1학년의 경우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의가 높을뿐더러 그 수준도 꽤 높다. (입학 당시의 경쟁률이 3대 1을 넘었다고 한다.) 이 학생들 가운데 1명은 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2001년 상반기에 서울대 어학연구소에 와 3개월간 한국어를 배웠는데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갔다. 3학년은 보통 수준 정도이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말하기와 듣기 수준이 낮아서 수업을 따라오기 힘든 형편이었다. 그러나 서너 명 정도는 비교적 한국어를 잘했다. 5학년 학생들은 다른 학년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았다. 일부 학생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 한국에 오고 싶어한다. 따라서 2000년 5월에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시험(필기, 회화 등)을 보아 한국에 올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카렐 대학에서는 프라하 변두리에 있는 기숙사를 숙소로 제공한다. 전화를 걸 수가 없고 받을 수만 있는데 이것은 동유럽 국가들에 아직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못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학과에서는 이러한 기숙사를 확보,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 실정이다. 중국인 교수도 같은 시설에 살았지만 미국인 교수 등은 시내 중심에서 가까운 좋은 시설의 기숙사에 산다고 한다. 현지 주민이나 교포로부터 특별한 관심이나 지원 사항은 없으나 다들 친절한 편이다. 한국대사관에서는 1년에 1번씩 한국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을 초청하여 한국과 체코의 관계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교재 및 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어 교육을 소개하는 뿌첵 교수의 논문(1991)을 인용할 수 있다. 남북한에서 언어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서로 다른 규범이 각각 규정됨으로써 이것은 외국에서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특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로 제기되었다. 북한의 문화어를 가르쳐야 하는지 남한의 표준어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1990년 3월 체코와 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이전까지는 취업 가능성, 번역·통역의 기회, 현지 실습 가능성 등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 북한과의 관계 분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대체로 유사했다. 당시 남한과 관계가 정상화할 것을 예상하면서 남한의 언어규범도 교과서 작성과 강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참고했을 뿐이다. 한국인에게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게 다가올 수 있지만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 학생들에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현재는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남한 쪽의 표준어 교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대, 서강대, 경희대 등 여러 곳에서 펴낸 교재가 두루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학생들은 작은 한영 사전과 듣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오디오 교재를 필요로 한다. CD로 된 한국어 회화 교재도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로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개정, 발간된 교재 중 1급용 책을 2001년 초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파견하고 있는 교수가 뿌첵 교수와 더불어 학과 강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자면, 파견교수는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에 대한 지식도 충분해야 한다. 또한 파견교수는 될 수 있으면 한국어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나 국어교육, 국어학 등을 전공한 사람이 적합하다고 본다. 체코에서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1학년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어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파견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단계에서부터 한국어로 강의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어로 강의하는 능력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파견교수가 현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교재를 사용했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후임자가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대부분 파견교수가 1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교육 내용과 결과가 후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체코 인이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도는 그다지 높지도 낮지도 않은 편이다. 한국학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학, 일본학에 비해 소홀하게 여겨지는 듯하다. 예를 들자면 중국학과와 일본학과는 각각 넓고 좋은 방을 학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학과는 몽골학과, 베트남학과와 함께 한 방을 사용하고 있다. 6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카렐 대학의 본관에 위치한 동아시아학 연구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협소한 공간이다. 특히 이 연구소 내의 한국학과 사무실 및 도서실은 공간도 비좁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학과, 몽골학과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인 연구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학과와 일본학과는 자체 사무실을 갖고 있지만 도서실 또는 강의실로도 사용되어 많은 장서와 학생 수를 고려하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공간 문제와 더불어 아쉬운 것은 아직 쓸 만한 체코어-한국어, 한국어-체코어 사전이 없다는 점이다.

3.2.3.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빈 대학교(Universität Wien, University of Vienna)가 유일한 한국어/한국학 교육기관이다. 이 대학에서는 1965년에 한국학 강의가 시작되었고, 그 동안 이상경 교수가 학과를 이끌어오다 2000년에 퇴임한 후 정교수 모집 과정에 있었다. 이 교수의 공백을 파견교수가 메우고 있는데, 빈 대학에서 한국학 교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당분간 실질적인 학과의 책임자는 제주대에서 파견된 김희열 교수가 맡고 있다.

- 설치학과명 - Institut für Koreanologie
  (Korea Abteilung, Institut für Japanologie로 1965년 개설됨)
- 교원수- 6명, 파견교수 1명

· 학생수- 20-50명, 학기마다 변동이 있음.
· 개설강좌-한국어 강좌 1, 2, 3, 한국어-독어 번역, 한국학 입문(철학사, 미술사, 문화사 등), 한국문학 입문, 한국언어학 입문, 한자, 한국사상사 입문, 99년 10월부터 한국정치사 입문 개설
· 기타사항(주변상황/한국관련활동 등) - 한국문학작품 번역, 심포지엄, 전시 및 낭독회 개최. 비인 대학 당국에서도 이러한 노력과 발전을 높이 인정하여 비인 대학 Senat에서는 한국학을 전공학으로 정식 승인하여 중국학이나 일본학과 동등한 자격의 독립된 전공학부로 개설하기를 가결하여 교육부에 신청함.

빈 대학교에서는 한국학 강의 파견교수를 위하여 연구실과 컴퓨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이나 자료 이용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빈 대학 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국학 조교와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 사서가 있어서 행정 및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학 분야 중 문학과 어학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외한 한국학(역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철학, 교육 등)에 대한 독일어 기초자료와 교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집필 지원 및 저서 출간이 아주 시급하다. 특히 한국 역사 강의의 독일어 자료가 전무해서 담당 교수가 이 강의 준비에만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OHP나 디아 필름 강의용 자료 같은 것은 구하기가 힘들어서 강의 중 시각 매체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즉 투자되는 시간에 비해 강의 효과가 낮은데, 가장 큰 이유는 자료의 빈곤에 있다.

빈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 낮다고 볼 수 있으나 과거 올림픽 기간과 호황기 때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관심이 바로 한국어 강좌 수강 인원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현지 강사진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본다면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일반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티베트학이나 아프리카학도 유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면 앞에서 말한 일반론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오스트리아는 오래 전부터 다문화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한국 관련 학술행사와 문화행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최하고 동아시아학 연구소의 한국학과를 전공으로 정착시키고 대학 및 일반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야 하는 단계라고 판단된다.

빈 대학교 한국학과의 경우, 과거에는 일본학 전공의 한 부서로 배치되어 독립적인 전공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신임 교수가 임용되면, 전공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학 연구소 내에서 한국학과가 중국학과나 일본학과와 대등한 위치로 승격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한국학과에 가장 적합한 신임 교수의 선발이 이루어지고 한국학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2001년 3월)까지 전공 학문으로 한국학이 자리를 잡지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 수, 교과과정, 도서관 및 자료 등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다. 참고로 2000/2001년 겨울학기에 중국학은 43강좌, 일본학은 34강좌, 한국학은 11강좌가 개설되었다.

빈 대학의 동아시아학 연구소 내 전공 학문 중에서 중국학 전공 학생이 200여 명으로 제일 많고, 일본학의 경우는 100여 명 정도이지만, 한국학의 경우는 아직 전공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학 관련 강의에 적게는 1명, 많게는 6, 7명 정도가 각각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모두 합해야 2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 열악한 학생 상황에 비해 대학 당국은 강사

진 지원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고무적이다.

일본은 빈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 재단이 빈 대학의 동아시아학 연구소 소속 일본학 강사진 모두가 겨울방학을 이용해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주선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학 전공 학생들에 대한 장단기 지원, 강의 교수 파견 지원, 학술 행사 지원 등을 대규모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 일본학과 부근을 '일본 정원'이라고 이름 붙여 기증한 나무와 돌 팻말 등을 써 붙여 놓고 있다. 중구학과 일본학 틈바구니에서 한국학이 전공으로 뿌리내리는 데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빈 대학의 동아시아학 연구소 내 한국학 강좌 중에서 한국어 강좌가 특히 부실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독일어권 대학의 한국학과 비교해서 볼 때 지금까지 한국어 담당 강사진에게 부분적인 책임이 있고 한국학 정교수가 부재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한국어 강좌의 체계성, 통일성 등에 대한 논의나 교재 및 자료 등에 대한 의논이 없었던 점과 한국학 교과과정을 전공으로 독립시킬 만큼 체계적으로 학기마다 개설하지 못한 점 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진다.

2000/2001년 겨울학기 강의(11강좌)의 목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좌명	담당 교수	수강 인원	강의 시수	비고
한국역사입문	객원 교수	4	2	파견 교수
한국역사입문연습	상동	4	2	상동
현대한국작가작품분석 : 이문열과 최인훈	상동	3	2	상동
한국문화사	박사	3-6	2	빈 대학 자체 지원
한국어입문	석사A	1-2	2	국제교류재단 강의지원
한자	상동	3-4	2	상동
한국어 1	석사B	3-4	4	빈 대학 자체 지원
한국어 2	석사C	1-2	4	상동
한국어 3	석사A	2-5	4	상동
한국어 회화	석사B	3-4	2	상동
한국문화와 사정	석사D/E	7-9	4	상동

* 도표 관련 사항 : 1) 석사 A-C 3명은 한국어 관련 강좌 담당 한국인이고, 파견 교수를 제외한 박사학위 소지자인 강의 담당자는 1명뿐이다. 반면에 중국학과와 일본학과의 교수진은 대다수가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2) 현재 과목에 따라서 출석을 하지 않고 과제물 제출로 학점을 이수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담당 교수에 따라 인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이 쉽지 않다.

3) 특히 한국어 관련 강좌의 수강 상황이 대단히 열악하고 그나마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수강생이 아니라 학기마다 새로운 수강생이 각각 어학 과정에 신청하거나 계속 같은 과정만 수강하고 있고, 한자 강의는 교포 학생들만 수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한국어 입문의 경우는 꾸준

히 강의에 나오는 학생이 단 1명에 불과하다.

4)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국학을 공부한 오스트리아 국적인 강사가 한국학 강좌를 일부 분담해서 맡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는 한국학이 전공 학문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에 합당한 후학 양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전공 박사과정생으로 한국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도 1-2년 정도 한국에서 공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3.2.4. 헝가리

헝가리에서 한국어·한국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엘떼(Eotvos Lorand) 대학과 헝가리 대외무역대학 등 2대학이 있다. 엘떼 대학은 1635년에 창설된 헝가리 최고의 대학이며, 무역대는 대한수교 직후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한 대학이다. 두 대학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엘떼(Eotvos Lorand) 대학
· 설치학과명 - 한국학 프로그램(Korean Studies)로 1997년 가을학기에 개설
· 교원수 - 4명
· 학생수 - 30명 내외
· 개설강좌 - 한국어 1, 2, 한국사, 한국불교 등
· 기타사항(주변상황 등) - 한국서적 1000여권 소장. 장기적으로 한국학과 설치 목표

- 헝가리 대외무역대학(Külkereske delmi füskola. Foreign Trade College)
· 설치학과명 - 한국학 프로그램(Korean Studies)으로 1991년(한·헝가리 수교 직후) 개설.
· 교원수 - 4명 (한국학술진흥재단 파견교수 포함)
· 학생수 - 20명 내외
· 개설강좌 - 한국어 1, 2, 한국사 등
· 기타사항(주변상황 등) - 1년에 한번 꼴로 " 한국의 날" 개최(Korean Day)

헝가리 대외무역대학은 헝가리 정부의 유럽 연합(EU) 가입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대학의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두 개의 단과대학(3년제)과 통합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부다페스트 경제대학(Budapest College of Economics)으로 개편되었다. 헝가리 대외무역대학은 부다페스트 경제대학의 대외무역부로 개편된다. 학과명은 종전의 동양어학부(Institute for Oriental Communication & Further Training)로 부르던 것이 동양어학과로 조정된다. 이 학과에서는 한국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이스라엘 어도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 개설하려고 하나 강사확보가 어려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헝가리 대외무역대학의 강좌는 재학생을 포함하여 타대생들의 선택에 따라 수강할 수 있는데, 한국학 강좌는 한국어 1, 2 및 한국역사, 비즈니스 한국어 등이 개설되어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필요로 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이 대학의 특성상, 특히 최근(2-3년전)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한국어를 제3외국어로 규정하여 자비로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다행이 이 대학은 한국어를 전공하는 현지인 교수인 오슈와트 가보르(Osbath Gabor) 교수가 학과장을 맡아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탓에 제도적인 어려움을 그나마 견뎌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학교에서 한국학

관련 학과목의 총 수강생 수는 20여명이 된다. 동일 학생이 여러 과목을 동시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서 겹치는 수효가 꽤 된다.

부다페스트 시내에서 한국학 관계 강좌가 개설된 대학이 또 하나 있다. 이 대학은 엘떼 대학으로 5년제의 학문 지향적인 대학이다. 5년 과정을 마치면 석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고 한다. 헝가리의 고등교육기관 중 가장 뛰어난 대학의 하나이다. 이 대학은 현재 한국어 1, 2와 한국 샤머니즘, 한국역사 등을 가르친다. 30명 정도의 학생이 수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1, 2는 한국어 습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나 한국 샤머니즘, 한국 역사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지인 교수에 의해 현지어로 진행된다.

한국학 파견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강좌는 한국어 1, 2로 초급 한국어와 중급 한국어로 분류된다. 초급 과정은 한국어의 기초적인 구조를 음운과 문법의 관점에서 그리고 한글의 구조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되, 기초적인 회화를 중심으로 발음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 글자를 익히고 간단한 수준의 회화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급과정은 기초과정을 마친 학생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짧게는 3개월에서 1년 정도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어서 분반이 바람직하나 강의실과 강사의 부족으로 중급반으로 통합하여 가르치는 실정이다. 중급반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글쓰기 등을 통하여 한국어에 대한 능력을 심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헝가리 대외무역대학(부다페스트 경제대 대외무역학부)에서 강의되고 있는 한국어 과정에는 이 대학 재학생은 물론 타대생들도 수강하고 있는데 1999학년도 1학기 초급반은 5명이고 중급반은 7명이었다. 2학기는 초급반에 1명이 추가되어 6명이 수강하였다. 중급반은 한국으로 유학가는 학생이 1명 줄고 1명이 휴학하였다. 이 대학은 수년 전에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한국어를 제3외국어로 규정하는 바람에 이 제한으로 인해 (수강료를 학생 부담으로 하기 때문)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고 한다. 매년 신학기마다 강좌 개설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5명의 수강 학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모로 애를 써야 할 정도이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관계기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파견하는 해외한국학 교수요원이 맡은 바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헝가리 대외무역대학에서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로 중심을 옮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다페스트 엘떼대학교에는 한국학 강좌가 동양어학부의 내아시아학과(Department of Inner-Asian Studies) 동양어학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개설되어 있다. 현재 한국어 프로그램에는 초급반과 중급반이 개설되어 있다. 초급반에는 6명, 중급반에는 10명이 등록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관계로 학생들 외에도 관심 있는 직장인들이 담당 교수인 비르딸란 아그네쉬(Birtalan Agnes, 부교수, 몽골학자로 샤머니즘을 전공. 한국의 샤머니즘에도 관심을 갖고 강의하고 있음)의 양해를 얻으면 수강이 가능해서 본 프로그램의 수강생 10~20%는 사회인 및 타대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포함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 까닭에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는 1학기는 모두 야간에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헝가리 대외무역대학과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는 1999년 9월 17일에 개강하여 12월 17일 종강하였다. 그 이후 2000년 1월 31일까지 학생들에게 최대한 2번의 시험 기회를 주어 학생들이 지난 학기에 배운 것을 충분히 학습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 이후 2학기 개강일인 2월 14일까

지는 휴가 기간이다. 2월 14일 개강하여 5월 19일까지 2학기 강의가 진행되고 역시 1달간의 평가 기간이 끝나는 6월 19일 이후 신학년 개시일(9월 17일 전후지만 신학년의 개시 일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음)까지 여름방학이다.

이 곳 대학의 평가 기간이 따로 설정된 것과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것은 강의 종류이다. 강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론 강의, 다른 하나는 세미나(seminar)라 한다. 전자는 종강하는 날까지 강의를 하고 종강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강좌를 말하고 후자 즉 외국어 강좌와 같은 실습이 겸해지는 세미나는 학기 중간 중간의 성취 평가를 성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세미나 과목은 성적 평가를 위해 따로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어 일찍 끝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가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전반적인 교육 여건의 부실함을 감안할 때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점도 있고 다른 하나는 대학이 갖는 자유로움을 학문/학습의 영역에서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헝가리 대외무역대학은 해외한국학 파견 교수를 초청한 대학이므로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있다. 현재 한국학 교실로 쓰이는 공간을 파견 교수에게 배정하여 연구실 및 강의실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 헝가리의 대학에서는 연구실 운용을 두 가지로 하고 있다. 하나는 연구실로만 사용하는 경우로 관련 교수 몇 명이 공동으로 사용케 하는 방법이고 교수 개인에게 연구실을 배정하는 경우는 강의실로도 병용하게 하는 것이다. 공간의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강좌(5명 이상)는 전부 개설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 이를 수용할 강의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임 교수들에게도 강의가 없는 날은 집에서 연구를 하도록 권장하는 분위기다. 현재 헝가리 대외무역대학 한국학 프로그램은 연구실 2개를 갖고 강의와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헝가리가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유산을 감안할 때 동양에 관한 관심이 자못 국가적인 차원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에 동양학부가 창립된 지 90주년을 맞는 상황이니까 그 뿌리가 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양에 관해서는 일단 우호적(적어도 학문적인 차원에서는)이어서 한국에 대해서도 그들이 갖는 관심이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 위기를 맞은 이후 이러한 분위기가 다소 냉각되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래도 유럽 국가로서는 동양적 전통을 가장 정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한 나라라 분위기가 다소 냉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내에 있는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의 한국어 과정에는 일반인들이 청강하는 숫자가 10-20%정도 되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꼭 이들 때문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한국어 과정이 모두 야간에 개설되는 이유의 상당 부분도 이들의 청강 기회를 용이하게 하려는 점도 없지 않다. 한국업체가 많이 진출하여서 이들이 주는 홍보 효과도 적지 않다.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에서 2000년 4월의 한국문화의 날에는 마침 한국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국제 샤머니즘 학회가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어 이 학회에 초청 받은 학자들과 무속인들이 발표와 공연을 하게 되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 한국문화의 날에 많은 학생들이 호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 부분을 현지 진출 한국업체(형가리 무역대는 LG 전자에서,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는 주식회사 한화가 학생회에 지원함)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포들의 입장에서는 헝가리의 대표적인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에는 중국학과를 비롯하여 일본학과(비록 중국학과의 소속이지만)가 개설된 상황에서 왜 한국학과는 없느냐는 아쉬움

인데 이는 이 나라가 처한 어려운 재정 상태와 한국학 전공자의 양성이 쉽지 않다는 점 등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한국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이러한 난점이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대외무역대학은 이 대학의 현지인 교수가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현지어로 편찬한 한국어 1, 2를 교재로 쓰고 있다. 한편,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한 교재인 한국어 1, 2(고대 민족문화연구소 간행)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재(국내에서 제작된 것이든 현지인이 편찬한 것이든)와 한영사전, 영한사전(두산동아 발행)을 기본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기본적인 교재는 해결되나 이외의 것은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의 한국학 교실에 비치된 도서들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도 없고 여타 과목의 강의실로도 쓰이는 탓에 도서 관리도 철저하지 못해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 실상이다. 헝가리 대외무역대학은 교수 개인 연구실에 비치된 관련서적을 학생이 담당 교수의 양해를 얻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전자에 비교되지 않는다. 주로 강의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다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강한 것이기에 학습의욕이 왕성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는 두 대학 모두 언어 실습실이 없어서 한국인 강사의 육성에 주로 의존한다.

헝가리 대외무역대학의 동양어학과는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로터 1993년에 486급 컴퓨터와 휴렛 패커드의 프린터를 기증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는 용량이 부족하거나 구형이라 윈도우를 설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글 프로그램도 오래 전 것이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는 더욱 형편이 나빠 아예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컴퓨터조차 없는 상황이다. 학교 당국에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외국어 프로그램에 해당 언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장착된 컴퓨터를 공급하려면 대학에 개설된 외국어 강좌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서 학교 측이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현지 진출업체나 한국 정부의 기증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한국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 헝가리 대외무역대학에 한국학 지원 형식으로 펜티엄급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 등(관련 소프트웨어)을 임대해 주어 활용하게 하다가 한국학과가 개설되면 그 과에 기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외의 자료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에서 간행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외국에서 간행된 것도 가능)
-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간행되는 <새국어생활>의 정기구독
-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간행) 또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발간)
- CD /Tape 겸용 녹음기(휴대용)

(이들 품목에는 제공한 이와 제공한 목적을 큼직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학 진흥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 외에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역할이 아주 활발한 것이 눈에 띈다. 다만 이 기관이 한국의 해외 홍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의 관리가 학술적 및 전문적 평가가 결여된 채로 진행되는 감이 있다. 현지의 한국학 상황 및 지원 상황을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금에 의한 연구물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한국학 진흥을 위해 능력 있는 현지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와 절차가 있었겠지만 그 결과물의 사후 평가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그런지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탓만은 아니겠지만 한국학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이러한 눈먼 연구비 획득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 프로젝트를 따놓고 보자는 욕심에서 허황된 연구계획들을 제시하는 경향마저 있었다고 한다. 많은 경비가 들겠지만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해야 연구 성과물도 알차고 또 한국을 올바로 소개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국제교류재단에서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에 1999년부터 지원하는 한국학 강의 보조금은 전임교수에게 보조하는 일은 성과가 없는 일로 본다. 시작된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현지인 중의 신진학자로서 한국학 강의를 하거나 한국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온 이로서 한국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들을 발굴해서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정말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현재 거의 상당수가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한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기 위한 학자가 되려고 하겠는가? 현지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국제교류재단에서 매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한국에서 단기간(1-3개월) 또는 1년 이상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이는 한국을 직접 체험하고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게 하는 정책으로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 이들의 선발에 직접 현지에서 가르치는 교수/강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학과의 설치가 예상되거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연구자를 위해서는 특별기금을 확보하여 이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하여 이들이 한국학 연구의 밑거름이 되어 한국학과가 개설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인들에 의한 한국학 연구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국학 진흥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3.2.5. 불가리아

불가리아에서는 국립 소피아 대학교(Sofia University)의 동양언어문화연구소 한국학 전공에서 한국학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설치학과명 - 동아시아 학과 한국학 전공(Section of Korean Studies, 1995년 설립)
- 교원수 - 7명
- 학생수 - 35명 내외 (석사과정 6, 박사과정 3 포함)
- 개설강좌 - 한국어, 한국문학, 한국사, 한국문화, 한국언어학 등
- 기타사항(주변상황/한국관련활동 등) - 매년 전국적으로 한국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학 연구도서 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2001. 8월 현재)

불가리아 국립 소피아 대학교에 1995년 10월에 정식으로 개설된 한국학 전공은 2000년 7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舊)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5년 과정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총 5명의 한국학 전공 석사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신(新)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4년 과정의 학사과정을 마치고 총 13명이 졸업을 했다.

2000년 가을 학기에 9명의 학생을 선발했는데 1차 선발 커트라인이 30점 만점에 26.3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2학년에서 8명, 4학년에서 13명이 공부하고 있었으며, 신교육법에 의해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학생 중 6명을 석사과정에 받을 예정이었다.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 현황을 보면, 한국 관련 업무를 하게 된 학생이 많았다. 예를 들면 대우자동차, 대우건설, 불가리아 무역회사, 한국대사관 등에 취업 또는 한국 유학, 소피아 대학교 한국학과 전임 발령 등이 있었고, 그밖에 여러 분야로 진출했다. 불가리아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현황은 아주 양호한 편이다.

이전까지 소피아 대학교에서 Faculty of Classical and Modern Philology의 하위에 동양언어문화센터(Center for Oriental Languages and Cultures)로 존재하면서 한 학과로 운영되던 동양학 전공들이 2000년 가을학기부터 각각 독립학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각 전공의 운영에 기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센터의 이름이 동양언어문화연구소(Institute for Oriental Languages and Cultures, 소장: Alexander Fedotoff 교수)로 바뀌었고, 한국학은 일본학, 중국학과 함께 하나의 학과로 독립했다. 학과 명칭은 동아시아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이며, 그 안에서 한국학은 하나의 분과로 운영된다. 학생 선발은 전공별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연구소장인 Fedotoff 교수가 학과장과 한국학 전공 책임자를 겸하게 되었다.

최근 개설된 한국학 전공과목(2000년 여름학기 현재 : 주당 시간, 담당교수)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학년 : 한국어(8시간, 최권진), 한국어실습(2시간, Pavlov)
4학년 : 한국어(10시간, 최권진), 한국어번역실습(4시간, Pavlov)
3학년 : 한국어/독해(4시간, 최권진), 한문(4시간, 김소영),
한국문화(4시간, Fedotoff), 한국어사(Pavlov), 한국어/회화(6시간, 김소영)
1학년 : 실용한국어/회화(6시간, Pavlov), 실용한국어/독해(4시간, 김소영),
언어실습/Lab(2시간, 김소영), 한국문학입문(3시간, Fedotoff),
한국언어학입문(3시간, Karteva), 한국어음성학(4시간, Karteva)

2000년 여름학기에 한국 KOICA의 초청으로 3학년생 1명이 3개월간 한국어 연수(경희대)를 다녀갔으며, 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5학년생 1명이 6개월 과정의 연수(연세대)를 받았다. 또한 불가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 3명에게 매달 200레바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자극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 대학의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젊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학에 남아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학 전공과 한국학 전공에는 각각 본국에서 파견교수가 1명씩 나가 있으며 일본학 전공의 경우에는 파견교수 1명, 일본어강의 자원봉사자 1명, 일본학 도서관 담당사서 1명이 파견되어 있다.

2001년 8월 현재, 한국학 전공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는 다음과 같다.

Fedotoff 교수 : 한국학 전공 주임(대리), 티베트 어/몽골 어 전공,
한국학 입문 과목, 한국 문화와 문학 담당 고대문학
최권진 교수 : 실용 한국어, 한국어 문법, 한문, 한국 서사시 텍스트(대학원 과정), 한국어 사전 편찬 연구 등

Karteva 교수 : 몽고어 전공, 한국어 입문, 한국어 이론(음성학, 형태론) 담당
Yanitsa 교수 : 한국어 회화, 한국현대문학
김소영 박사 : 한국어 회화 담당
Pavlov 선생 : 불가리아 문화부 문화센터 소장, 한국어 회화, 한국어사, 한국어 번역 담당
Ivanova 교수 : 극동역사 전공(일본사), 한국역사 담당, 고대 한국어(사), 한국어 통역 및 번역

3.2.6. 루마니아

2001년 8월 현재 루마니아에서 한국 관련 강좌를 개설한 곳은 부쿠레슈티 대학, 바베스-볼리야 대학으로 모두 두 곳이다. 크라요바 대학은 2001년 7월에 KOICA의 한국어 강사 파견 지원 사업이 중단되고, 대우 기업의 부진 등으로 영향을 받아 한국어 강좌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 대학들의 한국학 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쿠레슈티 대학교
· 설치학과명 - 한국어 코스
· 교원수 - 현지인 교수 0명, 한국정부지원(KRF) 파견교수 1명 (유호창)
· 학생수 - 외국인(현지인) 14명
· 개설강좌 - 한국어 코스 1, 2, 3 등 3개의 강좌로 각 강좌당 매주 4시간 강의
· 기타사항(주변상황 등) - 한국학 코스의 전공 과목 승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에 현지인 박사학위 소지자(한국학의 경우에는 한국 유학시 취득한 학위)가 없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전망이다. 유망한 학생을 정부 장학생으로 초청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정책적인 조치가 요망된다.

② 바베스-볼리야(Babes-Bolyia) 대학교
· 설치학과명 - 한국어 강좌(교양강좌)로 1997년 10월 개설
· 교원수 - 1명(KOICA 지원. 이경숙)
· 학생수 - 20여 명
· 개설강좌 - 한국어 초급, 중급반
· 기타사항(주변상황 등) - 수도에서 북서쪽으로 50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와 교육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전술한 바와 같이 크라요바 대학교는 1996년 하반기에 개설하여 2001년 7월까지 다음과 같이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가 최근에 중단된 실정이다.

· 설치학과명 - 한국어 강좌(모든 단과대 대상)와 제3외국어(인문대내)로서의 한국어 코스 (1996년 10월 개설됨)
· 교원수 - 1명
· 학생수 - 30여 명
· 개설강좌 - 한국어 강좌, 한국어 제3외국어
· 기타사항(주변상황 등) - Craiova 시에 대우자동차 공장이 있다. 수도에서 서남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한국 기업 측에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3.2.7. 구(舊)동독

지금까지 동부 유럽의 한국어·한국학 교육 및 연구 현황을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통일이 되면서 서부유럽에 편입되어버린 구(舊)동독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990년 독일 통일 이전까지는 동부 유럽 국가 그룹에 속하던 동독의 현황을 전체 독일의 틀 안에서 살펴보자면, 현재 정식으로 한국학과가 설치된 대학과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학 설치대학 (5개)
홈볼트(Humboldt) 대학, 함부르크(Hamburg) 대학, 본(Bonn) 대학,
보홈(Bochum) 대학, 튀빙엔(Tübingen) 대학

②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강의 개설 대학 (7개)
마인쯔(Mainz) 대학,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Berlin FU),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대학, 뮌헨(München) 대학,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대학,
트리어(Trier) 대학

* 각 대학의 한국 관련 강좌는 전반적으로 일본학과의 일본어 과목에 밀리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독일 내의 대학구조개편 정책으로 인하여 더욱 축소 내지 폐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홈볼트 대학은 구(舊)동독의 수도이자 현재 통일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 한국학의 운명은 동서독 통일 이후의 사회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 대학은 베를린의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시의 재정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독일 내에는 대개 한 도시에 한 개의 종합대학이 있는데 베를린에는 자유대학과 홈볼트 대학 두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독 이후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통일 이전 동독 공산당과 관련을 맺었던 이 대학의 고위직 인사들과 핵심 교수들이 대부분 대학을 떠나야 했고 옛 서독 인사들이 진출함으로써 동독 출신 학자들은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베를린 자유대학과 홈볼트 대학 사이의 교과 특성화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학과를 한 대학에만 남겨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이다.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개의 추측은 베를린 자유대학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는 한국학 연구의 역사가 일천하고 확실한 추진 세력이 없다는 데에 있다. 독일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는 독일 내의 문제지만, 반세기에 걸친 한국학 전통을 가진 홈볼트 대학의 역량이 고사되는 것 같은 분위기는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최근의 공고에 따르면 베를린에 2개의 한국학 교수 자리가 나고 현재 임용 과정에 있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전의 결과물이 사장되거나 무시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차후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훔볼트 대학교 한국학과의 개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설치학과명 - 한국학과(Seminar für Koreanistik)로 1954년 설립
- 교원수 - 6명 (2001년 2월 현재 Sonja Haeussler 박사가 주임을 맡고 있음)
- 학생수 - 50명 이하
- 개설강좌 -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강좌
- 기타사항(주변상황/한국관련활동 등) - 1998년 4월 대학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 훔볼트 대학교 한국학과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한국학과를 설립하는 경우에 자유대학교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한국 국제교류재단에서 초빙교수 지원금을 받은 후에 이 결정을 재검토하는 상황이다.

옛 동독 지역에서 훔볼트 대학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던 유일한 학교였다. 헤르만(1991)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1950년대 초에 동양학 연구소 내에 한국학과가 설립되면서부터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다. 70년대 말부터 이 학과의 학생들이 북한 유학을 할 수 있었고 졸업생들은 북한 관계 분야에서 취업을 했다. 1980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평양에서 출판된 『조선어』라는 교과서를 이용했는데, 이 교재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두드러졌다. 첫째 이것은 오로지 북한의 현실만을 반영하고 독일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학생들이 모어의 특징(간섭효과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셋째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사상이 동독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1983년 이후에 훔볼트 대학에서 북한 출신 초빙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다. 1989년에 일어난 동독의 정치적인 변화와 90년에 이어진 독일 통일과 함께 북한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낮아졌으며 통일독일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됨으로 인해 남한 쪽과의 교류가 잦아지게 되었다.

3.2.8. 유럽 지역의 한국학 연구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권역인 동부 유럽은 제1권역인 대양주와는 달리 여러 국가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을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단위기지 구성(안)도 여러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역 내에서 구심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횡적인 연합체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 지역 한국학 연구의 첫 번째 특성이 방금 언급한 국가별 독자성이라면, 두 번째 특성은 각국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유럽의 한국학 연구>라는 틀 안에서 서로 교류하며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동부 유럽 단위기지(안)을 제시하기 전에 유럽적인 한국학 연구의 보편성을 잠깐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 주요 기관의 유럽 한국학 연구 지원을 토대로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1982년에서 1999년에 걸친, 유럽지역의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 규모는 총 15개국 46개 기관에 총 지원 금액 3,872,000여 달러에 이른다. 이는 국가별 평균 지원액 약 260,000달러, 기관별 평균 지원액은 84,000여 달러에 이른다. 지원국과 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다.

영국(런던 대, 쉐필드 대, 옥스퍼드 대, 케임브리지 대, 뉴캐슬 대, 더램 대, 헐 대, 에딘버러

대, 대영박물관 등), 프랑스(파리 7대학, 리용 3대, 보르도 3대, College de France, 프랑스 사회과학대학원, 갈리마르 출판사, Mlle Lorne, 불란서 국립극동연구원, 루앙대 등), 독일(보훔 대, 튀빙엔 대, 본 대, 훔볼트 대, 뮌헨 대, 독일한국문화연구소, 함부르크 대, 마인쯔 대, 하이델베르크 대, 레겐스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 대), 이태리(나폴리 동양학 대), 벨기에(루뱅 대), 오스트리아(빈 대), 포르투갈(신 리스본 대) 등.

유럽 주의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대상 기관은 미주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대학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보면, 연구·강의가 13개국 31기관에 약 2,110,000달러, 교수 파견이 11개국 13기관에 약 1,516,000달러, 도서·자료가 8개국 17기관에 약 142,000달러, 국내 연수가 9개국 16기관에 약 75,000 달러, 학술회의가 3개국 4기관에 약 27,000달러의 순이다.

유럽 주에서 가장 지원 규모가 큰 곳은 역시 영어의 종주국인 영국인데 10개 기관에 걸쳐서 약 94만 달러에 달한다. 그 다음이 프랑스로서 9개 기관에 걸쳐 약 78만 달러, 독일이 11개 기관에 걸쳐 약 363,000달러, 이탈리아가 1개 기관(나폴리 동양학대)에 335,000달러, 벨기에가 루뱅 대에 54,000달러, 오스트리아의 빈 대에 약 90,000달러, 포르투갈의 신 리스본 대에 약 90,000달러, 스웨덴이 2개 기관에 약 66,000달러,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에 약 108,000달러,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에 약 68,000달러, 핀란드의 헬싱키 대에 약 122,000달러, 폴란드의 바르샤바 대에 약 323,000달러, 체코의 카렐 대 등 2개 기관에 약 225,000달러, 헝가리의 무역대 등 3개 기관에 약 231,000달러, 불가리아의 소피아 대에 약 77,000달러 등이다.

이 중 영국은 한국 관계 강의를 동아시아 연구나 특수연구, 또는 한국에 대한 세미나에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으며, 런던·케임브리지·옥스퍼드·더럼 대학교가 이 같은 개별적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 아시아·아프리카학 대학(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SOAS)은 1983년 한국어 강좌를 증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 관련 도서가 약 1만여 권, 간행물이 약 3,000종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국어 강의는 1960년대초 개설되었다가 곧 중단된 후 1987년 재개되었다. 옥스퍼드 대 도서관에는 한국 관련 서적이 도서 4,500권, 정기간행물 65종, 신문 4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1956년 소르본 대학교(지금의 파리 제4대학교)에 한국연구소가 설치되고, 한국의 언어 및 문화라는 강좌가 개설되었다. 그 뒤 1968년의 대학제도 개편과 함께 소르본 대학교의 한국학과는 파리 제7대학교로 옮겨졌다. 소르본 대학교 한국연구소는 중국·일본·인도의 연구소와 함께 콜레주 드 프랑스에 소속되었다. 파리 제4대학교 도서관에는 7,000권의 도서와 300종의 잡지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에 한국 관련 도서가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파리 제7대학교 한국학과, 동양어문화연구소 도서관 등이며, 1984년에 설립된 프랑스 한국협회(AFPEC)는 한국학에 관계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또 1990년에는 파리 고등연구원(Ecole des Hautes Etudes)에 어문학 분야만이 아닌 사회과학 분야까지를 망라하는 대학원 과정의 한국연구소가 개설되어 한국학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1965년 보훔 대학교에서 한국학 강의가 시작된 뒤 1993년 현재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도서관에는 8,000권의 도서와 100종의 정기간행물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독의 훔볼트 대학교에는 1954년 한국학과가 개설되었고, 김일성 종합대학과 상호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외에 본 대학교, 튀빙엔 대학교,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괴팅엔 대학교 등에 한국어학과 또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 이탈리아에서는 1960년 나폴리대학교에, 1978년에 밀라노 대학교 등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

한편 구(舊)사회주의 체제의 동유럽 국가들은 주로 북한과 교류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대체로 체코의 카렐 대학교, 폴란드의 바르샤바 대학교에는 한국학이 독립된 학과로 설치되어 있다. 특히 카렐 대학교 내의 프라하 동양학 연구소 도서관에는 한국 도서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동유럽의 대표적인 한국 관련 도서실로 불리워지고 있다. - 물론 서유럽 지역 대학에 비하면 열악한 시설이다. 또한 헝가리는 1991년의 한·헝가리 수교 직후 무역대(Foreign Trade College)에 한국학 프로그램(Korean Studies)을 개선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한국어와 한국 역사가 2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파견교수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있다. 1997년에 한국학 프로그램(Korean Studies)을 설치한 엘떼(Eotvos Lorand) 대학 역시 무역대와 유사한 상황에 속해 있다. 그밖에 스웨덴, 불가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도 위와 유사한 한국어 프로그램들이 비록 아직은 소규모이지만 점차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참고로 해외 한국학 연구의 국가별 현황과 지원 실적(1982-1999, 단위: USD) 중 제2권역 관련 자료를 발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명	기관명	연구 및 강의	학술회의	도서 및 자료	교수 파견	국내 연수	협찬금	계
오스트리아	빈 대학	71,000	-	274	17,945	-	-	89,219
계	1개 기관	71,000	-	274	17,945	-	-	89,219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	22,500	-	3,311	297,960	-	-	323,771
계	1개 기관	22,500	-	3,311	297,960	-	-	323,771
체 코	카렐 대학	-	-	2,658	217,049	4,846	-	224,553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	-	-	-	840	-	840
계	2개 기관	-	-	2,658	217,049	5,686	-	225,393
헝가리	무역대	-	-	1,070	205,460	-	-	206,530
	국제관계연구소	21,500	-	-	-	-	-	21,500
	MISKOLC 문과대	3,000	-	-	-	-	-	3,000
계	3개 기관	24,500	-	1,070	205,460	-	-	231,030
불가리아	소피아대	-	-	-	77,229	-	-	77,229
계	1개 기관	-	-	-	77,229	-	-	77,229

3.2.9. 제2권역의 한국어 보급 현황 정리

동부 유럽 지역의 한국어 보급 현황을 대표자와 학과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폴란드 포츠나니 대학교 언어학부

① 대표자: 반체로프스키 교수

② 학과 현황: 1학년생 12명, 3학년생 9명 등으로 현재 한국측 파견교수와 현지 유학생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서울대나 연세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움. 현재 한국어 전공학과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2)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학과

① 대표자: 오가렉 최 교수, 로무알트 후스챠 교수

② 학과 현황: 5학년까지 4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음, 국내 기업에서 어학실습실 시설을 지원 받음, 1962년 동양학부 일문학과의 선택 과목으로 출발, 1983년부터 학과로 승격, 취업 목적으로 최근 수강생이 많이 늘었지만 대우 사태로 인해 열기가 주춤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3) 체코 카렐 대학교 한국학과

① 대표자: 뿌첵 교수

② 학과 현황: 2학년생(13명 정도), 4학년생(14명 정도)으로 구성됨, 동유럽에서 한국학 전통이 가장 오래된 곳임, 기자재나 시설 등은 열악한 편이나 학생들의 학구열은 아주 높은 편임.

(4)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 한국학과

① 대표자: 김희열 교수 (한국학 파견교수, 잠정적인 대표임)

② 학과 현황: 학생수가 10명을 조금 넘음, 학과 구성의 하드웨어는 다른 곳보다 잘 구비되어 있는 편임, 학과 정교수 모집 과정이 끝나면 학과의 체제가 정비되고 학생수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5) 헝가리 부다페스트 무역대학 한국학과

① 대표자: 오슈와트 가보트 교수

② 학과 현황: 1989년부터 학과 개설, 무역 관련 전공 학생들이 수강(외국어 2가지)하고 있음, 12명 정도의 학생이 있음. (* 참고: 부다페스트 엘떼 대학교)

(6)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교

① 대표자: Fedotoff 교수(한국학 전공 주임 대리), 최권진 교수(한국학 파견 교수)

② 학과 현황: 동아시아 학과 한국학 전공(Section of Korean Studies, 1995년 설립)에서 5명의 교수진이 35명 내외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음, 매년 전국적으로 한국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학 연구도서 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7)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대학교

① 대표자: 유호창 교수(한국학술진흥재단 파견교수)

② 학과 현황: 한국어 코스가 개설되어 있으며, 외국인(현지인) 학생 14명이 한국어 코스 1, 2, 3 등 3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한국학 코스의 전공 과목 승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에 현지인 박사학위 소지자(한국학의 경우에는 한국 유학시 취득한 학위)가 없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전망이다.

(8) 루마니아 바베스-볼리야(Babes-Bolyia) 대학교

① 한국어 강좌(교양강좌)로 1997년 10월 개설되었으며, 학생 수는 20여 명 정도이다. 한국어 초급, 중급반 과정이 있다.

(9)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한국학과

① 대표자: 소냐 호이슬러 교수, 빌프리트 헤르만 교수

② 학과 현황: 최근 3년간 입학생을 받지 못함, 재학중인 학생은 20여명, 베를린 시의 종합대학 통합 계획으로 현재 베를린 자유 대학교와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음

(10) 기타 : 한국학 관련 국가별 지원 대상

<체코>	과학원동방학연구소	
<헝가리>	엘떼 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유고>	철학민속학연구소	

3.3. 제2권역 단위기지 구성안

3.3.1. 제2권역 단위기지 모형

앞에서 현황을 파악한 순서대로 국가와 기관을 제시하면, 폴란드의 바르샤바 대학, 포츠나니 대학, 체코의 카렐 대학,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 헝가리의 엘떼 대학, 무역대학, 불가리아의 소피아 대학,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대학, 바베스-볼리야 대학, 독일의 훔볼트 대학 등이 동부 유럽에서 한국학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제2권역에서는 각 국가별로 대표 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들을 연결하는 중심으로 하나의 기관을 언급하려고 한다. 이에 앞서 각 기관들의 장점과 단점을 한두 가지씩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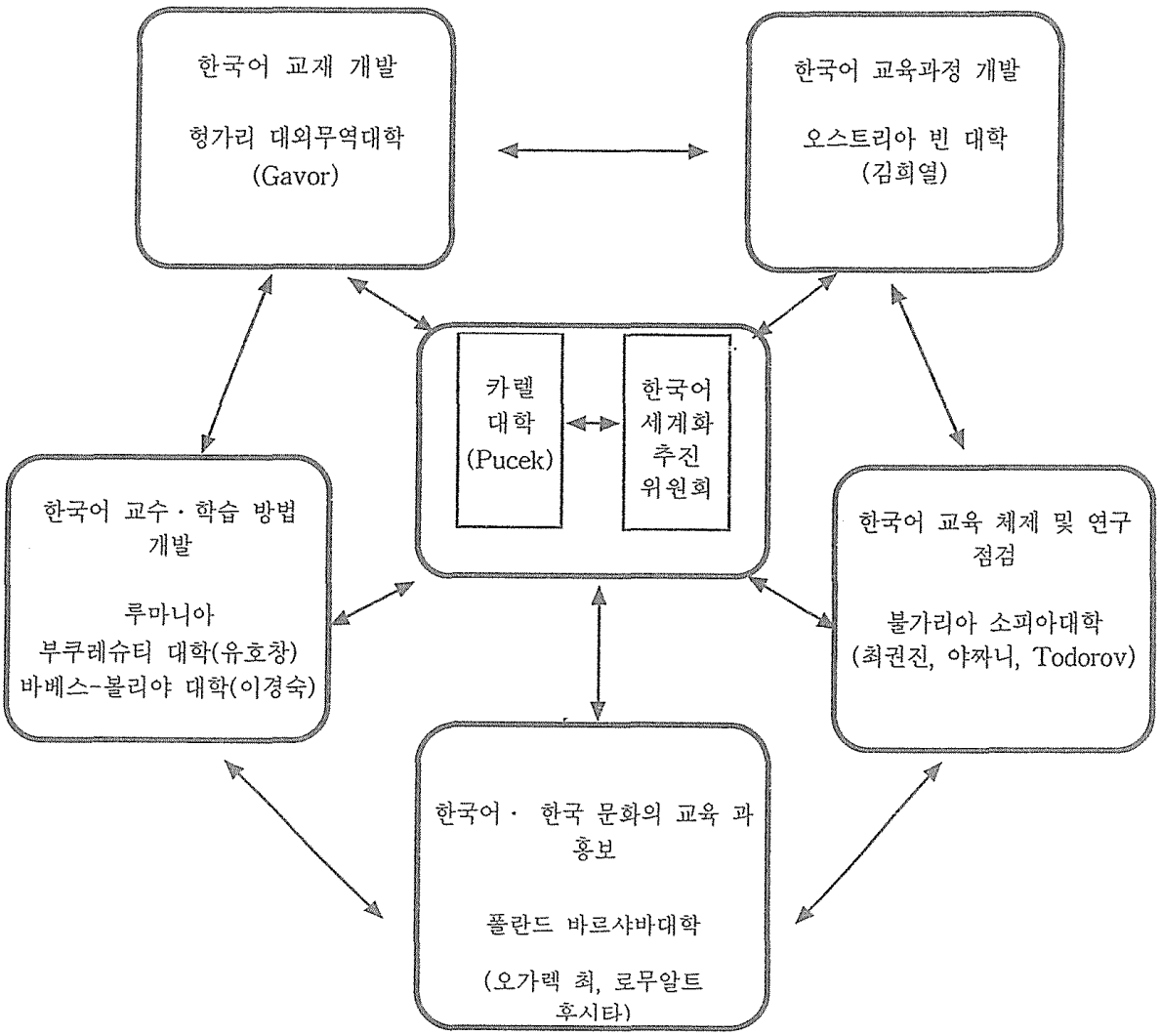
국가별 대표 대학	장점	단점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	오랜 역사, 정식 학과 기업 측의 투자, 연구 열의	발전의 답보 상태
체코 카렐 대학	교육 및 연구 전통, 정식 학과, 연구 인력, 적극적인 대외 활동	시설 부족
오스트리아 빈 대학	대학 측의 지원, 시설 확보	정교수(구심점)의 부재, 연구 인력 부족, 최근의 수강생 수 빈약
헝가리 대외무역대학	연구자의 열의, 국내 기관의 지원	정식학과 아님, 엘떼 대학과의 경쟁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	연구자의 열의, 적극적인 노력	짧은 역사, 체제 미비, 후속 연구 인력 부족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대학	학과 개설 열의	전통이나 기반 시설 빈약함
독일 훔볼트 대학	오랜 전통	구조조정 논의 중에 있음

본 과제에서는 단위기지 구성의 원리로 다음의 7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1) 특성화와 통합화의 원리
(2) 집중과 분산의 원리
(3) 효율성과 체계성의 원리
(4) 전문성과 기초성의 원리
(5) 효용성과 생산성의 원리
(6) 총체적 접근의 원리
(7) 보편성과 대중성의 원리

이 원리와 기관별 특성을 토대로 실제 동부 유럽 단위기지 구성(안)을 제시하면, 지역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체코의 카렐 대학을 중심으로 각 대표 기관들이 방사상으로 연결된 구성(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각 지역별로 예시된 대학들이 실제로 해당 국가의 한국학 연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한국학 연구는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이 모형은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제2권역 단위기지 구성(안) 모형



3.3.2. 단위기지 설정의 근거

제2권역 단위기지 중심 기관으로 체코의 카렐 대학 한국학과를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까렐 대학 뿌첵 교수는, 빈 대학의 김희열 교수, 바르샤바 대학의 오가렉 최 교수와 함께 동부유럽권은 물론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한국어 전문가이자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다. 동부유럽 권역이 교포보다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어,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인보다는 외국인 한국어 전문가가 총괄 책임을 맡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다. 또한 헝가리 대외무역대학의 가보르 교수 역시 과거에 북한에서 유학하고 학위를 할 정도로 한국어 전문가이며, 불가리아의 최권진 교수 역시 10여 년간에 걸쳐 소피아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학 교육, 불가리어판 한국어 사전 편찬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권진 교수의 제자인 야니짜 교수 역시 소피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와서 1년 이상의 연수를 받고 귀국한 한국어에 매우 능통한 소장 학자이다. 아울러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의 오가렉 최 교수나 로무알트

후시타 교수 역시 다년간 한국어 교육에 힘써 온 핵심적인 학자들이다. 특히 최근에 각각 KRF와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루마니아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부쿠레슈티 대학의 유호창 교수는 루마니아에 정통한 학자이며, 바베스-볼리야 대학의 이경숙 교수 역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한국어 강좌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동부 유럽 각국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주요 전문가들에 해당한다.

특히 뿌첵 교수가 소속해 있는 체코의 카렐 대학교 한국학과는 서양의 다른 대학과는 달리 처음부터 중국학과나 일본학과의 보완적인 분과가 아닌 독립된 학과로 설립되어 발전해왔다. 당시 실제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에 소련을 제외하고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한국학이 독립 학과로 제일 처음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1991년 가을부터 한국학을 더 깊고 광범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하고, 두 개의 전공을 동시에 공부해야 하는 종전의 학제 이외에도 한국학을 유일한 학과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작성, 실시되었다.

초창기에는 상호 방문, 자료 및 인적 교환, 공동 세미나 등 학술 교류의 형태가 주로 소련, 동독, 폴란드, 북한 등 종전의 사회주의 국가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1970년대부터 카렐 대학의 한국학과는 서유럽의 일부 대학 한국학과 또는 도서관과 접촉 및 교류를 시작했다. 1980년부터 유럽 한국학회가 주최한 국제 학술회의에 매년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회에 참석했던 남한의 여러 학자, 교수들과 만날 수 있었고 점차 교류의 기회를 확대했다. 1989년 11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정치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 1990년 체코의 한국학은 새로운 발전의 조건과 가능성을 맞게 되었다.

1990년 3월 대한민국과 외교관계 수립
1990년 4월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일행의 공식 방문
1990년 7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일행 방문,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1년 3월부터 한국 교수가 프라하에 파견되기 시작함)

지난 10여 년간 체코의 한국학은 꾸준히 발전세를 유지해오게 되었는데, 이는 외적으로 체코의 개혁, 개방에 힘입었고 내적으로는 카렐 대학교에서 한국학과를 이끌어온 뿌첵 교수를 포함한 교수진, 학생의 노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물론 국내외에서 정부 및 민간 단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제2권역 단위기지 대표자인 카렐 대학 한국학 부교수 블라디미르 뿌첵 교수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직위: 카렐 대학 한국학과 학과장
주소 및 연락처
Office addres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Faculty of Arts and Philosophy
Charles University, Praha
Celetná 20, 110 00 Praha 1
Czech Republic

Tel.: (420-2) 244 91 424
FAX: (420-2) 244 91 423
E-mail: Vladimir.Pucek@ff.cuni.cz

Home address:
Vokovická 679/10
160 00 Praha 6
Tel. (420-2) 3535 2553

출생 : 1933년 6월 16일, 체코의 Hradec Králové

<주요 학력 및 경력>

1939－1952	Hradec Králové에서 초등/문법 학교 재학
1952－1957	프라하 카렐 대학교 철학부 (주전공 : 한국학, 부전공 : 동아시아 역사)
1957－1958	카렐 대학교 한국학/조선학 강사
1959－1961	체코슬로바키아 외교통상부 한국어/조선어 번역관
1963－1966	체코슬로바키아 외교부 (평양 주재 대사관)
1962－1963/10	카렐 대학교 한국학 조교수
1966－1985	카렐 대학교 한국학 조교수
1967	카렐 대학교 박사학위(PhDr.) 취득 : 한국학(문학)
1972－	카렐 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학과 소속 한국학 전공 주임교수 (현재 동아시아학 연구소 소속 한국학과)
1974－1989	아시아·아프리카 학과 동아시아 전공 주임교수
1.1.1985	카렐 대학교 한국학 부교수 임용
1990－2000/6	카렐 대학교 동아시아학 연구소 부소장
1991－1993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어과 교환교수

<기타 경력 및 활동>

1966－	체코 동양학회 회원
1980－	유럽 한국학회 회원
1989－93	유럽 한국학회 이사
1990－	체코-한국 학회 회장
1995－	유럽 한국학회 17회 학술대회 총무 (프라하)
1998－	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방한 (성균관 대학교, 국립국어연구원 등 방문)
1999－	동숭학술상 수상 (한국어학 분야, 1999년 9월)
2000－	한국어학 관련 국제학술회의 조직 (7월, 프라하) 국제한국어학회(ICKL) 주최, 한국학술진흥재단 후원

한국 관련 국제학술회의 참석 (발표)
유럽 한국학회 주최 국제학술회의 (1980, Leiden; 1981, Zürich; 1982, Copenhagen; 1984,

Durham/London; 1985, Chantilly/Paris/Lyon; 1986, Bochum; 1987, Stockholm; 1989, London; 1990, Warsaw; 1993, Berlin; 1995, Praha; 1997, Stockholm; 1999, Hamburg; 2001, London) 이외 다수

(영문) Korean Studies Associate professor Vladimír P U C E K

Head of the Seminar

Office addres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Faculty of Arts and Philosophy
Charles University, Praha
Celetná 20, 110 00 Praha 1
Czech Republic
Tel.: (420-2) 244 91 424
FAX: (420-2) 244 91 423
E-mail: Vladimir.Pucek@ff.cuni.cz

Home address:
Vokovická 679/10
160 00 Praha 6
Tel. (420-2) 3535 2553

Born: 16.6.1933 in Hradec Králové, Czech Republic
Education and Employment

1939–1952	Elementary and Grammar School in Hradec Králové
1952–1957	Faculty of Philosophy, Charles University, Praha (major: Korean studies, minor: History of the Far East) - graduated 1957
1957–1958	lecturer (Korean Studies), Charles Univ.
1959–1961	Interpreter in Korean, Ministry of Foreign Trade
1963–196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mbassy of Czechoslovakia in Pyongyang)
1962–1963/10	Assistant-professor in Korean studies, Charles univ.
1966–1985	Assistant-professor in Korean studies, Charles univ.
1967	PhDr. degree (Korean studies - literature), Charles univ.
1972–	Head of the Korean Section of the Dept. Asian and African Studies, Charles Univ., (now Seminar of Korean studies in the Institute od East Asian Studies)
1974-1989	Head od the Far East section of the Dept.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1.1.1985	Appointed associate-professor in Korean Studies, Charles Univ.
1990 - 2000/6	Vice-Director of the Institute od East Asian Studies, Charles Univ.

1991-1993	Exchange professor of Czech language at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Other activities

1966–	Member of the Czechoslovak (Czech) Oriental Society
1980–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AKSE), member of the AKSE Council 1989-93
1990–	Chairman of the Czech-Korean Society
1995–	Secretary of the 17th Conference of AKSE (Praha)
1998–	Grant Korea Foundation - Research Fellowship for Korean Studies (10 weeks), Seoul (Songgyun´gwan Univ., National Academy of Korean Language)
1999–	Awarded Dongsoong Foundation Prize for achievements in Korean linguistics (Sept. 1999)
2000–	Co-operation in a prepa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July, Praha), organized by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and sponsored by the KRF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Korea (with presentation of papers):

AKSE Conferences: 1980 (Leiden), 1981 (Zürich), 1982 (Copenhagen), 1984 Durham, London), 1985 (Chantilly, Paris, Lyon), 1986 (Bochum), 1987 (Stockholm),

1989 (London), 1990 (Warshaw), 1993 (Berlin), 1995 (Praha), 1997 (Stockholm),

1999 (Hamburg), 2001 (London)

(참고 : http://fareast.ff.cuni.cz/portrety/vp/biogrvp.htm)

3.4. 제2단위기지의 주요 개발 및 보급 과제

3.4.1.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국가 차원에서부터 수업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 걸쳐 있고, 한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역에 따라 사회·문화적 배경과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폭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리고 교육과정 계획에는 철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기초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한국어교육은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교육과정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현재 표준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국내외의 각 교육기관에서는 층위의 차이야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제2권역의 각 교육기관들도 지역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이나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접근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다만 표준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국내의 연구와 해

당 지역의 필요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3.4.2. 한국어 교재

공식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어 수업은 대개 특정한 교재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교재가 교사와 학습자를 매개해 왔다. 따라서 교재 없는 수업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그만큼 수업에서 교재의 역할은 중요하다.

제2권역의 교육기관에도 이제는 한국에서 개발된 최근의 교재가 이전에 비해 많이 보급되고는 있지만, 아직 충분한 정도는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어 학습용으로는 아주 어려운 논문류의 서적이나 국내의 국어 교과서가 장서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형편에 비하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이 지역의 경제 사정이나 대학의 지원 형편 등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국내에서 개발된 도서를 기증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국내의 지원만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현재 맹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의 한국어교육,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 투자의 차원에서도 좀더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부 유럽내의 한국학 연구자들은 그간 열악한 상황하에서도 꾸준히 사전, 교재 등을 개발해 왔다. 현지에서 개발된 교재는 아무래도 현지의 사정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지 연구자들의 한국어 교재 편찬에도 국내 지원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4.3.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대개의 결론은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해외의 한국어교육에도 적용되겠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해외의 한국어교육은 한국학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국내의 외국언어문학 교육 현장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해외 한국학과의 교육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문화와 언어교육의 연관성,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방법의 효용성 등이 현재 동부 유럽 한국어 교육자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국내의 논의를 적용시킬 것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자료와 방법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3.4.4. 한국어 교육 및 연구의 점검

제2권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지 10여 년 정도가 되었다. 과거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잉태되었던 이 지역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연구는 지역별로 몇몇 연구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1세대 연구자들의 은퇴를 이어나갈 연구자 또는 새로이 개척해야 하는 후속 세대가 부족한 것은 이 지역 한국학이 당면한 과제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남으려는 인재가 많이 줄은 데다가 한국학 기관의 영세성, 소규모의 지원 등 한국학 교수 요원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몇몇의 신진 연구 인력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들이 한국어 교육과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4.5.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교육과 홍보

지리적인 거리가 멀고 문화적인 교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동부 유럽 지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이 개방되고 한국에서 이른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90년대 들어서이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서부 유럽 국가나 러시아 등과 많은 교류를 해왔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이러한 배경은 국가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편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외국어 교육 현황도 마찬가지로 교류의 역사와 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이 지역의 연구 기관과 교민, 공관 등을 중심으로 조금씩 알려지다가 몇 해 전부터 속속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의해서 보다 많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홍보를 기업의 해외 진출에만 의존하게 되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대우 사태의 여파가 폴란드를 비롯한 동부 유럽 국가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는데, 국가적인 이미지 개선과 홍보라는 장기적인 정책에 경제 부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은 경기의 흐름을 타고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과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현지의 연구 기관과 공관이 중심축으로서 긴밀한 관련을 맺을 수 있게끔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현지 진출 기업의 역할도 기대해야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V. 단위기지의 주요 과제와 실천 방향

1. 과제 선정의 접근 방법

단위기지의 주요 과제를 고려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다층적,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특히 제 1권역(대양주)의 경우에 그러하다.

첫째, 교육 및 연구의 다층적, 심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즉,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 방법, 교육 및 연구자의 양성 문제들이 동시에 혹은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발표의 성과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전문가의 양성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둘째, 초·중·고·대학·일반의 학교급별 혹은 학습자별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 학술적, 현장적, 경제적, 문화적 접근 등의 다각화와 협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양주의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호주 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선택을 확대시키는 문제이다. 이는 대학의 한국어교육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조영아(1995)에서도 일찍이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의 해결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단위기지의 역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학교급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노력이 요구된다.

2. 구체적 과제

2.1.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과정의 개발은 교재 개발은 물론 실제 교육 현장에도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노력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은 국내에서의 표준 모형 개발은 물론, 국외의 권역별, 국가별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개발 과정은 연구자들이 상호 교류와 이해를 활성화하고,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성과들을 확인하고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2.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와 관련하여 언어권별 연구와 학습자에 대한 연구 부진 문제는 백봉자(1999)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즉, "1970년대 중반부터 국내 각 교육기관에서는 동양어권 특히 일본어권 학습자의 양적인 팽창을 감당하다 보니, 자연히 서양어권 학습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게 되었다.……그렇다고 해서 일본어권에 대한 연구가 특별히 진행되어 온 것도 아니니 일반적으로 언어권별 연구나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백봉자, 1999:3)

다행히도 최근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 교재의 기본 모델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재 제작의 기본 원리는 '한국어 중급 교재 교수 요목 개발'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개별성, 상호작용성, 통합성, 실제성, 과제 기반성, 활동 지향성, 학습자 중심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핵심적인 원리들이 실제 교재 제작에 반영될 때에는 또 다른 정밀한 판단과 검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단원 학습 내용이 학습자 중심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습자의 모어와 모어 관련 문화를 반영하는 교재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책을 만들기 전에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는 이미 다양화되었기에 크게 영어권, 불어권, 러시아권 식으로만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고송무, 1991.)는 언급은 교재 제작과 보급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해 준다. 즉, 영어나 불어, 러시아어권 같은 접근법이 초기 보급 수준에서의 대략적인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실질적 도움이란 현장의 수업 장면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개별 문화 집단이나 국가별 교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서 권역별 단위기지의 개념은 기존의 언어권에 따른 접근보다 유용하게 작용한다.

아울러 교재와 교육과정의 개발시에는 국어교육의 연구 성과와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과서 개발시에 말하기·듣기의 경우 통합 교과서의 개발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며, 읽기, 쓰기의 교과서도 단원명을 통일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실제 교수·학습 장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미 우리의 초등 국어 교과서의 개발 경험에 축적되어 있다. '한국어 중급 교재 교수 요목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중급 교재 개발에서는 초급과는 달리 언어사용 기능별 통합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제 한국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사용 능력의 신장에 초점을 둔 교재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어 세계화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성과들이 해외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게 된다. 즉, 국내의 연구 성과들과 무관하게 해외, 특히 동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소수의 제한된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과거의 문법 중심, 번역 해석 중심, 어휘 교육 차원의 교재와 교수·학습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학습자들에게는 교재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두 명의 전문가 파견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현지의 교육 전문가들을 국내 연수시키는 등의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권역별, 국가별 전문가들에게 이미 개발된 자료들을 충분히 보급하고, 이를 토대로 권역별, 국가별 문제점의 확인과 그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그 결과들이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지원 및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인 범용 교과서의 기준 모형을 제시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 한국어를 한국의 문화와 함께 습득케 하고, 학습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어 관련 분야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더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또 다른 한 편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재 구성 원리를 고려한다면, 학습자가 속한 문화를 한국어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동기 유발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재 개발 역시 현지의 권역별, 언어별 문화적 특징들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3.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요구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개발이다.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은 한국어 교재 개발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어교육에서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은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기해 준다.

그러나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은 상당 부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기반한 독자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게임을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 활용하더라도 한국의 전통적인 놀이들을 적용하여,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의 2중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다양한 활동들, 예컨대 게임을 활용한 방법, 의사소통 기능에 초점을 둔 간접 문화 체험 방식, 다양한 녹음 자료와 영상 자료 등의 활용은 교수·학급 과정에의 투입과 검증을 거쳐 끊임없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지속적 과제에 해당한다.

2.4. 한국어 교육 및 연구의 점검(monitoring)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 개발과 관련하여, 특히 해외의 외국인들에 의해 개발된 한국어, 한국학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혹은, 최소한의 심의, 검정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윤희원, 1996). 즉, '현재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제작, 유통,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어휘 사전류, 한국어 교과서류, 한국어 학습용 시청각 자료 및 비디오와 시디롬(CD-ROM)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예술, 음식, 풍습 등)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옥석을 가려 주어야 한다.'(윤희원, 1996:186)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보급의 차원을 넘어서서 점검(monitoring)과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단위기지가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훨씬 의미 있고 수준 높은 한국어의 세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2.5. 한국어·문화 교육과 홍보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보급과 홍보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자(1995)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각 지역에서 한국 출신 입양아의 한국어문화교육과 그 해결 방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독일을 위시하여 유럽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한국 입양 청소년들이 이미 중고등 교육을 마치고 대학이나 직업 전선에서 활동하고 이다. 이들이 혈연모국을 알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기관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는 교포 2세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국내 대학 등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화, 조직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외 현지 대학에서 현지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한국학 연구소, 한국어 강좌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 학자, 재외공관의 연계성 구축도 필수적임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본 과제에서 제기하고 있는 단위기지의 역할에 매우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민현식(1996)에서는 국어와 문화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국어문화론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는 내국인의 국어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포나 외국인을 위한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절실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어 문화론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어 세계화와 단위기지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서 뜻 깊은 지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의 강조점은, 윤희원(1996)에서의 지적처럼, 특정의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의 총화로서의 문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위기지의 역할에는 한국어는 물론 그 문화의 홍보까지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의 연구 결과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성과가 축적되어 갈수록 그 효율적인 보급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또한 세계화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지역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단위기지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단위기지는 네트워크의 적극적 개념으로서 한국어와 한국학의 체계적, 효율적 접근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산재해 있는 한국어 교육 및 연구자와 연구 기관들을 지리적·문화적·언어적 특성에 따라 권역화 하여 인적(人的), 정보적 차원의 조직기반을 형성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및 연구의 원활한 보급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제의 1단계 작업에 해당하는 제 1권역과 제 2권역(각각 대양주와 동부 유럽 지역)의 단위기지 설정은 각 지역 주요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워크숍과 전문가 심층 면담, 설문조사,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서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1권역(대양주), 제2권역(동부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의 과정을 거쳤다. 그 대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39]

조사 내용은 전문가의 신원에 관한 것(성장 국가, 활동 기관, 담당 과목, 학력과 경력, 전공 분야 등), 해당 권역 혹은 국가 내에서의 한국어 수요에 대한 예상, 활동 지역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자간의 교류 정도, 네트워크(단위기지) 형성의 필요성 인식 정도, 권역별 단위기지 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단위기지 모임의 성격과 활동 내용, 권역별로 가장 시급한 과제 등이었다.

조사 결과는 대양주와 동부 유럽 두 지역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현지의 사정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단위기지 개발의 필요성은 물론 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 교재 개발, 교육과정 개발, 교육·연구자의 양성 등이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5-10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당 권역의 한국어 학습자나 연구자에 대한 수요 예상을 묻는 항목에서 현상 유지, 증가, 감소, 잘 모름 등에 대체로 고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아직도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안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물론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기업체 등 경제적 관련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동구권의 경우 헝가리는 학생수의 감소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은 반면, 불가리아(소피아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현지의 한국에 대한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어 교육 체제의 효율성과 전문성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권역별로 한국어 교육 및 연구 담당자간의 교류 정도가 어느 정도 활발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활발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아울러 단위기지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여자 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

39) 조사 기간은 2001년 9월말을 전후하여 동부유럽과 호주에서 각각 1주일, 3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은 대체로 대학에서 한국어나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를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대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5명, 동부유럽 10명 등 모두 약 25명이 설문과 면담에 참여하였다.

한편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 기존의 학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체로 관련 지역내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별도 모임과 자율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 주는데, 특히 현지 활동 전문가들의 자율적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대양주) 네트워크의 모임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공동 연구 및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 형식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 자료 센터나 연구소(institute) 운영도 제기되어 눈길을 끈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새로운 센터나 연구소의 설립은 그만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 편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하지만 단위기지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센터 설립이 중장기적 대책으로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기지의 구체적인 활동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1년에 2번 이상의 학술대회나 워크숍, 세미나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 제2 권역별 현지 여건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교육과정의 구성, 교재 개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교육 및 연구 전문가의 양성 등이 모두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성 제시된 단위기지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검증과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구체적으로 한국어 세계화의 지역화를 위한 적용 개발 연구 과제 수행 등을 위해서는 또 다른 면밀한 계획과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안은 앞으로 좀더 구체적이고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전 세계 10대 권역 중에서 1차적으로 2개 권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좀더 완전한 체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머지 후속 권역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 각 지역의 한국어 연구 및 교육의 상황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지원을 거의 받거나 혹은 소규모 지원하에서도 자생적 역량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한국과 정치·경제·문화·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의 경우 한국의 지원이 끊어지면 바로 한국어 수강생의 모집이 중단되거나 급감하는 사례가 최근에도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권역별 단위기지 설정과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 파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서 제안된 제1, 제2 권역의 단위기지 가동과 구체적인 과제 수행, 예컨대 전술한 바와 같은 교육과정의 구성, 교재 개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구체적 평가 체제의 구축, 한국어 사전의 개발 및 그 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만길 외(1997),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국학,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문당.

강현화(1999), 'SATⅡ의 한국어 시험에 대한 분석', 「한국어 교육」 제 10권 2호,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 (Hyon-Hwa Kang. 1999. An Analysis of Korean Language Test in SAT Ⅱ: Using the 1998 Official Sample Test.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0-2:117-13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64, 1972), 한국문화사대계 전7권, 고려대학교출판부.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1986), 한국학논총, 고려대학교출판부.

고송무(1991), '핀란드와 카작스탄에서의 한국말 및 고려말 교육, 교육한글 4, 한글학회.

김근수(1980), 한국학연구, 청록출판사.

김문조(1997), 정보화 시대의 문화와 문화교육, 二重言語學會誌 제14호, 이중언어학회.

김영아(1995), 호주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와 해외 한국어교육」 제12호, 이중언어학회.

김영아(2000), 호주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제2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김영자(1995), 이중언어로서의 해외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의 세계화 -독일사회 안의 한국어·문화교육과 교재 검토-, 二重言語學會誌 제12호.

김원룡 외(1983), 한국학입문, 대한민국학술원.

문화관광부(2000a),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간 협력망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사업 보고서,

문화관광부(2000b), "21세기 해외 한국학 진흥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 교육, IAKLE.

박갑수(1999), 새 천년과 우리 언어문화의 발전 방향, 국어교육연구 제 9집, 국어교육학연구 제9집, 국어교육학회.

박이문(1982), 한국학의 방법론, 『정신문화』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백봉자(1999), 서양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제 10권 2호,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

뿌첵(1991),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한글 제4호, 한글학회.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편(1980), 한국학, 현암사.

성광수(1995), "해외 한국어교육의 몇 가지 문제", 이중언어학회지 12.

성광수(1996),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위한 언어정책 검토, 「한국어 세계화의 제문제」, 이중언어학회지 제13호, 이중어학회.

수원대 한국학연구소(1990), 해외 한국학 연구 현황.

양태식·임칠성·원진숙(2000) '한국어 중급 교재 교수 요목 개발' 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오가레크-최(1991), 폴란드 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편찬과 교수 방법, 교육한글 제4호, 한글학회.

왕혜숙(1995), '영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어휘상 오류 분석', 「이중언어와 해외 한국어교육」 제12호, 이중언어학회.

윤희원(1996), 제1언어로서의 한국어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말 교육, IAKLE.

이가원 외(1981), 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이병훈 외(1984), 한국학문헌연구의 현황과 전망, 아세아문화사.
임재해 외(1999), 국학의 세계화와 국제적 제휴, 안동대학교 출판부.
정광(2000), 해외 한국학 연구의 현황과 그 지원의 효율성 연구, 연구보고서.
정광(2001), 해외 한국학 연구의 현황과 그 지원의 효율성 연구, 이중언어학 제19호, 이중언어학회.
정재훈(2000), 대양주 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제1차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이중언어학회
조동일(1985), 한국인문과학에 끼친 서양의 충격과 한국의 전통, 『연세대학교창립100주년기념 학술회의논문집』, 연세대학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2), 한국학연구의 성과와 그 성찰, 보고논총 8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학 기초자료선집.
한국학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1972), 韓國學大百科事典, 乙酉文化社.
한영균 · 성기철 · 신현숙 · 유필재 · 옥철영(2000),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간 협력망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사업 보고서", 문화광광부 세계화 추진 위원회. (이하 한영균 외(2000)으로 표기)
한재영 · 윤희원 · 서혁(2001), 21세기 해외한국학 진흥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헤르만(1991),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동독)에서의 한국말 교육과 교재에 대하여, 교육한글 제4호, 한글학회.
Cho, Young-Dal(2001), 'Directions of Research in Overseas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Ed. by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KAREC.)
Choe Yoon, Inshil. 2001. Korean Language Teaching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Materials Development in New Zealand. In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Ed.),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KAREC.
Frank's Korean Studies Page, Harvard Univ. Korea Institute의 Frank Hoffmann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Ed.(2001),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KAREC.
Internet Resource on Korean Studies at UCLA (UCLA대 동아시아도서관)
Internet Resources (in English) on Korea (하와이대)
Jung, Jae-Hoon. 1997. Distance Language Education Using Multimedia - A Case Study in Australia.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8.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Keneth Wells(2001), Korean Studies: Humanities-Prospects and Imperatives,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Ed. by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KAREC.
Kim, Young-MI(1996), 'Crossing Disciplinary Boundaries in Studying Home Language Maintenance and Re-Learning, Bilingual Education, vol.13, The Korean Society of

Bilingualism.

Park, Duk-Soo(2001), Collaborative Approaches for Teaching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Ed. by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KAREC, 2001.)

Suh. Chung-Sok(2001), Korean St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Networks for Today and Tomorrow,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Ed. by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KAREC, 2001.)

Tcha, Moojoong. 2001. Korean Studies on Business and Economics in Australia. In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Ed.),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KAREC.

- 전자 저널 및 인터넷 자료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http://www.anu.edu.au/)

Griffith University (http://www.gu.edu.au/)

University of Queensland (http://www.uq.edu.au/)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http://www.swin.edu.au/)

University of Melbourne (http://www.unimelb.edu.au/)

Monash University (http://www.monash.edu.au/)

Sydney University (http://www.usyd.edu.au/)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http://www.unsw.edu.au/)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http://www.curtin.edu.au/)

University of Auckland (http://www.auckland.ac.nz/)

University of Waikato (http://www.waikato.ac.nz/)

호주 정부 국제 교육부(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 AEI) (http://aei.detya.gov.au/)

주한 호주 대사관 (Australian Embassy, Seoul) (http://www.australia.or.kr/)

뉴질랜드 비젼 아카데미 엔 어드벤처(http://www.visionacademy.co.nz/)

<해외 한국연구 도서 및 사이트 목록>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 by Kim Ilpyong and Han Moo-Young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Bibliography of English Language Works on Korean Buddhism by A. Charles Muller (Tokyo Gakuen University)

Coverage of Korea in American Textbooks and Reference Works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Frank's Korean Studies Page

Harvard Korean Studies Bibliographic Data Base

A Guide to Korean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Korea Collections (University of Hawaii Manoa Library)

Korean Bibliography (Library of Congress)

Korean Collection of East Asian Library at UC Berkeley
Korean History at UC Berkeley
Korean History: A Bibliography (by Ken Robinson)
Korean Studies Collection (Asian Studies Research Center, Monash University)
Selected Bibliography on Korean Unification
Writing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Western Languages:
A Starting Bibliography (The Association for Korean Music Research)

【별첨】

1.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 관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을 위한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서 이 설문의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계신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연구팀 올림-

1. 귀하께서 주로 성장하신 곳은 어느 나라입니까? ( )

2.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국가 및 기관은 어디입니까? ( )

3. 귀하께서 담당하신 과목은 어떠하십니까?
   - 강좌명 ( )
   - 강좌의 종류 ( )(예: 전공과목/교양과목/특별과정의 과목/기타)
   - 시간수 ( ) (예: 1주일에 ○○시간)
   - 학생수( )
   - 학생 구성상의 특징 (예: 전공과 학습목적 유형, 모어, 연령, 과정(학부, 대학원) 등)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

5. 귀하의 전공 분야와 세부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한국어학 분야 (세부 전공: 한국어교육, 국어교육, 국어학, 기타)
   ② 국문학 분야 (세부 전공:)
   ③ 언어학 분야(언어학, 영어학, 불어학, 독어학, 중국어학, 일어학 등)
   ④ 인문·사회과학 분야 (세부 전공:)
   ⑤ 사회과학 분야 (세부 전공:)
   ⑥ 자연과학 분야 (세부 전공:)
   ⑦ 예체능 분야 (세부 전공:)
   ⑧ 기타 (세부 전공:)

6. 한국어를 가르치신 경험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없음 ② 1년 미만 ③ 1-3년 ④ 3-5년 ⑤ 5-10년 ⑥ 10년 이상

7. 5-10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귀하가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에서 앞으로 한국어 학습자나 연구자에 대한 수요는 어떠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①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②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다.
   ③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8. 현재 귀하께서 활동하고 계신 지역내(대양주)에서 한국어 교육 및 연구 담당자간의 교류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활발하다. ② 활발하다. ③ 활발하지 못하다. ④ 전혀 활발하지 못하다.

9. 한국어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개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내외의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기타 의견 ( )

(*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10-12번 항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10. 권역별(대양주) 네트워크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기존 학회를 그대로 활용한다.
② 기존 학회에 전문 분과 모임을 두고 운영한다.
③ 기존 학회를 활용하되, 인적으로 재구성을 한다.
④ 관련 지역내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린 뒤, 별도 모임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⑤ 기타 ( )

11. 권역별(대양주) 네트워크의 모임 성격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동 연구 및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 형식
② 개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 형식
③ 정기적인 세미나 형식(매월 1회 정도)
④ 부정기적인 심포지엄 형식
⑤ 개인의 교육 경험을 교환하는 자유토의 형식
⑥ 기타 ( )

12. 권역별(대양주) 네트워크 구성과 상호 교류를 위한 효율적인 모임 형태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2년마다의 학술대회
②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학술대회나 워크숍
③ 1년에 3-4회(분기별) 정도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④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월례 모임이나 세미나
⑤ 기타 ( )

13.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대양주 내에서 가장 시급한 공동의 연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교육과정 개발 ② 교재 개발 ③ 사전 편찬
④ 교육·연구자의 양성 ⑤ 교사 양성 및 연수 ⑥ 한국어 수강생 확대 방안
⑦ 교수·학습 방법 개발 ⑧ 평가 방법 개발
⑨ 기타 ( )

14.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과 대양주의 한국어 교육·연구자들간에 가장 시급한 공동의 연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교육과정 개발　② 교재 개발　③ 사전 편찬
④ 교육·연구자의 양성　⑤ 교사 양성 및 연수　⑥ 한국어 수강생 확대 방안
⑦ 교수·학습 방법 개발　⑧ 평가 방법 개발
⑨ 기타 ( )

15.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타 제언이 있으시면 가능한 한 상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 연구 개요

-한국어 세계화 추진위원회 단위기지 개발팀

1. 연구 목적

한국어 연구와 교육을 위한 학술 및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한국어의 효율적인 보급 및 사용자 교육을 위해서는 현지의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등의 정보 공유,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의견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연구자 및 기관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상호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안한다.

2. 단위기지(UNIT BASE)의 개념

'한국어 보급 단위기지'의 육성은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다. 이는 해외 각 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수요 및 교육 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에 관여하는 개인 및 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해당 권역에서의 한국어 보급 및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기지가 담당하게 될 역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권역내 한국어교육기관 및 연구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 권역별 교재 개발 보급 및 교사 연수 등 담당 능력 육성 지원
· 외국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교두보

단위기지의 개념은 네트워크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즉, 네트워크의 개념이 개인 혹은 기관 차원의 연계성 구축이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데 비해, 단위기지의 개념은 이를 보완해 주는 적극적인 전략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기지는 비록 특정 지역 혹은 권역별 전문연구자들의 적극적 협의체 성격과 함께 대표성을 지닌 하나의 권역별 핵심 연구 단위체(Key Institution)로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세계적 네트워크 형성의 핵심적 지도력(Core 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어와 한국학 세계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 연구, 교육을 위한 각종 정보의 축적과 공유, 문제 해결 전략의 마련을 위한 효율적인 체제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3. 연구 내용

설정된 권역별 단위기지를 통해 이미 개발되었거나 앞으로 개발될 사업 결과물 및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자료를 해외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 직접 보급하도록 활용한다. 이 사업을 위하여 전세계를 역사적·지리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10개 권역으로 분할하되,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현지 사정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욕과 한국어 보급의 시급성 등)을 바탕으로 단위기지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0개 권역은 사업 예산과 인력, 시간 문제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감안하여 1년에 2개의 단위기지를 목표로 하되, 2001년도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대양주를 중심으로 시범적인 단위기지 개발을 추진한다.

4. 연구 방법

단위기지의 설정을 위해서는 세계 각지의 권역별 현황 파악과 현지 방문을 통해 관련 연구자들과의 집담회(Colloquium), 설문조사, 면접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내외의 시급한 공동 연구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여건 조성과 함께 단위기지의 역할과 과제를 구체화한다.

5. 기대 효과

한국내외의 한국어와 한국학 연구 정보를 보다 활발하고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의 연구를 통해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화에 기반한 진정한 한국어 세계화에 다가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학 연구 및 교육 지원 체계의 중요한 제안이 될 것이다.

3.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2001년도 제1회 워크숍 프리젠테이션 자료 내용

<한국어 세계화 단위 기지 개발>

1. 사업의 목적

(1)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적극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 조성
(2) 한국어 보급의 역사와 수준 및 지리적 · 역사적 ·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세계를 10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단위 기지 개발
(3) 한국어 세계화 사업에서 핵심 리더십(core leadership)의 확보

2. 사업의 내용

(1) 한국어 세계화의 전진 기지가 될 단위 기지 선정
(2) 권역별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 담당자 선정
(3) 권역별 워크숍 혹은 방문 집담회 개최 (정보 제공 및 훈련)

3. 단위 기지 설정의 기준

(1) 역사적 · 지리적 특성
(2)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3) 현지 사정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욕과 한국어 보급의 시급성 등)
(4) 사업 추진의 용이성 (준비도, 시간, 예산 등)

4. 10대 권역별 단위 기지 (안)

1권역 - 대양주 <단위 기지: 한호연구소>
2권역 - 동부유럽 <단위 기지: 체코 카렐 대>
3권역 - 동남아시아
4권역 - 서남아시아
5권역 - 러시아 등 구소련권
6권역 - 중앙아시아
7권역 - 아라비아 및 아프리카
8권역 - 서부유럽
9권역 - 동북아시아
10권역 - 남북아메리카

5. 기본 원리와 방향

(1) 세계화와 지역화 (집중과 분산, 분산적 집중 ⇒ 정보 공유, 문제 사태에 대한 공동 대처),
(2) 협력과 경쟁
⇒ 특성화와 통합화/ 집중과 분산/ 효율성과 체계성/ 전문성과 기초성/ 효용성과 생산성/ 총체적 접근/ 보편성과 대중성

6. 역할

(1) 한국어 교육 및 연구의 중심
(2) 한국어 교육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3) 한국어 교육 정보 제작 및 보급
(4) 한국어 교육 인력 양성 및 연수

7. 과제

(1) 권역별 단위 기지 선정
(2) 단위 기지별 담당자의 선정과 훈련
(3)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재원 확보
(4) 제공할 정보 및 재료의 확보
(5)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지원 인력 확보
(6)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지속성 확보

8. 구체적 계획(안)

(1) 제1권역과 제2권역 단위 기지 개발
(2) 단위 기지별 담당자의 선정과 훈련
(3) 향후 전망 진단 및 추진 방안 제안

4. 헝가리 한국어 현황 및 졸업시험 평가문항(예)

주소 : Kulkereskedelmi Foiskola, Keleti Nyelvek Tanszeke, Hungary Budapest 1165 Diosy u. 22-24(College for Foreign Trade Dept. of Oriental Languages, Korean Language Section).

전화번호 : 36-1-467-7991
Fax 번호 : 36-407-1572
E-mail : osvathgabor@hotmail.com

부다페스트 무역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부다페스트 무역대학 동양어학과는 한국어를 1989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국어 이외에도 중국어, 일본어와 아랍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를 살펴보면, 전임교수는 단지 3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간 강사이다(6명). 파견 교수는 모두 3명이 근무하고 있다(한국어 1명, 중국어 1명, 일본어 1명). 이 중 한국어 교수는 KRF(한국학술진흥재단, 이하 KRF)에서 파견하였다.

한국어 분과의 경우, 먼저 분과의 과장은 Osvath Gabor(한국명 : 오시완) 교수이고 전임이다. 그리고 파견 교수로는 KRF에서 파견된 이용 교수가 있고 시간 강사로 역사학을 전공한 Fendler Karoly 박사가 있다. 오쉬와트 교수와 이용 교수는 일반 한국어와 비즈니스 한국어를 가르치고, 펜들러 박사는 한국의 역사와 경제지리를 가르친다.

여기서 한국어 분과의 시설을 둘러보면, 우선 2개의 교수실이 있다. 그리고 책자 600권 정도, 486 삼성컴퓨터 1대(한국 대사관에서 펜티엄급 기증 예정), 한국어 문화를 소개하는 슬라이드와 비디오물 등이 있다.

무역대학 학생들은 2가지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한국어는 다른 동양언어처럼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 한국어 수업은 일주일에 6-8시간씩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학생수는 모두 8명이다. 2학년생 4명, 1학년생 4명이다. 특기할 것은 3학년 학생(98년 입학생)이 없다는 것이다.

동양언어학과의 역대 학과장 : Hidasi Judit 박사(1989-1998)
Osvath Gabor 박사과정 졸업생(1998-현재)

Hidasi 교수는 1998년 9월에 헝가리 교육부 장학국 국장이 되어 일하다가 2001년 3월말부터 일본의 지바대학교에 초빙교수로 가서 근무하고 있다.

한국어분과 교수들이 작성한 교과서와 기타 교재들

1. Osvath : 한국어의 말소리와 한글(1990년)
2. Osvath : 비즈니스 한국어 독본(1991년)
3. Tersler : 한국사 Ⅰ.(1993년)
4. Osvath : 한국어 동사 사전(1993년)
5. Osvath : 한국어 독본Ⅱ.(1996년)
6. Hidasi-Park Soo-young-Osvath-Szigeti : 헝가리어-한국어 회화집(1997년)
7. Fendler: 한국사 Ⅱ.(1997년)

<헝가리 한국어 졸업시험 문제지 예>

비즈니스 한국어 중급 시험
문법과 어휘
보 기

모든 문제를 40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모든 답을 답안지에 쓰시오.

Ⅰ. 다음에서 정의한 단어들이 무엇인지 쓰시오.

1. 공업화에서 뒤떨어진 저소득수준의 나라.
2. 국가가 경제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우는 방법과 정책.
3. 부분적인 경제관계를 통일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
4.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상품을 수출할 때 화물이 국경선을 통과하는 데 대하여 수입하는 국가가 부과하는 일정 금액의 조세
5.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일반 물가 수준이 크게 올라가는 상태.
6.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
7. 자본의 경제적 이동.
8.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9. 은행이 수입업자의 의뢰에 응해서 금액이나 기간 등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그들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10. 갚아야 할 돈.

Ⅱ. 이탤릭체로 쓴 단어들을 알맞은 형태로 바꾸어서 아래 문장들을 완성하시오.

11. *현대* 한국의 자동차공업은 많이 .....
12. *높다*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최근에 많이 .....
13. *사치* 어떤 부자들은 너무나 .....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4 *만들다* 그 회사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 시작했습니다.
15. *오다* 많은 한국의 무역업자들이 헝가리에 ..... 있습니다.
16. *발전* 헝가리 정부도 전자공업을 급속도로 .....
17. *높다*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생활수준이 떨어졌습니다.
18. *돕다* 한국이 헝가리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헝가리에 큰 .....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9. *방문* 내일 텔레비전 공장을 ..... 대표단의 단장은 김성철 부장입니다.
20. *수출* 그 제품을 미국에 .....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Ⅲ. 다음 각 문장의 처음과 끝은 주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를 알맞게 넣으시오. 답안지에 쓰시오.
21. " 그 제품을 언제 납품하실 수 있습니까?"

기자는 ..... 궁금했습니다.

22. "나와 박 부장은 내일 계약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나는 박 부장과 ..... 약속했습니다.

23.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김 사장은 ..... 말했습니다.

24. "흑색 텔레비전을 더 이상 생산하지 마시오."
박 사장은 ..... 지시했습니다.

25 "이자율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손님은 ..... 물었습니다.

26. " 이 회사는 과거에 카라디오도 생산했습니까?"
나는 ..... 모릅니다.

27. "우리 회사는 카라디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최 부장은 ..... 대답했습니다.

28. "그 전자계산기의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고객은 ..... 불평했습니다.

29 "이 회사의 이름은 현대자동차입니다."
이 회사는 ..... 합니다.

30. "은행에 가서 헝가리 돈을 미국 달러로 바꾸어 주십시오!":
김 부장은 나에게 ..... 부탁했습니다.

Ⅳ. 다음 단어들로 아래의 문장들을 완성하시오. 주어진 단어나 표현들은 각각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 의하면 -에 대한 다해서 -지만 -뿐만 아니라 -만합니다 -로 인해서 -니까 그리고 -함으로써

31. 원자력 발전회사는 에너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후에야 민영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32. 이 자료..... 대부분의 기업들은 60년 이상 시장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33.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 수익을 획득하게 됩니다.
34. 헝가리 무역 장관은 화학, 수지 ..... 제약 공업의 분야에서 다른 합작회사들의 설립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5. 온 국민이 전력을 .....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36. 한국은 아직도 외채가 조금 있는 채무국이 ..... 앞으로 외채를 다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37. 경제가 발전하..... 자연히 생활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38. 한국사람들은 생활..... 사고방식도 달라졌습니다.
39. 택시운전사들이 시위..... 지하철을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수단들이 멈추었습니다.
40. 그 상품은 아주 싸니까 살.....

V. a-d 중에서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41. 그 회사는 텔레비전을 매년 5만 ..... 생산합니다.

a. 개 b. 가지 c. 대 d. 편

42. 경제학자들은 그 문제를 ..... 성공했습니다.
a. 푸는 데 b. 푸는 것을 c. 풀 것을 d. 푸는 데에서

43. 외국 대표단은 신라호텔에 방을 ..... 싶어합니다.
a. 주문하고 b. 예약하고 c.임대하고 d. 시키고

44. 한국은 몇 년 내에 ..... 될 것이라고 합니다.
a. 후진국이 b. 중진국이 c. 선진국이 d. 공화국이

45. 고객의 요구를 .....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a. 시키기 b. 만족시키기 c. 만족되기 d .만족하기

46 주택 문제는 한국에서도 여간 큰 문제가 .....
a. 아닙니다 b. 있습니다 c. 되었습니다 d. 없습니다

47. 한국은 매년 국제박람회..... 참가합니다.
a. -에서 b. -로 c. -에의 d. -에

48.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형가리 시장.....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a .-에 b. -에서 c. -으로 d. -에 있어서

49. 그 회사는 생산량을 10..... 줄였습니다.
a. 퍼센트로서 b. 퍼센트 c. 퍼센트가 d. 퍼센트도

50. 그 나라는 평균 임금이 순 200불..... 불과합니다.
a. -을 b.-에 c. -에서 d. -까지

모든 문제를 40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모든 답을 **답안지**에 쓰시오.

비즈니스 한국어 중급 시험
문법과 어휘
보 기

1. 첫 번째 본문

고물가 왕국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가 세계 정상급이라고 한다. OECD가입을 앞두고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지만 물가는 벌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메달 색깔을 다툴 정도로 최정상에 올라 있다. 1인당 국민소득 등 국민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단연 1위이다.

본지가 서울, 도쿄, 뉴욕, 파리, 괴팅겐, 북경, 모스크바 등 세계 7대도시의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한 결과 일본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 역시 "물가왕국"임을 확인시켰다. 우리 돈 5만원 한도에서 11가지 종류의 생필품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품목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조사대상 품목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제품을 선정했다. 이들 11가지 품목을 남대문시장을 위주로 구입한 총액은 정확히 5만2백90원이다. 5만원을 가지고 같은 품목을 살 수 없는 도시는 도쿄뿐이었다. 도쿄는 우리 나라보다 평균 10% 정도 비쌌다.

그러나 나머지 도시 중 독일의 괴팅겐(4만9천3백원)을 제외하고는 같은 5만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두 배 정도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스크바는 1만9천9백40원, 북경은 2만7천백68원, 뉴욕은 2만5천4백원, 그리고 파리는 3만5백80원이면 11가지 품목을 모두 살 수 있었다.

품목별로는 11가지 중 오렌지 쥬스와 양파, 배추에서 일본을 제치고 서울이 고물가 1위를 차지했다. 또 쇠고기와 달걀은 2위를, 우유와 수박 그리고 면내의는 3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것은 코카콜라와 햄버거였다.

오렌지 쥬스는 파리보다, 양파와 쇠고기는 뉴욕보도 서울이 세 배나 비쌌다. 쇠고기는 같은 돈으로 북경에서 사면 네 배나 많은 양을 살 수 있다. 배추의 가격차는 더욱 심하다. 서울의 배추 값은 뉴욕보다 일곱 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 수박의 경우 독일이 일본보다도 월등히 비싼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독일인들에게 별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재정경제연구원과 소비자보호원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도쿄, 파리, 런던 등 선진 7개국 도시와 비교한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산품 위주로 비교한 이 조사에서는 서울이 도쿄와 파리에 이어 세 번째로 물가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A. 위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다음 문장들의 내용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를 결정하시오. 답안지에 "옳다" 또는 "옳지 않다"라고 쓰시오.

1. 한국에서는 공산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도쿄와 파리보다도 비싸다.
2. 서울의 물가수준은 세계 7대도시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3. 도쿄는 서울보다 약간 비싼 편이다.
4. 7대도시 중에서 제일 비싼 도시는 독일에 있다.
5. 서울의 오렌지 쥬스 가격은 일본과 비슷하다.
6. 서울에서 제일 비싼 것은 햄버거이다.
7. 서울의 쇠고기는 뉴욕보다 비싸다.
8. 수박은 독일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보다 t다.
10.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는 이 신문의 조사 결과와 아주 다르다.

B. 의의 본문을 보면서 다음 단어의 동의어를 찾고 답안지에 쓰시오.

11. 가격, 값
12. 일용품
13. 사다
14. 국가
15. 선택하다, 고르다

2. 두 번째 본문
빈자리에 필요한 말을 답안지에 쓰시오.

헝가리에 와 있는 한국 신문기자들은 4월 27일에 삼성전자의 텔레비전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공장은 1990년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독일에 ...(16)... 삼성전자의 공장에서 온 부품으로 텔레비전을 여기서 조립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모두 230명인데 그 중에서 한국사람은 2명밖에 ...(17)... . 이 공장은 1996년에 컬러텔레비전을 23만대 생산했는데 금년에는 40만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헝가리에서의 시장점유율이 25 퍼센트인데 생산량의 75퍼센트를 외국으로 ...(18)... . 이 공장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균월급은 7만 포린트입니다. ...(19)... 8시간인데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을 합니다. 근로자들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구입하려면 22퍼센트의 ...(20)... 받습니다.

비즈니스 한국어 중급 시험
듣 기
보 기 2

신사 숙녀 여러분

한국 기업에는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고용 체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고용 체계의 3대 특징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종신 고용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장기 고용이 보증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는 미국 회사처럼 간단히 해고하거나 일시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에는 연공 서열 제도가 있어 승진이나 승급에 있어서 D나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셋째, 회사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모와 같은 보호적인 역할 그리고 사원은 자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고용 관계는 그 성격상 꼭 계약저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부모 자식간의 정적인 유대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고용자는 반드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고 직장에서 서로 일하기 쉬운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고용 방법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따라 경쟁이 아주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종신 고용을 계속해 나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종신 고용 제도를 포기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문에 역시 이 제도를 폐지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공 서열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연장자보다 에너지가 많고 아이디어가 좋은 젊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 동유럽 주요 면담자 현황

Doc. Olga Lomová
Director of Institute of the East Asian Studies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Celetná 20 116 42 Prague 1 Czech Republic
Phone: (+420 2) 24 491 421
Fax: (+ 420 2) 24 491 423
E-mail: lom@ruk.cuni.cz
http://udv239-3.ruk.cuni.cz

PhDr. Miriam Löwensteinová
Faculty of Institute of the East Asian Studies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Celetná 20 110 00 Prague 1 Czech Republic
Phone: (+420 2) 244 91 424
Fax: (+ 420 2) 244 91 423
E-mail: mlowensteinova@yahoo.com
http://udv239-3.ruk.cuni.cz

pucek_vladimir@yahoo.com

Dr. Gwon-Jin Choi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Sofia University "St. Kliment Ohridski" Center for Oriental Language and Cultures Section of Korean Studies
Naicho Tsanov street 79 Sofia 1303, Bulgaria
Tel: (+359-2)201042(*115)
Fax: (+359-2)200849
E-mail: gjchoi@fcml.uni-sofia.bg

Prof. Dr. Todor Shopov
Vice-Dean. Head of Department of Methodology, Sofia University
Sofia 1504, bulgaria 15 Czar Osvoboditel Blvd.
Phone : +359 2 46 51 43
E-mail: todor@fcml.luni-sofia.bg

Prof. Alexander Fedotoff
Vice-Dean. Director of Center of Oriental Languages and Cultures. Head of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Sofia 1504, bulgaria 15 Czar Osvoboditel Blvd.
Phone: +359 2 46 51 43
E-mail: alexfedfcml.uni-sofia.bg

Dr. Osbath Gabor
헝가리 대외무역대학((Külkereske delmi füskola. Foreign Trade College), -엘떼(Eotvos Lorand)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

6. 유럽 한국학회(AKSE) 현황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AKSE) is the main scholarly society for Korean studies in greater Europe. Its objectives are to stimulate and co-ordinate academic Korean studies in all countries of Europe, and to contribute to the spread of knowledge of Korea among a wider public. Founded in 1977, AKSE holds regular scholarly conferences and publishes an annual Newsletter.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COUNCIL MEMBERS 1999-2001

President:
Prof. Dr. Werner Sasse
Abteilung Korea
Universitat Hamburg
Binderstrasse 34
D-20146 Hamburg
Germany
email: or5a007@rrz.uni-hamburg.de

Vice-President:
Dr. Alexandre Guillemoz
Centre Coree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Maison d'Asie, 22 avenue du President Wilson
F-75116 Paris
FRANCE
email: Alexandre.Guillemoz@ehess.fr

Secretary:
Treasurer:
Prof. Dr. Eckart Dege
Geographisches Institut
Universitat Kiel
D-24098 Kiel
Germany

email: dege@geographie.uni-kiel.de

Members:

Dr. Jae-hoon Yeon
Centre for Korean Studie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Thornhaugh Street
London WC1H 0XG
United Kingdom
email: jy1@soas.ac.uk

Dr. Koen De Ceuster
Centre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Leiden
POB 9515
2300 RA Leiden
The Netherlands
email: DeCeuster@rullet.LeidenUniv.nl

AKSE Newsletter Editor:

Dr. Koen De Ceuster
Centre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Leiden
POB 9515
2300 RA Leiden
The Netherlands
email: DeCeuster@rullet.LeidenUniv.nl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CONSTITUTION OF THE ASSOCIATION, as amended 1989

NAME

1. The name of the Association shall be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AKSE).

OBJECTS

2. The Association shall be non-political and its objects shall be:
to stimulate and to co-ordinate academic Korean studies in all countries of Europe;
to contribute to the spread of knowledge of Korea among a wider public.

The objects of the Association shall be attained:

by organizing academic conferences on Korea;

by issuing a Newsletter;

by encouraging and facilitating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having aims consistent with its own objects.

MEMBERSHIP

3. The Association shall consist of Full Members in the categories of Ordinary Members and Honorary Members, and of Associate Members in the categories of Individual Associate Members and Corporate Associate Members.

Ordinary Membership is open to persons permanently resident in Europe with a serious academic interest in Korea. Individual Associate Membership is open to persons not permanently resident in Europe.

Applications and proposals for Membership are to be addressed to any member of the Council and decided upon by the Council of the Association.

4. Members shall pay an annual fee to be determined by the Council.

Members may be exempted partially or totally from payment of the fee upon decision of the Council.

Payment of the fee shall be due on January First of each year.

5. Membership shall expire:

when a Member resigns from the Association by notifying the Secretary in writing;

when the Membership fee has not been paid within six months of the due date;

when a Member is expelled from the Association by the Council for having acted in a manner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r the good name of the Association.

Expulsion shall require the consent of not less than four members of the Council. Before a decision on expulsion is taken, the Secretary of the Association will write to the Member in question, stating the nature of the alleged offence, together with the name(s) of the informant(s) or source(s) of information, and allowing a reasonable time for an explanation.

6. Regular Membership Meetings will be held during academic conferences or when called by the Council.

The Council shall call an Extraordinary Membership Meeting upon the request of one-third of the Full Members of the Association.

Notice of any business to be transacted at a Membership Meeting shall be given in writing to the Secretary, who shall prepare the agenda of the meeting.

One-third of the Full Members of the Association shall form a quorum for any Membership Meeting, and only Full Members shall have voting rights at any Membership Meeting.

COUNCIL

7. The affairs of the Association will be managed by the Council. Should the Council need to deal with any matter not explicitly provided for in this Constitution, it shall do its best to consult all Members before making any decision, and in any event submit its decision to all Member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8. The Council of the Association shall consist of:

a President;

a Vice-President;

a Secretary;

a Treasurer;

two other persons.

The members of the Council must be Full Members of the Association, and shall be elected at Membership Meetings.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be expected to serve normally for a period of four years.

If a motion of no confidence in any Member of the Council is supported by four Members of the Council, that Member shall be dismissed from the Council and from any office which he or she holds in the Association.

Notice of any business to be transacted at a Membership Meeting shall be given in writing to the Secretary, who shall prepare the agenda of the meeting.

Vacancies on the Council arising between Membership Meetings shall be filled by co-option or by transfer of duties within the Council. Members shall be notified of any such changes.

Four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form a quorum for Council meetings.

The Treasurer is to render audited annual accounts of the finances of the Association.

AMENDMENTS

9. This Constitution can be amended at Membership Meetings.

Amendments shall be notified to all Members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Membership Meeting.

An amendment shall require not less than two-thirds of the votes of Full Members present at a properly constituted Membership Meeting.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PAST AKSE CONFERENCES:

[Conferences were annual 1977 - 1991, biennial thereafter]

1977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1978 Quincy-sous-Senart, Centre Desfontaines
1979 Schwerte, Katholische Akademie
1980 Leiden, University of Leiden
1981 Zurich, Paulus-Akademie
1982 Seoul, Sejong Cultural Center (Sejong munhwa hoegwan)
1983 Copenhagen, Scandinavian Institute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openhagen
1984 Durham, Van Mildert College, University of Durham
1985 Chantilly, Centre Les Fontaines
1986 Bochum, Abteilung fur Ostasienwissenschaften, Ruhr-Universitat Bochum
1987 Sollentuna, Star Hotel, Stockholm University
1988 Leiden, University of Leiden
1989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1990 Warsaw,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Warsaw
1991 Dourdan, Normont Conference Centre
1993 Berlin, Humboldt Universitat
1995 Prague,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arles University
1997 Stockholm, Institute of Oriental Languages, Stockholm University
1999 Hamburg, Abteilung Koreanistik, Universitat Hamburg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THE NEWEST AKSE CONFERENCE: London 2001

The 2001 AKSE conference was held Wednesday 4 April to Sunday 8 April 2001 in London. The organizing Secretary will be Dr. Young-sook Pak.

All enquiries should be sent to:

Dr. Young-sook Pak
Centre for Korean Studie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Thornhaugh Street
London WC1H 0XG
United Kingdom
email: yp@soas.ac.uk

Panels and Papers to be Presented at the Next AKSE Conferenc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AKSE Newsletter Online

NEWSLETTER

The Newsletter (ISSN 0141-1101) is published annually in September or October by the

Association and includes descriptions of AKSE Conferences, abstracts of papers presented at Conferences, reports of activities and research on Korea in European countries, general information, and other items of interest to academic Korean studies.

Requests for subscription information should be addressed to the Newsletter editor, whose address is given below.

FORMAT FOR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NEWSLETTER 25 (2001)

Any information pertaining to academic Korean Studies in Europe is welcome for the Newsletter, and anyone with such information is encouraged to submit materials to the Newsletter editor. Submissions may be made in French, German, or English, if possible on floppy disk or by email. Please organise the information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Activities of an individual scholar: this would include any papers presented, research undertaken or contemplated, performances presented, conferences attended or any other scholarly activity. Publications, however, should NOT be included here, but under category 4. Please note that a separate paragraph should be written for each person for whom information is provided.

Reports on the academic programme of study at a university or other academic institution: this would include reports of new developments in the programme of study, the number of students pursuing a particular course, graduates, and any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cademic programme of Korean Studies during the past year.

Any other activities relating to Korean Studies which took place in an institution or country during the past year. Reports of concerts and radio/TV programmes on Korea may be of interest here.

Publications: in this category please place your own publications or the publications of anyone else which are of serious interest to scholars of Korean Studies.

Announcements of forthcoming events or requests for information from members of AKSE or readers of the Newsletter.

Changes of address.

Submission of materials is welcomed in the following formats:
on diskette, prepared in either WordPerfect or MSWord
by e-mail
MATERIALS SHOULD REACH THE EDITOR NO LATER THAN 15 JULY 2001.

Dr. Koen De Ceuster
Centre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Leiden
POB 9515
2300 RA Leiden
The Netherlands
email: K.De.Ceuster@let.LeidenUniv.nl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UNION CATALOGUE OF KOREAN PERIODICALS IN EUROPE

Since the April 1995 Conference in Prague, the Association has offered for sale copies of the Union Catalogue of Korean Periodicals in Europe, now in version 97.04 (April 1997). The Union Catalogue contains data from seventy-two public and private libraries in eastern and western Europe, covering 2,273 different Korean periodicals from North and South Korea, with details on volumes and issues of each periodical and the libraries in which each can be found. The catalogue is in the form of a single 3.5" HD disk (written in dBaseIV and also containing a stand-alone dBase retrieval program for operation on PCs with DOS or on Macintosh, and an installation program which will automatically decompress and install the database and retrieval program on the hard disk). The Union Catalogue is operational without dBase or any other program, but 9MB of free hard disk space are necessary to hold the database and program, and another 4MB to operate the retrieval program.

The current release of the Union Catalogue is 97.04 (April 1997), and the contents of both DOS and Macintosh versions are identical. Anyone wishing to obtain a copy of the Union Catalogue on disk may obtain it as follows:

1) DOS (PC): send a Eurocheque for 20.00 DM (or US$20.00 for shipments overseas) to:

Prof. Dr. Eckart Dege
Geographisches Institut der Universitat Kiel
D-24098 Kiel
Germany

2) Macintosh: send 16,000 won to the bank account of Didier Barbas, #327-04-273738 at the Chohung Bank, Seoul, inform him at the address below, and he will ship the Macintosh version by airmail:

Didier Barbas

HUFS - Faculty Office Building, Apt. 805
Imun-Dong 270
Tong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Further information from Eckart Dege, e-mail: dege@geographie.uni-kiel.de
or from Didier Barbas, e-mail: dbvic@maincc.hufs.ac.kr.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LINKS OF INTEREST TO KOREAN STUDIES

The one essential link in Korean Studies is Frank Hoffmann's outstanding page at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California in San Francisco. It contains a wealth of further links to virtually all useful Internet sources for information in Korean Studies, and therefore this AKSE page does not attempt a separate listing of such links.

Frank Hoffmann's Korean Studies Page

A second core link is the home page of the Korean Studies Internet Discussion Group, which carries academic discussions on Korean studies and other information of use to persons in higher education. The discussion list was originally (1994-95) under the AKSE umbrella but has become independent.

Korean Studies Internet Discussion Group

7. 제 1, 2권역 연구자와의 전자우편 교환 주요 내용

제목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건
보낸날짜 2001년 09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04분 01초 +0900
보낸이 "yoonhw@snu.ac.kr" <yoonhw@snu.ac.kr>
받는이 Gi-Hyun.Shin@anu.edu.au

신기현선생님,

선생님 말씀에 조목조목 공감합니다. 한국어세계화의 개념과 과제에 대한 견해에 감사드립니다.

학술진흥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이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의 성격이라면,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는 국내 인사를 중심으로 기초 연구와 자료 개발을 위주로 하는 일종의 R & D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해야하는 셈인데, 특히 단위기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과제는 여러 단계의 '수요 예측과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미래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 이것은 저에게도 오랜 숙제였습니다. 저의 전공이 중등학교 국어과교육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해외한국학은 "끼워서" 하고 있어요...), KRF에 있을 때에도 교사 연수를 위한 지원, 초중등 한국어 교사의 한국 유학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이 달라서 한두 가지 pilot project로 그쳤었지요.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제안하신 것들이 이번 우리 보고서에 잘 반영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의 추진도 한결 수월해지리라 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아도 생각이 통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그런 중의 누군가와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한다는 건 참으로 살맛 나는 일입니다. 언젠가 뵙고 기... 인 말씀 나눌 기회를 엿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윤희원 올림

----------원문 메세지----------
받는사람 : yoonhw@snu.ac.kr
보낸날짜: 2001/09/18 10:06
제목: Some thoughts on the three questions
보낸사람 : Gi-Hyun Shin <Gi-Hyun.Shin@anu.edu.au>

윤희원 선생님

어제 보내드린 메일에 이어, 평소 생각해 왔던 것 중, 선생님과 먼저 논의해 봄직한 점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scope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국어의 세계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의도 내려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1) 한반도 밖에서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사용하

는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들입니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한국어 세계화'의 기본이 아닌가, 또 (2) 이러한 '한국어의 세계화'가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이익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어느 정도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인들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지에 유입이 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흔히 이야기하듯, 외국인들이 한국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한국의 각종 브랜드에 대한 생소한 느낌을 줄여 소위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 '한국어 세계화 과정'을 통해 '한국인들의 국제화 과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화란 '미국화'라기보다 '이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이문화를 무서워하지 않는, 국제적으로 세련된 사람들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아래 참조).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대양주 국가들의 교육제도하에서 한국어 수강생을 대폭 늘린다는 말입니다.

현재, 해외 한국학 학자 양성은, 대학원생이나 교수를 위주로 지원하는 Korea Foundation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lite를 중심으로 소수의 인원에게 상대적으로 큰 지원이 그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Korea Foundation은 또한 미술품 전시나 국악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큰 '구멍'은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장기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초등생, 중고등생 및 대학 학부생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Korea Research Foundation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만, 좀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한국을 잘 모르는 현지인 학령아동, 중고생, 대학생들을 한국어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과 한인 1.5세나 2세들을 한국어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의견, 논의, 제안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잘 논의되지 않은 듯한 것은, 점점 보편화되어 가는 in-country training에 대한 현지 한국어교육기관과 한국의 한국어교육기관과의 상호보완성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incentive들을 비롯, 현지 교육기관들의 상호 협조, 한국과 대양주간의 상호보완적인 교육과정, 방법론, 교자재 개발 등에 따르는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유치한 표현입니다만)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타면 10시간 이내에 서울에 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한국어 습득 준비작업 및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한국에서 단기 연수 등을 장학금으로 유도해 내는 것, 외국인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허용 등등을 한국의 정부기관과 협조로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일견, 외화 낭비 운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장학금, 아르바이트 소득이 소비되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이는 외화의 낭비라기보다는 국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더욱 큰 이익은,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이문화와의 접촉이 일어나, 단기적으로는 한국인들의 혼돈과 배타심 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인들이 이문화에 대해 눈을 뜨게되고, 이문화를 겁내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신기현 드림

Gi-Hyun Shin, PhD
Sub-Dean & Convener of Korean Program

Faculty of Asian Studi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CT 0200 Australia
Ph) + 61 2 6125 3126
Fax) + 61 2 6125 3144

Prof. Hi Won Yoon, Dr.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 82 2 880 7665
Fax. 82 2 886 9276

제목 reply from Dr. Lowensteinova
보낸날짜 2001년 09월 25일 화요일, 밤 10시 34분 10초 +0900
보낸이 "yoonhw@snu.ac.kr" <yoonhw@snu.ac.kr>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pucek_vladimir@yahoo.com

Dear Prof. Pucek,

After hanging up the phone, I checked e-mail to find out Dr.Lowensteinova's e-mail. Then I replied as attached below. Thank you for your efforts and concern about our meeting.

In Prague, I will be talking with your collegues and trying to find out what and how to do "together" to promote Korean language teaching not only in your country but central & eastern Europe wide. To make things work, your assistance will be crucial.

Let's keep in touch after your and our coming back.

Jal Bu-tak-hap-ni-da!

Bon Voyage!!

Hi Won Yoon

----------원문 메세지----------

받는사람 : mlowensteinova@yahoo.com
참조 :
보낸날짜: 2001/09/25 22:23
제목: Re: prague
보낸사람 : <yoonhw@snu.ac.kr> <yoonhw@snu.ac.kr>

Dear Dr. Miriam Lowensteinova

How nice to hear from you!

I've sent you a fax message since I did not know your e-mail address and I was

waiting and waiting ... However, I've been sure you'd propose meeting together at the Hotel in the morning of 27th!

We will be around the Lobby from 09:00. So please come to the Hotel Cloister- Inn (2421-1020) at anytime you think suitable.

For your information, we will be arriving at Prague Int'l Airport at 20:50 (by Air France from Paris) and air-port pick-up has been arranged.

So, let's see then!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nd visiting your institution.

Best regards,

Hi Won Yoon

----------원문 메세지----------

받는사람 : yoonhw@snu.ac.kr
참조 :
보낸날짜: 2001/09/25 20:32
제목: prague
보낸사람 : miriam lowensteinova <mlowensteinova@yahoo.com>

Dear Mrs. Yoon, I was waiting for Your e mail till now but only today I received Your address from prof. Pucek. I know You will arrive September 26th but having no plane schedule from You, I will call You in the evening. The next day, 27th You will be welcome at our Faculty, our Director will wait for You at 10.00 a.m. In the afternoon she could not do it, because she will go to China. So we will meet at Your hotel the 27th in the morning and then we will go to the Faculty together. If You have some special wish, do not hesitate to tell me after Your arrival. I will do everything possible.
I am looking forward to see You soon.
Yours Miriam Lowensteinova

Prof. Hi Won Yoon, Dr.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 82 2 880 7665
Fax. 82 2 886 9276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Developing Unit Base -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anguage

Hi-Won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hw@snu.ac.kr)
Young-Gyun Han
(The University of Ulsan, yghan@uou.ulsan.ac.kr)
Hyuk Suh
(Jeonju National Univ. of Edu., shcor@jnue.ac.kr)

1. Introduction

Nowadays, Korea has been accelerating the pace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its society. Furthermore, after Korea entered the OECD, its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with advanced countries are increasing in economy as well as education.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especially that of the Korean language is coming to the front as an important task to be developed and defined through this process.

At the beginning of the national globalization drive strategy, refer to Seong(1996), the policy makers did not conside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anguage as a priority. However we are fortunate enough to find some agencies which have promoted a series of projects such as developing teaching and reference materials, Korean language teachers training etc. Accordingly, these projects, commissioned b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ve significantly promoted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and in turn Korean culture in general) in recent years.

This article focuses on making the concept of "unit base" concrete which can be preliminarily understood as having a similar meaning to the terms "operation base" or "network". And then the basic principles of constructing unit base will be suggested

2. The concept of Unit Base

The similar concept of unit base we focus on this paper has already been discussed such as 'information center' in Seong Gwang Soo (1995), 'unit base' in Han Young Gyun etc (2000), 'operation base' in Cho(2001), 'network' in Suh(2001).

Seong Gwang Soo (1995) pointed out 'the discontinuation of researc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disharmony between theory and material, and no relation between linguistics and language education' in relation with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America. This problem is a general tendency in Korean linguistics research. Much more interest and collaboration is required for global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or this, it is needed to establish such as 'Korean language information center' which should play a important role to integrate collaborative and systematic research.

Han Young Gyun etc (2000) shows that there are respective characteristics in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studies according to area or country. Namely, Korean language learners in Europe are just a few who intend to pursue Korean studies. Whereas in the USA, the offspring of overseas Korean is mainstream. Also, overseas Korean language institutes are varied, from regular education institutes centered in universities to irregular education institutes in the shape of 'weekend' Korean schools. That is wh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existing phases and support these education institutes.

Also, it has been suggested that establishing unit base for Korean language support be implemented as an alternative plan to activate enhancement of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refore, considering nee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distribution, they would divide overseas Korean education into regions by countries and select some institutes among numerous institutes to carry out a important role as a core institution at the university level. And the role of the unit base was suggested as follow;

-fulfilling the role as an institute tak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research

-establishing network amo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es in given areas

-supporting textbook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nd training Korean teachers in the area

-establishing base camp for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education systems abroad.

For this purpose, we should initiate a consultationand basic investigation to construct unit in each region in the world. The polit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of related countries as well as Korea is implemented continuously with closely inter-connection system in unit bases. Establishing unit base will be very important role to support the previously mentioned work continuously.

We can see a concrete reference related to unit base in 'operation base' in Cho (2001). It can be said that Cho (2001) put an emphasis on establishing information centers to collect, digitalize, and spread research results. He also argued that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bout research methodologies need to be activated among researchers, and that establishment of operation bases is needed in the aspect of cutting down the cost of information exchange. To use Australia and its function as an operation base for Korean studies overseas covering Oceania and South East Asia as an example, Australia worked as the center of information flow to coordinate research interests. When with systematic and continuous supporting programs about overseas Korean Studies research centered on the above-mentioned operation base, this operation base has been more effective.

We can see the aforementioned inter-coordination plan simply in Suh (2001). Namely,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conduct collaborative research, activate numerous academic conferences provide, variety and efficiency of support in relation to countries, and educate postgraduate student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relation with fostering postgraduate students, he put an emphasis on bringing up future generation of scholars in Korean Studies by establishing Ph D courses in Korean Studies. Also, holding forums or awarding excellent theses/dissertation of postgraduate students and research students is proposed as good example of activation plans.

Of course, this requires assistance, bu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nd globalizing

Korean Studies, we can only look forward to continuation and efficiency through the 'localization of Korean Studies'.

It can be said that Suh (2001) especially suggests to the researchers of Korean or Korean studies the necessity of strong networks and specific direction for a realistic and long-term approach. In other words, the cooperative field, for building up networks which include not only just Korean but also Korean studies in a broader sense, is increasingly needed more than ever befor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ustralia, research in Korea Studies is not so extensive, compared to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Australia. As a good example of establishing networks, the international symposium: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is significant for the exploring of cooperative systems in the phase of education and Korean studies. Suh (2001), in symposium, suggested that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cooperation' and ' competition' are related with establishing Korean studies networks in Oceania and South East Asia.

The 'unit base' concept referred to in this paper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establishing networks, and also is very useful for combining all of these: 'globalization', 'localization', 'cooperation', 'competition'. The concept of unit base is especially useful on that point of altering the concept of networking positively as a strategic concept; namely, both 'Network' and 'Unit Base' are same in it's approaches and philosophy. But the nuance of networks can be shown as a passive concept of building connections between individuals or institutes, while the concept of unit base is a positive strategic concept to lessen a passive concept.

And so, 'Unit Base' will be the basis of establishing effective systems for numerous policies and the support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globalization, through accumul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and preparation for problem solving strategy.

3.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Developing Unit Base

As mentioned above, Suh(2001) suggested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nd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ith regard to establishing academic and financial networks. To this principle we suggest adding the following.

3.1. The principle of specialization and integration

The principle of specialization and integration signifies sharing roles and generalization in diverse fields and dimensions. Namely, this is the integration which can make the most use of local specialities, and also categorial, logical specialization and the integration of research itself.

3.2.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is similar to the establishment of a "point institution(Geo-jeom-gi-ji)" proposed since 1984. The principle of a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is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unit bases in specific areas but also a positive and plural notion which aims towards globalization. But establishing point institutions seems to be from local or minor viewpoints. On the contrary, the establishment of unit bases strongly connotes a concentration; the concept of areal dispersion is that it can reflect plural aspects in Korean studies. Furthermore, it will be possible to concentrate academic potential through dispersion into global units. These are ultimately getting systematiz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mentioned principle of integration.

In fact, the past logic of the point institution may be quite responsible for partial and incomplete support to overseas Korean studies.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helps to preserve the fair distribution of academic and financial support. The problem of partial support invested to only a few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so far must be overcome through the principle of areal dispersion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unit bases, attempting diversification and globalization of overseas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Korean studies. This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can be more concrete when the following principles are added.

3.3. The principle of efficiency and systematic organization

The core of this principle is the establishing a systematic and efficient supporting system by preparing a macro index of overseas research support programs for Korean studies. Namely, the establishing of a general, systematic and feasible evaluation system with regard to the concrete 'plan, practice, outcome' in research and support overseas Korean studies must be the prior condition.

3.4. The principle of specialty and fundamentality

Specialty means specialization and high-classification in a research area. It is important to bring up and support experts in the related field of Korean studie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order to sustain continued globalization. Specialty implies the necessity to set limits for choosing and dispatching researchers abroad and research supporting institutions. We should only support qualified researchers who are sufficiently tested, have prominent competence, and moreover possess a chance to produce excellent results. This procedure is very important in supporting the Korean studies and may be a key point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in the future. It contains not only searching for materials, arranging and spreading them, but also introducing Korean culture and Korean studies abroad, teaching Korean, and training experts of overseas Korean studies.

3.5. The principle of utility and productivity

It is desirable that the support of overseas Korean studies followed the principle of utility and productivity more so ever than before. It is not easy to find visible effects within short term. Introducing or spreading Korean culture is like trying to raise one's image through public relations, which can be a slow process. However, these days, it is true that culture is converted to the core of export products more so than in any other field.

No matter how we emphasize the genuine academic character, we should not ignore the

mental and physical value-added sides which are the basics of human life. In addition, researchers including those in Korean studies should realize that it is time to make efforts for surviving not only by the national support but also for their own ability based on educational-industrial complex in the long run. In this context, the principle of utility and productivity is not simply based on economy oriented logic.

3.6. The principle of integrated access

The efforts for integration of sciences, companies and civil-government are the key point to the principle of integrated access in the above mentioned context. For example, if Korean culture or Korean studies find some interest in a country abroad, the whole about Korea has relation to it without regard to the kind of area; business, education, religion and cultural activities. In this point, when a company advances into a country, it should not only be concerned with its business but also Korean culture at the same time.

So, we need to point to the method of integrated access among sciences, companies and civil-government. Each of them has its own role and acts independently, but we need to consider a mutual cooperation system as important. In addition, we can reduce doubly supported costs or total ones. Integrating access methods like the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on system maintains importance as a mutual support between companies and researchers (or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3.7. The principle of the universality and popularization

This principle is related to the popularization policy of culture, not only established previous academic outcomes but also modern and popular trends in Korean studi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and highlight the public cultural side academically which foreigners inside or outside of Korea can approach universally. It can have concrete shapes bearing characteristics of diverse local programs and events centering on a unit base.

We have to be more interested in the research, spread and int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mass media such as TV, radio, movie, music and multimedia. There can be a limit to the promotion of Korean studies only with the most typical and traditional Korean. The integration by educational-industrial complexes related to Korean studies has greatest productivity and utility.

4. Conclusion

Korean studies can provide tremendous impetu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anguage (as they possess elements of each other). Enlarging the scale of supporting research and education in diverse areas may be the best way for maintaining the establishe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nd going one step forward.

We think that the sympathy to ground the international base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and Korean studies is well prepared. We will find no differences by the terms of 'network' or 'unit base' to embody it.

This article has suggested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meta-dimensionally on the basis of establishing 'unit base' from the viewpoint of a positive strategy for systematizing and utilizing the globalization of Korean. We think that the issues suggested here should be more concretely discussed through review and consultation from the fields afterwards for applying them effectively.

References

Cho, Young-Dal. 2001. Directions of Research in Overseas Korean Studies. In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Ed.),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KAREC.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Ed.). 2001.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KAREC.

Hyon-Hwa Kang. 1999. An Analysis of Korean Language Test in SAT II: Using the 1998 Official Sample Test.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0-2. IAKLE.

Keneth Wells. 2001. Korean Studies: Humanities-Prospects and Imperatives. In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Ed.),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KAREC.

Kim, Young-MI. 1996. Crossing Disciplinary Boundaries in Studying Home Language Maintenance and Re-Learning. Bilingual Education, vol. 13. The Korean Society of Bilingualism.

Park, Duk-Soo. 2001. Collaborative Approaches for Teaching Korean Studies. In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Ed.),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KAREC.

강만길 외(1997),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 국학,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문당.

김영아(1995), '호주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와 해외 한국어교육 제12호, 이중언어학회.

성광수(1996),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위한 언어정책 검토', 한국어 세계화의 제문제, 이중언어학회지 제13호, 이중어학회.

왕혜숙(1995), '영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어휘상 오류 분석', 이중언어와 해외 한국어교육 제12호, 이중언어학회.

임재해 외(1999), 국학의 세계화와 국제적 제휴, 안동대학교 출판부.

정광(2000), 해외 한국학 연구의 현황과 그 지원의 효율성 연구, 연구보고서.

한영균 · 성기철 · 신현숙 · 유필재 · 옥철영(2000),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간 협력망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사업 보고서", 문화광광부 세계화 추진 위원회.

한재영 · 윤희원 · 서혁(2001), 21세기 해외한국학 진흥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동유럽 워크숍 자료>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Developing Unit Base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Hi-Won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wyoon@snu.ac.kr)
Young-Gyun Han (The University of Ulsan, yghan@uou.ulsan.ac.kr)
Hyuk Suh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hcore@hanmail.net)

1.Introduction

Nowadays, Korea has been accelerating the pace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its society. Furthermore, after Korea entered the OECD, its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with advanced countries are increasing Korea's quality of life as well as its economy and education.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especially that of the Korean language is coming to the front as an important task to be developed and defined through this process.

At the beginning of the national globalization drive strategy, Refer to Seong(1996).

The policy makers did not include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anguage as a priority.

However we are fortunate enough to find some agencies which have promoted a series of projec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reference materials, teacher training, and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educational processes in foreign institutions. Accordingly, these projects, commissioned b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ve significantly promoted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and in turn Korean culture in general) in recent years.

However it must be highly considered that the real globalizaton requires localization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report of 세계화추진위원회(1996), 'Internationalization means that a country takes the initiative in making the exchange with other countries larger, mainly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trade or economy, whereas globalization means the new strategy for national development of a country in the 21st century in which exchanges are rapidly increasing in all the ranges like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consciousness of provinces, enterprises, and people. See Suh(2001) for discussion about the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of Korean studies.

In other words,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annot be attained without local interest in Korean and Korean studies in the respective regions in the world, researching and nurturing of educational conditions and human resources, and continuous systematic strengthening of financial support.) So far, these have been pointed out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the Korean language or Korean studies several times, and especially emphasized with reference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f.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Ed. by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KAREC, 2001.)

This system, addressed only recently, has been established in fragments by different actors at different times and places. Therefore, we face the task of successfully integrating

this system. Doing so will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s and information sharing, mutual coping ability, mutual referencing for problem solving and preparing alternatives. Indeed, the efforts for reconstruction of study groups, researchers and instructors concerning Korean who are separate and individualized in the world have a great impact on the construction of a mutual cooperation system both inside and outside of Korea and the preparation of an effective supporting system.

Therefore, our focus in this article lies in making the concept of "unit base" concrete which can be preliminarily understood as having a similar meaning to the terms "operation base" or "network", concepts both clarified in past Korean studies, and supplements and strengthens those concepts. After investigating and evaluating the present situation regarding research support of overseas Korean studies, we discus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unit base and defining its basic principles; thereby we aim to support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globalization of Korean.

2. The situation of supporting overseas Korean studies

Till now, 'HanEoSa(established in Daemado)' has been known to the public as the first educational institution for teaching Korean abroad, in 1727. Although we can find evidence that Korean has been taught before and after that time, Korean education in overseas institutions has over a 270 years of recorded histor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begun to take its place earnestly in the early 1990s. This advancement resulted from the increase of interest and demands in Korean education. Hence demand continues to grow for supporting the education of Korean and the Korean studies from agenci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Korea.

There are several agencies concerned with the support of Korean education, e.g. Korea Research Foundation(KRF)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Korea Foundation(KF)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Commission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etc. The following tables show financial support (USD) classified by year and country, and based on the statistics of the KRF which has supported overseas Korean education and Korean studies since 1982.

1) The American Continent

	Total	USA	Canada	Argentina	Chile	Other Countries	Brazil
Total	7,853,074 /72	6,303,672 /63	940,100/3	45,605/2	195510/2	333,187/1	35,000/1
1982-85	1,912,769	1,518,401	393,253	605	510	0	0
1999	294,199/15	226,410/3	67,789/2				

2) The European Continent

	Total	Great Britain	France	Germany	Italy	Sweden	Denmark	Finland	Belgium	Other Countries	The Nether-lands	Portugal	Austria
Total	4,786,973/57	937,648/10	780,364/8	363,728/11	334,699/1	66,364/2	108,100/1	121,923/1	54,000/1	633,463/1	68,394/1	90,232/1	89,219/1
1982-85	612,990	101,512	197,891	41,517	48,480	2,000	24,000	57,200	0	140,390	0	0	0
1999	344,656/13	20,385/1	44,138/2	34,020/1						64,000/1			27,945/1

3) The Ex-Soviet-Unio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Soviet Union	Poland	Yugoslavia	Czech	Hungary	Rumania	Bulgaria
Total	175,190/9	323,771/1	8,916/1	225,393/2	231,030/3	97,310/1	77,229/1
1982-85	0	0	0	0	0	0	
1999	17,543/2	29,085/1		27,689/1	20,385/1	30,480/1	28,986/1

4) The Asian Continent and Others (1)

	Total (1)+(2)	Japan	China (Taiwan)	China (Mainland)	Mongolia	India	Thailand	Hongkong
Total	2,855,431/46	196,000/8	705,388/12	2,529,825/11	113,879/2	299,700/2	175,369/1	490/1
1982-85	298,453	163,000	40,000	1,304	0	41,897	0	490
1994	250,824/15	0	20,000/1	37,431/4	36,149/2	24,729/2	14,418/1	0
1999	305,371/12		175,563/3			21,825/1	14,466/1	

5) The Asian Continent and Others (2)

	The Philippines	Australia	Indonesia	Jordan	Malaysia	Myanmar	Turkey	Vietnam
Total	49,950/3	532,294/6	171,234/2	15,432/1	235,959/4	73,268/1	142,733/1	12,735/1
1982-85	2,050	58	0	575	49,079	0	0	
1999		44,000/3	10,395/1	14,857/1		11,530/1		12,735/1

In relation to aims of support for Korean Studies overseas, it is helpful to the application form for the promotion of Korean Studies abroad: As interdependence among countries and the need for mutual cooperation increase, we wish to promote Korean Studies internationally to further research about Korea and to heighten general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This might be summarized as the international exposure/expansion and qualitative elevation of Korean Studies research. The strategy for such is as follows.

1. to put an emphasis on academics in international interchange and to elevate international prestige by connecting Korean Studies institutes abroad; and
2. to support academic work in Korean Studies programs at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correct distorted views or preconception of Korea,

The goal of this approach is to foster a positive public opinion of Korea and establish a basis for politico-economic collaboration in the future. To accomplish this, we must overcome a trend of passivity in research and actively endeavour to present Korean culture accurately and effectively.

With the growth of international prestige,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overseas Korean studies has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in recent years. In 1982, $796,340 was provided for 10 countries and 26 fields; in 1991, $1,044,253 was allotted for 24 countries and 71 fields. In just ten years, the number of countries supported rose 240%, the number of fields benefiting increased by 270%, and the amount of money spent jumped 140%. In the case of the year of 1994, when implementation of support was at its highest ever, $1,160,458 (a 150% increase from the 1982 sum) was apportioned to 25 countries and 57 fields; however, that year, an administrative division between support for research and researcher made it appear as though assistance had been cut in half. Additionally, in 1997 and 1998, when the Korean government was faced with the IMF crisis and loss of support due to national hardship, 19 countries and 29 institutes were given only $757,122; in 1999, figures rose slightly to $944,226 for 22 countries and 40 fields. This brief examination of the last decade demonstrates that economic conditions directly affect the availability of research support. In the near future, we will exceed the numbers of the year 1994, and further ahead, it is likely that support will continue to increase.

It is important to note, though, that the key point is not so much the augmentation of monetary assistance but rather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resources, regardless of size or amount. Careful review and evaluation of past project lists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KRF) should give valuable insight into the ways Korean Studies overseas might be enhanced and improved while this was done in the past. For example,

The evaluation of accomplishment and achievements will give us much clue to search for better methods, to enhance and activate Korean Studies overseas. Though this kind of evaluation, existing effective politics and strategies can be activated and failed ones can be reconsidered. From this point of view, we will review several issues.

Up until now,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KRF) has supported institutes according to the criterion of regional balance. This matches with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in this paper. But the matter of holding matching funds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economic, financial condition of support-target countries and institutes. In the case of underdeveloped or 3rd-world countries, not only economic condition but also the degree of interest and spread is very low. For these countries, we should put emphasis on political supply rather than evaluat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arrange and propagate material about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Studies overseas. To date, research about the achievements of Korean Studies research overseas has not been sufficient. Recently, many kinds of accumulated materials have been arranged well, and will be available to the public so that all researchers in concern might access that material easily.

The Second, issue is of the building a research foundation for stable and steady research.

The third, active, controlling, preparatory strategies are required. In 1991, new needs for the propagation of Korean Studies arose in East Europe, China, and Middle Asia in relation with diplomatic change. At that time, we could only cope with that situation appropriately, because we were not completely prepared. It means that, when we confront new situation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al, cultural), we can decide firmly, not temporarily but decisively, we should implement policy quickly in relation to support and promotion of Korean Studies. The quick sending of books or materials relating to Korean language, Korean culture is good, but an expert in these fields is also required.

By and large, until now, the policy for the support of Korean Studies has followed economic and diplomatic conditions, and this is a very passive approach. The support policy should be decided at almost the same time as other policies and situations, and with the consultation of Koreanology experts and academic exchange plans. The multiple approach of integrating policy, economy, diplomacy, and culture will bring in far more significant results.

This positive-preparatory strategy can be applied to the problematic situation of decreased need of Koreanology in specific countrie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to beginning steps for propagating and supporting Koreanology. We are now contending that precise diagnoses for situation are important for the alternation of existing programs or the implementation of new programs.

Fourth, Korean studies and support need to be specialized and systemized. Most of all, dispatch of teachers; specialized academic society taking charge in each region; implementation of programs to educate and train experts; and collection and spread of literary material/books hold significant importance and need to be invested in long-term. In addition, integrating the work of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KRF), or sharing information closely, are expected to give birth to efficiency.

With this evaluation of existing support for overseas Korean studies, we can conclude that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including Korean language, requires building a global unit base.

3. The concept of unit base and necessity

The concept of unit base and necessity we focus on in this paper has already been discussed. We can examine this issue contain the context of existing discussion, such as, information center in Seong Gwang Soo (1995), unit base in Han Young Gyun etc (2000), operation base in Cho(2001), network in Suh(2001). In this paper, we suggest a concept of

unit base according to an investigation of existing discussion.

Seong Gwang Soo (1995) pointed out the discontinuation of researc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disharmony between theory and material, and no relation between linguistics and language education in relation with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America. This problem is a general tendency in Korean linguistics research. Interest and collaboration is required for global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o do this, establishing institutes like effective language information center related with Korean language, must become the focus to integrate research.

Han Young Gyun etc (2000) shows that there is a common characteristic in overseas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education according to area or country. He also argues the necessity of the fostering of diffusion Korean language. Namely, Korean language learners in Europe are few in terms of the number of Europeans who intend to pursue Korean studies, whereas in the USA, the offspring of overseas Korean is mainstream. Also, overseas Korean language institutes are varied, from regular education institutes centered in universities to irregular education institutes in the shape of weekend Korean schools. That is wh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existing phases and support these education institutes.

Also, it has been suggested that establishing unit base for Korean language support be implemented as an alternative plan to activate enhancement of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That is to say, considering nee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distribution to education institutes, we would divide overseas Korean education into regions by countries that are active or need support and select some institutes among numerous institutes to implem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educational institutes at the university level. We are going to foster the institutes role in spreading Korean language and supporting research related with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connecting them with Korean language support centers directly. As a rule, the role unit base will be take is like this;

- Fulfilling the role as an institute tak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research;
- establishing network amo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es in given areas;
- supporting textbook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nd training Korean teachers in the area; and
- a establishing base camp for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education systems abroad.

For this purpose, we should initiate a basic investigation of countries and areas, select unit bases by work-shopping inside and outside Korean annually, establish arrangement of numerous materials and homepages on the Internet. Also, that is why, domestically Korea is limited to manage this. The polit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of related countries as well as Korea is implemented continuously with closely inter-connection system in unit bases. Establishing unit base and achievement will be very important role to support the previously mentioned work continuously.

We can see a concrete reference related to unit base in operation base in Cho (2001). It can be said that Cho (2001) put an emphasis on establishing information centers to collect, digitalize, and spread research results.

He also argued that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bout research methodologies need to be activated among researchers, and that establishment of operation bases is needed in the aspect of cutting down the cost of information exchange. To use Australia and its function as an operation base for Korean studies overseas covering Oceania and South East Asia as an example, Australia worked as the center of information flow to coordinate research interests. When with systematic and continuous supporting programs about overseas Korean Studies research centered on the above-mentioned operation base, this operation base has been more effective.

We can see the aforementioned inter-coordination plan simply in Suh (2001). Namely,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conduct collaborative research, activate numerous academic conferences provide, variety and efficiency of support in relation to countries, and educate postgraduate student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relation with fostering postgraduate students, he put an emphasis on bringing up future generation of scholars in Korean Studies by establishing Ph D courses in Korean Studies. Also, holding forums or awarding excellent theses / dissertation of postgraduate students and research students is proposed as good example of activation plans.

Of course, this requires assistance, bu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nd globalising Korean Studies, we can only look forward to continuation and efficiency through the localization of Korean Studies.

It can be said that Suh (2001) especially suggests to the researchers of Korean or Korean studies the necessity of strong networks and specific direction for a realistic and long-term approach. In other words, the cooperative field, for building up networks which include not only just Korean but also Korean studies in a broader sense, is increasingly needed more than ever befor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ustralia, research in Korea Studies is not so extensive, compared to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Australia.

As a good example of establishing networks, the international symposium: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is significant for the exploring of cooperative systems in the phase of education and Korean studies. Suh (2001), in symposium, suggested that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re related with establishing Korean studies networks in Oceania and South East Asia.

The unit base concept referred to in this paper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establishing networks, and also is very useful for combining all of these: globalization, localization, cooperation, competition. The concept of unit base is especially useful on that point of altering the concept of networking positively as a strategic concept; namely, the concept of networks can be shown as a passive concept of building connections between individuals or institutes, while the concept of unit base is a positive strategic concept to invigorate a passive concept.

And so, unit base will be the basis of establishing effective systems for numerous policies and the support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globalization, through accumul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and preparation for problem solving strategy.

4.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Developing Unit Base

As mentioned above, Suh(2001) suggested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nd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ith regard to establishing academic and financial networks. To this principle we suggest adding the following.

(1) The principle of specialization and integration

- The principle of specialization and integration signifies sharing roles and generalization in diverse fields and dimensions. Namely, this is the integration which can make the most use of local specialities, and also categorial, logical specialization and the integration of research itself.

- First, speci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research category of Korean studies suggests various professional research outcomes of Korean studies by inclusively accessing them and it has become a basic principle in the systematization of Korean studies. Until now, many kinds of academic conferences and symposia have been actively held inside and outside of Korea, but it is a fact that those have been only partially achieved by the academic areas or school traditions. It is surely positive for directing specialities, but more negative for spreading and co-sharing of Korean studies.

- Second, the part of integration which makes local characteristics alive is the comparing and contrasting of subfields in Korean studi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comparisons of Korean studies, the local conditions which encouraged them. Korean studies is also a kind of interest in cultural phenomena around Korea, and ultimately contains universality and specialty. Sometimes, the object country, the country in which Korean is being learned, might have interest in application possibilities beyond the dimension of merely understanding matters of government policy. From this point, the interest in specialty and universality is very important as is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of Korean studies in object countries.

(2)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is similar to the establishment of a "point institution" proposed since 1984. However the former is a more inclusive and positive concept. The principle of a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is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unit bases in specific areas but also a positive and plural notion which aims towards globalization, while establishing point institutions seems to be from local or minor viewpoints. On the contrary, the establishment of unit bases strongly connotes a concentration; the concept of areal dispersion is that it can reflect plural aspects in Korean studies. Furthermore, it will be possible to concentrate academic potential through dispersion into global units. These are ultimately getting systematiz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mentioned principle of integration.

- In fact, the past logic of the point institution may be quite responsible for partial

and incomplete support to overseas Korean studies.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helps to preserve the fair distribution of academic and financial support. The problem of partial support invested to only a few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so far must be overcome through the principle of areal dispersion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unit bases, attempting diversification and globalization of overseas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Korean studies. This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can be more concrete when the following principles are added.

(3) The principle of efficiency and systematic organization

- The core of this principle is the establishing a systematic and efficient supporting system by preparing a macro index of overseas research support programs for Korean studies. Namely, the establishing of a general, systematic and feasible evaluation system with regard to the concrete 'plan, practice, outcome' in research and support overseas Korean studies must be the prior condition.

(4) The principle of specialty and fundamentality

- Specialty means specialization and high-classification in a research area. It is important to bring up and support experts in the related field of Korean studie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order to sustain continued globalization. Specialty implies the necessity to set limits for choosing and dispatching researchers abroad and research supporting institutions. We should only support qualified researchers who are sufficiently tested, have prominent competence, and moreover possess a chance to produce excellent results. This procedure is very important in supporting the Korean studies and may be a key point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in the future.

- The principle of fundamentality proposes that the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the building of a set foundation for it is of great importance. It contains not only searching for materials, arranging and spreading them, but also introducing Korean culture and Korean studies abroad, teaching Korean, and training experts of overseas Korean studies.

(5) The principle of utility and productivity

- It is desirable that the support of overseas Korean studies followed the principle of utility and productivity more so ever than before. It is not easy to find visible effects within short term. Introducing or spreading Korean culture is like trying to raise one's image through public relations, which can be a slow process. However it is true that culture these days is converted to the core of export products more so than in any other field.

- No matter how we emphasize the genuine academic character, we should not ignore the mental and physical value-added sides which are the basics of human life. In addition, researchers including those in Korean studies should realize that it is time to make efforts for surviving not only by the national support but also for their own ability based on educational-industrial complex in the long run. In this context, the principle of utility and

productivity is not simply based on economy oriented logic.

(6) The principle of integrated access

- The efforts for integration of sciences, companies and civil-government are the key point to the principle of integrated access in the above mentioned context. For example, if Korean culture or Korean studies find some interest in a country abroad, the whole about Korea has relation to it without regard to the kind of area; business, education, religion and cultural activities. In this point, when a company advances into a country, it should not only be concerned with its business but also Korean culture at the same time.

- So, we need to point to the method of integrated access among sciences, companies and civil-government. Each of them has its own role and acts independently, but we need to consider a mutual cooperation system as important. In addition, we can reduce doubly supported costs or total ones. Integrating access methods like the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on system maintains importance as a mutual support between companies and researchers (or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7) The principle of the universality and popularization

- This principle is related to the popularization policy of culture and means that not only established previous academic outcomes but also modern and popular trends in Korean studies must be added to the interest in Korean studies risen at home and abroa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and highlight the public cultural side academically which foreigners inside or outside of Korea can approach universally. It can have concrete shapes bearing characteristics of diverse local programs and events centering on a unit base.

- We have to be more interested in the research, spread and int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mass media such as TV, radio, movie, music and multimedia. There can be a limit to the promotion of Korean studies only with the most typical and traditional Korean. The integration by educational-industrial complexes related to Korean studies has greatest productivity and utility when people can access those complexes which are based upon this principle.

5. Conclusion

Korean studies can provide tremendous impetu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anguage (as they possess elements of each other). Enlarging the scale of supporting research and education in diverse areas may be the best way for maintaining the establishe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nd going one step forward. However actually it cannot be possible in many cases. Therefore planning and support based on precise evaluation is needed for research and promotion of Korean studies. Simultaneously, we should consider important the ex post facto administration of the researched and project results.

We think that the sympathy to ground the international base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and Korean studies is well prepared. We will find no differences by the terms of 'network' or 'unit base' to embody it.

This article has suggested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meta-dimensionally on the basis of establishing 'unit base' from the viewpoint of a positive strategy for systematizing and utilizing <the globalization of Korean>. We think that the issues suggested here should be more concretely discussed through review and consultation from the fields afterwards for applying them effectively in the future.

Korean Studies at the Dawn of the Millennium

Proceedings of
The Second Biennial Conference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Edited by Young-A Cho

Hosted by
Monash Asia Insititute
Monash University, Australia
24-25 September 2001

빈 면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Developing Unit Base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Hi-Won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ng-Gyun Han
The University of Ulsan

Hyuk Suh
Jeonju National Univsity of Education

1. Introduction

Nowadays, Korea has been accelerating the pace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its society. Furthermore, after Korea entered the OECD, its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with advanced countries are increasing in economy as well as education.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especially that of the Korean language is coming to the front as an important task to be developed and defined through this process.

At the beginning of the national globalization drive strategy, refer to Seong(1996), the policy makers did not conside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anguage as a priority. However we are fortunate enough to find some agencies which have promoted a series of projects such as developing teaching and reference materials, Korean language teachers training etc. Accordingly, these projects, commissioned b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ve significantly promoted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and in turn Korean culture in general) in recent years.

This article focuses on making the concept of "unit base" concrete which can be preliminarily understood as having a similar meaning to the terms "operation base" or "network". And then the basic principles of constructing unit base will be suggested

2. The concept of Unit Base

The similar concept of unit base we focus on this paper has already been discussed such as 'information center' in Seong Gwang Soo (1995), 'unit base' in Han Young Gyun etc (2000), 'operation base' in Cho(2001), 'network' in Suh(2001).

Seong Gwang Soo (1995) pointed out 'the discontinuation of researc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disharmony between theory and material, and no relation between linguistics and language education' in relation with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America. This problem is a general tendency in Korean linguistics research. Much more interest and collaboration is required for global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or this, it is needed to establish such as 'Korean language information center' which should play a important role to integrate collaborative and systematic research.

Han Young Gyun etc (2000) shows that there are respective characteristics in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studies according to area or country. Namely, Korean language learners in Europe are just a few who intend to pursue Korean studies. Whereas in the USA, the offspring of overseas Korean is mainstream. Also, overseas Korean language institutes are varied, from regular education institutes centered in universities to irregular education institutes in the shape of 'weekend' Korean schools. That is wh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existing phases and support these education institutes.

Also, it has been suggested that establishing unit base for Korean language support be implemented as an alternative plan to activate enhancement of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refore, considering nee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distribution, they would divide overseas Korean education into regions by countries and select some institutes among numerous institutes to carry out a important role as a core institution at the university level. And the role of the unit base was suggested as follow;

-fulfilling the role as an institute tak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research

-establishing network amo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es in given areas

-supporting textbook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nd training Korean teachers in the area

-establishing base camp for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education systems abroad.

For this purpose, we should initiate a consultationand basic investigation to construct unit in each region in the world. The polit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of related countries as well as Korea is implemented continuously with closely inter-connection system in unit bases. Establishing unit base will be very important role to support the previously mentioned work continuously.

We can see a concrete reference related to unit base in 'operation base' in Cho (2001). It can be said that Cho (2001) put an emphasis on establishing information centers to collect, digitalize, and spread research results. He also argued that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bout research methodologies need to be activated among researchers, and that establishment of operation bases is needed in the aspect of cutting down the cost of information exchange. To use Australia and its function as an operation base for Korean studies overseas covering Oceania and South East Asia as an example, Australia worked as the center of information flow to coordinate research interests. When with systematic and continuous supporting programs about overseas Korean Studies research centered on the above-mentioned operation base, this operation base has been more effective.

We can see the aforementioned inter-coordination plan simply in Suh (2001). Namely,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conduct collaborative research, activate numerous academic conferences provide, variety and efficiency of support in relation to countries, and educate postgraduate student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relation with fostering postgraduate students, he put an emphasis on bringing up future generation of scholars in Korean Studies by establishing Ph D courses in Korean Studies. Also, holding forums or awarding excellent theses/dissertation of postgraduate students and research students is proposed as good example of activation plans.

Of course, this requires assistance, bu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nd globalizing Korean Studies, we can only look forward to continuation and efficiency through the 'localization of Korean Studies'.

It can be said that Suh (2001) especially suggests to the researchers of Korean or Korean studies the necessity of strong networks and specific direction for a realistic and long-term approach. In other words, the cooperative field, for building up networks which include not only just Korean but also Korean studies in a broader sense, is increasingly needed more than ever befor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ustralia, research in Korea Studies is not so extensive, compared to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Australia. As a good example of establishing networks, the international symposium: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is significant for the exploring of cooperative systems in the phase of education and Korean studies. Suh (2001), in symposium, suggested that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cooperation' and ' competition' are related with establishing Korean studies networks in Oceania and South East Asia.

The 'unit base' concept referred to in this paper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establishing networks, and also is very useful for combining all of these: 'globalization', 'localization', 'cooperation', 'competition'. The concept of unit base is especially useful on that point of altering the concept of networking positively as a strategic concept; namely, both 'Network' and 'Unit Base' are same in it's approaches and philosophy. But the nuance of networks can be shown as a passive concept of building connections between individuals or institutes, while the concept of unit base is a positive strategic concept to lessen a passive concept.

And so, 'Unit Base' will be the basis of establishing effective systems for numerous policies and the support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globalization, through accumul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and preparation for problem solving strategy.

3.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Developing Unit Base

As mentioned above, Suh(2001) suggested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nd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ith regard to establishing academic and financial networks. To this principle we suggest adding the following.

3.1. The principle of specialization and integration

The principle of specialization and integration signifies sharing roles and generalization in diverse fields and dimensions. Namely, this is the integration which can make the most use of local specialities, and also categorial, logical specialization and the integration of research itself.

3.2.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is similar to the establishment of a "point institution(Geo-jeom-gi-ji)" proposed since 1984. The principle of a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is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unit bases in specific areas but also a positive and plural notion which aims towards globalization. But establishing point institutions seems to be from local or minor viewpoints. On the contrary, the establishment of unit bases strongly connotes a concentration; the concept of areal dispersion is that it can reflect plural aspects in Korean studies. Furthermore, it will be possible to concentrate academic potential through dispersion

into global units. These are ultimately getting systematiz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mentioned principle of integration.

In fact, the past logic of the point institution may be quite responsible for partial and incomplete support to overseas Korean studies.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helps to preserve the fair distribution of academic and financial support. The problem of partial support invested to only a few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so far must be overcome through the principle of areal dispersion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unit bases, attempting diversification and globalization of overseas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Korean studies. This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can be more concrete when the following principles are added.

3.3. The principle of efficiency and systematic organization

The core of this principle is the establishing a systematic and efficient supporting system by preparing a macro index of overseas research support programs for Korean studies. Namely, the establishing of a general, systematic and feasible evaluation system with regard to the concrete 'plan, practice, outcome' in research and support overseas Korean studies must be the prior condition.

3.4. The principle of specialty and fundamentality

Specialty means specialization and high-classification in a research area. It is important to bring up and support experts in the related field of Korean studie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order to sustain continued globalization. Specialty implies the necessity to set limits for choosing and dispatching researchers abroad and research supporting institutions. We should only support qualified researchers who are sufficiently tested, have prominent competence, and moreover possess a chance to produce excellent results. This procedure is very important in supporting the Korean studies and may be a key point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in the future. It contains not only searching for materials, arranging and spreading them, but also introducing Korean culture and Korean studies abroad, teaching Korean, and training experts of overseas Korean studies.

3.5. The principle of utility and productivity

It is desirable that the support of overseas Korean studies followed the principle of utility and productivity more so ever than before. It is not easy to find visible effects within short term. Introducing or spreading Korean culture is like trying to raise one's image through public relations, which can be a slow process. However, these days, it is true that culture is converted to the core of export products more so than in any other field.

No matter how we emphasize the genuine academic character, we should not ignore the mental and physical value-added sides which are the basics of human life. In addition, researchers including those in Korean studies should realize that it is time to make efforts for surviving not only by the national support but also for their own ability based on educational-industrial complex in the long run. In this context, the principle of utility and productivity is not simply based on economy oriented logic.

3.6. The principle of integrated access

The efforts for integration of sciences, companies and civil-government are the key point to the principle of integrated access in the above mentioned context. For

example, if Korean culture or Korean studies find some interest in a country abroad, the whole about Korea has relation to it without regard to the kind of area; business, education, religion and cultural activities. In this point, when a company advances into a country, it should not only be concerned with its business but also Korean culture at the same time.

So, we need to point to the method of integrated access among sciences, companies and civil-government. Each of them has its own role and acts independently, but we need to consider a mutual cooperation system as important. In addition, we can reduce doubly supported costs or total ones. Integrating access methods like the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on system maintains importance as a mutual support between companies and researchers (or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3.7. The principle of the universality and popularization

This principle is related to the popularization policy of culture, not only established previous academic outcomes but also modern and popular trends in Korean studi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and highlight the public cultural side academically which foreigners inside or outside of Korea can approach universally. It can have concrete shapes bearing characteristics of diverse local programs and events centering on a unit base.

We have to be more interested in the research, spread and int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mass media such as TV, radio, movie, music and multimedia. There can be a limit to the promotion of Korean studies only with the most typical and traditional Korean. The integration by educational-industrial complexes related to Korean studies has greatest productivity and utility.

4. Conclusion

Korean studies can provide tremendous impetu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anguage (as they possess elements of each other). Enlarging the scale of supporting research and education in diverse areas may be the best way for maintaining the establishe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nd going one step forward.

We think that the sympathy to ground the international base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and Korean studies is well prepared. We will find no differences by the terms of 'network' or 'unit base' to embody it.

This article has suggested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meta-dimensionally on the basis of establishing 'unit base' from the viewpoint of a positive strategy for systematizing and utilizing the globalization of Korean. We think that the issues suggested here should be more concretely discussed through review and consultation from the fields afterwards for applying them effectively.

References

Cho, Young-Dal. 2001. Directions of Research in Overseas Korean Studies. In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Ed.),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KAREC.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Ed.). 2001.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KAREC.

Hyon-Hwa Kang. 1999. An Analysis of Korean Language Test in SAT II : Using the

1998 Official Sample Test.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0-2.* IAKLE.

Keneth Wells. 2001. Korean Studies: Humanities-Prospects and Imperatives. In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Ed.),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KAREC.

Kim, Young-MI. 1996. Crossing Disciplinary Boundaries in Studying Home Language Maintenance and Re-Learning. *Bilingual Education, vol. 13.* The Korean Society of Bilingualism.

Park, Duk-Soo. 2001. Collaborative Approaches for Teaching Korean Studies. In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Ed.),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KAREC.

강만길 외(1997),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 국학,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문당.

김영아(1995), '호주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와 해외 한국어교육 제12호, 이중언어학회.

성광수(1996),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위한 언어정책 검토', 한국어 세계화의 제문제, 이중언어학회지 제13호, 이중어학회.

왕혜숙(1995), '영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어휘상 오류 분석', 이중언어와 해외 한국어교육 제12호, 이중언어학회.

임재해 외(1999), 국학의 세계화와 국제적 제휴, 안동대학교 출판부.

정광(2000), 해외 한국학 연구의 현황과 그 지원의 효율성 연구, 연구보고서.

한영균, 신현숙,옥철영(2000),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간 협력망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사업 보고서", 문화광광부 세계화 추진 위원회.

한재영, 서혁(2001), 21세기 해외한국학 진흥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한영균, 성기철, 신현숙, 유필재, 옥철영(2000),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간 협력망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사업 보고서", 문화광광부 세계화 추진 위원회.

한재영, 윤희원, 서혁(2001), 21세기 해외한국학 진흥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Internet Resource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Jung Cho
Monash University

1. Introduction

My presentation is about how to create a better learning environment for learners of Korean and how to create a better teaching environment for teachers of Korean by using Internet resources.

Of all technologies, the Internet has most potential benefits to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benefits can be discussed from two aspects: teaching and learning. The aspect of teaching is all about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teachers via the Internet and this can bring immediate benefits to them, consequently resulting in better learning for learners. In addition, many learning activities utilising Internet resources require students of different schools and institutions to carry out the activities together. Therefore, I will discuss the teaching aspect first and then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et resources for learning.

2. Resources for teachers

Like other Less Commonly Taught Languages (LCTLs) Korean has fundamental problems such as lack of teaching resource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Sung, 1995; Kim, Y., 1994; Kim, N., 1994; Ogosi, 1994). These problems have all originated from the simple fact that there are not many students learning Korean (Cho, 1997). Due to the small number of students, commercial publishers are not enthusiastic about the development of Korean teaching resources. Not-many-students means not-many-teachers and, furthermore, these few teachers are scattered all over the place making it difficult to provide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Given the fact that there is no dramatic and significant increase in number of students expected in a short or medium term, one way of lessening these problems is to maximise the use of limited resources we have: human resources and teaching/learning materials. Unfortunately, this has not been easy in the past since we were geographically far away from one another and the cost of communication was high.

The tools of the Internet have opened up new opportunities for easy and inexpensive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The Internet allows us to exchange ideas, class activities, lesson plans, and so on with ease. We do not have to struggle in isolation from one another any more.

Here are some of communication channels set up by universities and associations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and outside Korea:

- Mailing lists for Korean teachers

1. Name: TKFSL-L@arts.monash.edu.au
   Topic: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or Second Language
   Manager: Korean Studies, Monash University
   Further Information:
   http://www.arts.monash.edu.au/korean/teaching/index.html
2. Name: ICKL@listserv.uta.edu
   Topic: Korean linguistics
   Manager: University of Texas
   Further Information: http://listserv.uta.edu/archives/ickl.html

- Sites with Web BBS for Korean teachers

1.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Progra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http://www.kyunghee.ac.kr/~koredu/

2.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Progra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http://suny.yonsei.ac.kr/~koreaedu/

3.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http://www.korealo.com/

4.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www.aklt.net/

These communication channels allow us to exchange ideas, class activities, lesson plans, and so on leading to a better teaching environment. In other words, we can maximise the use of existing human and teaching/learning resources. Therefore, I urge all the participants here to take part in creating a better teaching environment.

I also urge all the participants here to become more active in building up the Web presence of their schools and institutions. In general, Korean programs do not rank high in their Web presence compared to other LCTLs. The Web presence of Korean language programs is important in that it promotes not only your program but also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whole.

We also have to strive to create or increase Korean presence at the Web sites of national language organizations such as Language Australia and Modern Language Teachers Association.

3. Resources for learners

Although there is a variety of Internet resources which can be used for learning or teaching of Korean, today I will just focus on ready-made learning materials which

are readily available. Here is the list of web sites which have substantial amount of learning materials:

1. Korean@Monash
   http://www.arts.monash.edu.au/korean/

2. Kore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http://korean.sogang.ac.kr/

3. An Introduction to Korean by J. David Eisenberg
   http://catcode.com/kintro/

4. Korean Study Net by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ttp://www.interedu.go.kr/

5. Korean Language at Korea & Korean
   http://parallel.park.org/Korea/Pavilions/PublicPavilions/KoreaImage/hangul/index.htm

6. Korean through English b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ttp://www.mct.go.kr/hangeul/index.html

7. Korean Language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Bridgeport
   http://www.bridgeport.edu/Indexhtml/Centers/Disted/crsmaterials/korn101/

8. Mr. Oh's learnkorean.com
   http://www.learnkorean.com/

9. Korea for Kids
   http://www.curriculum.edu.au/accessasia/korea/kids.htm
   &
   Snapshots of Asia (Korea) at Access Asia
   http://www.curriculum.edu.au/accessasia/snapshot/korea/korea.htm

10. Learning Hangul with Soyongdori
    http://library.thinkquest.org/20746/

11. Audio files of Korean conversations and narrations at Indiana University
    http://languagelab.bh.indiana.edu/korean101.html

12. Korean Folk Tales for Kids at the Korean company 'LG' web site (This is not designed for language learning. But it has an English version as well as a Korean one. Excellent site!)
    http://story.lg.co.kr/english/index.html

There are also mailing lists through which learners of Korean can exchange e-mail messages in Korean with other learners and native speakers of Korean.

1. Name: LearnKorean1-L@arts.monash.edu.au
   LearnKorean2-L@arts.monash.edu.au
   Manager: Korean Studies, Monash University
   Further Information:

http://www.arts.monash.edu.au/korean/learning/index.html

2. Name: LearningKorean@yahoogroups.com
   Manager: Benjamin Barrett
   Further Information: http://groups.yahoo.com/group/LearningKorean

Although all of the above web sites allow anyone with Internet access to use their materials free of charge, I will talk about the Monash web site in detail. That's because the Monash site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other Korean educators to be able to use its learning materials with ease. In other words, it has been designed with sharing of materials between schools and institutions in mind.

The learning materials are designed to be flexible enough in content, structure, and the containing and navigation system to be easily incorporated into courses out side Monash. This high degree of flexibility has been achieved in the following ways:

- *Micro-components of learning materials*. Learning materials are made as small as possible. These micro-components can be compared to LEGO blocks. Just as we can construct an endless variety of structures with LEGO blocks, subject designers can construct an endless variety of courseware by interlinking the micro-components. This also allows students to construct their own learning path.

- *Web page as versatile container*. The learning material is represented in the form of Web pages. The Web page is a simple but powerful and interactive medium — simple because it is easy to create; powerful because it can contain a wide range of media such as text, audio and video; and interactive because it can contain a wide range of interactive learning materials written in computer languages.

- *Site independence of navigation system*. The navigation elements in the learning material should not assume any specific location or structure. It is essential that we can assemble micro-components in different configurations required by any particular courseware. The navigation system should allow multiple entry points and enable users to return directly to wherever they came fr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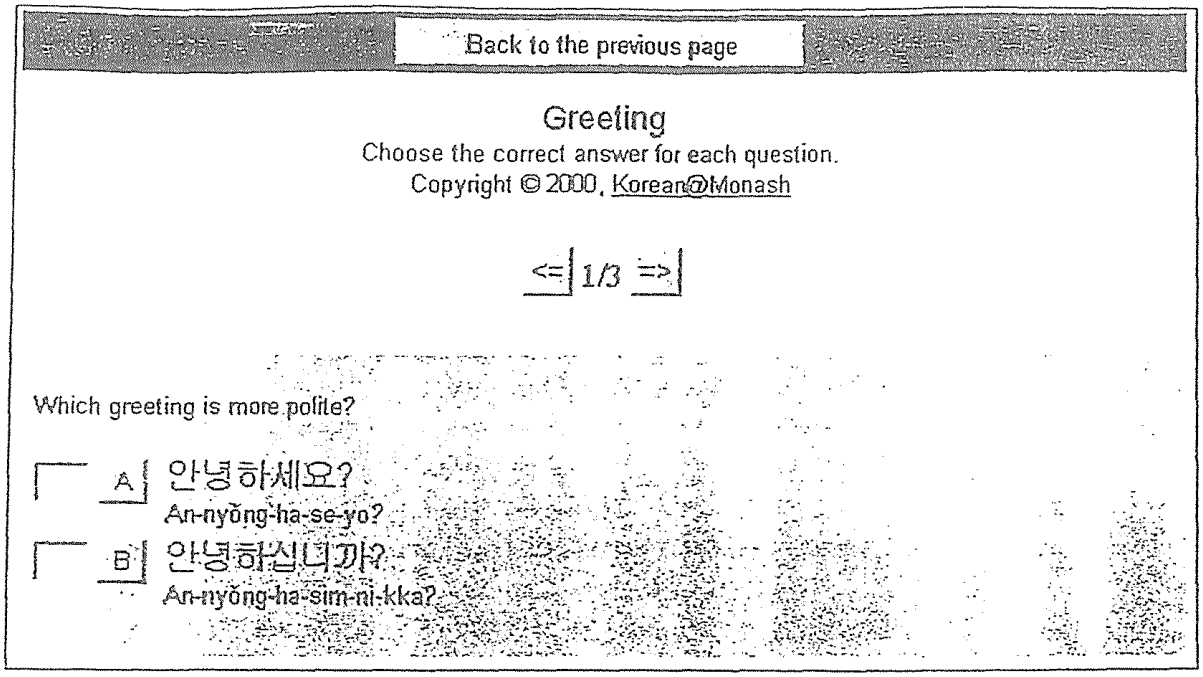


Figure 1: Example of micro-components and its navigation system

This 'plug and play' approach increases not only re-usability but also shareability. Shareability is important for easy collaboration not only within the school or institution but also between schools or institutions. Collaboration enables us either to develop more materials of better quality in any given time, or to shorten development time for a given amount of materials. Sharing between schools or institutions is very important for LCTLs such as Korean in which there is a dearth of resources. This will also help to avoid the 'not invented here syndrome'.

4. Conclusion

Although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many problems and obstacles, we should not despair and instead work together to overcome them. If we work together we can overcome them sooner. So I would like to finish my presentation emphasizing again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Korean educators. Ehrmann (1996) said, "We educators advance as communities of inquiry, groping forward together through the dark. We help each other and advance, or else we fail to advance."

References

Cho, I. 2001. A Resource Centre on the Net: A Model for Less Commonly Taught Languages. In U. Felix. (ed.). *Beyond Babel: Language Learning On-Line* (pp.59-80). Melbourne: Language Australia.

Cho, I. 1997. Internet and Korean education: New horizon.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Koreans Abroad and the Next Generation. Keimyong University, Taegu, 25-28 June 1997. (in Korean)

Ehrmann, S. C. 1996. Facing the triple challenge: You can't do it alone. *CALICO Journal* 13,1:5-25.

Kim, N. 1994.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Korean education in Los Angeles, U.S.A.: Community schools. *Korean Language Education* 5:262-270. (in Korean)

Kim, Y. 1994. Language education programs for minorities in Canada: Issues for the effective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5:285-292. (in Korean)

Ogosi, N. 1994. Study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Korean Language Education* 5:271-284. (in Korean)

Sung, K. 1995. Issues in overseas Korean education. *Bilingual Education for the Overseas Koreans* 12:299-323. (in Korean)

Pragmatic Function of *ye* in Opening and Closing Sequence in Korean Travel Consultations.

Dae Song Choi
Macquarie University

1. Introduction

Ye is one of the frequently used interjections in ordinary Korean conversation.[1] It is equivalent to "yes/yeah" in English. There have been studies to explicate the pragmatic meaning of *ye* based on ordinary conversation (Kim 1989, Lee 1993, Oh 1995, Noh 1991, Choe 1996). These studies show that *ye*'s various meaning is derived from its canonical meaning of positive answering and agreeing. *Ye*'s various illocutionary meaning has been noted in requesting, accepting, confirming, promising (Kim 1989). Oh (1995) has examined multi-functional aspects of Korean interjections with regards to their class, (phonological, sema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interjections. Lee (1993) has studied *ye*'s sequential functions: turn initial *ye* functions as acknowledgment, topicalizer and topic closing. Turn final ye emphases the assertion. As freestanding, it functions as continuer, indicating turn boundary and self-response.

It has been found that *ye* is used for greeting and leave taking. This is achieved by sound stretch in flat pitch contour at its end (Kim 1989:10-11, Oh 1995:89,137-138). *Ye*'s functions are further refined considering *ye*'s multiple production is related to speaker's social status, psychological state and context in which it occurs (Kim 1989:11).

In general, findings in the data support the previous findings. This study is based on those findings. However, it is rare to find an analysis based on the sequential context, while applying Conversational Analysis 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s *ye*'s sequentially situated meaning by describing in depth the opening and closing sequences. In the first section, it demonstrates that the participants negotiate *ye*'s function in relation to its placement, which results in *ye* in the second turn position. Here *ye* is utilised to establish the participants' institutional relationship.

In second, it analyses how participants exploit *ye* in the third turn position to circuitously move into closing section (Kidwell 2000: 33). It further discusses *ye*'s function related to previous findings defining *ye* as "passive recipiency" (Jefferson 1984:200) and "retrospective and sequence closure relevant (Gardner 1997:135). This study further argues that *ye* is often produced as a response to unmentioned turn-part of the co-participant, which is predicted to occur in the subsequent turns. In relation to this, prosodic features (gaps, sound stretch, and pitch) are also examined.

2. Data

15 cases of Korean travel consultation were audio recorded and transcribed. Data

[1] It is reported that in conversation in hotel reservation utterance including *ye/ne* takes one quarter (1079) of the whole turns (4516). 70 percent of this is used to acknowledge the prior turn (Choe 1996: 12).

were collected from 4 travel agencies: two in Korea and two in Australia. The consultation lasted for 5 minutes to one hour. Average duration of consultation is approximately 20 minutes.

3. Opening sequence (greeting → purpose of visit)

One of the functions of *ye* is to substitute greetings and leave-takings. In the data, Clients (Cs) greet by uttering, *annyeong-ha-se-yo* "Hello?" and Agents (Ags) welcome by uttering, *eoseo o-si-psio* "Come on in please."

Following fragment further shows that *ye* can be used for initiating greeting. Ag is in the middle of consultation with another C. Notice that Ag greets C2 by uttering *ye* (line 6).

Fragment [1] (Booking)
Ag = Agent, C1 = primary Client and C2 = secondary Client

((Ag is in the middle of consultation with another client.)

1	C1:	>*annyeong -ha -se -yo*<:::.=
		well:being do HON POL
		"Hello."
2→	Ag:	=*ye*::=*eoseo o -si -psio*:::.
		yes quickly come HON IMP
		"Oh, come on in please."
3		(1)
4	C2:	*ha*-
5		(1.4)
6	Ag:→	ye:.
		yes
		"Yes."
7	C2:	*annyeong -ha -[se -yo*:::.
		well:being do HON POL
		"Hello."
8	Ag:	*[jamsi jom anjeu -se -yo:[*::.=
		a:little:time a:bit sit HON POL
		"Would you like to take a seat?"

Ag utters *ye* to respond to C1's greeting (line 2) and to acknowledge C2's presence (line 6), which leads to C2's greeting (line 7). Here *ye* is used for greeting response and initiation. This instance shows that sound stretch is applied not only in the closing sequence (Oh 1995: 139 and Kim 1989: 13), but also in the opening. The sound stretch at the end of the first turn is also reciprocated with similar length at the end of the response turn (lines 1-2 and 6-7). This highlights how the stretched intonation with flat pitch contour enhances *ye* to function as greeting expression.

Data show that the initiators of interaction orient to starting off the opening sequence. C prefers to initiate opening by greeting. Subsequently, Ag prefers to acknowledge it by uttering *ye* and further welcome C. This allows C to be in the third turn position to utter their purpose of visit as illustrated in the following opening sequence:

1	C:	greeting
2	Ag:	*ye* + welcoming
3	C:	telling purpose of visit.

This sequence is explained by the "distributional rule": the caller provides the

first topic of conversation (Schegloff 1968: 354). This implies that C is expected to greet tell her/his purpose of visit following Ag's acknowledging and welcoming turn.

In this way, C can avoid Ag's inquiries for sale purpose. In other words, C takes the first turn position, which allows them to take the third turn to further inquiry (Sacks 1992 (1966): 256-257, 264, and Jefferson 1993:29). This reflects the character of a conversation: a person who asks first reserves the right to talk again. This is termed as "the chaining rule" (Sacks 1992). Thus, C can avoid Ag's possible sales oriented inquiries into C's preferences/wishes etc., which is developed into a sales offer. This may obligate C to respond to purchase or not. Thus, C's greeting is a strategic attempt to strengthen her/his negotiation stance by taking the third turn with her/his discretion. C can obligate Ag to respond in the fourth turn regardless of a type of the third turn (i.e., question/statement).

Data show that Ag disprefers greeting C. Without C's initiation of greeting, Ag acknowledges first and welcomes C in the first turn. Ag within the same turn can inquire into C' purpose of visit, which may lead to C' telling her/his purpose of visit. However, Ag disprefers to do so. The reason for the argument is that Ag may avoid inquiring directly into C's purpose of visit *by uttering* a common expression, *eteoke o-sheot-seumni–kka?* "What have you come for?"

This is demonstrated in the fragment below. In line 3, Ag utters *ye* with relatively short sound stretch. This leads to C's stating purpose of her visit (line 5).

Fragment [2] (US visa)
Ag = Agent, C1 = primary Client and C2 = secondary Client

((C comes into the office, while Ag is in the middle of consultation with another client.))

1	Ag:	*eoyu.*	*eseo* *-o* *-se* *-yo::.*
		oh	quickly come HON POL
		"Oh, come on in please."	
2	C1:	*ye::.=*	
		"yes."	
		"Yeah."	
3→	Ag:	*=ye:.* ((towards C2))	
		yes	
		"Yes."	
4		(0.5)	
5	C2:	*tiket* *gaji* *-reo* *wa* *-t* *-neunde* *-yo*	
		ticket take in:order:to come PST CIRM POL	
		"(I) came to pick up a ticket."	

Data show that Ag disprefers inquiring into C' purpose of visiting. Without C introducing the purpose of her/his visit, Ag's concern is to differentiate the type of visitor whether they are related to business or non-business. If business related, it is necessary to know whether it is C's intention to buy the product or to seek information only, while implying the possibility of purchase. If C's intention is to purchase the products then the whole interaction is likely to be a plain transaction of goods and services. Accordingly, negotiation is not expected. Thus, it seems natural that Ag inquires into C's purpose of visit.

However a question is raised at this point with regard to literal meaning of commonly used inquiring expression *per se*: *Eteoke-o-sheot-seubni–kka?*, "What have you come for?" delivers undesirable connotation. It inquires into the reason for

visiting as interpreted "Why have you come (here)?" Somewhere in the data, a Korean version of "How can I help you" in English, *Eoteokedowa-deulil-kkayo?* is found. But this is not yet considered as ritualised expression in service encounters. Thus, Ag prefers to leave the first turn space to C to initiate greeting and tell the purpose of their visit in the third turn following Ag's second turn.

This is also the way for Ag to proceed into further interaction in a more efficient manner without losing courteous stance, which is derived from *ye*'s canonical meaning of positive answering and agreeing. So, the sequence explained is a balancing effort to maintain "efficiency" and "openness to interaction" preferred by Dutch (Houtkoop-Steenstra 1986 in Hopper 1989:177) and "intimacy" orientedness in Greeks (Sifianou 1989: 538-539).

This sequence demonstrates a high degree of "density" of 'pre-empting" (Shegloff 1986:133-138) in a sense that *ye* includes the functions of the summon-answer, recognition-response, greeting and "How are you?" sequences. This is described as "cultural variance" (ibid), which is further interpreted in the data as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interaction (the opening of a travel consultation).

Ye in opening sequence is uttered so as to establish the participants' institutional role as buyer and seller. This is based on *ye*'s function to accept not only verbal expressions, but also C's presence (Oh 1995: 124-125) by acknowledging C's presence, Ag accepts C as a prospect customer. This changes the status of the participants' relationship from unknown to temporal acquaintance for accomplishing their interactional goals (Goffman 1967: 34). The affirmative acknowledgement of *ye* is an interactional resource to smoothly enter into social activity. Here, sound stretch with flat intonation conveys affinitive feature (Kim 1989: 11-13) that eases the burden of opening interaction due to high density of sequence.

Thus, C initiates greeting with strategic motivation to establish a social relationship. This reflects a previous finding: Korean speakers disprefer to greet between those unknown. Greeting is a much more common practice between acquaintance (Han 1998: 42). In the data, greeting-greeting sequence is rarely found.

In summary, *ye* is used to substitute greetings. It helps to establish institutional relationship. In this process, it is preferably located in the second turn position by Ag. The participants collaborate to achieve a typical opening sequence (C → Ag → C).

In the next section, the study describes the process of closing sequences in which the participants exploit *ye* in the third turn position in acknowledging sequence.

4. In closing sequence (third turn position[2])

This section describes the process of consultation closing, in which *ye* is pervasively used. It also defines another function of *ye* as "prospective response token" that occurs before the co-participants' response. *Ye*'s function is further examined by considering prosodic features accompanied with *ye* with regards to stretch sound, pitch change.

The participants initiate closing sequence (preclosing implicative), mutually agreeing (preclosing sequence) before they terminate consultation (terminal sequence).[3] The participants exploit the third turn position of *ye* to close on-going topic and confirm they have nothing to add to the on-going topic. They also implicitly agree to move into further closing sequence. Through the third turn position, the participants "confirm understanding of one anther's action so that mutual understating

[2] In data, *ye-ye* pattern is also found but it is not a common sequence in closing.

[3] Details of closing sequence are explained in Schegloff & Sacks. 1984 (73). Opening Up Closings.

is thus displayed" (Heritage 1984: 257-259).

In the fragment below, C visits Ag to inquire into information about visa application. After Ag's offering price (for handling visa application), C further questions in relation to the price offered.

Fragment [3] (VIP – US visa)
Ag = Agent, C = Client

((Topic was about document necessary for passport application. C inquires about the service charge for it.))

149 Ag: *bija pi -neun::: jeohi -neun jigeum gu -man*
visa fee TOP we TOP now nine ten:thousand
150 *won bat –go it -geodeun -yo*
Won receive CNN be CIRM POL
"We charge 90,000 Won as a fee for visa application service."
151 (0.5)
152 C: *il -in -dang -yo?*
one person per POL
"(Is it) per person?"
153 Ag: *ye.*
yes
"Yes."
154 (0.3)
155 C: *jeonbu da ha -eseo -yo?=*
all all do CNN POL
"Does it include everything?"
156 Ag: *=ye.*
yes
"Yes."
157 (1.1)
158 Ag: *aegi -deul -eun yeokwon gat -go gyese -yo?*
baby PL TOP passport have CNN stay (HON) POL
"Do your children have a passport?"

A moment after Ag's price offer (lines 149-150), C's decision to accept/refuse the offer is expected. This is Sales Relevant Place (Clark, Drew and Pinch 1994: 440). In the subsequent turns, C develops a chain of question-answer sequence (lines 152-153, 155-156), in which he is positioned in the third turn to continue to ask questions (Sacks 1992). After this, C further delays his decision as indicated by 1.1 second of gap (line 157). Ag orients to C's delay in decision making by introducing a transitory topic (line 158), by inquiring about whether C's children have a passport. This is a "topic shading' (Schegloff, & Sacks 1984 (1973): 83) in a sense that the new topic is related but not introduced for its development as indicated by frequent topic shifts.

Several turns later, C initiates a three-turn parts sequence by questioning.

((6 lines omitted. Ag asks whether C's children have a passport.))

165 C: *han- (0.4) han boreum isang geoli -gu -yo::=*
about about fifteen:days over take CNN POL
"It takes more than a fortnight, doesn't it?"
166 Ag: *=ye::.*
yes
"Yes."
167 (0.5)

168→ C: *ye:::.*
yes
"Yes."
169 (0.3)

C in the third turn position (line 168) indicates he has nothing to add to the on-going topic at this moment. This is further proved by the gaps (lines 167, 169). Similar phenomenon is found in the subsequent turns (lines 172, 174) in which the participants confirm each other's turn.

170 Ag: *han dal: jeongdo:: neokneokhi jabeu –si -myun*
one month about plenty take HON if
171 *doe -√yo=*
become POL
"You would have to expect it to take about a month."
172 C: *=a::: geurae -yo?*
oh so POL
"Oh I see."
173 (.)
174→ Ag: *ye.*
yes
"Yes."
175 (.)
176 C: *ye=al -get –subnida:::,*
yes know VOL DCL (HON)
"Yeah, alright."
177 Ag: *ye=[gamsa -ha -bnida::::.*
yes thank do DCL
"Yeah, thank you very much."
178 C: *[gamsa –ha -bnida:::.*
thank do DCL
"Thank you very much."

Following a series of the three-turn parts sequence, in line 176, C acknowledges the previous turns in the whole consultation (Oh 1994: 137). C produces initial turn *ye* to initiate preclosing sequence. This is accepted by Ag, who also utters turn initial *ye* (line 177) (Oh 1994: 138 and Kim 1989:10). So, the initiation of closing section of the consultation is achieved by topic shading, which is contrasted to "shutting down" (Schegloff & Sacks 1984 (73): 81) approach in English. It is typically characterised by following sequence:

A: OK?
B: All right.

This is the first part of closing section (preclosing) and the participants mutually agree to move into terminal sequence (leave-takings) (ibid).

Therefore, through the three-turn parts sequence, the participants are reluctant to terminate voluntarily and provide opportunity for the next speaker to move out of closing (Button 1987: 139). In this fragment, the participants are confirming that C is delaying/refusing his decision. They prepare to proceed to speedy preclosing sequence (lines 176-177) and terminal sequence (lines 177-178) by introducing "transitory topics" (Jefferson 1988: 433) and "reinstating continuous talks" (Maynard 80: 284), which are not elaborated in depth and shifted frequently. Without these transit topics, the Sales Relevant Place is directly connected to a preclosing sequence. To avoid this abrupt closing or prolongated silence which may occur, the participants

repeat the three-turn parts sequence.

Another instance of the participants' orientation to the three-turn parts sequence is displayed below in which *ye* is placed in a series of acknowledgement turns.

Fragment [4] (Booking)
Ag = Agent, C1= primary Client and C2 = secondary client

((C pays for the flight ticket and Ag counts cash received.))

488	?:	( )=	
489	C2:	*=ye::.=*	
		yes	
		"Is it OK?"	
490	Ag:	*=ye:=maja -yo=*	
		yes correct POL	
		"Yes, that's correct."	
491→	C2:	*=ye=*	
		yes	
		"Yeah."	
492→	Ag:	*=ye::.*	
		yes	
		"Yeah."	
493	C2:	*deot -ɟj -yo?*	
		become DCL POL	
		"Alright?"	
494	Ag:	*[ne=gomap [-seubnida.*	
		yes thank DCL (HON)"	
		"Yes, thank you very much."	
495	C1:	*[tiket dalae -t -seo -yo?*	
		ticket request PST CNN POL	
		"Have you got the ticket?"	

In line 489, C requests Ag's confirmation on the amount of cash paid for the flight ticket. This is performed by uttering *ye*, which invokes Ag's response as she finishes counting. Here the focus is on C's *ye* (line 491) and Ag's *ye* (line 492), which are in the third turn position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they are structurally orienting to three turn parts acknowledging sequence. Thus, they stay in conversation without doing any further movement to closing sequence (Jefferson 1986: 173).

Thus, through the three-turn parts sequence the participants mutually understand and confirm (Heritage 1984: 257-259) that they do have nothing to contribute to the on-going topic. However, this is not warrant for moving into further closing sequence.

This phenomenon seems to be due to the nature of the freestanding *ye* that functions as "passive recipiency" and elicits the co-participant's talk (Jefferson 1984: 200). So, its function is similar to "Mm" in English as a third position recipient token, which is "retrospective and sequence closure relevant" (Gardner 1997:135). This is a contrastive aspect to the turn initial *ye* as topical shifter and higher speakership incipiency (Drummond & Hopper 1993: 205).

Due to *ye*'s nature of passive and openness toward following turn, the three-turn parts sequence does not warrant terminal sequence. This requires explicit preclosing sequence, which is offered in requesting question form *deot-ɟ-yo?* "Alright?" (line 493) and confirming (line 494). That is, C further confirms Ag's readiness to enter into further closing sequence. This indicates that participants go through a closing implicate stage through the three turn–parts sequence prior to preclosing sequence. Thus in the closing implicative stage, the participants gradually confirm the timing of

further closing movement until it becomes ripe to initiate further closing movements.

In what follows, the study argues *ye* in turn final or in a freestanding form functions to respond to the co-participant's possible response in advance. It is often repeated with sound stretch and pitch contour incorporated.

5. Anticipatory response.

The instance below indicates *ye* is repeated within the same turn, while each *ye* functions differently according to its location. Cs predict Ag's main clause turn as she produces the subordinate clause "When you decide on your schedule," (lines 191-192).

Fragment [5] (Vancouver)
Ag = Agent, C = Client

((Ag explains the advantages of using the national carrier for return travel to US.))

191	Ag:	*najunge iljeong -i japi=*
		later itinerary SUB decided
192		*[=myun::,*
		if
		"When you decide on your schedule,"
193→	C2:	*[ne::=[↓ʔye.°*
		yes yes
		"Yes, yes."
194	C1:	*[grureo -lkke–[yo*
		so DCL POL
		"(We) will do that."
195	Ag:	*[( )yeonlak ju –se –yo=*
		contact give HON POL
		"Please contact (us)."
196	C1:	=ye:: ye.
		yes yes
		"Yes, yes."
197	Ag:	ne.
		yes
		"Yes."

Two *yes* (line 193), *ne::=↓ʔye.°* become differentiated by their length of sound stretch and pitch contour. The first one is produced in flat intonation with stretch sound, while the second is latched to the first with falling tone. It is considered that the first one acknowledges the previous Ag's turn (lines 191-192) and the last one accepts the immediately following part, which is not yet uttered.

Cs anticipate Ag's subsequent turn part and respond to it positively in advance (lines 193, 194). C2's anticipated *ye* is interpreted by C1's utterance, *grureo-lkke–yo* "(We) will do that." (Line 194), which is a sequentially relevant interpretation because it is overlapped with C2' second *ye*. That is, C1 elaborates the meaning of C2's second *ye*. Accordingly, Ag's anticipated main clause is produced in line 195. Cs produce "anticipatory response"[4] before Ag completes her turn. Thus, C1 accepts in advance (line 194) Ag's upcoming request (line 195) and confirms in her third turn (line 196). Ag also acknowledges Cs previous turns in her third turn position (line 197). So, they close the on-going topic in an agreeable manner (Schegloff and Sacks 1984 (1973):

[4] This is a term borrowed from "anticipatory completion" (Lerner 1993: 53).

82), while implying further closing sequence is imminent.

Based on this finding, it is argued that each *ye* in multiple production function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location within the turn. The first one acknowledges/responses to preceding turn and the second one does the same function, but to unmentioned turn part of the co-participant.

In the similar manner, stretch sound attached to single *ye* also seems to do the same function. In the following fragment, notice that Ag initiates delayed second pair part of terminal sequence (line 244). It is considered as the second pair part of a terminal sequence initiated by C (line 236).

Fragment [6] (Ticket pick-up)
A = Agent, C = Client

((C has paid for the flight ticket and is about to leave.))

236→ C: *ha:ha [annyeonghi -gye -se -yo::.*
well:being stay (HON) HON POL
"See you later."

237 Ag: *[geureom mises (name)-geo -neun inje najung –e*
then Ms (name) thing TOP now later ADV
"Your (ticket) will be prepared later.
((2 lines omitted: Ag mentions that C's ticket will be prepared next week.))

240 C: *wo:: lyoil -nal dani -gu [geumlyoil nal-[ina*
Monday day work and Friday day or

241 Ag: *[ae. [ae.*
yeah. yeah."
"Yeah." "Yeah."

242 (0.6)

243 C: *toyo [il -ina -o l-yeogu -yo*
Saturday or come will POL
"(I) work on Monday so (I) may be able to come on Friday or Saturday."

244 Ag: *[ge:rae -yo:::]*
all right
"Alright."

245 (0.5)

246→Ag: *ye:::::.=*
yes
"Bye."

247 C: *=geu jeon - e ije o -jimal –ragu:: tongbo*
that before LOC now come not QUOT notice

248 *ga wa -ya deo -nuende*
SUB come should become CIRM
"I'm hoping to receive a call telling me I don't have to come before (I have to pick up the ticket.").

((4 lines omitted: C explains that she does not want to leave her young daughter behind when she has to go to Korea.))

253 C: *.hh- °(ye)-° [(sugo -ha –se) -yo::.*
toil do HON POL
"See you later (lit= Please keep up the good work,"

254→ Ag: *[geur -ae -yo::. ye::=ye.*
so CNN POL yes yes
"Alright."

In line 241, Ag prompts C's turn by producing frequent *yes* as continuer (Schegloff 1982:81). This is evidenced by Ag's early response (line 244), which is overlapped with the last syllable of the first word of C's turn (line 243).

Ag's intention to end the consultation is further revealed by her *ye:::.* (line 246), which is stretched with falling tone at the end of it. Considering its sequential distance from the C's overlapped leave-taking initiation, Ag's *ye* is considered to be reinitiating the terminal sequence. Ag anticipates *C's* possible second pair part of leave-taking by uttering *ye* with sound stretch. At this point, C does not accept Ag's initiation of the terminal sequence by developing the on-going topic. This leads to another terminal sequence (lines 253-254).

Thus, Ag's *ye:::.* (line 246) indicates that she acknowledges in advance C's possible response (leave taking) to it. The outcome is an initiation of a terminal sequence. This argument is based on *ye*'s feature of orienting to acknowledging the co-participants' previous turn. During the duration of sound stretch, the speaker leave turn space to the co-participant to develop a turn.

In line 254, another example of this is found in the sound stretch (::) attached to at the end of yo with falling intonation (.). This is reformulated into *ye::=ye.* in which the last *ye.* acknowledges C's possible response which might occur immediately following *ye::=ye.* In this respect, *ye* functions differently from that of Ag's continuers, *ae, ae* "Yeah, yeah" (line 241), which are individually uttered with monotone in a speedy tempo with flat pitch contour.

Other form of prompting the co-participants' turn is displayed in the fragment below. Notice *ye=ye=ye* (line 12).

Fragment [7] (Booking)
Ag = Agent, C = Client

((Ag recommends C2 to take a seat." and returns to consultation with another client)).

10		(17) ((Ag completes consultation with another client.)	
11	Ag:	*ne: asiana-lo yeyak -ha -syeo -t [(j -yo)?*	
		yes Asiana by reservation do HON PST DCL POL	
		"Okay, you have booked a flight with Asiana, right?"	
12→	C:		*[ye=ye=ye=*
			yes yes yes
			"Yeah yeah yeah."=
13		*=°jeo:°- (name) -yo*	
		I (name) POL	
		"My name is 000."	

Unlike the previous fragment, where *ye* is separately produced as a continuer, here *ye* is produced in three times in a row and latched to one another. It occurs towards the end of Ag's turn. It pre-empts Ag's possible question, "May I have your name?" Thus, when *ye* occurs in a speedy tempo, without sound being stretched at the end of it, its function is mainly to prompt the co-participant's turn.

Individual function of *ye* in multiple productions (*ye::: =ye or ye:: =ye*) can function differently according to its location in it. The second *ye* in *ye:: ye* (acknowledgment + sound stretch + anticipatory acknowledgment) pre-empts the co-participant's possible response, while the sound stretch provides turn opportunity to the co-participants to take turn.

The structure of *yes* in multiple productions (mostly in double) is further explained as a turn–in-series (Sacks, Schegloff, and Jefferson 1974: 722):

1st ye : responding (relating to a prior turn)

middle : (void)
2nd ye : responding (relating to a succeeding one)

In this respect, *ye*'s function is to link the participants' actions and confirming mutual understanding. This allows the participants to co-operate to terminate interaction.

6.Summary and Conclusions

The study has demonstrated that *ye*'s pragmatic functions vary according to its sequential location: as in turn initial, turn final and entire turn. It also displays that the participants collaborate to achieve smooth entry into the opening and closing of the encounter. *Ye* is used as an alternative expression for greeting and closing sequences. In the opening, *ye* is available only to Ag. Thus it preferably appears in the second turn slot due to C's preference to greet first and maintain inquiring stance in the subsequent turns so that C can avoid Ag's possible sale pitch.

This is further accorded with Ag's preference to open the encounter with efficiency, which results in the shortened opening sequence (greeting → the first topic (C's purpose of visit). This constitutes "type" (Schegloff 1979: 121) of travel consultation or any encounter where negotiation is relevant. This is facilitated by the use of *ye*, which invokes positive circumstantial inference (Oh 1995: 124-125) to convey interactional goals in a harmonious manner. In this way, the participants establish their roles to conduct their interactional goals.

In closing, through *ye* in the three-turn parts sequence, the participants are attentive to each other, while moving to terminal exchange in an implicit and agreeable manner (Jefferson 1993: 29)[5]. In this way, they close the on-going topic. So, moving into further closing sequence becomes relevant. This is due to lack of *ye*'s *capacity* to terminate interaction.

Due to *ye*'s inherent nature of agreeing/accepting is similar to that of "Mm" in English, which shows "passive recipiency", proposing the co-participant to go on talking (Jefferson 1984: 200). It further implies that the topic is exhausted (Jefferson 1993: 22). Thus, *ye* can be described as 'retrospective and sequence closure relevant" (Gardner 1997:135), while allowing the introduction of a new topic.

This is contrastive feature of *ye* compared to turn initial *ye* which can claim topic change or speakership change. The three-turn parts sequence enables initiation of closing sequence but the termination is subjected to the participants' negotiation. The participants often repeat the three-turn parts sequence or develop explicit preclosing sequence in a question-answer form before they move into terminal sequence.

This study further finds that sound stretch is distinctively observed at the end of greeting and leave-taking sequence. Furthermore, it is reciprocated in terms of its length. *Ye* in multiple production functions differently according to its location. The first *ye* acknowledges the co-participant's previous turn and the last one responds to the co-participant's possible turn to follow. In this sense, the last *ye* in multiple production (mostly in double) functions as "anticipatory response/acknowledgement token". Stretched sound of final single *ye:::*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orm of the "anticipatory acknowledgement token" *ye* in multiple productions. It accommodates the co-participant's possible response by providing opportunity for the co-participant's to introduce further response/acknowledgement (*ye*) or "unmentioned mentionable" (Schegloff 1984 (73): 91). Without the co-participant's possible response at this point,

[5] Similar phenomenon is found in *ne* "yeah/right?" in Japanese (Tanaka 2000: 1165, 1170)

the participants implicitly agree that the on-going topic is closed. Hence, introduction of a new topic or moving into proceeding stage of interaction is relevant.

Data show that the participants often complete sentence/turns with interjection *ye* attached to the turn final position. The above argument is further proved that turn initial *ye/ne* occurs to indicate topical change. *Ye* in multiple production *ne ne/ye ye* do not occur at turn initial position (Hong & Lee 1998, cited in Lee 1998: 16). Thus, the last *ye* in multiple production orient to responding to the co-participants' upcoming response.

Thus, the pragmatic functions of *ye* vary according to its sequential context. The participants use *ye* as an interactional device to build shared understanding. Therefore, they enter into social relationships and close it in collaborate manner.

References

Button, G. 1991. Conversation-in-a-Series. In D, Boden. & D.H. Zimmerman eds., *Talk and social structure: studies in ethnomethdology and conversation analysis.* Cambridge: Polity Press.

Button, G. 1987. Moving out of closings. In G. Button & J.R.E. Lee. eds., *Talk and social organiz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01-151.

Button, G. & Casey, N. 1984. Generating topic: the use of topic initial elicitors. In J.M. Atkinson. & J. Heritage. eds., *Structures of social action: studies in conversation analysis:* 167-1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lark, C., Drew, P. & Pinch, T. 1994. Managing customer 'objections' during real-life sales negotiations. *Discourse & Society.* 5 (4): 437-462.

Drummond, K. & Hopper, R. 1993. Back Channels Revisited: Acknowledgement Tokens and Speakership Incipiency.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26 (2): 157-177.

Gardner, R. 1997. The Conversation Object Mm: A Weak and Variable Acknowledging Token.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30 (2): 131-156.

Goffman, E. 1972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ur. Penguin Books.

Heritage, J. 1984. Garfinkel and Ethnomethodology. Polity Press.

Hopper, R. 1989. Telephone Openings and Conversation Universals: A study in Three Languages. In S. Trip-Toomy & F. Korzenny. eds., *Language, Communication and Culture*: 157-179. Newborn Park CA: Sage Books.

Hutchby, I. & Wooffitt, R. 1998. Conversation Analysis. Polity Press.

Jefferson, G. 1993. Caveat Speaker: Preliminary Notes on Recipient Topic-Shift Implicature.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26 (1): 1-30.

Jefferson, G. 1988. On the Sequential Organization of Troubles-Talk in Ordinary Conversation.*Social Problems* 35 (4): 419-441.

Jefferson, G. 1986. Notes on 'latency' in Overlap onset. *Human Studies* 9: 153-183.

Jefferson, G. 1984. Notes on a systematic development of the acknowledgement tokens "Yeah" and "Mm hm". *Linguistics* 17: 197-206.

Kidwell, M. 2000. Common Ground i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Sequential and Institutional Context in Front Desk Service Encounters. *Issues in Applied Linguistics* 11(1): 17-37.

Lerner, G. 1999. On the place of linguistic resources in the organization on talk-in-interaction: A co-investigation of English and Japanese grammatical practices. *Journal of Pragmatics* 31: 49-75.

Maynard, D. 1980. Placement of topic changes in conversation. *Semiotica* 30 (3/4): 263-290.
Sacks, H. 1992 (1964-72). Lectures on Conversation. Vol. 2. edited by G. Jefferson. Oxford. Blackwell.
Sacks, H., Schegloff, E. & G. Jefferson. 1974. A Simplest System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4): 696-735.
Schegloff, E, 1986. The routine as achievement. *Human Studies* 9: 111-151.
Schegloff, E. 1981. Discourse As an Interactional Achievement: Some Uses of 'Uh Huh' and Other Things That Come Between Sentences. In Deborah Tannen. ed., *Analysing Discourse: Text and Talk.* Georgetown University Round Talk in Language and Linguistic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Schegloff, E and H. Sacks. 1984 (1973). Opening Up Closing. In Baugh, J. and Sherzer, J. *Language in Use: Reading in Sociology.* 1984. Prentice-Hall.
Sifianou, M. 1989. On the Telephone again! Differences in telephone behaviour: England versus Greece. *Language in Society* 18: 527-544.
Tanaka, H. 2000. The particle *ne* as a turn-management device in Japanese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32: 1135-1176.

[Korean]

Choe, J. W. 1996. Some Issues in Conversational Analysis: Telephone conversations for hotel reservation.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8: 7-16. 한국정보과학. 한국인지과학회.
Han, S. H. 1998. A Contrastive Discourse Analysis of Telephone Opening and Closing in English and Korean. 영.한 담화 대조분석: 전화대화의 시작과 종결을 중심으로.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H. S. 1989. Pragmatic analysis on speech acts and listener's Signs: *ne* in discourse (translated). 언어 행위와 듣는 이의 신호에 관한 화용론적 분석시도: 담화 속에 "네". 말 (*mal*)14: 55-70.
Lee, H. H. 1998. A Study of Discourse Pragmatic Properties of Korean Conversation Reflected in Radio and TV Talk Shows. *Discourse and Cognition* 5 (2):123-157.
Lee, W. P. 1993. Discourse analysis of three "volitional interjections," "yey", "kulssey", and "ani" in Korean. 의지 감탄사 "예, 글쎄, 아니"의 담화분석. 인문과학 (inmun-gwahak): 69 70: 139-185.
Noh, D. G. 1991. Meaning of interjection *ne* and its usage. 감탄사 '네'의 의미와 그 용법. 갈음 김석득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한국문화사.
Oh, S.S. 1995. A Study on the Interjection in Korean. Ph D. thesis. 국어의 간투사 연구 Ph 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Abbreviations

ADV	Adverb
CIRM	Circumstantial
CNN	Connective
DCL	Declarative
IMP	Imperative
HON	Honorific
OBJ	Objective
PL	Plural
POL	Polite suffix
PST	Past tense
QUOT	Quotation particle

SUB	Subject
TOP	Topic marker
VOL	Volition

Transcription Glossary

(Developed by G. Jefferson, in Wooffit & Hutchby 1998)

(0.5)	The number in brackets indicates a time gap in tenths of a second
(.)	A dot enclosed in a bracket indicates a pause in the talk of less than two-tenths of a second.
=	The 'equals' sign indicates 'latching' between utterances.
[ ]	Square brackets between adjacent lines of concurrent speech indicate the onset and end of a spate of overlapping talk.
.hh	A dot before an 'h' indicates speaker in-breath. The more h's, the longer the in-breath.
hh	An 'h' indicates an out=breath. The more h's the longer the breath.
(( ))	A description enclosed in a double bracket indicates a non-verbal activity.
-	A dash indicates the sharp cut-off of the prior word or sound.
:	Colons indicate that the speaker has stretched the preceding sound or letter. The more colons the greater the extent of the stretching.
( )	Empty parentheses indicates the presence of an unclear fragment on the tape.
(guess)	The words within a single bracket indicate the transcriber's best guess at an unclear utterance.
.	A full stop indicates a stopping fall in tone. It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the end of a sentence.
,	A comma indicates a 'continuing' intonation.
?	A question mark indicates a rising inflection. It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a question.
↓↑	Pointed arrows indicate a marked falling or rising intonational shift.
a:	Less marked falls in pitch can be indicated by using underlining immediately preceding a colon.
° °	Degree sings are used to indicate that the talk they encompass is spoken noticeably quieter than the surrounding talk.
><	'More than' and 'less than' signs indicate that the talk they encompass was produced noticeably quicker than the surrounding talk.
→	Arrows in the left margin point to specific parts of an extract discussed in the text.

Lexical Local Control in Korean*

Duk-Soo Park
The University of Sydney

1. Introduction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problems that arise in the formulation of the syntactic conditions on lexical local control in Korean within the framework of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Chomsky 1981, 1982) (henceforth GB). The control structure—the coreferentiality of a phonetically null complement subject with some NP in a higher sentence—has been variously treated as conditions on a transformation generally known as EQUI-NP-Deletion in the literature on traditional Transformational-Generative Grammar (henceforth TG).

Although we will not discuss details of the EQUI-NP-Deletion analyses here, the motivation for the transition from EQUI-NP-Deletion to the Control Theory is worthy of notice: Standard TG postulates deep structures like (1a) and deletes the subject of a *for-to* (or *poss-ing*) clause if it is coreferential with the subject or object of the matrix clause. Thus sentences like (a) would be transformed into sentences like (b) by EQUI-NP-Deletion, and finally into sentences like (c) by *for*-Deletion, as exemplified below:

(1) a. John persuaded Bill for *Bill* to leave.
    b. John persuaded Bill for ____ to leave.
    c. John persuaded Bill to leave.
(2) a. John promised Bill for *John* to leave.
    b. John promised Bill for ____ to leave.
    c. John promised Bill to leave.

Starting with two coreferential NPs in the deep structure, traditional TG does not have to identify the coreferentiality of the phonetically null subject of a subordinate clause in the surface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GB framework does not allow deletion of any phonetically non-null entity, and the D-structure and S-structure for sentences (1c) and (2c) are identical as in (3) and (4). Thus the theory of GB needs to identify the reference of phonetically null elements (here PROs).

(3) John persuaded Bill [PRO to leave]
(4) John promised Bill [PRO to leave]

Chomsky (1982) establishes the following four empty categories (henceforth ECs):

(5) a. NP-trace : [+anaphoric, -pronominal]
    b. PRO : [+anaphoric, +pronominal]
    c. pro : [-anaphoric, +pronominal]
    d. variables : [-anaphoric, -pronominal]

Among these four ECs, PRO has two contradictory features from the point of Binding Theory (henceforth BT), i.e., [+anaphoric] and [+pronominal] cannot be handled by BT, because BT maintains that an anaphor must be bound in its governing category (BT-(a)), whereas a pronominal is free in its governing category (BT-(b)). Therefore PRO has been frequently treated as an EC which may not be accounted for by BT, but to be accounted for by another theory, namely Control Theory.[1]

Lexical local control phenomena in English are characterized by the lexical properties of main verbs: For example, PRO in (3) is controlled by the object of the main clause Bill, whereas PRO in (4) is controlled by the subject of the main clause John. Therefore Control Theory uses the notions of object-control verb for verbs like persuade and subject-control verb for ones like promise.[2]

At this point, let us consider the differences in distribution of EC and control structure between English and Korean. In English, the EC PRO appears only in the subject position of tenseless (e.g., *to*-infinitive or *-ing*) clauses, whereas lexical nominals may appear in the subject position of tensed clauses as exemplified below:

(6) a. John$_i$ promised [PRO$_i$ to go]
b.*John thinks [PRO is right]
c. John thinks [he/Mary is right]
d.*John$_i$ promised [him$_j$/John$_i$ to go]

On the other hand, ECs in Korean are not confined to the subject position of tenseless clauses (cf. (9a/b) in Section 2), but rather appear in both subject and object positions in tensed and tenseless clauses. I.e., PROs may appear in the subject position of a tensed clause as in (7a), and also the empty variable (viz. e) can appear in the object position of both a tenseless clause and of a tensed clause as in (7b) and (7c) respectively:

(7)
a. C-ka (Y-eykey) [PRO ttena-ass-keyss-tako] malha-yess-ta.
ku-ka
Mr. Kim-i
kutul-i
C-SM (Y-DM) [PRO leave-PAST-MOOD-COMP] say-PAST-SE
he-SM
Mr. Kim-SM
they-SM
'C told Y that PRO might have left.'

b. C-ka Y$_i$-eykey [PRO$_i$ *e* manna-tolok] seltukha-yess-ta.
-SM -DM meet-COMP persuade-PAST-SE
'C persuaded Y to meet *e*.'

c. C-ka [Y-ka *e* po-ass-tako] malha-yess-ta.
-SM -SM see-PAST-COMP say-PAST-SE
'C said Y saw *e*.'

In this paper, we will not discuss the EC in the object position (viz. e) in detail (cf. (7b/c)), since it is not directly relevant to the present topic. For relevant discussions, readers should refer to Huang (1984). In Huang (1984), the object EC is treated like a trace of Wh-movement. In his discussion of Chinese object EC, Huang (1984) represents sentences like (7b) and (7c) with the structures like (7b') and (7c') which have an empty operator (OP). Their structures are identical to those of topicalized sentences (7b") and (7c") respectively:

(7b') OP_i [C-ka [Y-ka e_i manna-tolok] seltukha-yess-ta.
-SM -SM meet-COMP persuade-PAST-SE
(7c') OP_i [C-ka [Y-ka e_i po-ass-tako] malha-yess-ta.
-SM -SM see-PAST-COMP say-PAST-SE
(7b") ku ai_i-lul, C-ka [Y-ka e_i manna-tolok] seltukha-yess-ta.
that child-OM -SM -SM meet-COMP persuade-PAST-SE
(7C") ku ai_i-lul C-ka [Y-ka e_i po-ass-tako] malha-yess-ta.
that child-OM -SM -SM see-PAST-COMP say-PAST-SE

Huang claims that an EC pronominal is impossible in the object position in all languages though an empty variable is possible in the object posi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RO and its antecedent, the obligatory control structure such as sentences (3) or (4) is characterized by a number of properties in Riemsdijk and Williams (1986: 137):

(8) a. There must be a controller,
b. the controller must be the subject or object of the immediately dominating clause, and
c. lexical NP cannot be substituted for PRO.

However, contrary to (8c), control phenomena in Korean are not limited to the EC (here PRO), but appear with all kinds of nominals such as regular pronouns, reflexive pronouns, and lexical nominals (cf. (9a) and (9b) in Section 2). We will discuss this issue in detail in the following section when we review Yang's recent analyses of the Korean control phenomena (Yang 1984, 1985); in Section 3, I propose subordinate clause TENSE as a condition to predict lexical local control in Korean; and Section 4 is a brief summary of the paper.

2. Joint-Effect Analysis

In his discussion of lexical local control in Korean, Yang (1984, 1985) concludes that control phenomena in Korean are ascribed to the so-called joint-effect (translation is mine) of a main verb and a complementizer/mood marker. Yang maintains that Control Theory should be modified and expanded so as to cover lexical or morphological causes of control such as the combinatory relationship between complementizer/mood marker and main verb in non-configurational languages like Korean. Now let us briefly review Yang's arguments with his own data:

(9)
a. C-ka Y_i-eykey [PRO_i ttena-tolok] seltukha-yess-ta.
ku-ka
Yi-ka
*cakii-ka
C-SM Y-DM [PRO leave-COMP] persuade-PAST-SE
he-SM
Y-SM
self-SM
'C persuaded Y to leave.'

b. C_i-ka Y-eykey [PRO_i ttena-keyss-tako] yaksokha-yess-ta.
ku-ka
cakii-ka
*Ci-ka
C-SM Y-DM [PRO leave-MOOD-COMP] promise-PAST-SE
he-SM
self-SM

*C-SM
'C promised Y to leave.'

As shown in (9a/b), in sentences which contain the main verb *seltukha-ta* 'persuade' or *yaksokha-ta* 'promise', the subjects of their complement clauses are locally controlled by the indirect object nominal or the subject nominal of the main clause respectively. In (9a), the subject of the complement clause can be not only the EC PRO but also the pronoun *ku* 'he' as well as the dative nominal Y itself.

The reason that *caki* 'self' cannot be the subject of subordinate clause of (9a) i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subject preference in reflexivization (in Yang's term, *caki* can be coreferential with the c-commanding subject only). These cases of pronouns or dative nominal subjects in the subordinate clause should be treated as the same control phenomenon as in the case of PRO, because they must be coreferential with the object or subject of the main clause (cf. (9a/b)). In other words, if they are not control phenomena, they should be able to have other interpretaions.

The same thing happens in a so-called subject-control verb structure like (9b). That is if a sentence has the main verb *yaksokha-ta* 'promise,' the subordinate subject is controlled by the subject of the main clause. In this case also the subject of the subordinate clause can be not only PRO but also pronoun *ku* 'he' or reflexive pronoun *caki* 'self.' Here the reason that the nominative nominal C cannot be a subject of the subordinate clause is accounted for by BT-(c), R-expression must be free everywhere. Notice that if C occurs in the subject position of the subordinate clause, it will be c-commanded by the main clause subject C. For the same reason—the fact that all possible subjects in the subordinate clause must be coreferential with the subject of the main clause exclusively—we should treat these other phonetically non-null nominal structures as control phenomena too (cf. Yang 1984).

Thus, while we have confirmed that local control in Korean can be characterized by the lexical properties of main verbs as it is the case in English, since the Korean control phenomenon is not confined to the EC PRO, but appears with all kinds of nominals, it should be treate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3] But when we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s, we can see that the Korean control phenomena go beyond the lexical properties of main verb:

(10)
a. C-ka (Y-eykey) [PRO ttena-l-kes]-ul seltukha-yess-ta.
-SM -DM leave-MOOD-COMP-OM persuade-PAST-SE
'C persuaded (Y) (of the fact) that PRO will leave.'

b. C-ka (Y-eykey) [PRO ttena-li-lako] yaksokha-yess-ta.
-SM -DM leave-MOOD-COMP promise-PAST-SE
'C promised (Y) that PRO might leave.'

Even though the main clauses of (10a/b) contain the same subject-control verb and the object-control verb of (9a/b) respectively, the PROs in (10) are not controlled at all—the PROs can refer to anybody according to their discourse reference. The syntactic difference between (9) and (10) seems to be attributable to the different classes of complementizer (henceforth COMP). Notice that (9a) contains the COMP *-tolok* (adverbial phrase COMP), whereas (10a) contains *-lkes* (noun phrase COMP) in their subordinate clauses. The noun phrase COMP *-lkes* requires the object case marker *-ul*, whereas the adverbial phrase COMP does not. The same phenomenon is observable when we compare (9b) and (10b). Notice that (9b) contains the volition/intention mood marker *-keyss* (henceforth VOLMOOD), whereas (10b)

contains the conjecture mood *-li* (CONJMOOD). Thus, we observ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COMPs or MOODs may block the control power of the main verb.

Here, one question that arises is whether the control phenomenon in (9) are due to the main verbs or the COMPs/ MOODs in the subordinate clauses, because we have seen that there are non-control structures such as (10)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control verbs. At this point of argumentation, Yang temporarily conjectures that the whole responsibility of control can be ascribed to the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classes of COMPs or MOODs, not to the main verbs.

In addition to (9) and (10), however, Yang (1984) maintains that the control structure in Korean seems not quite so simple if we look at cases in which COMP or MOOD cannot create the local control by itself (cf. (11)) and cases in which they can (cf. (12)):

(11)
a. C-ka [PRO ttena-tolok] ha-yess-ta.
-SM leave-COMP do-PAST-SE
'C made PRO to leave.'

b. C-ka Y-eykey [PRO ttena-keyss-tako] malha-yess-ta.
-SM -DM leave-MOOD-COMP say-PAST-SE
'C said to Y that PRO might leave.'

(12)
a. C_i-ka [PRO_i ttena-lye-ko] ha-yess-ta.
-SM leave-COMP do-PAST-SE
'C wanted to leave.'

b. C-ka Y_i-eykey [PRO_i ttena-la-ko] ha-yess-ta.
-SM -DM leave-MOOD do-PAST-SE
'C ordered Y to go.'

Yang uses (11) as supporting evidence for not ascribing the whole responsibility of lexical local control to COMP/MOOD, and he ends up with a vague notion of a joint-effect of main verb and COMP/MOOD. But his joint-effect conclusion does not provide any prediction of the control phenomena in Korean, unless all possible combinatory effects of main verbs and COMP/MOOD are provided. One thing I should point out is that Yang's conclusion of the joint-effect is derived from an incorrect analysis of the examples in (11). If we look at the following examples in (13), we can see why (11) cannot be a piece of evidence from which the conclusion of joint-effect can be induced:

(13)
a. C-ka pro_i [PRO_i ttena-tolok] seltukha-yess-ta.
-SM leave-COMP persuade-PAST-SE
'C persuaded PRO to leave.'

b. C-ka Y-eykey [PRO ttena-keyss-tako] malha-yess-ta.
-SM -DM leave-CONJMOOD say-PAST-SE
'C said to Y that PRO might leave.'

c. C-ka Y-eykey [PRO ttena-ss-keyss-tako] malha-yess-ta
-SM -DM leave-PAST-CONJMOOD say-PAST-SE
'C said to Y that PRO might have left.'

d. C-ka pro$_i$ [PRO$_i$ ttena-la-ko] ha-yess-ta.
-SM leave-IMPMOOD-COMP do-PAST-SE
'C ordered PRO to leave.'

As in (13a), even the best combination[4] for the object control structure (namely, the adverbial phrase COMP *-tolok* and the object control verb *seltukha-ta*) fails to control PRO in its subordinate clause. Notice that neither (11a) nor (13a) contains any overt object nominals (dative or accusative), from which PRO may receive its reference. Those null objects can be represented as another EC. Let us call it "pro" (the small pro). While the reference of the small pro is not in the scope of Control Theory (but in the scope of a discourse level theory), the reference of the big pro (PRO) must be described within the theory—i.e., whatever the reference of the pro, the same is the reference of the PRO.

This issue originates from the fact that in Korean, which is one of the pro-drop languages, any understood topic nominals can be dropped. For example, unlike English even an object of the transitive verb *seltukha-ta* 'persuade' can be dropped in Korean:

(14) a. *John persuaded [PRO to leave]
b. John-i pro$_i$ [PRO$_i$ ttena-la-ko] seltukha-yess-ta.
-SM leave-IMPMOOD-COMP persuade-PAST
'John persuaded PRO to leave.'

This clearly indicates that the failure to predict the reference of PRO in (11a) is due to the absence of overt object nominals on the surface structure, and by no means it leads us to the joint-efffect of main verbs and COMP/MOOD markers. I will discuss this issue with more data in Section 3. One more crucial point to make is that here Yang does not differentiate the conjecture mood *-keyss* as in (11b) from the volition/intention mood marker *-keyss* as in (9b).5 Thus, the syntactic difference in control between these two sentences is attributed to the substitution of main verb *malha-ta* 'say' for *yaksokha-ta* 'promise.' From this line of reasoning, in Yang (1984) the difference in control phenomena between (9b) and (11b) is ascribed to the joint-effect of main verb and mood marker.

Also notice that in (13b/c) the subject control verb *yaksokha-ta* 'promise' fails to control PRO. I assume that the *-keyss* in (11b) is different from the one in (9b): *-keyss* in (11b) and (13b/c) is a conjecture mood marker (CONJMOOD), while -keyss in (9b) is a volition/intention mood marker (VOLMOOD). A piece of evidence comes from the grammaticality of their past tense counterparts—i.e., (9b) cannot have a past counterpart, whereas (11b) or (13b) can. Notice that the ungrammaticality of (15a) is due to the past tense in the subordinate clause:

(15)
a.*C$_i$-ka Y-eykey [PRO$_i$ ttena-ass-keyss-tako] malha-yess-ta
-SM -DM leave-PAST-VOLMOOD say-PAST-SE

b. C-ka Y-eykey [PRO ttena-ass-keyss-tako] malha-yess-ta
-SM -DM leave-PAST-CONJMOOD say-PAST-SE
'C said to Y that PRO might have left.'

3. Tense as a Variable

From this observation, I hypothesize that TENSE in the subordinate clause is a variable of lexical local control in Korean: The PRO in a tenseless subordinate clause

is locally controlled, whereas the PRO in a tensed subordinate clause is free. I will test whether the tense variable works with the previous data.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let us examine whether the previous data (9) through (12) can take the past tense marker *-ass* (or the past modality *-un*) in their subordinate clauses.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past counterparts of the given data (9)-(12). Each past counterpart is prefixed by P. Notice that when a verb stem ends with a vowel, the past tense suffix and modality are surfaced as *-ss* and *-n* respectively by phonological reason:

(P9) Tenseless clause [-TENSE]
a. *C-ka Y-eykey [PRO ttena-ss-tolok] seltukha-yess-ta
-SM -DM leave-PAST-COMP persuade-PAST-SE

b. *C-ka Y-eykey [PRO ttena-ss-keyss-tako] yaksokha-yess-ta
-SM -DM leave-PAST-VOLMOOD promise-PAST-SE

(P10) Tensed clause [+TENSE]
a. C-ka Y-eykey [PRO ttena-n-kes]-ul seltukha-yess-ta
-SM -DM leave-PASTMOD persuade-PAST-SE

b. C-ka Y-eykey [PRO ttena-ss-u-li-lako] yaksokha-yess-ta
-SM -DM leave-PAST-CONJMOOD promise-PAST-SE

(P11) Tenseless clause [-TENSE]
a. *C-ka Y-eykey [PRO ttena-ss-tolok] ha-yess-ta.
-SM -DM leave-PAST-COMP do-PAST-SE

Tensed clause [+TENSE]
b. C-ka Y-eykey [PRO ttena-ss-keyss-tako] ha-yess-ta.
-SM -DM leave-PAST-CONJMOOD do-PAST-SE

(P12) Tenseless clause [-TENSE]
a. *C-ka [PRO ttena-ass-lye-ko] ha-yess-ta.
-SM leave-PAST-VOLMOOD do-PAST-SE

b. *C-ka Y-eykey [PRO ttena-ass-lako] ha-yess-ta.
-SM -DM leave-PAST-IMPMOOD do-PAST-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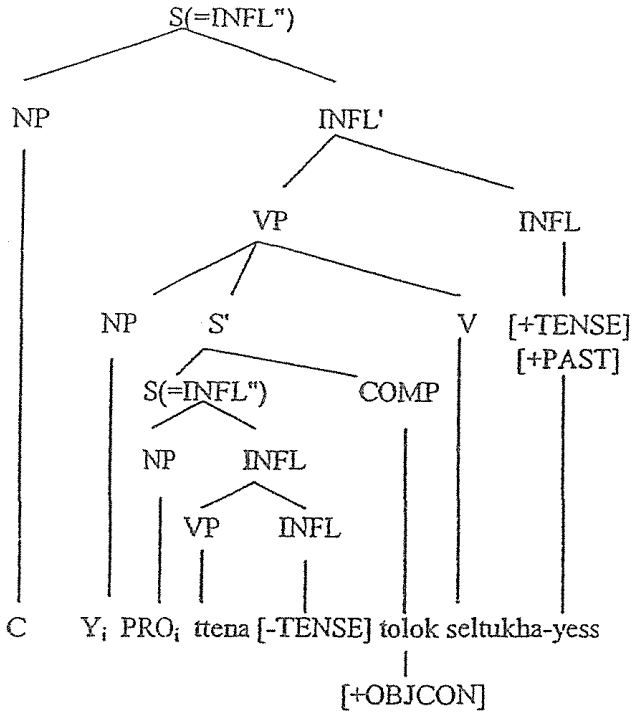
Notice that, as we have examined so far, the sentences which do not permit a tensed clause as a subordinate clause are obligatory local control structures: As in (P9), subordinate clauses with the adverbial phrase COMP *-tolok* or the volition MOOD *-keyss* cannot have past counterparts, and PROs in (9) are indeed locally controlled. As in (P10), on the other hand, subordinate clauses which contain the NP COMP *-l* and the conjecture MOOD *-li* can have past counterparts with *-n-kes* and *-ass-u-li*, and, as expected, PROs in (10) are not locally controlled at all, but they have free references according to understood discourse topic.

Also, the tense analysis predicts that the PROs in (11b) and (P11b) will be free, whereas the PRO in (9b) must be obligatorily controlled within its main clause. Identically, the tenselessness of the subordinate clauses in (12a) and (12b) predicts that PROs in these sentences must be sentence-bound. In fact that is what they are. Thus, I postulate that the TENSE in subordinate clauses is the variable for obligatory lexical local control in Korean:

(16)

If a subordinate clause INFL is [-TENSE], the PRO in that clause must be coreferential with an NP in its immediately higher clause (viz. locally controlled); But, if the INFL is [+TENSE], the PRO is not locally controlled but free and discourse-bound.

The following is the sample tree structure of (9a):



Of course, in order to decide whether a PRO is coreferential with the matrix subject or the object, we need further classification of COMPs and MOODs in Korean—e.g., the volition MOOD *-keyss* and *-lye* are subject-control verbs with the feature [+SUBCON]; and the adverbial phrase COMP *-tolok* and the imperative MOOD *-la* are object-control ones with [+OBJCON], etc.

One interesting point to be studied further is that obligatory lexical control in Korean seems to be more attributable to the property of COMP/MOOD than that of main verbs.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different combination of COMP/MOOD and main verbs from those in (9). Compare (17a/b) with (9a/b):

(17)

a. C_i-ka Y-eykey [PRO_i ttena-keyss-tako] seltukha-yess-ta
-SM -DM leave-VOLMOOD persuade-PAST-SE
'C_i persuaded Y PRO_i will leave.'

b. C_i-ka Y-eykey [PRO_i ttena-keyss-tako] ha-yess-ta.
-SM -DM leave-VOLMOOD do-PAST-SE
'C_i said to Y PRO_i will leave.'

c.*C-ka Y-eykey [PRO ttena-tolok] yaksokha-yess-ta.
-SM -DM leave-COMP promise-PAST-SE

d. C-ka Y_i-eykey [PRO_i ttena-tolok] ha-yess-ta.
-SM -DM leave-COMP do-PAST-SE
'C made Y leave.'

e. C-ka Y_i-eykey [PRO_i ttena-la-ko] ha-yess-ta.

-SM -DM leave-IMPMOOD do-PAST-SE
'C ordered Y to leave.'

Notice that although (17a) has the object control verb *seltukha-ta* 'persuade,' the volition MOOD *-keyss* ([+SUBCON]) not only blocks/interferes with control power from the main verb, but indeed controls the reference of PRO. Unfortunately since (17c) is an unacceptable sentence for most native speakers of Korean, we do not have strong supporting evidence for the proposition. However, as shown (17b/d/e), the fact that the so-called formal pro-verb *ha-ta*, which does not carry inherent meaning, can be substituted for main verbs indirectly implies that Korean obligatory control can be determined at the subordinate clause level.

4. Conclusion

The notion of joint-effect of main verb and COMP/MOOD (Yang 1984, 1985) does not provide any prediction for lexical local control phenomena in Korean, unless all possible combinatory effects are provided. The Korean lexical local control is predictable by the TENSE in subordinate clauses: If INFL is [-TENSE], the PRO in that clause is obligatorily controlled by a nominal in its immediately higher clause; but if INFL is [+TENSE], the PRO is not controlled but discourse-bound. To predict whether an obligatorily controlled PRO is coreferential with the subject or the object of immediately higher clause, further classification of COMPs and MOODs is needed. Unlike English, the lexical local control in Korean can be largely determined within a subordinate clause by the lexical feature specification of its COMP or MOOD.

*This is a revised version of my paper written while I wa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I am grateful to Professors Gregory Lee, Roderick Jacobs, William O'Grady, Ho-min Sohn, Chin-Wu Kim and Dong-Jae Lee for their invaluable and critical comments on preliminary versions of this paper. Special thanks go to my colleague Young-Seok Choi whose keen insight gave my an impetus to pursue this work. But, of course, any errors are exclusively mine. In this paper, the Yale Romanization is used for the transcription of Korean data as well as the following abbreviations:

Y:	Youngsoo
C:	Chulsoo
SM:	subject marker
OM:	object marker
DM:	dative marker
COMP:	complementizer
MOOD:	mood marker
CONJMOOD:	conjecture mood marker
VOLMOOD:	volition mood marker
IMPMOOD:	imperative mood marker
PAST:	past tense
PASTMOD:	past modality
GRD:	gerund ending

[1] However, Bouchard (1982), Sportiche (1982) and Manzini (1983) et al. propose that PRO is to be accounted for within Binding theory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it can be locally bound as in other cases of [+anaphoric] which fit into Binding Theory such as NP-trace or reflexive pronoun. Here they treat those locally bound PROs as [+anaphoric] and [-pronominal] in order to accommodate PRO in a throry called Extended Binding Theory (Manzini 1983).

[2] According to the generative semanticist Gurosu (1971), this kind of idiosyncratic verb marking can be eliminated by decomposition of verb—e.g., X persuades Y to S is analyzed as X causes Y to come to intend S, and X promises Y to S as X causes Y to know that X intends to S, etc.

[3] Yang (1985) claims that these pronouns and reflexive pronouns have limited interpretations with respect to the immediately higher clause NP, since they have to satisfy conditions of both Binding Theory and Control Theory.

[4] The best combination of main verb and COMP/MOOD for PROs to be controlled is not identified in Yang (1984, 1985), but by the implication of his data, the adverbial phrase COMP -tolok with the main verb seltukha-ta 'persuade,' and the volition MOOD *-keyss* with *yaksokha-ta* 'promise' may be reasonably assumed as the best combinations for the object-control and subject-control structures respectively.

[5] Yang (1984) maintains that even if we treat -keysss in (9b) and (11b) as two different mood markers, we still need to have different lexical specifications in the lexicon of two *-keyss's*. However, in my tense analysis this distinct lexical specification, namely [+/-control], is not needed, because the control phenomenon is predictable by the TENSE in subordinate clauses.

References

Akmajian, A. and F. Henry. 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The MIT Press.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 Holland.

_____.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The MIT Press.

Gurosu, A. 1971. "On Coreferentiality Constraints and Equi-NP-Deletion in English." *The Ohio State University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7.

Huang, J. 1984. "On the Typology of Zero Anaphora." *Language Research*. vol. 20. no. 2.

Kuno, S. 1986. "Anaphora and Discourse Principles." *Languag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M. Nagao (ed.) North-Holland Publishing Co.

Riemsdijk H. and E. Williams. 1986.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rammar*. The MIT Press.

Yang, D.-W. 1982. "Control and Binding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 vol. 7. no. 2.

_____. 1984. "Extended Control Theory." *Language Research*. vol. 20. no. 1.

_____. 1985. "On the Integrity of Control Theory."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Commemorating the Eightieth Birthday of Prof. Hyonggi Kim*. Research Society of Omun. Taejon, Korea.

_____. 1986. "Extended Binding Theory." *Hangul*. no. 188.

Apjonpeop and an emerging new politeness strategy in contemporary Korean

Gi-Hyun Shi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A reference term is a linguistic expression that the Speaker (S hereafter) employs in his/her utterance to 'name' the target, or the Referent (R hereafter), for the benefit of the Hearer (H hereafter). By definition, R can be any person. It can be the first person, i.e., S him/herself, the second person, i.e., H, or a third person.

As in many other languages, reference terms in Korean are more than just pronouns and personal names. They include kinship terms, title terms, and various other expressions such as combinations of a demonstrative and a pronominal epithet, e.g., ibun/keubun/jeobun (this/the/that person, honorific), yae/kyae/jyae (this/the/that person (Lit. child), neutral and can be dishonorific), inom/keunom/jeonom (this/the/that person, dishonorific), etc. More 'open' combinations are also in use, such as those consisting of a surname or a full name and a title term, e.g., Bakchanho sajang ((company) President Bak Chan Ho, neutral), Bak sajangnim ((company) President Bak, honorific), etc., and those of a possessive pronoun and a kinship or a title term, neohui eomma (your mum/mummy, neutral or endearment), uli seonsaengnim (our teacher, honorific), etc. The inventory is evidently huge, with the availability of variant forms such as indicated in the examples above as honorific, neutral, dishonorific, etc.

A reference term encodes, however minimally, some properties of R by virtue of its semantics (Malsh (1987)), and hence we can say that the choice of a reference term for a particular R reflects how S sees R in the given speech situation. However, in making the choice of a reference term for a particular R, S is not entirely free. S's social relationship with H plays an important part. This is clear when we want to have a functional answer as to why in Korean there is more than one pronoun form for the first person singular: na (I, neutral), and jeo (I, humble). Since the first person pronoun is for S to refer to him/herself for the benefit of H, when the particular H is a senior person, the Korean S would choose jeo. Choosing na can be inappropriate, because (1) the choice is indicative of S's understanding of the social relationship between him/herself and H and (2) the senior H may not be happy about the represented relationship.

Referring to H, that is, 'naming' *you* to tell H that S is talking about H, can be a difficult task in Korean, as is widely known. There are three pronoun forms for the second person singular: dangsin (you, not lowered but not exalted either), jane (you, lowered but somewhat elevated), and neo (you, lowered). Yet none of them can be employed to refer to H who is senior to S — in this case kinship or title terms are used instead. Again,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referring to H can be easily accounted for if we assume the importance of the S – H relationship in the choice of a

reference term.

What is less clear and appears not to have been pursued seriously in Korean linguistic circles is the relevancy, and its implications, of the S – H relationship to S's choice of a third person reference term. The availability of a large set of reference terms and their variant forms, which seems rather redundant from a purely grammatical point of view, suggests that reference is not just a grammatical means through which S and H achieve, for instance, discourse cohesion (cf. Halliday and Hassan (1976)). The central claim of this paper is that third person reference terms can also indicate or define the distant and formal, or the close and informal, relationship between S and H, and hence if the choice is inappropriate in the given speech situation, some serious consequences follow for the social relationship between S and H.

In this paper we limit ourselves to pragmatics of third person reference terms in Korean. Our concern is how S refers to an in-group third-person R for the benefit of an out-group H, where the in-group R is senior to S but not to H. As has been reported in Chosun Daily & National Acadmy of the Korean Language (hereafter CD & NAKL) (1996), many contemporary Koreans find it difficult to find an appropriate third person reference term in this speech situation. More importantly, this is where we find the traditional politeness rule in this culture, known as Apjonbeop, or 'rules for suppressing respect', is being replaced by a new politeness strategy. We characterise the strategy as 'new' in the sense that it is a different way of language use that has emerged over the past one or two decades reflecting the changing nature of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is rapidly changing society. Our aim in this paper however is to bring out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new way of language use, rather than the changing nature of the society behind it.

2. The data

Politeness pertains to the meaning that arises from interaction between speakers. Observing objectively people's language use in establishing, maintaining and changing personal relations with others, in particular, how they manipulate categories like honorifics in their private world, is a difficult task. As an alternative, we looked at two sources: CD & NAKL (1996) and a videotape of a contemporary TV drama.

CD & NAKL (1996) are the revised Second Edition of the book originally published as Ulimal-ui yejeol (Etiquette in our language) in 1992 with the sub-title Hwabeop-ui silje-wa pyojun (Polite speech: realities and the standard). From October 1990 to December 1991,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the Chosun Daily Newspaper, and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jointly did a national project, entitled Hwabeop pyojunhwa sa-eop (Project for the standardisation of polite speech).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was to produce guidelines for polite language use; in particular the terms of address and reference. The book Ulimal-ui yejeol reports on the findings of the project and includes, questions, opinions and justifications from readers and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their own language use, survey results, a few short writings of various writers to highlight the 'chaotic' situation of language use (or misuse), as well as the proposed inventories of correct terms of address/reference. All in all, the book contains invaluable real-life information about ordinary Koreans' language use.

The TV drama we studied is entitled Maheun sal-e ed-eun haengbok (A happy life gained at the age of forty), and was broadcast in Korea in February 1994. Set in our own times, the drama describes what happens to a forty-year-old unmarried

man, nochonggak (old bachelor) in the Korean expression, in his daily life during one winter. The language in the drama strikes native speakers (six others as well as myself) as naturalistic, normal and appropriate to the situations in which it is used, and to the characters who speak it.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particularly the progress of incidents within the story, and the characters' views on the world all seem 'ordinary'. While its running time is approximately an hour, the drama contains plenty of scenes where we can observe in context linguistic interactions among the characters. With the manageably small number of characters, there is a reasonable number of 'minimal pairs' in terms of who speaks to whom, about whom, in the presence of whom and in what situation, it has been possible to conduct a controlled experiment in linguistic analysis (cf. Brown and Gilman (1989)).

3. Apjonpeop, the normative tradition

The apjonbeop appears to have been a verbal repertoire amongst Yangban speakers in traditional Korea, and is essentially a means to recognise H's seniority over S by suppressing respect to Rs who are 'closer' to S than to H. The normative tradition has survived even after the collapse of the Yangban – Sangmin division followed by Japanese rule and the Korean War, but rather than remaining as Yangban speech it has become a means available to anyone who wants to show that they are, perhaps, well-bred.

The apjonpeop in its more traditional use involves the knowledge of a long, elaborate list of reference terms for one's family and clan members, e.g., great-grandparents, grandparents, parents, husband, wife, brothers and sisters, sons and daughters, various 'uncles' and 'aunts', and various 'cousins' and their sons and daughters. Korean etiquette books published even recently, e.g. Kwon (1999), tend to contain the list. These reference terms are male speaker oriented Sino-Korean expressions, and there is a sharp division for those to be used in referring to one's own and those to be used for other's family and clan members. For instance, when talking about one's father one is to use, e.g., gachin, but when talking about other's father one uses, e.g., chunbujang. Likewise, for one's own mother one is to use, e.g., jachin, but for other's mother use, e.g., jadang.

However, the generation fluent in the long list of reference terms is growing old, or more precisely, is dying out. As reported in CD & NAKL (1996:37-39), these Sino-Korean reference terms are mainly a source of confusion to the younger generation, although there remains in their consciousness a 'modified' version of apjonpeop: use of a non-exalted variant form when referring to an in-group senior R for the benefit of an out-group senior H.

Consider the following case, reported in CD & NAKL (1996:29).

(1) ... A company director in his sixties felt embarrassed when one of his young male employees referred to his father who is alive as seonchin (Sino-Korean expression for one's deceased father) when requesting special leave. He would like to perform his duty as son and celebrate his father's 70th birthday in his hometown. ...

The young employee may have tried to create for his boss an impression of being well-bred — so as to promote his family's face (in terms of Brown and Levinson (1987)) — by employing the normative tradition, but has unfortunately gaffed by using seonchin, a term for a dead father. It is natural that the boss gets embarrassed when the young employee (he describes the employee as a promising, fine young man) comes to him and says that he would like to take leave to go to his deceased father's 70th birthday party. As mentioned above, gachin would have

been appropriate in this normative tradition, which connotes that the young man is not elevating his own father in front of his boss.

Reference terms for one's father that are currently used include abeoji (father/dad, neutral), abeonim (father, exalted), appa (daddy, endearment), and aebi (male parent(?), deprecatory). Quite possibly the young employee may have juggled with abeonim and abeoci on his way to his boss, could not decide which one to use, and so chose the 'obscure' reference term. In complying with the apjonbeop with the set of more current reference terms, the problem is that none of the terms can be a good replacement for the archaic Sino-Korean terms, which connotes in an 'elegant' way that S is not elevating the in-group R at the expense of the senior H. Aebi for one's own father is patently rude, appa is too childish a term, abeoji by definition has no flavour (it is a neutral term), and abeonim sounds contradictory. We contend that this is the very nature of the problem, when many contemporary Koreans report that they have difficulties with apjonbeop.

Before closing this section, let us add that apjonpeop is still operative in talking to a senior H about an R whose seniority to S is unclear. Examples of this are a wife referring to her husband as aebi (male parent(?) of her children, deprecatory) for the benefit of her parent-in-law; and a husband naming his wife as emi (female parent(?) of his children, deprecatory) when talking to his parent.

4. Aspects of the new politeness strategy

Within the context of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and the changing nature of, the apjonbeop, we find a few examples of interesting language use in the TV drama, i.e., a new way of referring to a senior R for the benefit of H who is senior to R. This is what we call the new politeness strategy: where the S – H relationship is distant and formal, S employs an exalted reference term (if there is one), not a non-exalted one, for the senior R even if the R is junior to H. That the relevant examples come from a TV drama does not mean that the new strategy is an unnatural, idiosyncratic language use, however. It simply means that the talented scriptwriter has captured this emerging, new way of naming one's senior in the real world and 'recreated' it in the drama. From my personal experience, this new politeness strategy is already practiced by a noticeable number of speakers.

Consider (2). In the drama, the main character has a twenty-eight-year-old younger brother, who lives away from home. This twenty-eight-year-old has a relationship with his boss's daughter, who is now pregnant, and wants to marry her. This younger son would normally have to wait until his elder brother gets married, as Korean culture dictates. However, he is desperate, and in the following scene is seeking his parents', particularly his father's, approval for marrying before his elder brother. The father in the drama is a stern, authoritarian figure. The younger son is now speaking to him, but in a very careful manner.

(2) ceo ... ajik ogaewol-i-la ajik pyo-neun an na-jiman
INTJ yet five.months-COP-because yet mark-TOP NEG stand.out-but
jogum hu-myeon bul-leo o-l-ges
a.little.bit after-if be.swollen-CONJ come-REL(FUT)-thing(PRO)
gat-aseo-yo. jeo-du hyeong-nim-i jeil
seem-because-AHON I-also elder.brother-HON-NOM the.first
geolli-neunde-yo, yakhon-man ha-e-du-ko hyeong-nim
worrying-TRANSIT-AHON engagement-only do-CONJ-place-and elder.brother-HON
menje ga-n daum-e po-llyeo-gu-haess-neunde ...
first go-REL(PAST) next-LOCI see-VOLITN-CONJ-do.PAST-TRANSIT

jeo ... eojjeo-da po-ni sajeong-i geuleohke
FILLER *do.such.and.such-CONJ* *see-when* *situation-NOM* *that.way*
dwaess-supnita
Become.PAST-HDEF.DECL
"Well, ... it's only five months, so people can't see it (that she's pregnant) yet, but soon they will notice her pregnancy, I suppose. ... I'm also worried about my brother (Lit. elder brother, exalted) most. I thought I would just have an engagement and wait until he (Lit. elder brother, exalted) gets married. ... But, ... well, somehow, ... things haven't developed that way."

Notice that the younger son refers to his elder brother as hyeongnim (male speaker's elder brother, exalted), not as hyeong (male speaker's elder brother, neutral). (In the drama, the younger son addresses his elder brother generally as hyeong.) This is a clear contradiction to the spirit of the abjonbeop.

The sort of social pressure cast upon this particular S is perhaps that as an adult he should talk like an adult, i.e., give proper deference to his seniors, and more importantly, he has to show this to the even more senior H. In other words, H is then more like a 'judge' who has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correctness' of S's attitude towards R; the more distant and formal the relationship is between S and H, the more care S would exercise in the choice of a reference term to refer to the senior R. The result is, as it stands, that S employs a more deferential reference term for the senior R. Under this new strategy, had the younger brother said (2) to his mother, for example, we would expect him to refer to his elder brother as hyeong (elder brother, neutral) — the brothers in the drama are much less distant and formal to their mother. Unfortunately, however, we do not have data to substantiate this in this particular drama.

As mentioned above, many contemporary Koreans report that they find it difficult and confusing to follow the abjeonbeop. If one assumes this new politeness strategy, then complying with the normative tradition would create a dilemma. This is because on the one hand S has to 'show' to H that he/she can give deference to the senior R in an expected manner by employing a proper, exalted reference term, but on the other hand they are prohibited from doing so. From this we can infer that this new politeness strategy is operating already in contemporary Korea, and that our characterisation of the strategy is more or less correct.

Where does this new strategy come from? It appears that an analogy can be drawn between S's choice of a more elaborated reference term for R when the S – H relationship is distant and formal and S's choice of a more careful language when there is a Bystander in the speech situation. Consider (3), another interesting scene from the TV drama. The forty-year old main character telephones his mother from an express bus — he is travelling to Busan — which has temporarily stopped at a kiosk on the way. He picks up the phone, presses the buttons, and after a few seconds, says:

(3) yeposeyyo ... eomma!
Hello *mummy/mum*
"Hello (a pause in which he presumably hears his mother's voice) Mum!"

He then lowers his voice and continues to say:

(4) eo, eo, eomeoni-seyo? jeo-eyo ...
mother-RHON.COP.C'MOOD-AHON *I(HUMBLE)-COP.C'MOOD-AHON*
"... I mean, is that you, Mother? It's me."

What the main character is doing here is that he initially calls his mother eomma (mum/mummy, endearment) as he does at home, but then, realising that there are other people within earshot on the bus, he switches to eomeni (mother, neutral). He does this in order to avoid appearing ludicrous to the passengers inside the bus. It is childlike behaviour, and can thus lead to a loss of face, that a middle-aged man

like him addresses his mother as eomma in public in Korea. While the expression eomma in (3) is used as an address term, not as a reference term, it does demonstrate our point well: the role of H in the new politeness strategy is analogous to the role of the Bystander in (3) and (4).

Also, in CD & NAKL (1996:225) we have a relevant report from a high school girl. The girl says that she was surprised when she saw her thirty-two-year-old teacher calling her mother (i.e., the teacher's mother) eomma (mum/ mummy, endearment). She was surprised because she expected an adult like her teacher to 'behave' differently from her.

(4) ... One day I saw my teacher carrying lots of bags to her house after school. I helped her, carrying some of her bags. When we got to her house she shouted over the fence: "It's me eomma (mum/mummy). Can you open the door?" I was surprised. Of course I call my mum eomma, but I didn't think that my teacher would do the same. She is thirty-two years old! ...

While the teacher may not be as sensitive a person as the main character in the drama, we may say that she did not see the school girl as the same sort of Bystander that the man in the drama saw the people on the bus. In terms of the new politeness strategy, (4) would be an analogous situation to where S refers to a senior R for the benefit of the even more senior H whose relationship with S is not distant and formal, that is, where S does not have to exercise extreme care in the choice of the reference term.

The employment of this new politeness strategy is not confined to the family domain. Speakers show the same tendency of naming their senior by a more deferential reference term when speaking to an out-group H. However, although the choice of a more deferential reference term is to indicate to H that S is being polite to his/her senior in an expected manner, it has a side effect. S may also be seen to be attempting to put his senior 'higher' than the out-group H.

Speakers resolve this problem by qualifying the deferential reference term with the First person possessive pronoun, particularly with its humble form. There are four variant forms of the First person possessive pronoun in Korean: nae (my, neutral), je (my, humble), uli (our, neutral) and jeohui (our, humble). Among them, it is jeohui and je that are used for this purpose. We thus see that a 'complex reference term', consisting of the humble form of the First person possessive pronoun and the exalted variant form of a kinship term, is used when speaking to an out-group H. We may perhaps regard it as an instance of pragmatic embedding where 'exaltation' of an in-group senior is embedded in 'self-abasement'.

In the drama, the main character refers to his father as jeohui buchin (our[humble] father, exalted and formal) when speaking to a woman who was just introduced to him by his sister. Note that buchin is a Sino-Korean expression that has formal and exalted connotations. The purpose for this introduction is to get them to know each other and perhaps develop a further relationship. Hence, it is an awkward moment for the two, where they have to take extreme care in their language. Replying to her comment that the rent would be high (the main character's family owns a shop, but she assumes that the family is renting the shop), he says to her that his family owns the shop and continues:

(5) han sipo-nyeon-jeon-i-la geu-ttae-neun
about fifteen-year-before-COP-because that-time-TOP
ssa-ss-eoss-jyo. jeohui
be.cheap-PAST-PAST-JUDGE-C'MOOD.AHON our(HUMBLE)
buchin-kkeseo sa-si-n-geo-la
father(exalted/formal)-NOM(HON) buy-RHON-REL(PAST)-thing(PRO)-COP.because
jeonghwakha-n aeksu-neun gieok mos ha-pnida-man, ...
be.accurate-REL(PAST) figure-TOP memory NEGCAN do-H.DEF.DECL-but
"It was about fifteen years ago (when we bought the shop), so it (the shop) wasn't that

expensive. I can't remember exactly how much it was because my father (Lit. our father, exalted) bought it. ..."

While lowering the status of his father by one level, as it were, by choosing the humble form of the possessive pronoun, this forty-year-old man makes an effort to appear that, as a middle-aged man, he knows how to be deferential to his father by employing the highly deferential variant form.

Later in the drama the family's second son arranges for his elder brother and his friend's elder sister to come together to Busan, where he and his fiance's family live. When they arrive he quickly asks the two to pretend to be a married couple in front of his future father-in-law, and then introduces the two to his future father-in-law:

(6) jeohui hyeong-nim naeoe-bun-i-si-pnida
our(HUMBLE) elder.brother-HON spouse-CL(PERSON.HON)-COP-RHON-HDEF.DECL
"These are my (Lit. our) elder brother and his wife."

Here, naeoe means a 'married couple' (literally 'inside and outside') and bun is an exalted Classifier for human. Inside the Possessor construction, jeohui hyeongnim (our[humble] elder brother[exalted]), another Possessor and a Possessed are embedded, which are jeohui (our[humble]) and hyeongnim (elder brother[exalted]), respectively. Again, while lowering the status of his elder brother and his 'wife' by one level by choosing the humble form of the possessive pronoun, the family's second son makes an effort to appear that, as an adult, he knows how to be deferential to his elder brother and his wife.

The choice between the singular and the plural forms of the First person possessive pronoun also assumes more than just the semantic category of number, i.e., whether or not the Possessor is singular. A careful study uncovers that underlying the choice is a culture-specific assumption about junior–senior relationships in general. When the First person possessive pronoun is used in referring to a senior, it is the plural form, uli or jeohui, that is most likely to be used. This is so even when S is the only one who is in the particular kin relation with the senior R. For instance, the second son introduces his elder brother and his 'wife' as jeohui hyeongnim naeoebun (*our* elder brother's couple) to his future father-in-law in (6) above. He uses jeohui (our[humble]) even though he has no other brothers who would identify the main character as hyeongnim.

By contrast, when the First person possessive pronoun is used in referring to a junior, it is the singular form, nae or je, that is most likely to be used. In the drama, when the main character thanks his younger brother's future father-in-law for having been generous to his younger brother, he uses je dongsaeng (my[humble] younger brother), not jeohui dongsaeng (our[humble] younger brother), as in (7).

(7) je dongsaeng-eul jal dolbw-a ju-sy-eoseo
my(HUMBLE) younger.brother-ACC well look.after-CONJ give-RHON-because
gamsaha-pnida ...
be.grateful-HDEF.DECL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been generous to (Lit.) my younger brother."

Upon hearing the main character's saying (7), the second son's future father-in-law, in fact, replies that he does not want to be seen to be 'snatching' a son away from home. The main character then says:

(9) geuleom-yo. gwiha-n tta-nim-eul
be.so-C'MOOD.AHON invaluable-REL(PAST) daughter-HON-ACC
ju-si-eoseo jeohui bumo-nim-deul-kkeseo-do
give-RHON-because our(HUMBLE) parent-HON-PL-NOM(HON)-also
gamsaha-gey saenggakha-go gyesi-pnida
be.grateful-CONJ think-CONJ EXISTV(RHON)-HDEF.DECL

"Of course not! My (Lit. our) parents are also grateful (to you) for allowing (them to have) your invaluable daughter (as their daughter-in-law)."

Our main character's choice of jeohui here is not necessarily an indication that he now includes his brother into the discourse. Rather, it is part of the deference directed towards the referents who are senior to him, i.e., his parents.

Behind the use of the plural form of the First person possessive pronoun in referring to a senior R is a belief that the senior–junior relationship is a one-to-many relationship, not a one-to-one relationship. That is, when a junior S refers to his/her senior with a kinship term under this politeness strategy, he/she 'says' that he/she is not the only one 'under' the senior R in the same kin relationship. Hence, the junior S says *our elder brother* rather than *my elder brother* for instance. However, nothing hinders a senior S assuming that, when referring to his/her junior with a kinship term, he/she is the only one who is 'above' the junior R, hence *my younger brother* rather than *our younger brother*, as we witnessed above.

It should be added that the cultural belief that the senior–junior relationship is a one-to-many relationship does not always override the semantic category of number. On intuitive grounds, when a senior S expresses that he/she 'shares' the junior R with others, or when a junior S wants to emphasise that he/she is the only 'Possessor' of the senior R, S will certainly use our younger brother, i.e., uli dongsaeng or jeohui dongsaeng, and my elder brother, i.e., nae hyeong or je hyeongnim, respectively.

Abbreviations

ACC Accusative case
AHON Addressee honorific suffix
CMOOD Common mood
CL Classifier
CONJ Conjunctive verb suffix
COP Copula
DECL Declarative ending
EXISTV Existential verb
FUT Future tense
HDEF Highly deferential speech style
HON Honorific
INTJ Interjection
JUDGE Judgemental modality
LOC1 Inner-locative case
NEG Negative Adverb (not)
NEGCAN Negative Adverb (cannot/could not)
NOM Nominative case
PAST Past tense
PL Plural
PRO Pronominal
REL Relative clause
RHON Referent honorific suffix
TOP Topic marker
TRANSIT Transitional modality
VOLITN Volitional modality
X.Y (X and Y are fused)
X-Y (X and Y are not fused)

References

Allan, Keith & Burridge, Kate. 1991. *Euphemism and Dysphemism: Language Used as Shield and Weap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Penelope & Stephen C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own, Roger & Gilman, Albert. 1989. Politeness Theory and Shakespeare's Four Major Tragedies. *Language in Society*, 18, pp. 159-212.

Chosun Daily & National Academy for the Korean Language. (eds.) 1996. *Ulimalui Yejeol [Etiquette in Our Language]*. Vols 1. Seoul: Chosun Daily.

Halliday, M.A.K. & Hassan, Ruqaiya. (1976). *Cohesion in English*. Hong Kong: Longman.

Halliday, M.A.K.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Second Edition. London: Edward Arnold

Kwon, Young Han. 1999. *Kwanhonsangje [ceremonial occasions]*. Seoul: Jeonwon Munhwasa.

Lukoff, Fred. 1978. Ceremonial and Expressive Uses of the Styles of Address of Korean. In Kim, Chin-W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Columbia, South Carolina: Hornbeam Press Inc, pp 269-296.

Malsch, Derry L. 1987. The Grammaticalization of Social Relationship: the Origin of Number to Encode Deference. In Ramat, A. G, Carruba, O. & Bernini, G (eds.)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storical Linguistics*, Amsterdam: J Benjamins, pp 407-418.

Shin, Chang Soon. 1984. *Kwuke Munpep Yenkwu [A Study of Korean Grammar]*. Seoul: Pakyengsa.

Shin, Gi-Hyun. 1999. Deference and Politeness in Korean: a Case Study of Pragmatic Dynamics. Unpublished PhD thesis. Monash University, Melbourne.

Spencer-Oatey, Helen. 1996. Reconsidering Power and Distance. *Journal of Pragmatics*, 26, pp. 1-24.

Sung, Kychul. 1996. Hyentay Hankwuke Taywupepui Thukseng [Characteristics of Honorification in Modern Korean], *Mal*, 21, pp. 87-106.

Suzuki, Takao. 1978. *Japanese and the Japanese Words in Culture*, [Translated into English by Miura, A.]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Ltd.

Triandis, Harry C.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ur*. New York: McGraw-Hill.

Wierzbicka, Anna. 1991. *Cross-cultural Pragmatics: the Semantics of Human Interac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Strategies for reading printed texts and electronic texts: Same or different?

Jeong-Bae Son
The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1. Introduction

The development of reading skills and strategies has been a major concern for teachers as well as readers. For the teaching of reading, a number of reading researchers (e.g., Barnett 1989; Block 1986; Brown 1994; Grellet 1981; Hosenfeld 1977; Nuttall 1982) have suggested various comprehension skills and strategies and encouraged teachers to adopt techniques found in second language (L2) and foreign language (FL) reading studies. Although more innovative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 software for teaching reading skills needs to be developed, recent CALL research in reading has tried to examine various factors of computer-assisted reading instruction, including reading skills and strategies on the computer, and to suggest ways in which CALL can improve students' reading abilities. These research activities would provide understanding of how software can be developed and used best in a CALL environment, while looking at what students do when working with computer-assisted reading programs. This study addresses this issue and reports the results of a study that investigated students' reading strategies in three reading conditions using three different reading text formats: paper-based format (PF), computer-based non-hypertext format (NHF), and computer-based hypertext format (HF). With a special focus on a hypertext approach to FL reading, the study particularly examines the presentation methods of reading passages and lexical resources of hypertext-based courseware for learn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FL). For the hypertext format, a simple hypertext design that uses an electronic glossary was chosen to explore the linking advantages of hypertext applications.

2. Reading Strategies and Interaction in CALL Activities

In observing and describing reading activities in CALL situations,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discuss the features of classroom discourse, learning strategies, learners' convers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 the computer as well as learners themselves. For example, Windeatt (1986) recorded his twelve students on videotape while they worked on two reading tasks in CALL form and non-CALL form. He reported that there were no substantial differences in the interaction among students in CALL and non-CALL exercises but his subjects used different reading strategies in the two tasks. Piper (1986) also video-recorded students' conversations to investigate the possible spin-off from three text-based CALL tasks in terms of interaction in the target language. She found that the language functions that learners used when working in groups on CALL activities were very limited in range and number.

Edmondson, Reck and Schroder (1988) recorded a combined, jumbled or shuffled English sentence exercise performed by nine secondary level students of a German school. The verbal reports were audio-recorded, and the keyboard workings were also recorded on the computer disk. Through a strategic analysis of the subjects' shuffling procedures, they described different strategies used by a group of students working with a text-manipulation program called *Shuffler*. As a method of gathering data non-intrusively, Stevens (1996) also recorded students' key presses into a data file on the hard disk and explored how students approach text manipulation activities in two CALL programs, *Hangman-in-Context* and *SuperCloze*. He found that students working in self-access mode tended to abuse help features and that there was an element of "window-shopping" (i.e., dropping in on the programs, just having a look, and going on to something else).

As reviewed above, previous studies on students' strategies and interaction provide useful descriptive data on what students do and say in CALL activities. They also suggest that it would be of value to look at interaction with various types of programs, and that researchers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method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ost studies that adopt computers for unobtrusive observation and recording provide the possibility of using computers as a valid means of investigating the learning process.

In terms of the future direction of CALL research on reading, Fox (1990:38) indicates that research into classroom behaviour is promising because it may giv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sort of language is used by students doing a reading exercise? Does the use of the computer encourage verbal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What is the lexical and syntactic range of this language? ...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how much learning does occur?"

3. Method

3.1 Design

The study was conducted during class contact time in a Korean course over four weeks. CALL materials for the study we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 and used in the computer lab during the reading sessions only. All of the participating students worked with one of the three formats at the same time during one reading session of each week. Session 1 was an introductory session which gave the students explanations of the experiments and the computer programs, and asked the students to fill out a consent form and an information questionnaire on their personal background. Reading passages in PF (paper-based format), NHF (non-hypertext format) and HF (hypertext format) were given to the students in Sessions 2, 3 and 4 in that order. Data on the students' strategies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 post-questionnaire. Together with these questionnaires, the use of a computer tracking program was considered at the design stage of this study but the tracking program was not used for the study due to the limited storage capacity of the school server computer.

3.2 Subjec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tudents enrolled in a second year Korean course at an Australian university. A total of 9 students (6 females and 3 males) participated in

Session 2, ranging in age from 18 to 26 years old. Of the 9 students, 7 students' L1 was English and 2 students' L1 was Chinese. Six students were enrolled in the Languages and Applied Linguistics degree, two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Relations degree, and one in the Modern Asian Studies degree. 7 students (4 females and 3 males) were tested for Session 3 and 7 students (5 females and 2 males) were tested for Session 4.

All of the nine students had previous experience in learning one or more languages at secondary or tertiary institutions and, among them, three students had lived for about one year in Japan or Korea. They had also had previous experience with computers, mainly for word processing, and eight students had used simple self-access CALL materials in their first year Korean course. Their Korean was approximately at the level of low intermediate and they had no knowledge of Korean at all before learning Korean in their first year Korean course at the university.

3.3 Materials

i. Reading passages

Three reading passages were written for the study by the author with the aid of two other Korean teachers. The main topics and patterns of the passages were adapted from the students' textbook, *Learning Korean: New Directions 3* (Buzo & Shin, 1995). One reading passage contained approximately six Korean sentences consisting of 71 Korean words on average and was used for one session.

ii. Worksheet

A worksheet in PF was used in Session 2. The worksheet contained a Korean reading passage and a list of vocabulary and grammatical patterns. The passage was typed on the upper half of the page. The glossary section on the lower half of the page provided context-specific definitions of all of the new words and patterns. This structure gave the same direct access to the glossary in the off-line reading as in the on-line reading without using paper dictionaries.

iii. Courseware

Two pieces of courseware called *Reading Explorer Da* (*RE Da*) and *Reading Explorer Ra* (*RE Ra*) were developed and used for the study. A multimedia authoring tool for the Macintosh, *SuperCard*, was used in designing the two programs. All of the terms in the references were explained in English to ensure that the students understood what was involved, and the interface of the programs incorporated digitised sounds, imported graphics and icons. The two programs contained exactly the same reading passages, but they adopted different methods in the presentation of the on-line information. In *RE Da*, which was structured in a non-hypertext format, glossaries and grammar points were provided on separate screens when the students clicked on a certain icon on the main text screens. *RE Ra*, on the other hand, employed the concept of hypertext so the reading passages and glossaries were linked in a non-linear way. The students were able to get the meanings of new words instantaneously and directly from the text pages while moving the mouse on the screen. Unlike the paper-based format and the non-hypertext format, there were also options for choosing more information on selected grammar points with the mouse as

an indicator. From a gloss window, the students could access an information window via the 'More' button activated by a mouse click. The information window displayed information on the selected pattern with a grammatical explanation and an example sentence to give an idea of the usage of the pattern. By pressing the 'O.K.' button, the students were led to the main text screen. Whatever option they chose, it appeared on the same screen while displaying both the text being read and the glossary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v. Tests

The students took follow-up tests as a part of reading activities for each session. The tests included vocabulary tests, multiple-choice comprehension tests and modified cloze tests.

v. Questionnaires

In total, thre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during this study. The first one, a pre-questionnaire, gathered student background information and included a consent form. The second,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given to the students at the end of each session. As pointed out by Bialystok (1981), this type of instrument could easily be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and scoring and data compilation were relatively simple. This questionnaire gave the students the opportunity to describe the strategies they used for a specific reading text format after they finished reading. It consisted of two open-ended questions asking the students to describe the method and technique they had used, and a strategy list section where they rated the frequency of their use of each of 8 strategies on a 4-point scale (0 never, 1 rarely, 2 sometimes, 3 often). The eight strategies in the list included one metacognitive strategy (i.e., self-management) and seven cognitive strategies (i.e., resourcing, translation, note taking, imagery, auditory representation, transfer, and inferencing). These were selected from the list of learning strategy definitions in O'Malley, Chamot, Stewner-Manzanares, Russo, and Küpper (1985) and modified appropriately for the KFL context. The third, a post-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document the students' views on their experiences in the three reading text formats.

3.4 Procedures

In Session 1, which was an introductory session, the students completed the pre-questionnaire. From Session 2 to Session 4, the students used the reading text formats in the following order: (1) PF, (2) NHF and (3) HF. During each session, all of the students were given twenty minutes to go through the given text. They were then asked to take the short vocabulary and multiple-choice comprehension tests for about eight minutes. After that, they were also asked to take the cloze test for about five minutes. At the end of the session, they completed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in which they were asked to describe the strategies they used to work with the target passage. Finally, at the end of the study, the students completed the post-questionnaire in which they were able to indicate which format they found most beneficial and enjoyable.

4. Results

The students' responses to the questions of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provided some clues as to how the students worked with each format. In Sections 1 and 2 of the questionnaire, the students described the methods that they used to approach reading passages and learn new words. Their responses indicate that they tended to read through the given passage first and then to write down the meanings of words or sentences when they used PF. With NHF, most students felt that it was difficult to get any continuity in the reading of the given passage because they had to swap back and forth between the text and the vocabulary list. When the students worked with HF, they read over the passage with the mouse following. As they came across new words, they were inclined to read the Korean-English translations by just placing the mouse on the new words in order to access and understand the meanings of the Korean words.

Table 1 presents the number of student responses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they engaged in selected strategies described in Section 3 of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selecting appropriate points on the scale of the strategies according to the format. With regard to 'self-management' in Question 1, the students tended to use this strategy with HF more often than with the other two formats. Regardless of the type of format, the students relied heavily on strategies of 'resourcing' in Question 2, 'translation' in Question 3 and 'inferencing' in Question 8. On Question 4 where the students were required to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they used a 'note-taking' strategy, it was found that 78 percent of the students used this strategy frequently with PF whereas 29 percent of the students used it frequently with NHF or HF. In other words, they used the note-taking strategy more when they worked with PF than when they worked with NHF or HF. On Question 6, most students expressed the view that they used an 'auditory representation' strategy sometimes or often. The strategies of 'imaging' in Question 5 and 'transfer' in Question 7 were not popular with the students in all formats. They were sometimes used by most students and rarely used by some stud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tudents seemed to use different techniques in working with each text format. They also seemed to use key strategies selected for this investigation with different degrees of engagement.

Table 1

Number of student responses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they engaged in strategies shown in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Strategies	Format	N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1. Understanding the conditions that help you learn and arranging for the presence of those conditions	PF	9	0	2	6	1
	NHF	7	0	2	4	1
	HF	7	0	1	3	3
2. Using Korean language reference materials	PF	9	0	0	5	4
	NHF	7	0	1	2	4
	HF	7	0	1	3	3
3. Using English as a base for understanding Korean	PF	9	0	0	4	5
	NHF	7	0	0	4	3
	HF	7	0	0	5	2
4. Writing down the main idea, important points, outline, or summary of information presented in writing	PF	9	0	0	2	7
	NHF	7	0	1	4	2
	HF	7	0	2	3	2
5. Relating new information to visual concepts in memory via familiar, easily retrievable visualizations or phrases	PF	9	1	3	3	2
	NHF	7	1	2	3	1
	HF	7	0	3	2	2
6. Retention of the sound or a similar sound for a word, phrase, or sentence	PF	9	0	1	5	3
	NHF	7	0	2	4	1
	HF	7	0	2	2	3
7. Using previously acquired linguistic and/or conceptual knowledge to facilitate a new language learning task	PF	9	1	2	4	2
	NHF	7	2	1	2	2
	HF	7	0	1	4	2
8. Using available information to guess meanings of new items or infer the main idea of the target text	PF	9	0	1	3	5
	NHF	7	0	0	3	4
	HF	7	0	1	2	4

Note. PF = Paper-based Format; NHF = Non-Hypertext Format; HF = Hypertext Format.

The students' responses to open-ended questions in the post-questionnaire show that the students appreciated the use of computers in learning Korean. They seemed to think the hypertext-based program, *RE Ra*, was useful whereas most of them considered the non-hypertext-based program, *RE Da*, was not helpful. They also

regarded the use of PF as compatible although it did not provide any listening practice which is one of the special features of the computer-based formats. Most students did not like NHF because of the need to change screens to read passages and vocabulary information presented on separate screens. In comments on the differences between HF and the other two formats, they indicated easy access and quick processing as strong points of HF while the overuse of the English language help was a weak point of HF.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 of how they used the three different approaches to read and understand the reading passages indicate that the students tended to write English translations along the text in PF. For some students, NHF was acceptable for learning because it required the students to remember vocabulary between screens. Regarding the use of HF, most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utilised not only the information on vocabulary and grammatical patterns but also listening features. Interestingly, two students pointed out that HF was less helpful than NHF in remembering words because HF seemed not to force them to read and remember the words carefully. However, there was agreement that it was easier to use HF which provided quick answers to the questions of the meanings of the words. In brief, the students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use of hyperlinks as well as the use of computers in learning.

5. Discussion

In relation to the reading strategies preferred by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foreign language readers employ different reading strategies depending on the text format they work with. This finding is similar to the results of Windeatt's (1986) study that reported that the reading strategies used in cloze tasks in both computerised and non-computerised form were different. The students working in PF tended to write down the translations of the passage on the printed page while looking at the vocabulary section whenever they needed to. They used conventional techniques much more familiar to them from their experience with print material. In NHF, the task of working on the text and vocabulary on separate pages did not find favour with the students. Most students kept clicking back and forth to read the reading passage and vocabulary page, while some students tried to learn new words first and then to understand the reading passage. Generally, the students felt that HF was easier to look for information on new vocabulary and patterns, and they tended to read through the text as they followed along with the cursor on the screen. The students basically looked for the easiest way, and most agreed that the different presentation methods of information led them to use different strategies.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the use of related strategies for working with the reading passages, this study found that cognitive strategies such as resourcing, translation and inferencing were exploited many times whatever text format readers read.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students were eager to translate and infer the meanings of the reading passages with the aid of glossaries not on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ding passages but also to prepare for the follow-up tests. Self-management, one of the metacognitive strategies listed by O'Malley et al. (1985), was employed a little more frequently in HF than in the other formats. A possibl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students needed to clearly understand the conditions such as the type of assistance and the way to get assistance in HF because they were not familiar enough with HF. In PF, on the other hand, the note-taking strategy was the most

popular because PF presented all of the contents in a piece of paper on which students could make notes easily.

Although the data collection method used in this study did not focus on direct observation of students' behaviour, it did use a self-report approach which included students' opinions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asking students to report on their learning and preferences. Though quite illuminating, the investigation of strategies with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did not allow all possible strategies to be selected and examined. The use of more techniques for observing and recording students' performance would enhance the potential of any future research. For instance, it would be useful to employ a kind of computer tracking program if the research situation allows. In this way, the computer would unobtrusively observe students' behaviours while they read the text on the screen (cf. Jamieson and Chapelle 1987; Stevens 1996).

6. Conclusion

Due to the small number of the students in this study, it seems difficult to generalise conclusions. In some way, however,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different strategy use by readers for each text format that presented adjunct lexical information for the target text in different ways. The students employed special strategies for each text format as well as general strategies for all of the formats. Different methods of accessing lexical resources led the students to use strategies in different degrees. This suggests that text formats, especially the presentation methods of reference aids, can influence reading strategies that FL readers use.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on what students do during CALL activities and how the use of CALL can be integrated or linked to a range of language learning experiences. Describing what teachers and students do in CALL environments would help demonstrate the value of computer programs in engaging students with language learning activities. To strengthen our understanding of CALL, students' interactions need to be described and analys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on CALL. In doing so, it is essential to develop observation and recording techniques and to describe the data collected in a clear way.

References

Barnett, M. A. 1989. *More than meets the eye: Foreign language reading: Theory and Practi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ialystok, E. 1981. 'The role of conscious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proficiency', *Modern Language Journal*, 65, 24-35.

Block, E. 1986. 'The comprehension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readers'. *TESOL Quarterly*, 20, 463-494.

Brown, H. D. 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Regents.

Buzo, A., & Shin, G. -H. 1995. *Learning Korean: New directions 3*, rev. ed. Melbourne: National Korean Studies Centre.

Edmondson, W., Reck, S., & Schroder, N. 1988. Strategic approaches used in a text manipulation exercise, in *Computers in applied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ed. U. O. H. Jung, Frankfurt am Main: Verlag Peter Lang, pp. 193-211.

Fox, J. 1990. A microcomputer-based approach to training in second language reading skills.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1, 29-40.

Grellet, F. 1981. *Developing reading skills: A practical guide to reading comprehension exerci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senfeld, C. 1977.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reading strategies of successful and nonsuccessful second language learners. *System*, 5, 110-123.

Jamieson, J., & Chapelle, C. A. 1987. Working styles on computers as evidence of secon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Language Learning*, 37, 523-544.

Nuttall, C. 1982. *Teaching reading skills in a foreign language.*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O'Malley, J. M., Chamot, A. U., Stewner-Manzanares, G., Russo, R. P., & Küpper, L. 1985. Learning strategy applications with student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SOL Quarterly*, 19, 557-584.

Piper, A. 1986. Conversation and the computer: A study of the conversational spin-off generated among learner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working in groups. *System*, 14, 187-198.

Stevens, V. 1996. Use and abuse of autonomy in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Some evidence from student interaction with *SuperCloze*, in *Taking control: Autonomy in language learning*, eds. R. Pemberton, E. Li, W. Or, & H. Pierso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pp. 281-302.

Windeatt, S. 1986. Observing CALL in action, in *Computer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eds. G. Leech, & C. N. Candlin, London: Longman, pp. 79-97.

Structure and function of sub-information in lecture discourse

JongHoo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This paper argues that some parts of a lecture discourse that are commonly disregarded fulfill their own important functions with regard to a subject or purpose of an informative discourse. The ultimate purpose of an informative discourse is to communicate information effectively. There are two general methods to convey information effectively: The first method is to use scientific function of language faithfully. The second method is to compose discourse around core information you wish to convey so that it has coherence. These are regarded as the basic methods of producing an informative discourse, but, on the other hand, they contain some dangers that they might mislead the informative discourse as if it should preclude emotional function and sub-information. Consequently,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an informative discourse, we have to discover the essence of it observing and analyzing practical discourses.

Up to now, research about the essence of informative discourse has centered chiefly on the structure of `expository text'.

For example, Brinker(1992; translated by Sung-man Lee 1994) analyzed on the level of proposition. He argued that the developing structure of expository text is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initial condition with rule statements explaining the object. However, the text used in his analysis can't explain what to discover in this paper because it has a high coherence relatively and it is a short text so we don't see the whole aspects of sub-information in it. Yeol-kyue Kim et al(1994) have discovered features of persuasive, argumentative, and expository text by focusing on content structure and grammar. In the case of expository text, the side of content structure relies on Brinker, and the side of grammar relies on coherence theory of general text linguistics. Sam-hyeong Lee(1994) analyzed the content structure of expository text regarding a principle permitting coherence of text as `relationality'. The result is not so different from a way of explaining used in traditional rhetoric. Bong-soon Kim(1999) classified the comprising principle of core contents in expository text into three principles: the principle of inclusion, the principle of preference, and the principle of mutuality. But since her arguments focus on the construction of subject, they do not satisfy our curiosity about what kind of aspects and functions sub-information have. Most preceding in-depth analyses deal with written discourse, but since the frequency of sub-information, the focus of this paper, is low by nature, there might be some elements that have not been captured.

Taking all the results of these preceding researches into account, in order to intensify the analysis of informative discourse, we have to expand the breadth of the research material into spoken discourse and try to capture the wide aspects of discourse. The research of sub-information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deepening research more or l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is the structure of discourse centering around sub-information parts like?

2) What kinds of functions do these parts have with regard to the ultimate purpose of informative discourse?

3)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answers for above question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or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 chose lecture discourse as the analysis material of this paper. This choice was made for two reasons.

First, lecture discourses are representative of informative discourses or expository discourses. Second, lecture discourses have a higher possibility than written discourses of containing some parts commonly regarded indirect such as anecdotes and humorous stories because they are basically a kind of spoken discourse.

The lecture observed and transcribed for use in this paper is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lecture was opened as a major subject for freshmen in the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for the first semester of 2001 in S University.

Professor J. gave this lecture as a part-time lecturer. He has also been serving as a professor at C University of Education. Considering the students' messages on the web board and all of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students, we can see many students set a high value on his lectures. Accordingly, his lectures can be regarded as fulfilling their purpose of conveying information faithfully, and a premise can be formed that permits us to analyze the discourse.

The material analyzed intensively in this paper is the last lecture given on June 16th, 2001. The subject of this lecture was 'Korean Literature in the early 1920s' and went on for about three hours.

We still have a problem of generalization because the material of this paper is limited. Howev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to generalize but to find out a few important educative lessons, as well as to break down prejudices against informative discourse and language education related to this through an example of analysis. Consequently, from wider point of view, we could say that this research is a kind of case study.

2. Concept of Sub-Information

The term 'sub-information' is named from a point of view of conveying information. The speaker (or the author) of an informative discourse has the main-information. But an informative discourse is not always composed of the parts representing the main information. Especially, It is very usual that lecture discourses include not only main-information but also other parts. These parts appear as the example stories, anecdotes, and jokes etc. Written discourses gain considerable coherence through the process of polishing and rewriting. In this way, from now on, the information that is not main-information will be named as sub-information in this paper.

The standard of division of sub-information from main-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with regard to the intention of a speaker. In the case of lecture discourses, the speaker(lecturer) keeps conveying information to the listener(the audience). There is some information conveyed even in the above example stories, anecdotes, and jokes.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 and purpose of a lecture, there can be some information meant for the audience to remember even after the lecture. This is preferentially what the speaker says and can be judged through analysis of discourse with regard to the subject or character.

We can name the former main-information and the latter sub-information at this time.

The information is always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structure of proposition because it exists with regard not to level of language form but to level of proposition. The

structure of proposition, as van Dijk (1978, translated by Shi-ho Jung, 1995) analyzed, is divided into macro structures and micro structures, and the relationship of them is relative.

That is, macro structures break out by integration of micro structures. Macro structures become micro structures again when they are considered with macro structures of higher rank.

Since the proposition structure of a discourse is composed of the relative relationship of micro structures-macro structures, like this, the relationship of sub-information and main-information is also relative. In other words, the information, represented by Min, the nth global proposition within the *i*th dimensional macro structure, functions only as a sub-information in the macro structure level. However, the global proposition M^{i+1}_{n} that is combined by the Min and M^{i}_{n+1} could be the main-information. As it were, judging whether certain information is main-information or not is possible only in the same level of proposition. For example, it is as follows.

<Reference 1>

S1 예쁜 것에 집착해. S2 아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만 넣어 봐. S3 만물은 무상하다니까. S4 얘 조금 있으면 주름 생겨. S5 이거 얼마 오래 안 가. S6 왜 거기 집착해? S7 돈? S8 야 그거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해. S9 그런데 왜 꼭 있는 것에 집착해? S10 이게 불교적인 인식론이에요. S11 알겠습니까? S12 참 오랜만에 불교 얘기하니까 낯서네요. S13 S대 총불교학생회 출신입니다. S14 그래 그런 과거가 있는 남자에요, 저도 알고보면. S15 자 그러면 한용운이 바라보기에는, 한용운이 바라보기에는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데 님을 떠났다 님이 떠났다 막 여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중생의 눈이라면, 한용운은 뭐에요? S16 떠났다? S17 아 만나겠네. S18 만났다? S19 헤어지겠네. S20 이렇게 보는 거에요. S21 전체적인 무상의 그 순환 가운데 한 부분인 것을. S21 그러니까 나라 잃었다, 슬픔이다, 좌절이다, 아니라고. S22 나라 잃었다? S23 그러면 찾겠네. S24 아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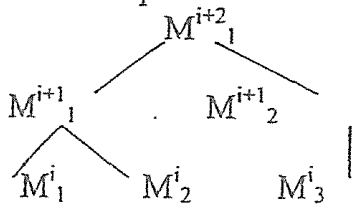
S1: You stick to something pretty. S2: Gee..Try to put some time into it. S3: Everything is mutable. S4: Hey, we're expected to be wrinkled soon. S5: This doesn't go so long. S6: Why do you stick to that? S7: Money? S8: You know? Sometimes it is lost and comes out. S9: By the way, why do you stick just to what you have? S10: This is the very Buddhistic epistemology. S11: You got it? S12: It's not familiar to talk about Buddhism after a long time. S13: I used to be an officer of a general Buddhist meeting of students at Seoul University. S14: Yes, I'm a man who has such bygones. S15: Now, if so, from a point of view of Han, Yong-woon, if sticking just to the fact that his love has gone and he has left his love is eyes of people, then what do you think of the case of Han, Yong-woon? S16: Someone has left? S17: Oh, I bet they're to meet. S18; Somebody has met each other? S19: Oh, I bet they're to break up soon. S20: We see things in this way. S21: They're just the parts of whole transiency. S22: So, even though we've lost our country, that's neither sad nor frustrating. S23: We've lost our country? S24: If so, I bet we're gonna regain our country some day. S25: You got it? ....

The above discourse can by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what they mean. They can be S1~ S12, S12~ S14, S15~ S25. The global proposition for group

S1~ S12 is M^i_1 and M^i_2 for S12~ S14, finally M^i_3 for S15~ S25.
Each contents of the global proposition is as follows.

M^i_1 It's Buddhistic epistemology not to stick to something existing.
M^i_2 I used to be an officer of a general Buddhist meeting of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i_3 Han, Yong-woon saw the truth of our country with Buddhistc epistemology.

At this time, M^i_1 and M^i_2 can become component propositions of $M^{i+1}{}_1$, global proposition, through the medium of S12. M^i_3 is confronted with global proposition, $M^{i+1}{}_2$ of itself. $M^{i+1}{}_1$ and $M^{i+1}{}_2$ compose a global proposition, $M^{i+2}{}_1$.
The following picture can explain this relationship.



Here, M^i_2 becomes sub-information in the level of i+1. Because the story about the speaker's bygones comes from a part explaining Buddhistic epistemology, it cannot be regarded as information meant to be remembered by the audience referring to the subject and character of the lecture. In this case, M^i_1 becomes main-information relatively in contrast to M^i_2. But even though $M^{i+1}{}_1$, formed by combination of these two informational pieces, includes main-information in lower level, it becomes sub-information relatively in contrast to $M^{i+1}{}_1$. Because the information about Buddhistic epistemology works as a supporting means to explain a world view of Han, Yong-woon.

3. Connection aspect of Sub-information and Main-information

Sub-information is connected with main-information inside the discourse. This connection is not just a simple connection-like arrangement but something that makes coherence of whole discourse possible. It's needless to say that a spoken discourse relies highly on the thread of situational connection. So it tends to have a lower coherence than a written discourse, but we cannot say that it doesn't have coherence at all. Because a lecture discourse has a subject as a completed discourse, it has coherence and the connection of sub-information and main-information will also proceed to assure this coherence. To expose this connection aspect, we need to analyze what kind of relationship sub-information has with main-information and what it is definitely, or what the process to come back to main-information again through sub-information from main-information is.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a few relationships to assure coherence among the units of contents inside the discourse. They are collection, addition, deduction, cause & effect, and reason, comparison & contrast, specification, problem & solution, and finally meta-discourse. (Lee, Sam-Hyung, 1994). However, these relationships are extracted from relatively completed expository text and they make the connection of contents units logical. So they can't expose the exact relationship between main-information and sub-information. As mentioned earlier, it's natural that the division of main-information and sub-information is relative and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development of logic can also become sub-information relatively according to the level. Therefore, it can be true for relationship between

main-information and sub-information, too.

But gener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side a spoken discourse such as a lecture discourse is regarded as something that has mainly lower coherence.

Accordingly, this paper will focus on finding out other relationships making an exception of these above.

3.1. Connection by Analogy

Analogy is a general way of explaining in rhetorical tradition. From a wider point of view, this is a kind of comparison to explain comparing something difficult to understand to another thing that is easier to understand.

At this time, the sentence "Something is easy to understand" means that vehicle is more concrete than tenor or that it is closer to the audience.

<Reference 2>

P1 염상섭은 고보 출신인데다가 그 고등학교에서 백일장에 입상을 합니다.

P2 애개, 쉽죠? 소시적에 지금 백일장에 가서 상 못받은 사람이 있나 그렇죠?

P3 그러면서 또 그랬겠지. 서울대 국어교육과 지원할 때 백일장에 당선돼서, 이랬겠지.

P4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염상섭은 일본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고보에 가서 일본어로 시를 써서 입상이 됐다구.

P5 너네가 지금 미국 가서 영어로 시 써 갖구 입선이나 하겠니? 가작, 장려상도 안 돼. 응? 왕안기 그렇지? 어디 갔니? 왕안기가 지금 한국말로 시를 써서 여기다 백일장을 받으면 왕안기를 칭찬할 게 아니라 너네들이 나가 죽을 일이야. 그런 거 아니냔 말야.

P6 그래서 염상섭의 소문은 이미 났어요. 그러는 상태에서 김동인이 있었단 말이죠.…

P1 Yeom, Sang-sup has had a high-school education and won a prize from in the intramural literary contest.

P2 I bet you're thinking, 'My, is that all?' 'Is there anyone who has never won a prize from a literary contest in his or her youth?

P3 There's no room for doubt that you also said, 'When I applied for the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 won a prize....'

P4 Now, listen to what I'm saying. Yeom, Sang-sup won a prize for writing a poem in Japanese after he had gone over to one of Japan's elite high schools.

P5 Do you think it's possible for you to win a prize for writing a poem in English after you go over to America? A good piece? You wouldn't even get smallish prize, would you? Yes, Wang, An-gi. Let me see.. Let's suppose that Wang, An-gi got a prize for writing a poem in Korean at a literary contest. Even so, that would not be something worth admiring in her but instead it would be a disgrace to all of you. Am I wrong?

P6 So, word about Yeom, Sang-sup has been already spreading. Meanwhile we've got also Kim, Dong-in to discuss.

The upper P1, P2, P4 and P6 come under sub-information and P3 and P5 come under sub-information. Here, the global proposition of P5 is connected to the global proposition, which is composed of P1~P4, by analogy. And P6 is connected to the global proposition directly. Judging from the level of global proposition within the macro structure, the main poin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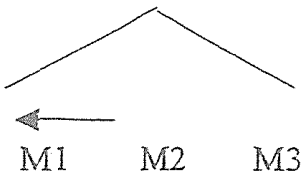
M1: It's great that Yeom, Sang-sup won a prize for writing a poem in Japanese at an elite Japanese high school.

M2: It's great that Wang, An-gi won a prize for writing a poem in Korean.

M3: In the meantime, there was also Kim, Dong-in.

Here, the speaker is explaining how excellent Yeom, Sang-sup's talent for literature through a character, Wang, An-gi, with both concreteness and proximity. Wang, An-gi is a Chinese student studying in Korea and she belongs to the same class. so other students know her very well. We would say that this is analogy to intensify a degree of understanding definition rather than that to make somebody understand a difficult concept.

Adding one more thing, there's no need for sub-information to be joined to the before and behind main-information at all. The conjunction of P6, so, is a mark not to show the connection with P6 clearly but to show the connection M1 with M3. This relationship is as follows.



3.2. Connection by Association

The connection by association is not something caused by logical flow when moving from main-information to sub-infonnation but something deviating to other subject associated from peculiar lexeme or subject for a while. It's a kind of deviation viewing from the whole discourse, but, on the other hand, it's a clear connection view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djoined.

<Reference 3>

P1 당시 문단은 뭐가 지배하고 있었냐 하면 아까 말한 백조파가 지배하고 있는데.

P2 혹시 어디 가서 아직도 말이에요 백조파를 제발 이렇게 쓰지 마세요.(白鳥라고 판서한다) 스완! 아닙니다. 이겁니다.(白潮라고 판서한다.) 예? 물결 조 잡니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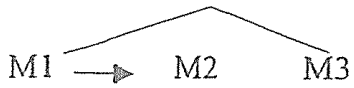
P3 이 백조는, 이 백조는, 이거 생각나죠?(sentimental romanticism이라고 판서한다.) 이거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감상적 낭만주의 혹은 뭐라고? 병적 낭만주의. 다 되는 거지?

P1 At that time, the Korean literature circle was swayed by the "Bakjo" school.

P2 Please do not use the word "Bakjo" like this. He writes the word "Swan" on the blackboard which is one of the meanings "Bakjo" has in Korean language. "Swan?, No!" This is right, jotting down the phrase "White Wave" which is another meaning of "Bakjo" in Korean.

P3 The White Wave school represented the "sentimental romanticism" in the literary trend. He writes the phrase on the blackboard. This can also be translated as dismal romanticism. Either will do, right?

In order to make a natural and logical discourse above, the speaker needs to proceed from P1 to P3 directly. P2 is something deviated from the subject- Korean modern poetry of 1920s, which is associated through the medium of the word, 'Swan'. The lecturer discovered that some people fall into the error in writing in chinese characters, so he/she might have put P2 between P1 and P3 judging that he/she needed to convince the students about this. In the case of written discourse, it has the property of appearing as a form of footnote, but spoken discourse doesn't have some devices like a footnote. Therefore, there's nothing for that but to use a form of inserting. However, since the length of P2 isn't so long, it's reasonable in connecting P1 and P3 logically. Regarding the global proposition represented by P1~P3 as M1~M3, the relationship is as follows:



3.3. Connection by Discourse Convention

Both connection by analogy and that by association have a medium inside the text. We see the medium which is talent for literature of Yeom, Sang-sup and Wang, An-gi in example 2 and also the medium, the White-Tide, in example 3. But we also see some cases that are not so like the following example 4.

<Reference 4>

P1 자, 결국 종강 때까지 시간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긴 방학을 마치고 오늘 개학과 동시에 방학에 들어갑니다. 모두 잘 지내시리라 믿구요.

P2 순서상으로 하면 육당하고 그 다음에 춘원을 대표적인 걸로 얘기하지만 두 사람만 문학사에 있었다는 건 아니겠지요. 그만큼 이 당시는 이인문단 시대라고 불릴 만큼 두 사람의 영향력이 막강 막대했고 이들이 남긴 공적이 뚜렷했던 건 사실이죠.

P1 Well, I'm sorry for being late even for the last class in the end. We're going on a vacation again simultaneously with just beginning school after a long vacation. I believe that all of you will get along quite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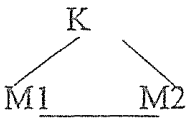
P2 Following the procedure, we say that Yook-Dang and the second Chun-Won are the representative men. But it doesn't mean that there were just two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To that extent, they were so influential that people called that time the age of two persons-literary circles. It is true that the achievements they left were remarkable.

P1 is a kind of speech that begins the lecture. That speech notifies that the lecture on that day will be the last lecture of that semester and that the speaker feels sorry for being late for the lecture. This paragraph can come under sub-information because it's not something essential. And P1 comes to the contents about 1910s' literature without delay. Here, we see that there's no medium within the text between P1 and P2.

In this case, since the lecture discourse usually includes notification as an introduction regardless of contents of the lecture, we don't feel that the switchover from P1 to P2 is unnatural. So to speak, the audience has background knowledge about the convention of lecture discourse other than the text, so they feel that the connection of P1 and P2 is natural.

The global proposition for P1 will be M1 and M2 for P2. And supposing that the background knowledge about discourse convention is K, the relationship of connection between main-information and sub-information can be shown by a picture as follows:

The broken line was used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M1 and M2 is connected through the medium of the background knowledge, K, other than text indirectly.



4. Function of Sub-information

What is the function sub-information performs in relation to essential purpose, communicating effectively, of a lecture discourse? We can consider it dividing into a net function and reverse function and also think of the reverse function of sub-information in view that sub-information can get coherence of low degree connecting with main-information. However, what this paper is telling doesn't mean that sub-information performs only reverse function like this. This paper will present

these three categories: reinforcement, addition, and awakening as the phase of net functions sub-information has.

4.1. Reinforcement of Acceptance with Recognition

Reinforcement is a function that makes people understand information accepted with cognition surely and makes carving a seal easier. At the former <Reference 2>, the object for explanation was explained through a medium, students, in the way of analogy. That is also for students to carve a seal that the talent for literature of Yeom, Sang-sup was fabulous.

<Reference 5>

P1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다 봐주겠는데 그 다음 김동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김동인 자신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에 3인칭 여성대명사 그녀를 자기가 처음 썼다. 이건 맞어요. 이건 김동인 이전에 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녀라고 쓰는 건 김동인이 만든 말이에요. 아셨어요?

P2 바뜨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3인칭 여성대명사 없이도 어떻게 살았다는 걸까? 불편하지 않으니까 살았지. 아무 불편함이 없었다구. 알겠어요?

P3 어- 내가 이대에 강의를 하고 왔거든. 거기서 누가 질문을 하더란 말야. 그런데 너네들이 "남자요? 여자요?" 그러겠니? 상황맥락으로 다 되는 거에요. 전혀 불편함 없었어요.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왜냐하면 우린 지금 다 삼인칭 대명사를 전제로 쓰기 있기 때문에 '그'라고 하게 되면 헷갈릴 것 같지만.

P4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어저께 그가 나한테 청혼했다." (놀라는 표정) "허!" 이러니? "아니, 진작 말하지 그랬어 너의 비밀을..." 아니지? 다 알아들어. 당연한 거야.

P5 그랬는데 김동인이 지금 그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중요한 얘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봐. 우리말에 그녀란 말이 없는데 소설을 위해서 그녀란 말을 만들었으면 그거는 언문일치가 아니지. 그지?

P1 Now, by the way, I can stand it all. But next, Kim, Dong-in says like this. "The one of my achievements was for me to use a third person pronoun for the first time. That's right. Nobody has ever used it before. The word, she, you use is what Kim, Dong-in created. Did you know that already?

P2 But, then let's think about it in this way. Did our ancestors have special secrets to live without the third person pronoun? They must have lived without it because they didn't have any inconvenience for that. You got it?

P3 Well, I came here after having lectured at Ehwa University today. And there was a student asking a question to me. By the way, is it likely for you to ask like this "Was that he or she?" You know? We understand everything through circumstantial judgement. We didn't have any inconvenience. Even if it's difficult for us to imagine. Since all of us have been using the third person pronoun as premises, so we're likely to be confused by using 'he'.

P4 I'm talking to my friend like this, "He proposed marriage to me the day before yesterday."(making a surprised expression) "Oh?" You say like this? "Why didn't you tell me about your secret?" You do not, right? I mean you can understand everything. It's natural.

P5 By the way, now people say that Kim, Dong-in created 'her'. Eh? It's important thing. Listen to me! We have never had the word, 'her', before, meanwhile, he created it for novel? Then it's contrary to unity of speech and writing. Don't you think so?

P1,P2 and P3 are paragraphs that represent main-information in upper <Reference 5> and P3 and P4 represent sub-information. P3 and P4 become concrete examples for P2. So to speak, They show the fact that 'We have originally never had the third person pronoun before and it didn't cause any inconvenience.' through some concrete examples reinforcing the fact. Besides, a speaker has an imaginary situation with regard to himself or herself and this makes sure of concreteness and proximity as mentioned

before. In this way, the audience can reinforce the acceptance of abstract information through some concrete and familiar objects and we could say that sub-information works as a function of reinforcement in the upper example.

4.2. Addition

It is function of addition that sub-information connected with main-information through association performs in <Reference 3>. This is information other than main-information that the speaker wanted to communicate through logical development from the beginning, and when we have information necessary to be communicated, this function means to communicate it along with main-information even though it is sub-information indifferent to the logical development. It's also the function of information represented by footnotes in a written discourse.

Addition is often used in the sub-information connected by association and the sub-information performing the additional function can be formed thanks to association. Similarly, Coherence can be ensured because there is a medium causing association within the text.

4.3. Emotional Awakening

There are many examples of sub-information that provoke laughter. P3 and P4 in <Reference 5> provoke laughter as well as perform the function of reinforcement. Especially, P4 moves people to much laughter setting up the theory about imaginary circumstances arousing their interest. Some interesting stories provoke still larger laughter combining with exaggerated expression and motions of the audience like this.

Laughter like this mainly makes the audience concentrate on a lecture easily by awakening of emotion and lightening some the burden of recognition during a lecture that needs a great deal of cognitive process from the audience. Besides, since sub-information performing such function is connected with main-information by analogy or association, the audience can accept that more easily. If <reference 5> shows the function of emotional awakening of sub-information connected by analogy, this following <reference 6> shows the function of emotional awakening of sub-information connected by association.

<Reference 6>

P1 그래서 말야, 안방에 싸움이 나면 형제들이 나를 갖다가 그 방으로 밀어. 야 임마, 들어가서 아버지 달래드려. 사실은 그럼 내가 들어가지고 '아빠 싸우지 마.' 이러면 아버지가 '에이 자식 보고 참는다.' 이게 우리집의 공식 스토리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말입니다. 들어간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그 때 내 자아는 어디로 가는 거야? 가족을 위한 자아로 변신한 거 아냐? 내가 디지몬이야?

P2 앞으로 강의 전에 예습도 하고 그래. 디지몬도 모르고 어떻게 해?

P3 자 그랬을 때 내가 내 과거를 회상해 볼 때 그 어린 시절 그 장면에서의 나는 과연 나의 참모습일까? 그죠?

P1 So..if my parents quarrel each other, my brother used to push me into the room where they were. "Hey, go and cajole father into calming down!" In fact, I used to come into the room and tell him not to quarrel. And then my father would say,"Fie! I forbear because of children." This is an official story of my home. So frankly speaking, who the hell am I ? What's my life like? Then where does my ego head to? It was changed into ego for my family, wasn't it? Am I Digimon?

P2 Do prepare your lessons before the lecture from now. How can you listen to a lecture without knowing even Digimon?

P3 Now, in that case, looking back on my past, I wonder whether 'I' of that situation in my youth was really what I was. Don't you think so?

With regard to the information represented in the former paragraph and the latter, the

whole of P1~P3 come under paragraph representing sub-information relatively. However, judging just within P1~P3, P2 represents sub-information and P1 and P3 represent main-information. P2 is a kind of joke spoken by association from the word, 'Digimon' and it provoked lots of laughter. The connection of P1 and P3 is not unnatural because the length of P2 is short relatively.

5. Conclusion: The aspect of sub-information and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Till now, we've looked into the aspect that sub-information is connected with main-information through analyzing lecture discourse and confirmed a phase of function sub-information performs with regard to the essential purpose of discourse that means communicating information. We found out three connecting aspects that sub-information is connected with main-information and they are connection by analogy, connection by association and that by discourse convention. We also found out that sub-information performed three functions: reinforcement of cognitive acceptance, addition, and emotional awakening.

The sub-information isn't just subsidiary in a lecture discourse. That has its own mechanism of coherence and performs constant functions to fulfill its essential purpose- communicating information.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so far classified the type of discourse strictly and gives the feeling it has restricted the character of typical discourse.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informative discourse, it has focused on exact expressions and logical expressions rather than affluent expressions. And it has also selected text to be carried in the textbook depending on exact and logical structure of expression.

So a discourse of this type used to be regarded as so-called something insipid unconditionally. But, this paper argues that a parenthetical comment or expression can be helpful in fulfilling the essential purpose of a discourse through application of proper sub-information. It's a matter of course that an expression structure that is basically exact and logical is an essential condition in informative discourse. But informative discourse is also no exception in maximizing expression effect through various and proper expression structure.

The existent famous lectures or highly informative books all have expressive features supporting this. Such idea should be reflected when designing and plann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aspect of informative discourse considered by sub-information is very significant in relation to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The education of cultural elements in all secondary languages including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is very important.

The convention and the aspect of a discourse are more liable to be overlooked than other cultural elements. It's impossible that each and every language has the same detailed convention and aspect of development even though it's a discourse of the same type. Although the same type of discourse, a specific developing way depends on what the mother tongue of the audience is. The universality and peculiarity that a specific discourse has come under meaningful basic research for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make the structure and the aspect clear through practical discourse forms the basis of such work and I hope this paper can be also the starting point of such research.

Reference

Kim, Bong-soon(1999), Main substance Analyzing Principles of Expository text, *Research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ninth series, Socie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Sang-Hui(1995), Teaching Strategy Study through Analyzing Lecture discourse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centering around spheres of 'Speaking/Listening' , 'Language', A master's Thesis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Yeol-kyue et al(1994), Research for Establishment a model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sentences by Text linguistics - centering around demonstrative, persuasive and expository types, *INJE Collection of Treatises*, the tenth volume No.2, INJE University

Park, Yeong-mok · Han, Chul-woo · Yoon, Hi-won(2001), *Theory of Teaching Korean language*, Kyohaksa.

Lee, Sam-hyeong(1994), Analyzing method of Substance structure of Expository text and Research about educational application, Doctoral thesis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Brinker, K.(1992, translated by Sung-man Lee, 1994), Understanding of Text Linguistics , The history of Korean culture.

Goffman, E.(1981), *Forms of Talk*,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Renkema, J.(1993), *Discourse Studies - An Introductory Textbook*,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Saville-Troike, M.(1989),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Basil Blackwell.

Stubbs, M.(1983), *Discourse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an Dijk T.A.(1975, translated by Shi-ho Jung, 1995), Study of Text, Mineumsa.

van Dijk, T.A. & Kinch, W.(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etence,* Academic Press Inc.

Study Strategies of Korean Students in Australian Higher Education

Young-A Cho
Monash University

Introduction

Korean students are studying overseas in increasing numbers, especially since the Korean government's advocacy of globalization[1]. In the past most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would first graduate from a Korean university and then go to university in the USA for a degree at the postgraduate level. However, the pattern of Koreans studying overseas has changed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students going abroad to study an undergraduate degree has increased, and while the USA is still the preferred destination, a country like Australia has managed to obtain a small but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undergraduate students from Korea[2].

The difficulties Korean students experience while studying in Australia have been previously investigated by Choi (1997) and Armitage (1999). Choi (1997), for instance, investigated the problems Korean students experienced studying at universities in Victoria in 1992 and 1993 and Armitage (1999) dealt with Korean students at English language centers in Melbourne in 1997. According to Choi's survey (1997), Korean students in Australian universities perceived their competence in their English language skills as having difficulties in speaking (53.2%), writing (25.5%), listening (17.0%) and reading (4.3%). Interestingly but not surprisingly, student's perception in their English language competence is aligned with their perception of difficulties in study genre in order of class discussion (48.9%), written assignments (31.9%), understanding lectures (21.3%), tests (19.2%) and reading assignments (17.1%). She argued that the students' difficulties derived not only from their lack of language proficiency and study skills but also from Australian teachers' and peer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se problems in the educational context. On the other hand, Armitage (1999) pointed out that one major factor affecting the adjustment of Koreans living and studying in Australia is insufficient preparation prior to their departure from Korea, so they do not develop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Australian culture and society. While their findings are valuable, neither Choi (1997) or Armitage (1999) investigated how students develop strategies to overcome their problems.

The main difficulties students encounter while studying abroad involve not only acquisition of English language but also the way language is used in the academic context. Moreover, the use of similar labels for study genre, such as essays or exams,

[1]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who study overseas increased from 53,875 in 1991 to 154, 219 in 1999, an increase of 286%.
[2] Of the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42% were in the USA in 1997 but this figure decreased to 35% in 2000. For Australia, the percentage rose from 5% in 1997 to 7% in 2000.

may mislead Korean students to expect something similar to those genres found in their home country. Given that study genres are essential components in any educational culture and involve highly inferred knowledge and include various communicative and social norms (Mauranen 1994), we can hypothesize that differences in study genre can constitute one of the main roots of students' problems when studying abroad.

Methodology

Subjects: This paper deals with 16 Korean students (aged 22- 30 years)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different faculties at the undergraduate level at Monash University, which is located in Melbourne, Australia. The code KR (plus number) is used to refer to these students. Of 16 Korean students, 6 were female and 10 were male.

These Korean students fall into two main categories:

a) Exchange students who are enrolled at their home Korean universities and who study for one or two semesters at Monash University. They have studied two or three years of a four-year university degree in Korea (KR1-3).

b)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a full undergraduate degree course. Some students have been educated at secondary school in Korea prior to their entry to Monash University (KR4-5). Four students have studied at the tertiary level in Korea, either fully (KR6) or partially (KR7-10), completing a four-year university degree. Others have completed a two- or three-year diploma equivalent at a vocational college (KR11-16).

There is a distinctive difference in academic background of the international and exchange students in this study. Due to the requirement for exchange students to achieve a high TOFEL score, all are majoring in English in Korea. In contrast, the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had a wide variety of academic backgrounds, but their goals of studying in Australian universities were to improve their English in order to obtain a better job. The exchange students also perceived the value of improved English from studying in Australia as an important benefit to their future prospects. All exchange students stated that they expected to be exposed to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o understand Australian culture from participating in exchange program in Australia.

Research question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ange of difficulties which Korean students encounter and how Korean students develop their study strategies while enrolled at an Australian university. The main research questions were:

1. What are the main difficulties Korean students encounter when studying at an Australian university?
2. What type of study strategies do the Korean students employ and what sort of processes do they undertake?

The difficulties Korean students face in the academic context relate to the academic competence which they need in university contexts in Australia. This competence consists of linguistic, sociolinguistic and sociocultural components, and applying at both the receptive and productive levels. The receptive competence involves, for example understanding lectures, tutorials and textbooks, and what students produce includes seminar papers, essays and theses (Mauranen 1994). Some difficulties may derive from their lack of language proficiency in understanding lectures and note-taking, for instance. However, many difficulties derive from more than one source of components. Participation in tutorials, for example, not only involves the implementation of appopriate linguistic elements of language but also the sociolinguistic components such as how and when to speak.

Data collection method and analytical procedures

This study employed a combination of questionnaire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The students were given an open-ended questionnaire to complete at the beginning of August, 2000. In total, 3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Korean students via the Korean Students Association. In addition, semi-structured interviews ranging from 30 to 105 minutes in length were conducted in Korean with two female students and four male students. These interviews were recorded on audio-tape. In this interview, students were expected to clarify some of the information recorded in the questionnaire and to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search questions. The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this interview included students' perceptions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ustralian universities' educational systems, main difficulties they have in studying at Australian universities, types of study strategies employed and their communication networks.

Conceptual Framework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sample and the nature of the study, the data will be analyzed qualitatively rather than statistically. In the analysis of data, the focus will be on finding out factors related to the study strategies used. In analyzing study strategies, the management model will be employed, which was developed by Jernudd and Neustupny (Jernudd and Neutsupny 1987; Neutsupny 1985a, 1985b, 1994, 1997), and applied by Marriott (1990, 1993, 1995, 1997, 2000) in a number of sociolinguistic studies of Japanese students studying in Australia. In this model, interaction difficulties occur when there is a deviation from expected norms or patterns of behaviour. As a means of acquiring those norms which are appropriate in the new educational, students need to become aware of deviations from these norms, evaluate their deviations appropriately and subsequently implement suitable adjustments. However, students may or may not be aware of their deviations. Further more, not all of the adjustments will be satisfactory and so the management cycle may be repeated. I will also draw upon Oxford's categories (1990), which was classified into six types of strategies, i.e., cognitive, memory, compensation, metacognitive, affective and social strategies.

Findings

Writing essays and examinations

In the interviews examined here, the main areas of difficulty which students reported are writing essays, understanding lectures, participating in tutorials, note-taking and

exams[3]. The degree of difficulty students encounter varies according to their academic background and their current degrees, but academic writing is one of the serious difficulties students noted. KR2, for instance, reported that writing an essay is difficult and evaluated that her difficulties come from her English proficiency and not because differences in structure of writing. She claimed that she learned how to write an essay at her Korean university and that the writing style is the same in Korean and English. The same claim shared by other exchange students. On the other hand, KR4 stated that writing an essay is the hardest part and that he had never written an essay in Korea because he studied engineering. A similar claim was also made by the student who was studying technology subjects.

Despite the claim by several students, noted above, that the essay genre is consistent across the two countries, it seems that in Korea the most common type of written genre is a "report". According to one exchange student, many students merely summarized their reading in their "report", but to obtain a good "report" mark, additional analytical and critical contents are a crucial factor. Deviations in academic writing is rather discovered through assessment structure, which involves the length of term papers and frequency of term papers and the number of subjects required for this in Korea. According to an exchange student, two or three written assignments per week were required in her home institution, but no feedback was given. Even though she had ample experience of writing in Korea, she still claimed that writing was difficult in Australia. She maintained that the difficulties come from the different styles which were required and also the length of essays. In Korea a written assignment was usually short and she did not spend much time on each, since a large number of assignments were required.

The type of writing required differs according to the academic subjects and it was revealed that students taking Arts subjects experienced more stress with writing. One Science student who enrolled in an interdisciplinary subject offered by the Arts Faculty claimed that writing an essay for the Arts Faculty required a different style and which he had not yet mastered.

Examinations also constituted a difficult task for students. The exchange students did not find a big difference in examination formats between Korea and Australia. They claimed that the focus of the exam was comparison and analysis in Korea, and it was quite similar to the one in Australia. However the strain of exams was not eased, as exam was being required to write in L2 in a limited time period. One exchange student expressed her frustration, claiming that she could not answer a question, since it contained an unfamiliar key word, and wished she could have used a dictionary.

Understanding lectures and note-taking

Other difficulties students encounter during their study are understanding lectures and managing the quantity of reading. Al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reported that understanding lectures was very difficult. Even though the lecture genre constitutes the main part of courses in Korea, the amount of reading required per subject, unfamiliarity of background information and knowledge required, together with lack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pose enormous constraints on Korean

[3] The same difficulties were found for Japanese students studying in Australian universities (Marriott 2000) and Korean students studying in Australian universities (Choi 1997).

students studying in Australia. An exchange student claimed that even though she had fewer subjects, she only managed to read one- half of the required reading whilst in Australia.

It is anticipated that the slow speed of reading in their second language and difficulties of listening hinder students' reading and understanding of lectures. In addition, the different character of their previous subjects undertaken in Korea in conjunction with a different educational system, such as the amount work per subject and the number of total subjects taken per semester, create difficulties for Korean students[4]. An exchange student claimed that fewer subjects and fewer contact hours in Australia gave her the wrong impression that students study less at Australian universities. But she quickly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different study methods required. She also experienced that the subjects in Australia went into more depth than did those similar subjects she undertook in Korea.

Along with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lectures, note-taking was reported as a problem. Difficulties derived from note-taking are not only related to their language proficiency but also related to skill in selecting the salient content. Students claimed that they often failed to listen while they engaged in note-taking during lectures. But they also reported that they did not actually take notes but just copied the content from the over-head projector used by the lecturer. One student reported that the availability of lecture notes on the web helped him to understand lectures.

Participation in tutorials

The difficulties related to writing essays, understanding lectures and note-taking and exams are different from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in tutorials. The former difficulties mainly derive from linguistic aspects with some cultural differences, for instance, turn taking, when and how to talk and the hierarchy between tutors and students. Students found more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in tutorials compared to lectures. One student claimed, for example, that it is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other students' talking in class than it is to understand the speech of tutors, since they have to get used to all different individual accent and some comments and questions by other students are not directly relevant to the class content.

One conspicuously different feature in the university system is that only the lecture type of classes is available in Korean universities and it is not accompanied by related tutorials, as in Australia. Most Korean students reacted favourably to their experiences of tutorials. For instance, one student thought tutorials better, since students could ask a tutor when they did not understand. In fact, most students have a positive attitude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lecturers/ tutors and students. As one student explained there is more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 Australia, whereas it is very difficult to meet teachers in the Korean universities. Nevertheless,

[4] An undergraduate degree in Korean universities consists of a large number of subjects and more contact hours. For instance, one exchange student who enrolled at Faculty of Arts, Monash University explained that she studied seven or eight subjects each semester totaling 21-24 contact hours per week at her home institution in Korea, whereas she enrolled in only three subjects at Monash University, which required 9 hours of class attendance.

due to unfamiliarity with the new study genre, participation in tutorials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asks for Korean students.

Most students experienced constraints in interacting with tutors and classmates in the group. The differences in the teaching style from Korea, where tutors asked lots of questions in class, and also the requirements of presentations and group discussion in Australia classes restricted students' involvement in class. The students evaluated the resulting difficulties is coming from their lack of English proficiency and their introspective characters. However, most students were not aware that different socio-linguistic rules relevant to this new study genre, involving matters such as how and when to speak in classes was same of the norms they needed to acquire and that lack of familiarity or exposure to these norms could make them less active in classes.

Tutorials are normally small-sized classes in which students are regularly expected to participate in discussion or to present a topic. Students reported that this type of class made them anxious and that lack of their confidence hindered them from participating. Exchange students and one international student could minimally participate in tutorials, but most students claimed to be unable to participate in tutorials during the first semester of their studying abroad, and although they started to participate from the second semester, often they did not gain full confidence even by the time they graduated or finished their oversea sojourn.

It is possible that Korean students suffer from the difficulties to a greater degree than students from some other countries where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have more in common with the Australian one. It is also possible that a lack of awareness on the part of different academic experiences may lead Australian teachers to reach a negative evaluation of Korean students and a consolidation of a stereotypical and ethnocentrical image of Asian students as passive recipients of knowledge and lacking in critical evaluation skills (Ballard and Clanchy 1991).

Adjustment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It is assumed that when students interact with other people, they do so at varying levels of awareness. An important step in awareness is about the monitoring of one's own and the other's behavior. According to Marriott (2000), analysis of difficul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adjustments can occur only after students note the difficulties or deviations. In some cases, students do not notice their deviations and become frustrated when unexpected outcomes occur. In most cases, it takes a while for students to become aware of the existence of deviations. Consequently a specific and extensive correction process is required to deal with deviations from the norms at the beginning stage (Neustupny 1985).

As mentioned before, only after a negative evaluation of a deviation is formed can various corrective strategies be employed. Some deviations may remain unnoticed, some other deviations are noticed but no corrective adjustment strategies are pursued since these are evaluated neutrally (Neustupny 1985). Afte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strategies, if difficulties still remain students need to review and modify the strategies which they previously utilized.

Although various strategies were employed by different students, there were common strategies among them. One type of strategy is a self-reliant adjustment strategy, such as listening to lecture tapes, utilizing library resources, previewing and reviewing of classes; re-writing the draft many times, and using dictionaries. A second type of strategy is utilization of a network-reliant adjustment, such as utilizing language exchange network, or peer support network, consulting with lecturers and tutors in their own subjects, the Language and Learning Service Unit which is a faculty-based-center for assisting students, either local or overseas, with a variety of study skills. A third type of strategy is problem minimisation, such as avoiding certain subjects which require oral presentations or which the students or other students have previously failed. Alternatively, these students may avoid teachers who have a reputation of harsh marking.

Self-reliant adjustment strategies: Lack of English proficiency is a major difficulty which students encounter in the first stage of studying abroad. Most students noticed the difficulties and evaluate their language proficiency negatively. The analysis of this problem facing the students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strategies at different times. Some students analyzed that deficiencies in their English were combined with a lack of disciplinary content knowledge.

Strategies students employed regarding lack of disciplinary content knowledge and language proficiency involved making a vocabulary list, reading books on the disciplinary subject in Korean first and then reading a book in English, previewing the subject before classes using studying lecture notes on the web, reading subject objectives first and then reading the books and articles on the reading list, writing drafts several times, memorizing the important parts from books and articles and listening to lecture tapes.

During the first semester, most students who were interviewed used the lecture tapes and listened to these tapes. After implementation of this strategy, most students found that it was not working effectively and stopped using the tapes altogether. One exchange student managed to implement an adjustment strategy which was a combination of cognitive (analysis) and compensation strategies (guessing intelligently). She adjusted her strategy from just listening to the tapes to listening to the whole tapes first and listening again to find out the parts she did not understand. She stopped the tapes at the part which she could not understand and guessed the meaning through the context, and then referred to books and a dictionary if she still did not understand, and listened to the tapes again.

The frequently-appearing strategies which students employed for lectures or tutorials are a limited set of metacognitive strategies. Students found the amount of reading required for lectures and tutorials was a burden, so they had to employ a metacognitive strategy, such as giving priority of class preparation to tutorials, or practical classes. The format of tutorials requires more interaction than lectures and non-participation in tutorials is more obvious than in a lecture. One international student claimed that if she did not prepare, she could not participate in tutorials or she could not understand when other students talked. Another international student who enrolled in the Science Faculty claimed that he did not prepare for class much, though he prepared for practical classes. Without preparation, it took too long for him to understand questions in laboratory classes, because of difficulty of understanding

English. He also pointed out that the curriculum structure which contains enormous continuous assignments made him do more reviewing than previewing.

Some students employed a strategy of not preparing lectures at all. However, a few found a suitable adjustment strategy, such as the international student who reported that she read books on the reading list and prepared some answers to tutorial questions. She also prepared questions to ask in class in advance and memorized some phrases or expressions from the books on the reading list to ask questions in tutorials.

Another self-reliant adjustment strategies students commonly employed is utilizing library resources for writing. One international student reported that she undertook various adjustment strategies at different stages of writing. She used cognitive strategies in the drafting her essays. She read books for a brainstorming and idea mapping. Then she read more books as a means of changing her original ideas and also deleted unnecessary parts. If new evidence was required, she went to the library to find more information. Related to this, some students looked for models of good essays written by students who had studied the same subject before.

Social-reliant adjustment/ network-reliant adjustment: When Korean students confronted difficulties and evaluated their pattern of studying negatively, they usually seek self-reliant adjustment strategies. If self-reliant adjustment strategies were not employed successfully, especially relating to their major academic work such as essays and exams, which directly affect their academic results, often social-reliant adjustments are employed. The social network students utilized are lecturers/ tutors, peer support network or language exchange networks. Some students consulted their lectures/ tutors at the planning or drafting stage of writing. For example, an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ed with a lecturer as a mean of selecting relevant articles to read. He reported that he did know how and where he would start, so he requested help from a lecturer, and the lecturer assisted with this task.

Sometimes students did not detect the existence of a deviation. One international student reported that she was not aware of her problems in the structure of writing until receiving the written comments by a lecturer, "...the essay makes interesting remarks about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ake a valiant effort to analyse it from a realist perspective. It would have been improved, however, had it a clearer structure to outline the realist ideas and principles". She employed a clarifying strategy to rectify deviations and implemented it in her next essay. In this case, she made a table of structure using yes/ no forms, and showed it to the tutor before elaborating further ideas. A clarifying strategy was commonly employed by students. Students consult with a lecturer or tutor to clarify the requirement or structure of essays, or asked classmates or tutors about the parts they did not understand.

One of the effective strategies employed by students in this study was utilizing their peer support network, especially for writing essays and preparing for examinations. A good example of implementation of this strategy can be found in an international student who analysed that the good students are those who sit in the front of the lecture hall and identified them as his potential sources of support. He approached them and introduced himself as an international student, and told them frankly that he needed their help. However, we cannot expect all of the students to be as active as he is in building the peer networks.

The pattern of students' peer networks is varied. One of the students' peer networks is utilizing the language exchange network with students who study Korean language at the same university. Korean students put their messages seeking an exchange partner on the Korean bulletin boards of the Korean department homepage. Students found this network was very useful, since not only could they receive help from Australian students in terms of their study but also they could experience Australian university student culture and life through socializing with the language exchange partner and their friends. Another network was formed through Korean students club in the university. Some students felt more comfortable to ask help from Korean Australian students at the club than from other Australian friends since this type of 'primary, monocultural network' can provide a setting in which ethnic and cultural values are shared (Bochner et al. 1977). A third network was formed with students with whom they share classes. The various networks are very much dependent on the individual character of each students as well as the subjects in which they are enrolled. Here, there is a tendency for Korean students to form peer networks with other Asian students in preference to native Australian ones. But many of these have superior English speaking background, for example, Singaporean students who could provide them with a great deal of assistance. Korean students feel more comfortable with these students as they have much in common with them and can lower their affective filter when they speaking to these students.

Problem minimization adjustment: Whether it is desirable or not, problem minimization is another strategy students employed by making choices to avoid problems which the students evaluated as beyond their capability to solve. Problem minimisation can be explained as a kind of metacognitive strategy. Students evaluate their past learning experiences and conclude that they would not able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subject. Thus they arrange and plan their study to utilize their time more effectively within a limited time frame. As discussed before, many students were not able to participate in tutorials especially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ir studying overseas. When communication deviations occur in the initial interaction, the negative effect generated might prevent students from interacting in the future in class situations. For instance, because students evaluated participation in tutorials as beyond their competence, they often minimized their involvement or even attendance. Another variation of this kind of adjustment is to ask questions of their teacher after classes instead of during class time.

Some students employed this kind of strategy for selecting subjects. One international student reported that he chose to avoid the subject in which he had previously failed. The rationale of employing this strategy was that he failed the subject in spite of studying hard, so he would fail again if he repeated it. We can argue that he could not find ways of rectifying the deviations, so he employed a strategy of avoidance. Students utilize their social network to get information about subjects, especially related to marks. In this regard, there seems to be a tendency for students to avoid a subject which is known for its high failure rates. However, lack of information sometimes prevented students from employing this strategy. One student reported that he did not understand the tutorial very well and he thought it was due to his poor English. However, he later realized that the teaching methodology of his tutor in the first semester was not good, after he experienced a better tutor in the second semester.

He realized too late that he had a tutor with poor teaching skills, not realising it was possible to change tutors.

Another example of the employment of problem minimization was found from the international student who evaluated that he lacked presentation skills, so he enrolled in an open learning subject during the summer break to avoid presentations. An additional rationale for this was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of failing a subject, as could obtain extra academic credit before the semester began. As a result, he was able to manage the following semester more smoothly.

Conclusion

The study revealed that students' difficulties were not only due to deficiencies with their English language competence but also their lack of familiarity with sociolinguistic and sociocultural competence, especially in relation to study genres. The difficulties of adopting to different study genres were partly due to their previous educational experiences. This previous educational background, together with an unawareness of cultural differences in the genre system, may place the Korean students in situations where learning is difficult.

This study focused upon the procedure of overcoming difficulties and identified several specific management strategies students employed to rectify deviations. Some important strategies like affective strategies and metacognitive strategies were not investigated much in this study. For example a good time management strategy can contribute to accomplishing academic life effectively. However, the management strategies outlined may give a valuable guide not only to Korean students but also to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who start an overseas sojourn. Hopefull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an effective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not only for Korean students but also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Implications for Korean students in Australia and for the Australian institutions

From the above discussion we can draw some implications for Australian institutions as well as for students who need to implement appropriate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ir study at the Australian institutions. Given that Korean students have predominant previous contact with the lecture genre and no experience of with tutorial genre, training will be beneficial in order to acquire turn-taking rules and argumentation skills, and to become aware of the hierarchy relatio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Video and simulation of class using computer can be used to implement this kind of training.

As students will have undertaken written genre, they will need training in writing not only before commencing study but also concurrently with their academic subjects. To implement the training successfully, research on the comparative studies between Australian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written genre will be required.

Students will be benefit from guidance from not only academics but also students from the same academic background, especially about how to implement strategies in their study. A mentor system between new students and current students can be utilized for this purpose.

Students should also play more an active role in establishing social networks within the Australian academic environment, and the Australian institution should also provide more opportunity for students become involved in activities in the community.

References

Armitage, L. 1999.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Koreans Studying In Australia.* Unpublished Master of Arts dissertation,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Ballard, B. and J. Clanchy. 1991. Assessment by misconception: cultural influences and intellectual traditions. In L. Hapm-Lyons (ed.), *Assessing Second Language Writing in Academic Contexts,*New Jersey, Ablex, 19-35.

Bochner, S., McLeod, B. and Lin, A. 1977. Friendship patterns of overseas students: a functional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2, 277-99.

Campbell, C.1990. Writing with others' words: using background reading text in academic compositions. In, B. Kroll (ed), *Second Language Writing: Research Insights for the Classroom,*_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1-230.

Charles, M. 1990. Responding to problems in Written English using a student self-monitoring Technique. *ELT Journal*, 44, 4, 286-293.

Choi, M. 1997. Korean Students in Australian Universities.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16, 3, 263-282.

Gibbs, G. ed. 1995. *Improving the Quality of Students Learning.* Brisrol: Technical and Educational Services Ltd.

Hangukkyo*uk sinmunsa 1997. *Hanguk Kyoyuk Yo*ngam.* So*ul: Hangukkyo*uk sinmunsa.

Kim, Yongsook. 1996. University Students' Motivation, Needs and Expectations of General English Education. *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11, 73-98

Kong, Nam-Hee. 1996.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Korean College English. *English Teaching*, 51,1, 97-118.

Leki, I. 1995. Coping strategies of ESL students in writing tasks across the curriculum. *TESOL Quarterly*, 29, 2, 235-260.

Marriott, H. 1999. Ryuugakusei no makuro gakushuu sutorategii. In S. Miyazaki and J.V. Neustupny (eds.) *Nihongo Kyooiku to Nihongo Gakushuu: Gakushuu Sutorategiiron-ni Mukete*, Tokyo, Kuroshio Shuppan;1997-208;

Marriott, H. 2000. Japanese students' management processes and their acquisition of English academic competence during study abroad. *Journal of Asian Pacific Communication.*

Mauranen, A. 1994. Two discourse worlds: Study genres in Britain and Finland. *Finlance* 8, 1-40.

Neustupny, J. v. 1985a. Problems in Australian-Japanese contact situations. In J. B. Pride (ed.) *Cross-cultural Encounters: Communication and Miscommunication*, Melbourne, River Seine, 44-63.

Neustupny, J. V. 1985b. Language nouns in Australian-Japanese contact situations. In M. G Clyne (ed.) Australia. *Meeting Place of Languages*, Canberra, Pacific Linguistics, 161-170.

Oxford, R.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 York: Newbury House.

Using Martial Arts for Teaching Foreign Language: Taekwondo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Eun-Hee Koo, Ed. D.
Shepherd University

1. Introduction

Each nation in East Asia has own martial art such as Judo for Japan, Kunfu for China and Taekwondo for Korea. Regardless of which one, students who want to learn the martial arts need to learn and to use the origin languages of the martial arts. If we can use martial arts to teach the languages, it will be beneficial for teaching the languages. According to McGehee & Reekie (1999), studying international sport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can tap this interest and thereby offer an opportunity to foster an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 diverse cultures of other nations. In addition, a study of international sport in physical education can provide a useful vehicle for critical thinking.

Taekwondo is the name of the martial art turned modern international sport, which has been independently developed over about 20 centuries in Korea. In recent years, Taekwondo has become a modern amateur sport. It has become a modern world sport with tradition and spirit of martial science maintained. It was incorporated into regular curriculum of primary schools through colleges. Taekwondo is not only Korean sprit, but also a worldly popular sport.

When people learn Taekwondo, it is mandatory to learn Korean languages, for the formal language of the Taekwondo is Korean. It is not strange to see that non-Korean Taekwondo masters to teach Korean language with joy. Through learning Taekwondo as a Korean Total Physical Response (KTPR) method, people will learn Korean easier and faster than before.

In this paper,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Taekwondo, and the benefits of learning Taekwondo will be introduced, and how we can use Taekwondo for teaching Korean language as a foreign or second language will be presented and discussed.

2. The Philosophy of Taekwondo

2.1. The Literal Translation of Taekwondo

The literal translation of Taekwondo is a method of defending yourself with your hands and feet. 'Tae' means jumping or flying, to kick or smash with the foot, Kwon means to punch or destroy with the fist, and 'Do' means art or way of. Some people use 'Tae Kwon Do' to emphasize their meaning of each word instead of using 'Taekwondo'.

2.2. Philosophy of Taekwondo

Each Tul (pattern) of Taekwondo expresses the thoughts and the actions of these great men, so the students of Taekwondo must reflect the true intentions of those whose name each Tul bears. The ultimate goal of Taekwondo is to build a more peaceful world. The Art strives to develop the character, personality, and positive moral and ethical traits in each practitioner

Taekwondo strives to develop the positive aspects of an individual's personality: Respect, Courtesy, Goodness, Trustworthiness, Loyalty, Humility, Courage, Patience, Integrity, Perseverance, Self-control, an Indomitable Spirit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help and respect all forms of life. In order to help build a more peaceful world, Tae Kwon Do starts with one person at a time Taekwondo strives for this unification. Race, creed, and nationality have nothing to do with Taekwondo. The philosophy of Taekwondo can be attained through the cultivation and maturity of all three aspects of the Art;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in each individual.

2.3. The Trinity of Taekwondo

The trinity of Taekwondo consists of the three major aspects of Taekwondo; the Body, the Mind, and the Spirit. In order for an individual to develop into a complete and well-rounded person, he must cultivate each aspect of Taekwondo.

2.3.1. Body

The first aspect of Taekwondo is the body. When a person begins his training, he must first learn to stretch his muscles and get his body into physical condition to perform the movements of Taekwondo. He works on kicks, stances, blocks, hand strikes, breathing, rhythm, balance, and much more in order to properly execute the techniques. The practice of these exercises and techniques are sharpening the individual's physical condition and thus developing a strong body.

2.3.2. Mind

The second aspect of Taekwondo is the mind. While learning the physical techniques of Taekwondo, the individual is engaged in an intense edification process Unexpected delays or issues. He learns anatomy, how his body functions, what enables it to generate more power, and the weak points of the body so he can both protect his vital areas, and use the opponent's weak points to defend himself. The student is learning to focus his concentration and to set and reach goals which he may have felt were far beyond his capabilities. He learns to teach and help others and share his knowledge with other members of the dojang (school). He becomes confident, knowing he can defend himself, his family, and should the need arise, his country. He has also learned how not to fight. How to walk away from a confrontation. That when a person engages in physical conflict, no one wins. He learns it is better to help others so they to can learn the "Way" of Tae Kwon Do and help build a more peaceful world.

2.3.3. Spirit

The third aspect of Taekwondo is the spirit. The evolution of the spiritual aspect of Tae Kwon Do is achieved only after the physical and mental aspects have begun to unfold and take root. A person may have a strong body and he may possess a vast amount of knowledge but in order to become a complete individual he must have vision. He must believe in an idea, other people, himself, and God. This stage of enlightenment comes when a person is at peace with himself. He must cultivate the ability to stand up for his beliefs, to not give in to others who lack the courage to

stand by their convictions. The person who has developed the spiritual aspect of Tae Kwon Do has faith in not only himself, but also those around him.

He has become one with the tenets and teachings of Taekwondo. He lives Tae Kwon Do every day of his life. He applies the tenets of Taekwondo to his work, family and friends, and yes, even to his enemies: Courtesy, Integrity, Perseverance, Self-control, and an Indomitable Spirit. He has reached total development.

He has become a true student of the Art of Taekwondo The utmost purpose of Taekwondo is to eliminate fighting by discouraging the stronger men's oppression of the weak men with a power that must be based on humanity, justice, morality, wisdom and faith, thus helping to build a better and more peaceful world.

2.4. The Basic Ideals for the Taekwondo Practitioners

1. By developing an upright mind and a strong body, we will acquire the self-confidence to stand on the side of justice at all times;

2. We shall unite with all men in a common brotherhood, without regard to religion, race, national or ideological boundaries

3. We shall dedicate ourselves to building a peaceful human society in which justice, morality, trust and humanism prevail.

3. Martial Arts and Personality Factors

Beard (1982) compared students in martial arts group and students in non-martial arts group. His subjects were 161 volunteers at University of Arkansas activity classes. He divided subjects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ctivities; 1. Martial arts group where students took martial art of Judo and Taekwondo; 2. Closed activities of Archery and Bowling; and 3. Open activities of Racquetball and Badminton. He foun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and that martial art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groups on assertiveness, experimentalism, ego strength and attitude toward physical education.

Solis (1997) found similar result from his research that martial art group obtained higher score than non-martial art group on all the aspects of Personal Skills Map Inventory; levels of assertion, empathy, interpersonal aggression, interpersonal deference, and self esteem.

Yang (1997) specifically studied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Taekwondo for students' self-esteem. The sample was 252 children, both boys and girls,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r its suburban area of the States of Maryland and Virginia. Participants were 8 to 12 years of age and were randomly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1, experimental group 2, and control group from the groups of volunteers. Finding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and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experimental groups and control group) on the construct of children's self-esteem and the trend of self-esteem, and among the advanced, intermediate, and beginner groups.

4. Learning Taekwondo and Korean Language

Since the official language of Taekwondo is Korean, no matter which country you are from you need to learn and use Korean language for learning Taekwondo. Even in the Olympic sports, people always use Korean language for official terminologies of Taekwondo, such as 'Cha Ryut', meaning 'Attention' and 'Kyung Nye ' meaning 'Bow'. You also need to learn salutations in Korean such as 'Kam Sa Hab Nee Da', meaning 'Thank you' and 'Mee An Ham Nee Da', meaning 'I am sorry'. Additionally, you need to use all the names and titles, body parts, terminologies of techniques in Korean. You need to be able to count up to one hundred, directions, and the disciplines and the miscellaneous of Taekwondo should be spoken in Korea.

Table 1. presents the command terms of Taekwondo to show how various Korean expression is used in Taekwondo. Also, if we use Taekwondo for Korean Total Physical Responses to teach Korean language as foreign or second language, students will learn Korean language unconsciously while they are learning Taekwondo.

Table 1. Command Terminologies of Taekwondo in Korean

Command in Korean	Pronunciation[1]	Meaning
줄서	Chul Su	Line Up
차렷	Cha Ryu	Attention
경례	Kyung Nye	Bow
앉아	Ahn Ju	Sit Down
묵념	Mook Nyum	Meditate
일어서	I Lu Su	Stand Up
준비	Choon Bee	Ready Position
시작	Si Jak	Begin
바로	Pa Ro	Return to Ready Position
쉬어	She U	Rest
그만	Go Mon	Stop
빨리빨리	Balee Balee	Hurry
돌아	Doe Rha	Turn

Table 2. shows the salutations in Korean that Taekwondo students should learn.

Table 2. Salutations in Korean

Salutations in Korean	Pronunciation	Meaning
네	Nae	Yes
아니오	Ah Nee Yo	No
감사합니다	Kam Sa Ham Nee Da	Thank You For Teaching Us
미안합니다	Mee An Ham Nee Da	I am Sorry
고맙습니다	Ko Map Sm Nee Da	Thank You
천만에요	Chun Man Ae Yo	You are Welcom
안녕하십니까? 또는 안녕하세요?	Ahn Nyoung Ha Sim Nee Ka? or Ahn Nyoung Ha Say Yo?	How do you do? (You may use these two salutations at anytime of the day or as a reply to the same greeting).
안녕히 가세요.	Ahn Young Hee Ka Sae Yo?	Stay in peace or Go in peace

[1] The Pronunciation was created by a non-Korean Taekwondo master.

As we can see from Table 2, all the basic salutations in Korean are taught in Taekwondo. In other words, without learning Korean language, it is very difficult to learn Taekwondo. Table 3. shows names and titles of Taekwondo.

Table 3. Names and Titles of Taekwondo

Terms in Korean	Pronunciation	Meaning
단	Dhan	Degree (Black Belt)
유단자	Yu Dan Cha	Holder Of Degree (Black Belt) Rank
급	Gup	Grade (Rank Below Black Belt)
유급자	Yu Gup Cha	Holder Of Gup Rank
제자	Jeja	Student
님	Nim	Term of respect "honorable"
사범님	Sa Bum Nim	Instructor
관장님	Kwan Jang Nim	Director of a Martial Arts School, Style or Organization

The names and titles in Table 3. can be taught in any intermediate or advanced Korean class. If we can teach those terminologies with teaching Taekwondo, students will learn them faster than when we teach them in the regular classroom, for the terms can be connected to their goals or respect persons for Taekwondo. Students wish to obtain 'Dhan' to have black belt, thus, students will remember 'Dhan' easily. Table 4. shows hand parts that are used in Taekwondo.

Table 4. Hands Parts

Terms in Korean	Pronunciation	Meaning
손	Son (also, "Soo")	Hand
손칼	Son Kal	Knife Hand
손칼등	Son Kal Dung	Reverse Knife Hand
권	Kwon	Fist (To Smash Or Destroy With Fist)
주먹	Ju Muk	Fist
앞주먹	Ap Ju Muk	Forefist
옆주먹	Yup Ju Muk	Side Fist (Hammer Fist)
팔목	Pal Moke	Outer Forearm

We can teach body parts with teaching Taekwondo as we can see from Table 4. While students are learning Taekwondo, they can learn the names of body parts in Korean. Table 5. shows the terms of Taekwondo stances and techniques.

Table 5. Stances and Techniques of Taekwondo

Terms in Korean	Pronunciation	Meaning
나란히 서기	Naranhi Sohgi	'Parallel' stance
편히 서기	Pyonhi Sohgi	Ready stance (i.e. "at ease")
모아 서기	Moa Sohgi	'Closed feet' stance
앞서기	Ahp Sohgi	Walking stance
주춤 서기	Juchoom Sohgi	'Horse riding' stance
차기	Cha Gee	Kick
앞 차기	Ap Cha Gee	Front Kick
옆 차기	Yup Cha Gee	Side Kick
돌려 차기	Tollyo Cha Gee	Turning Kick
반대 돌려 차기	Pan Tae Tollyo Cha Gee	Reverse Turning Kick
뒤 차기	Dwi Cha Gee	Back Kick

내려 차기	Naeryo Cha Gee	Downward Kick
얼굴 찌르기	Eolgul jireugi	High punch
몸통 찌르기	Momtong jireugi	'Middle' punch
얼굴 막기	Eolgul magi	High punch
몸통 막기	Momtong maggi	'Middle' punch

We can see that Taekwondo students learn most of the basic verbs in Korean with directions or body parts.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Taekwondo students to know those terms in order to understand what the masters or the referees speak. If the students in Korean class know those terms in Korean, they can be placed in the intermediate level. Taekwondo students also need to learn counting in Korean both with pure Korean numbers or Chinese origin numbers. Table 6. presents Korean numbering with pure Korean words, and Table 7. shows the numbering in Korean with Chinese origin numbers.

Table. 6. Counting in Korean with Pure Korean Words

Terms in Korean	Pronunciation	Meaning
하나	Hana	one
둘	Tul	two
셋	Set	three
넷	Net	four
다섯	Tasot	five
여섯	Yosot	six
일곱	Ilgob	seven
여덟	Yudol	eight
아홉	Ahop	nine
열	Yeol	ten
열하나	Yeol Hanna	- eleven
열둘	Yeol Tul	- twelve
열셋	Yeol Set	- thirteen
스물	SeuMool	- twenty
스물하나	SeuMool hanna	- twenty one
스물둘	SeuMool tul	- twenty two
서른	SoReun	- thirty
마흔	MaHeun	- forty
쉰	Sheen	- fifty
예순	YeSoon	- sixty
일흔	IlHeun	- seventy
여든	Yudoon	- eighty
아흔	Aheun	- ninety
백	Bak	- hundred

Table 7. Counting in Korean with Chinese Origin Numbers

Terms in Korean	Pronunciation	Meaning
일	Il	1
이	Ee	2
삼	Sam	3
사	Sah	4
오	Oh	5

육	Yook	6
칠	Chil	7
팔	Pal	8
구	Koo	9
십	Sip	10
이십	Ee sip	20
이십일	Ee sip il	21
삼십	Sam sip	30
삼십일	Sam sip il	31
사십	Sah sip	40
오십	Oh sip	50
육십	Yook sip	60
칠십	Chil sip	70
팔십	Pal sip	80
구십	Koo sip	90
백	Bak	100

Students also need to learn the following terminologies for the disciplines of Taekwondo. The following words are very difficult, and those terms may be taught in the advanced Korean class, but we can teach those difficult terms with Taekwondo in the beginning or intermediate class. Table 8. shows the terminologies for disciplines of Taekwondo.

Table 8. Disciplines of Taekwondo

Terms in Korean	Pronunciation	Meaning
품새	Poomse	- style-forms
호신술	Hosinsul	- self-defense
겨루기	Gyorugi	- sparring
격파	Kyepka	- breaktest
예의	Ye ui	- courtesy
염치	Yom chi	- integrity
인내	In nae	- perseverance
자제	JahJeh	- self-control

If we teach the directional words in Korean with Taekwondo as KTPR, students will learn the direction without being confused, for they are moving their body according to the direction in Korean while they are learning Taekwondo. Table 9. presents the terms of direction in Korean.

Table 9. Directions in Korean

Terms in Korean	Pronunciation	Meaning
앞	Ahp	- front
뒤	Dwi	- back
반대	Bandae	- reverse
바깥	Bakat	- outer
안	An	- inner
안으로	Anuro	- inward
밖으로	Bakuro	- outward
오른	OhReun	- right
왼	Wen	- left

The miscellaneous terms of Taekwondo are also taught in Korean. Table 10. shows the miscellaneous terms of Taekwondo, and we can see that large numbers of Korean vocabularies are used in Taekwondo.

Table. 10. Miscellaneous Terms of Taekwondo

Terms in Korean	Pronunciation	Meaning
기본동작	Kibon dongjak	- fundamental practice
품새/형	Poomse/ Hyong	- style figures
대련	Daeryon	- step sparring
기합	Kihap	- powerful yell, to collect and focus internal energy
차기	Chagi	- kick
치기	Chigi	- attack with hand
찌르기	Jiroegi	- punch
단	Dan	-black belt: 1st - 10th degree Gup
급	Gup	- colored belt. 10th (white) - 1st (red-black)
도복	Tobok	- Taekwondo uniform
띠	Tie	- belt
도장	Dojang	- practice gym
관	Kwan	- school
사범님	Sabeom Nim	- instructor

5. Conclusion

It is true that students who learned Taekwondo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s Korea, Korean and Korean language. Even Sabeom Nim is the person whom they respect mostly. Also, as we saw in the above section, students who learn martial arts including Taekwondo obtained good personal skills including high self-esteem that is a very important element of language learning.

Using Taekwondo as KTPR will make same beneficial of TPR. Students will learn Korean language unconsciously while they are learning Taekwondo. They do not need to focus on learning Korean language but on Taekwondo. Especially, for teaching body parts and direction, Taekwondo will be very effective.

It is true that the words or expressions that are used in Taekwondo are enough to consist of basic of Korean language. If the students know all the expression that are used in Korean, they will be placed in the intermediate or advanced level classes.

We need to develop the method of teaching Korean with Taekwondo, and the way of teaching Korean for Taekwondo students. For the further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teachers actually use Taekwondo for teaching Korean and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using Taekwondo.

References

Beard D. H. A Comparison of Judo Taekwondo, and Selected Physical Activities on Personality Factors, Attitude toward Physical Education , and Anxiety.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kansas 1982

McGehee R. & Reekie. Using sport studies and physical activities to internationalize the K-12curriculum.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v70n6 (Aug 1999): 38-45

Solis V. N. *A Comparison of Personal Skills between Martial Artists and Non-Martial Artists.*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Kingsville. 1997

Yang D.J. *The Effects of Martial Arts Education and Self-esteem Enhancement Program on the Cnostruct of Children's Self-esteem.* Dissertation. Howard University. 1997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KAREC)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OCEEDINGS OF FIRST BIENNIAL INTERNATIONAL SYMPOSIUM

8–9 February 2001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

Edited by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ISBN 0 7334 1813 9

Sponsor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 Australia-Korea Foundation,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 and Hyundai Motor Company

©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KAREC) & Individual Authors, 2001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otherwise,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and/or individual authors.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KAREC)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NSW 2052 Australia

Phone: + 61 2 9385 4466
Fax: + 61 2 9385 5622
E-Mail: h.ke@unsw.edu.au
Web: http://karec.web.unsw.edu.au

Preface

The papers contained in this volume were delivered at the First KAREC Biennial International Symposium hosted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8-9 February 2001.

Each of the papers contained herein is a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Although the editors have endeavoured to correct obvious misprints, they have also endeavoured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authors' individual spelling and punctuation styles. These styl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e British and US styles, and these divisions in turn can be further divided. From an editorial point of view, it would have been easier simply to standardise all the styles. But insofar as this Symposium represented a gathering of a diverse group of people with a common interest, it was decided that this diversity must be reflected in the proceedings.

The Symposium was made possible by generous support from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 Australia-Korea Foundation,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 and Hyundai Motor Company.

The Symposium was opened by four distinguished speakers, each of whose address is contained in this volume: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The Honourable Alexander Downer MP; His Excellency Hyo-Hun Shin,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ustralia; Mr. Seok-Moo Park, President,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Professor John Ingleson, Deputy Vice Chancellor,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KAREC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invaluable contributions of the other speakers at the pre- and post-Symposium gatherings.

Finally, the editors would like to express their deep appreciation for the commitment and sacrifices made by Dr. Seung-Ho Kwon, Project Coordinator and Mrs. Hyunok (Anne) Ke, Administrative Officer at KAREC, without which neither the Symposium nor this volume would have been possible.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June 2001

1st KAREC Biennial International Symposium Organising Committee

▫ Symposium Council

Dr. Moo-Ki Bai	President, University of Ulsan, Korea
Professor Song-Wha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essor O Yul Kwon	Director, Australian Centre for Korean Studies,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Professor Ross Milbourne	Pro-Vice Chancellor (Research), UNSW, Australia
Mr. Seok-Moo Park	President, Korea Research Foundation, Korea
Mr. Mack Williams	Former Ambassador to Korea

▫ Organising Committee

Dr. Supang Chantavanich	Director,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Thailand
Dr. Young-A Cho	Korean Studies, School of Asian Languages and Studies, Monash University, Melbourne, Australia
Professor Chris Leggett	School of International Business,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Adelaide, Australia
Dr. Duk-Soo Park	Korean Studies, School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Sydney, Sydney, Australia
Dr. Chung-Sok Suh	Director,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Dr. Moonjoong Tcha	Department of Economics,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Perth, Australia
Dr. Chihiro Thomson	Head, Department of Japanese and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Dr. Kenneth M. Wells	Director, ANU Centre for Korean Studi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ustralia
Professor Hi-Won Yo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Hong-Key Yoon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Auckland, Auckland, New Zealand

▫ Project Co-ordinator

Dr. Seung-Ho Kwon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Symposium Co-ordinator

Ms. Hyunok Ke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TABLE of CONTENTS

INTRODUCTION —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 1

SECTION 1. RESEARCH IN KOREAN STUDIES

Directions of Research in Overseas Korean Studies — Youngdal Cho — 5

Korean Studies: Humanities – Prospects and Imperatives — Kennth Wells — 11

Korean Studies in Thailand – Some Observations — Surichai Wun'Gaeo — 22

Korean Studies: The Malaysian Perspective — Choi Kim Yok — 25

Korean Studies on Business and Economics in Australia — Moonjoong Tcha — 31

SECTION 2. EDUCATION IN KOREAN STUDIES

A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 Hi-Won Yoon — 47

Korean Studies in Vietnam: The Case of th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HCMC — Nguyen Van Tai — 55

Korean Language Teaching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Materials Development in New Zealand — Inshil Choe Yoon — 64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Burapha University, Thailand — Pichan Sawangwong — 73

Collaborative Approaches for Teaching Korean Studies — Duk-Soo Park — 78

SECTION 3. REGIONAL NETWORK IN KOREAN STUDIES

Research Support by Australia-Korea Foundation — Leslie O'Brien — 87

Research and Teaching Support from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 Hun-Joon Park — 90

Supporting Korean Studies in Overseas from the Korea Foundation — Kyoungchul Park — 94

Korean Studies in Indone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 Wardiningsih Soerjohardjo — 98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Networks for Today and Tomorrow — Suh. Chung-Sok — 105

WORKSHOP SUMMARY

I. Research in Korean Studies — 115

II. Education in Korean Studies — 118

III. Regional Network in Korean Studies — 121

APPEXDIX

Opening Session Addresses

The Honorable Alexander Downer, MP,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 127

His Excellency Hyo-Hun Shin,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133

Mr. Seok-Moo Park, President, Korea Research Foundation, Korea 136

Professor John Ingleson, Deputy Vice Chancellor (Academic Planning & Resource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38

Closing Session Address

Professor Song-Wha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40

INTRODUCTION

Gregory Nicholas Evon
and
Chung-Sok Suh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In February 2001 scholars from throughout Australasia (that is, Australia and New Zealand), Korea, and Southeast Asia gathered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to attend a symposium organised by The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KAREC). By any measurement, the symposium was significant: it was the first meeting of its kind, and i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many scholars, from a variety of fields, with interests in Korea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visions for the future.

It provided a forum for discussion on the status of Korean Studies in the Australasian and Southeast Asian regions. More important, it enabled each of the participants to identify the specific problems faced by particular institutions, disciplines, and/or regions.

Two central concerns common to all the papers were the ways in which and by which Korean Studies can be strengthened. That these concerns should be central to these papers can be explained by the theme of the symposium itself.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a symposium was organised around this theme: the necessity of this symposium underscores the delicate position of Korean Studies in this part of the world. Whereas Japanese and Chinese Studies are firmly established in most leading universities, Korean Studies is still in its infancy and thus is vulnerable to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changes which are often reflected in educational policies and more often, reflected in the popularity of Korean Studies.

These are serious problems, and thoughtful solutions to these problems will require strategic planning. It is by no means certain that all of these issues can be resolved, but it is certain that strategic planning will be the key to any solution.

The sheer range of papers contained in "Topic I: Research in Korean Studies" reflects the vagueness of Korean Studies itself, and this vagueness is, to one degree or another, found throughout all of the papers. Is Korean Studies plural or singular? Is it, in fact, more accurate to write "Korean studies?" These are not simply questions of style, but rather are fundamental questions related to one's definition of what is (or *are*) Korean Studies (or Korean *studies*). The editors' preference—as seen in this "Introduction"—is "Korean Studies" since the primary object of research is, in one way or another, related to Korea and thus ideally requires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In this way, "Studies" provides a larger framework in which linguistic—hence research—proficiency is placed firmly in the centre. Whereas cultural proficiency can—and does—exist in the absence of linguistic proficiency, original research cannot exist without adequate linguistic skills.

Yet even if this stipulation were to receive universal consensus, the boundaries of Korean Studies, nonetheless, would seem to be drawn differently. A simple and pertinent example is the difference between what is called *Han'gukhak* (literally, "Korean

Studies") in Korea and what is called "Korean Studies" in foreign countries. In the former, the object of study is Korea or some aspect thereof, and the purpose of such study is to identify Korea as unique. In the latter, Korea is, of course, the object of study, but critically, such study does not necessarily aim solely at defining or characterizing Korea—a thorny issue which is implied in each of the papers in "Section I" but is perhaps best clarified in Wells' paper. Consequently, a political scientist *in Korea* who studies Korean politics is a specialist in *political science*, rather than a Korean Studies specialist. However, once that scholar leaves Korea and arrives in, say, Sydney, he can be considered a *Korean Studies specialist*, if he so wishes.

The issues dealt with in the papers in "Section II," on the other hand, focus specifically on the many issues relevant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Despite this focus, central to each of the papers is a concern with resources, both financial and educational, and as most of these papers make clear, educational resource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Two critical issues, however, deserve to be emphasised: namely, that the pursuit of funds needs to be accompanied by strategic plans for their intelligent use in the long-term and moreover, that no long-term strategy can be implemented without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The question of long-term strategies is, in fact, the central point in "Section III." The first three papers outlined the available financial resources and clarified the criteria for allocation.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se matters, it became clear that there are two dimensions with respect to any long-term strategy: first, strategic interaction among the funding bodies themselves for efficient allocation of limited resources; second, cooperation among the various institutions to help ensure the intelligent implementation of those funds.

It is due to the keenly felt need for such strategies that KAREC was established in the first place, and as can be seen from these papers, this perception is widely shared throughout the region. Consequently, KAREC and the organising committee of the Symposium took great satisfaction in their role in bringing together seventy participants from seven countries throughout the region, all of whom share the single goal of seeing Korean Studies, however defined, become firmly established in the region. And it is our hope that in future years, published proceedings such as this will be marked less by a collective concern with questions of growth—or more accurately, survival—than with what has drawn us all together in the first place: a scholastic interest in Korea itself.